



2023. 2

제 31 호
학생생활연구보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 진로심리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보

제 31 호

목 차

▣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3
▣ 2022학년도 마음건강 실태조사 연구	104
▣ 2022학년도 1학년 대학생활적응조사 연구	153
▣ 2022학년도 4학년 진로심리실태조사 연구	169
▣ 2022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238
▣ 2022학년도 진로심리상담센터 현황 및 활동 보고	303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목 차

I. 서론	10
II. 연구방법	11
1. 조사대상 및 기간	11
2. 조사도구	11
3. 조사내용	11
III. 조사결과	13
1. 일반사항	13
1) 소속 단과대학	13
2) 성별	15
3) 학년	16
2. 대학생활 및 학업	17
1)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17
2)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19
3) 대학생활 어려움 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21
4)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23
5) 지도교수와의 상담빈도	25
6)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27
7) 대학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29
8) 전공만족도	31
9)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33
10)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	36
11)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유무	38
12)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40
13) 학교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	43
14) 휴학 의사	45

15) 휴학 고려 이유	47
16) 편입 고려 여부	49
17) 편입 고려 이유	51
18) 자퇴 의사 유무	53
19) 자퇴 고려 이유	55
3. 진로 및 취업	57
1)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유무	57
2) 진로 결정/선택하지 않은 이유	59
3)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61
4) 졸업 후 희망 진로	63
5) 취업 희망하는 기업 형태	65
6)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67
7)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	69
4. 정신건강	72
1)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72
2)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74
3)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76
4) 자살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78
5) 자해 경험	80
5. 진로심리상담센터	82
1)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82
2)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84
3)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경험	86
4)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89
5)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91
6)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93
IV. 종합	95

표 목 차

<표 1> 재학생 실태조사 문항	11
<표 2> 소속 단과대학 현황	14
<표 3>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18
<표 4>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20
<표 5> 대학생활 어려움 시, 도움받고 싶은 사람	22
<표 6>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24
<표 7> 지도교수와의 상담빈도	26
<표 8>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28
<표 9> 대학에서 친구관계 만족도	30
<표 10> 전공만족도	32
<표 11>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35
<표 12> 학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	37
<표 13>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유무	39
<표 14>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42
<표 15> 학교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계기	44
<표 16> 휴학 의사	46
<표 17> 휴학 고려 이유	48
<표 18> 편입 의사	50
<표 19> 편입 고려 이유	52
<표 20> 자퇴 의사 유무	54
<표 21> 자퇴 고려 이유	56
<표 22>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유무	58
<표 23> 진로 결정/선택하지 않은 이유	60
<표 24>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62
<표 25> 졸업 후 희망 진로	64
<표 26> 취업 희망하는 기업 형태	66
<표 27>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68

<표 28>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	71
<표 29>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73
<표 30>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75
<표 31>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77
<표 32> 자살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79
<표 33> 자해 경험	81
<표 34>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 인식 유무	83
<표 35>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85
<표 36>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경험	88
<표 37>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90
<표 38>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92
<표 39>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94

그림 목 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13
〈그림 2〉 성별 현황	15
〈그림 3〉 학년 현황	16
〈그림 4〉 울산대학교 제학 만족도	17
〈그림 5〉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19
〈그림 6〉 대학생활 어려움 시, 도움받고 싶은 사람	21
〈그림 7〉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23
〈그림 8〉 지도교수와의 상담 빈도	25
〈그림 9〉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27
〈그림 10〉 대학에서 친구관계 만족도	29
〈그림 11〉 전공만족도	31
〈그림 12〉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34
〈그림 13〉 학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	36
〈그림 14〉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유무	38
〈그림 15〉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41
〈그림 16〉 학교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계기	43
〈그림 17〉 휴학 의사	45
〈그림 18〉 휴학 고려 이유	47
〈그림 19〉 편입 의사	49
〈그림 20〉 편입 고려 이유	51
〈그림 21〉 자퇴 의사 유무	53
〈그림 22〉 자퇴 고려 이유	55
〈그림 23〉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유무	57
〈그림 24〉 진로 결정/선택하지 않은 이유	59
〈그림 25〉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61
〈그림 26〉 졸업 후 희망 진로	63
〈그림 27〉 취업 희망하는 기업 형태	65
〈그림 28〉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67

<그림 29>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	70
<그림 30>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72
<그림 31>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74
<그림 32>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76
<그림 33> 자살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78
<그림 34> 자해 경험	80
<그림 35>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 인식 유무	82
<그림 36>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84
<그림 37>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경험	87
<그림 38>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89
<그림 39>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91
<그림 40>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93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I. 서론

대학생활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며, 더 나아가 대학에서의 생활양식은 청소년기의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성인의 생활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에의 적응양식은 이후 성인기의 성공적인 적응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윤주, 민하영, 이영미, 2004). 아울러 성공적인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욕구충족과 학문적·사회적·심리적 요구의 수용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정현옥, 1996) 대학생활 적응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생활의 부적응은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성취해야 할 여러 과업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이은우, 2005). 대학생의 대학 생활 부적응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학교육의 효과 감소 및 대학 경쟁력 저하 등 대학의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김계현, 황대향, 선혜연, 김영빈, 2005).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즐거움이나 만족, 희망,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 대신 불안이나 후회, 불만족,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박은민, 2001).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 주위 동료나 가족, 학교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홍승현,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과업 이수를 위한 중요한 척도는 학업 열의와 대학 생활 만족도이다. 대학생은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환경, 학생지원, 그리고 동료, 선·후배, 교수와의 관계, 자율적 학생 활동 등 총체적인 요인들 속에서 성취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김성희, 2022).

이에 본 진로심리상담센터는 본교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가 학교 차원에서 재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진로심리상담센터 차원에서 구성하는 학생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주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12,136명(2022년 11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월 2일까지 63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포털 'UWINS' 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한 재학생은 총 9,876명으로 재학생 대비 참여율은 81.38%이며, 조사에 참여한 총 9,876명의 데이터는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본 센터에서 작성하여 사용해 온 설문지를 2022학년도 재학생들을 위해 수정·보완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재학생 실태조사 문항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 문항	
일반사항	인적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	성별
		3	학년
대학생활 및 학업	대학생활	4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5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6	대학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7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8	지도교수와의 상담 빈도
		9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10	대학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대학	11	전공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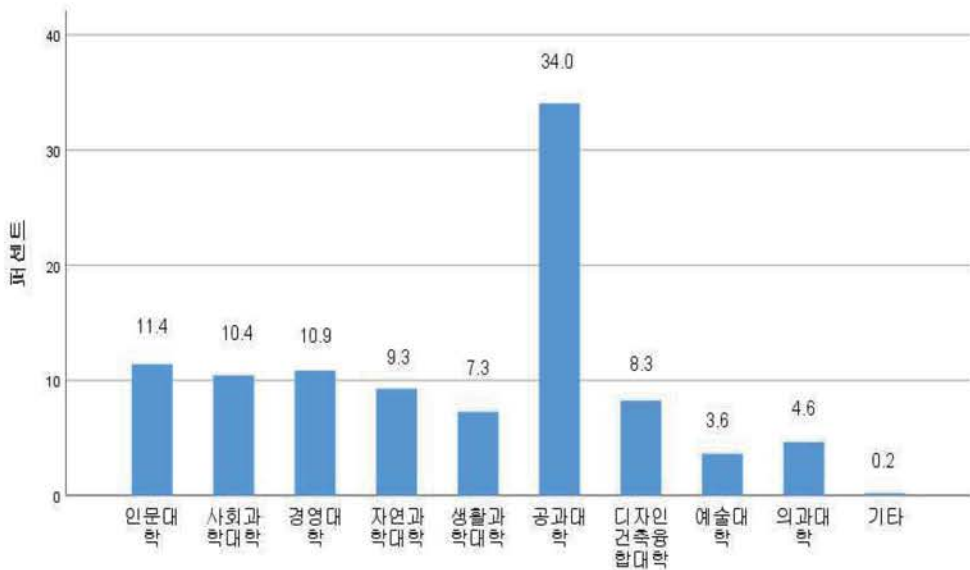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 문항	
	전공 관련	12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13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14	학교 중도 포기 여부
		15	학업 중도 포기 이유
		16	학교 중도 포기 후 다시 학교 등교 계기
		17	휴학 의사
		18	휴학 고려 이유
		19	편입 의사
		20	편입 고려 이유
		21	자퇴 의사
		22	자퇴 고려 이유
진로 및 취업	진로	23	진로 선택/결정 여부
		24	진로 결정/선택의 어려움
		25	직업 선택 시, 가치 기준
		26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취업	27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28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29	진로 및 취업 준비 위해 본교 제공 희망하는 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적 상태	30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31	최근 3개월 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32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33	자살 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34	자해 경험
진로심리 상담센터	진로심리 상담센터 인식	35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36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37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 상담센터 서비스	38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39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40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문항 수		총 40문항	

III. 조사 결과

1. 일반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022년 울산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9,876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 분포는 <표 2>와 같다. ‘공과대학’이 3,362명(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대학’ 1,125명(11.4%), ‘경영대학’ 1,073명(10.9%), ‘사회과학대학’ 1,030명(10.4%), ‘자연과학대학’ 916명(9.3%)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815명(8.3%), ‘생활과학대학’은 718명(7.3%), ‘의과대학’은 459명(4.6%)이었으며, ‘예술대학’은 359명(3.6%)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소속 단과 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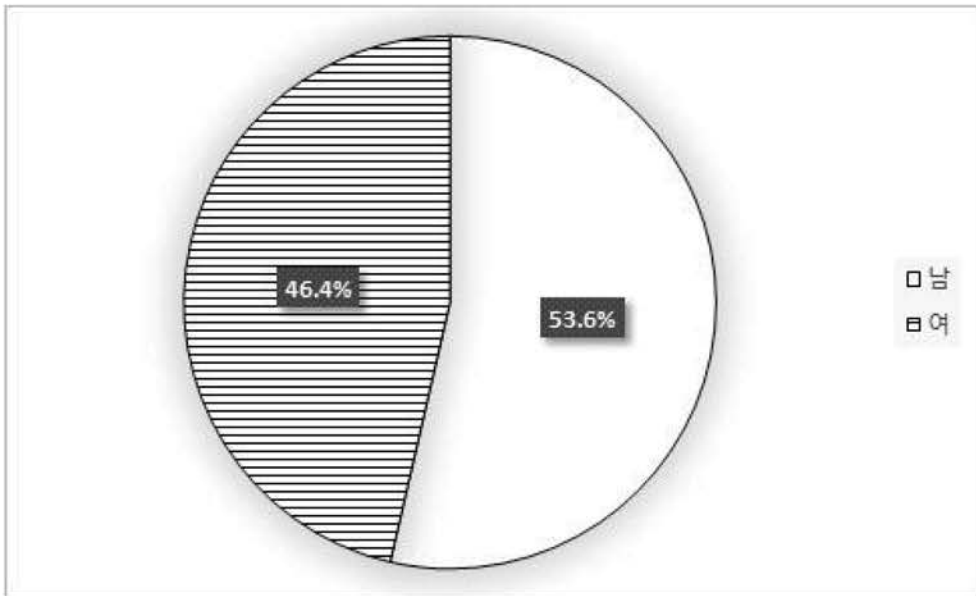
<표 2> 소속 단과대학 현황

구분	단과대학										전체	
	인문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영 대학	자연과 학대학	생활 과학 대학	공과 대학	디자인 건축융 합대학	예술 대학	의과 대학	기타		
성 별	남	427 (8.1)	455 (8.6)	497 (9.4)	505 (9.5)	156 (2.9)	2,673 (50.5)	374 (7.1)	94 1(0.8)	104 (2.0)	10 (0.2)	5,295 (100)
	여	698 (15.2)	575 (12.6)	576 (12.6)	411 (9.0)	562 (12.3)	689 (15.0)	441 (9.6)	265 (5.8)	355 (7.7)	9 (0.2)	4,581 (100)
학 년	1학년	265 (11.0)	252 (10.5)	246 (10.2)	231 (9.6)	173 (7.2)	821 (34.1)	186 (7.7)	91 (3.8)	142 (5.9)	4 (0.2)	2,411 (100)
	2학년	255 (11.6)	231 (10.5)	230 (10.4)	216 (9.8)	177 (8.0)	727 (33.0)	187 (8.5)	78 (3.5)	95 (4.3)	5 (0.2)	2,201 (100)
	3학년	270 (10.6)	277 (10.9)	297 (11.7)	220 (8.7)	185 (7.3)	893 (35.2)	202 (8.0)	82 (3.2)	110 (4.3)	3 (0.1)	2,539 (100)
	4학년	317 (12.4)	259 (10.1)	285 (11.1)	236 (9.2)	178 (7.0)	883 (34.5)	196 (7.7)	99 (3.9)	104 (4.1)	4 (0.2)	2,561 (100)
	5학년	17 (11.4)	9 (6.0)	13 (8.7)	11 (7.4)	5 (3.4)	36 (24.2)	43 (28.9)	7 (4.7)	7 (4.7)	1 (0.7)	149 (100)
	기타	1 (6.7)	2 (13.3)	2 (13.3)	2 (13.3)	2 (13.3)	1 (6.7)	2 (13.3)	1 (6.7)	2 (13.3)	0 (0.0)	15 (100)
전체	1,125 (11.4)	1,030 (10.4)	1,073 (10.9)	916 (9.3)	718 (7.3)	3,362 (34.0)	815 (8.3)	359 (3.6)	459 (4.6)	19 (0.2)	9,876 (100)	

2) 성별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5,295명(53.6%), 여학생이 4,581명(46.4%)으로, 남학생이 7.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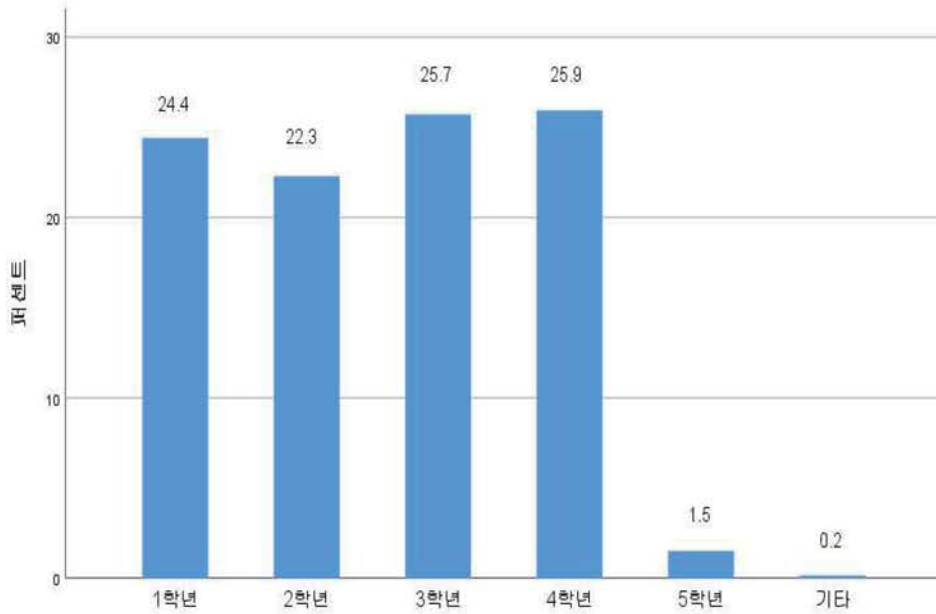
<표 2>를 참고하여 단과대학별 성별 참여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0.5%인 2,673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과학대학' 9.5%, '경영대학' 9.4%, '사회과학대학' 8.6%, '인문대학' 8.1%,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인문대학' 15.2%, '공과대학' 15%, '사회과학대학' 과 '경영대학' 12.6%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현황

3) 학년

참여한 계학생의 학년별 구성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4학년이 2,561명(25.9%)으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은 2,539명(25.7%), 1학년은 2,411명(24.4%), 2학년은 2,201명(22.3%), 5학년은 149명(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년 현황

2. 대학 생활 및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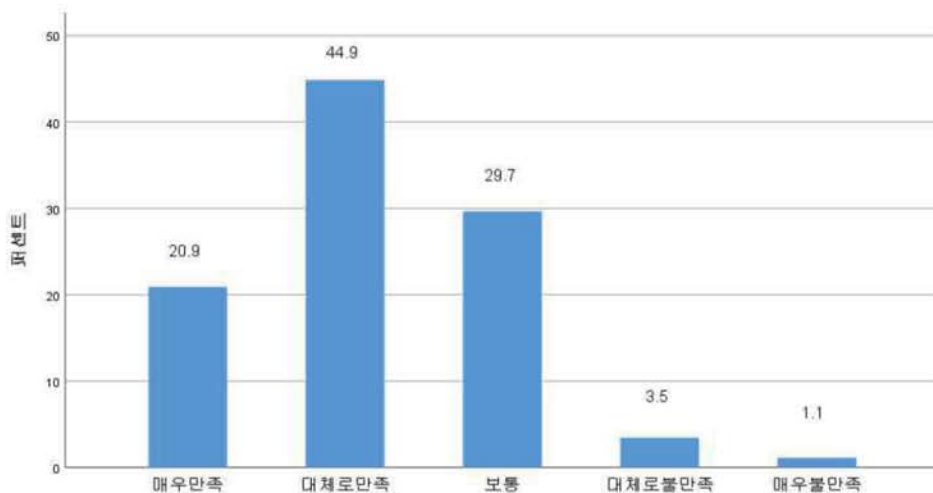
1)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울산대학교 재학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울산대학교 재학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만족’ 4,430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929명(29.7%), ‘매우 만족’ 2,064명(20.9%), ‘대체로 불만족’ 341명(3.5%), ‘매우 불만족’ 11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40.9%, 여학생의 49.4%가 ‘대체로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만족’은 남학생이 23.8%, 여학생이 17.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2% 높게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미미했으며 ‘대체로 불만족’과 ‘불만족’은 남학생 280명(5.3%), 여학생 173명(3.8%)으로 남학생이 불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가 1학년은 68.8%, 2학년 66.8%, 3학년 65.3%, 4학년 63.3%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4학년(5.2%)과 5학년(6.7%)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울산대학교 재학에 대한 만족도가 의과대학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 69.9%, 생활과학대학 67.6%,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7.1%, 경영대학 6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대학이 61%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표 3>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259 (23.8)	2,165 (40.9)	1,591 (30.0)	203 (3.8)	77 (1.5)	5,295 (100)
	여	805 (17.6)	2,265 (49.4)	1,338 (29.2)	138 (3.0)	35 (0.8)	4,581 (100)
학년	1학년	578 (24.0)	1,081 (44.8)	643 (26.7)	84 (3.5)	25 (1.0)	2,411 (100)
	2학년	443 (20.1)	1,028 (46.7)	628 (28.5)	82 (3.7)	20 (0.9)	2,201 (100)
	3학년	479 (18.9)	1,177 (46.4)	784 (30.9)	75 (3.0)	24 (0.9)	2,539 (100)
	4학년	531 (20.7)	1,092 (42.6)	806 (31.5)	92 (3.6)	40 (1.6)	2,561 (100)
	5학년	29 (19.5)	47 (31.5)	63 (42.3)	7 (4.7)	3 (2.0)	149 (100)
	기타	4 (26.7)	5 (33.3)	5 (33.3)	1 (6.7)	0 (0.0)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245 (21.8)	474 (42.1)	355 (31.6)	35 (3.1)	16 (1.4)	1,125 (100)
	사회과학대학	215 (20.9)	505 (49.0)	272 (26.4)	28 (2.7)	10 (1.0)	1,030 (100)
	경영대학	248 (23.1)	455 (42.4)	329 (30.7)	31 (2.9)	10 (0.9)	1,073 (100)
	자연과학대학	211 (23.0)	362 (39.5)	291 (31.8)	40 (4.4)	12 (1.3)	916 (100)
	생활과학대학	139 (19.4)	346 (48.2)	215 (29.9)	18 (2.5)	0 (0.0)	718 (100)
	공과대학	684 (20.3)	1,507 (44.8)	992 (29.5)	138 (4.1)	41 (1.2)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56 (19.1)	391 (48.0)	230 (28.2)	28 (3.4)	10 (1.2)	815 (100)
	예술대학	73 (20.3)	146 (40.7)	124 (34.5)	10 (2.8)	6 (1.7)	359 (100)
	의과대학	86 (18.7)	243 (52.9)	113 (24.6)	12 (2.6)	5 (1.1)	459 (100)
	기타	7 (36.8)	1 (5.3)	8 (42.1)	1 (5.3)	2 (10.5)	19 (100)
전체		2,064 (20.9)	4,430 (44.9)	2,929 (29.7)	341 (3.5)	112 (1.1)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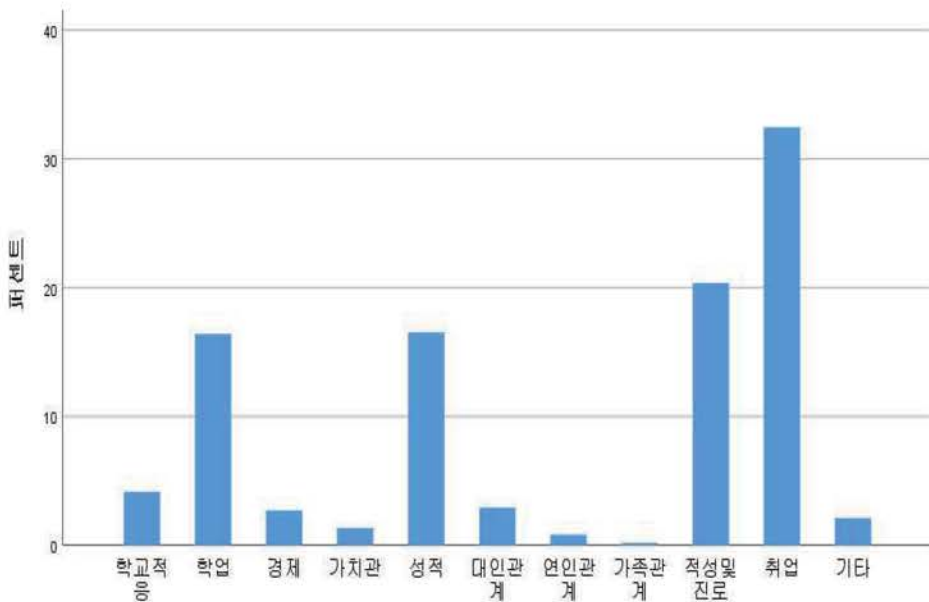
2)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9,876명 중 3,204명(32.4%)이 ‘취업’ 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적성 및 진로’ 2,011명(20.4%), ‘성적 문제’ 1,631명(16.5%), ‘학업 문제’ 1,621명(16.4%), ‘학교적응문제’ 411명(4.2%), ‘대인관계’ 290명(2.9%), ‘경제 문제’ 267명(2.7%), ‘기타’ 208명(2.1%), ‘가치관 문제’ 133명(1.3%), ‘연인관계’ 81명(0.8%), ‘가족 문제’ 19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취업’, ‘적성 및 진로’, ‘성적’, ‘학업 문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성적 문제’ (25.9%)와 ‘학업 문제’ (22.5%)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2학년은 ‘적성 및 진로’ (24.7%)와 ‘취업’ (23.9%)이 가장 고민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3학년은 ‘취업’ (40.4%)과 ‘적성 및 진로’ (19.8%)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있으며, 4학년 역시 ‘취업’ (49.4%)과 ‘적성 및 진로’ (18.4%)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취업’으로 나타났으나 의과대학은 ‘성적 문제’와 ‘학업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표 4>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구분	학교 적응	학업	경제	가치 관	성적	대인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적성 및 진로	취업	기타	전체	
성 별	남	285 (5.4)	838 (15.8)	167 (3.2)	89 (1.7)	808 (15.3)	174 (3.3)	72 (1.4)	14 (0.3)	1,028 (19.4)	1,681 (31.7)	139 (2.6)	5,295 (100)
	여	126 (2.8)	783 (17.1)	100 (2.2)	44 (1.0)	823 (18.0)	116 (2.5)	9 (0.2)	5 (0.1)	983 (21.5)	1,523 (33.2)	69 (1.5)	4,581 (100)
학 년	1학년	156 (6.5)	542 (22.5)	75 (3.1)	40 (1.7)	624 (25.9)	107 (4.4)	25 (1.0)	4 (0.2)	460 (19.1)	331 (13.7)	47 (1.9)	2,411 (100)
	2학년	75 (3.4)	443 (20.1)	55 (2.5)	27 (1.2)	435 (19.8)	51 (2.3)	10 (0.5)	1 (0.0)	543 (24.7)	527 (23.9)	34 (1.5)	2,201 (100)
	3학년	71 (2.8)	365 (14.4)	64 (2.5)	21 (0.8)	352 (13.9)	70 (2.8)	21 (0.8)	5 (0.2)	503 (19.8)	1,026 (40.4)	41 (1.6)	2,539 (100)
	4학년	103 (4.0)	244 (9.5)	69 (2.7)	38 (1.5)	210 (8.2)	57 (2.2)	24 (0.9)	9 (0.4)	470 (18.4)	1,265 (49.4)	72 (2.8)	2,561 (100)
	5학년	6 (4.0)	24 (16.1)	3 (2.0)	7 (4.7)	10 (6.7)	3 (2.0)	1 (0.7)	0 (0.0)	34 (22.8)	48 (32.2)	13 (8.7)	149 (100)
	기타	0 (0.0)	3 (20.0)	1 (6.7)	0 (0.0)	0 (0.0)	2 (13.3)	0 (0.0)	0 (0.0)	1 (6.7)	7 (46.7)	1 (6.7)	15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60 (5.3)	175 (15.6)	30 (2.7)	15 (1.3)	138 (12.3)	42 (3.7)	6 (0.5)	3 (0.3)	273 (24.3)	350 (31.1)	33 (2.9)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34 (3.3)	166 (16.1)	33 (3.2)	21 (2.0)	130 (12.6)	30 (2.9)	7 (0.7)	2 (0.2)	225 (21.8)	366 (35.5)	16 (1.6)	1,030 (100)
	경영 대학	55 (5.1)	167 (15.6)	28 (2.6)	17 (1.6)	166 (15.5)	36 (3.4)	4 (0.4)	2 (0.2)	199 (18.5)	370 (34.5)	29 (2.7)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37 (4.0)	142 (15.5)	32 (3.5)	8 (0.9)	160 (17.5)	21 (2.3)	11 (1.2)	3 (0.3)	190 (20.7)	290 (31.7)	22 (2.4)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9 (2.6)	106 (14.8)	16 (2.2)	6 (0.8)	128 (17.8)	21 (2.9)	2 (0.3)	0 (0.0)	169 (23.5)	243 (33.8)	8 (1.1)	718 (100)
	공과 대학	130 (3.9)	530 (15.8)	67 (2.0)	39 (1.2)	591 (17.6)	83 (2.5)	36 (1.1)	6 (0.2)	643 (19.1)	1,178 (35.0)	59 (1.8)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1 (5.0)	146 (17.9)	28 (3.4)	19 (2.3)	115 (14.1)	28 (3.4)	8 (1.0)	1 (0.1)	181 (22.2)	236 (29.0)	12 (1.5)	815 (100)
	예술 대학	12 (3.3)	58 (16.2)	14 (3.9)	4 (1.1)	58 (16.2)	11 (3.1)	4 (1.1)	0 (0.0)	88 (24.5)	94 (26.2)	16 (4.5)	359 (100)
	의과 대학	21 (4.6)	128 (27.9)	18 (3.9)	4 (0.9)	143 (31.2)	18 (3.9)	2 (0.4)	1 (0.2)	41 (8.9)	73 (15.9)	10 (2.2)	459 (100)
	기타	2 (10.5)	3 (15.8)	1 (5.3)	0 (0.0)	2 (10.5)	0 (0.0)	1 (5.3)	1 (5.3)	2 (10.5)	4 (21.1)	3 (15.8)	19 (100)
전체	411 (4.2)	1,621 (16.4)	267 (2.7)	133 (1.3)	1,631 (16.5)	290 (2.9)	81 (0.8)	19 (0.2)	2,011 (20.4)	3,204 (32.4)	208 (2.1)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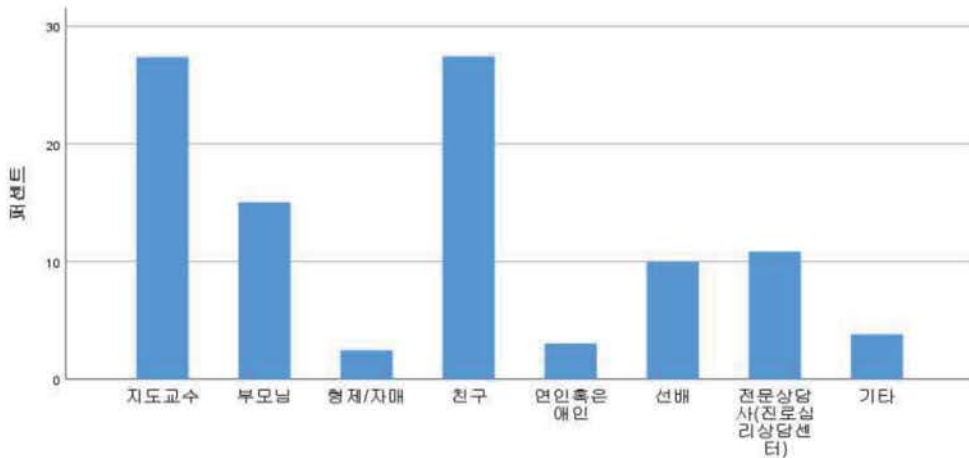
3) 대학 생활 어려움 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9,876명 중 2,710명(27.4%)이 ‘친구’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지도교수’ 2,705명(27.4%), ‘부모님’ 1,485명(15.0%), ‘전문상담사(진로심리상담센터)’ 1,071명(10.8%), ‘선배’ 985명(10.0%), ‘기타’ 377명(3.8%), ‘연인(애인)’ 300명(3.0%), ‘형제/자매’ 24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지도교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을 5.7% 많이 하였으며, ‘지도교수’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과 3학년은 ‘지도교수’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학년은 ‘지도교수’와 ‘친구’의 응답 비율이 거의 같았으며 1학년은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다.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지도교수’의 응답이 35.8%, 예술대학이 32%로 높게 나타났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역시 ‘지도교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대학과 생활과학대학 및 의과대학은 ‘친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의과대학은 33.6%의 학생이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예술대학은 단과대학 특성상 지도교수를 멘토로 삼아 취업과 진로상담부터 대학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며 도움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대학생활 어려움 시, 도움 받고 싶은 사람

<표 5> 대학 생활 어려움 시, 도움받고 싶은 사람

구분		지도 교수	부모 님	형제 / 자매	친구	연인 혹은 애인	선배	전문 상담 사	기타	전체
성별	남	1,400 (26.4)	830 (15.7)	133 (2.5)	1,592 (30.1)	167 (3.2)	506 (9.6)	412 (7.8)	255 (4.8)	5,295 (100)
	여	1,305 (28.5)	655 (14.3)	110 (2.4)	1,118 (24.4)	133 (2.9)	479 (10.5)	659 (14.4)	122 (2.7)	4,581 (100)
학년	1학년	564 (23.4)	426 (17.7)	64 (2.7)	740 (30.7)	91 (3.8)	279 (11.6)	172 (7.1)	75 (3.1)	2,411 (100)
	2학년	671 (30.5)	329 (14.9)	54 (2.5)	568 (25.8)	59 (2.7)	217 (9.9)	226 (10.3)	77 (3.5)	2,201 (100)
	3학년	747 (29.4)	340 (13.4)	60 (2.4)	692 (27.3)	74 (2.9)	243 (9.6)	283 (11.1)	100 (3.9)	2,539 (100)
	4학년	677 (26.4)	362 (14.1)	61 (2.4)	671 (26.2)	72 (2.8)	234 (9.1)	370 (14.4)	114 (4.5)	2,561 (100)
	5학년	38 (25.5)	25 (16.8)	4 (2.7)	39 (26.2)	3 (2.0)	12 (8.1)	19 (12.8)	9 (6.0)	149 (100)
	기타	8 (53.3)	3 (20.0)	0 (0.0)	0 (0.0)	1 (6.7)	0 (0.0)	1 (6.7)	2 (13.3)	15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293 (26.0)	190 (16.9)	28 (2.5)	286 (25.4)	41 (3.6)	94 (8.4)	146 (13.0)	47 (4.2)
사회과학 대학	304 (29.5)	153 (14.9)	26 (2.5)	267 (25.9)	31 (3.0)	81 (7.9)	128 (12.4)	40 (3.9)	1,030 (100)	
경영 대학	249 (23.2)	151 (14.1)	35 (3.3)	297 (27.7)	32 (3.0)	97 (9.0)	162 (15.1)	50 (4.7)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261 (28.5)	172 (18.8)	19 (2.1)	231 (25.2)	30 (3.3)	78 (8.5)	90 (9.8)	35 (3.8)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88 (26.2)	108 (15.0)	18 (2.5)	194 (27.0)	20 (2.8)	67 (9.3)	99 (13.8)	24 (3.3)	718 (100)	
공과 대학	891 (26.5)	453 (13.5)	81 (2.4)	977 (29.1)	94 (2.8)	421 (12.5)	314 (9.3)	131 (3.9)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92 (35.8)	99 (12.1)	14 (1.7)	206 (25.3)	26 (3.2)	92 (11.3)	60 (7.4)	26 (3.2)	815 (100)	
예술 대학	115 (32.0)	62 (17.3)	6 (1.7)	94 (26.2)	8 (2.2)	25 (7.0)	33 (9.2)	16 (4.5)	359 (100)	
의과 대학	107 (23.3)	96 (20.9)	16 (3.5)	154 (33.6)	18 (3.9)	30 (6.5)	35 (7.6)	3 (0.7)	459 (100)	
기타	5 (26.3)	1 (5.3)	0 (0.0)	4 (21.1)	0 (0.0)	0 (0.0)	4 (21.1)	5 (26.3)	19 (100)	
전체		2,705 (27.4)	1,485 (15.0)	243 (2.5)	2,710 (27.4)	300 (3.0)	985 (10.0)	1,071 (10.8)	377 (3.8)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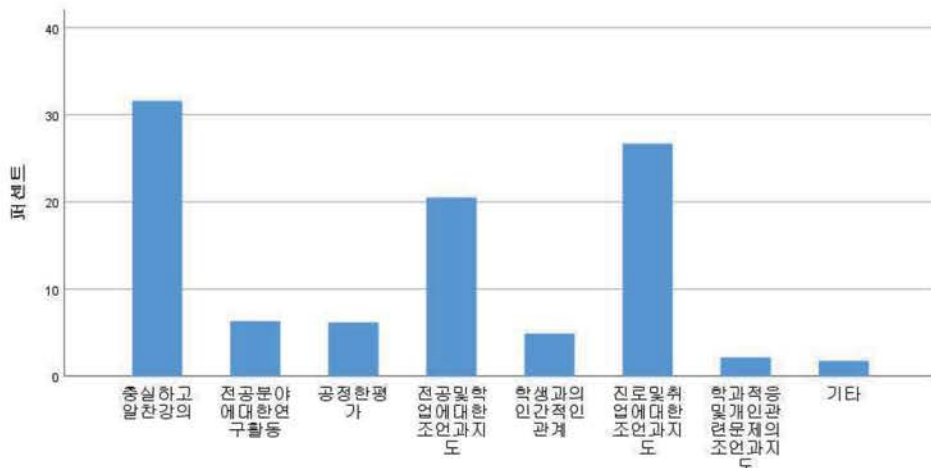
4)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재학생들이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9,876명 중 3,119명(31.6%)이 ‘충실하고 알찬 강의’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2,634명(26.7%)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라고 응답하였다. 20.5%에 해당하는 2,024명의 학생은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623명(6.3%)은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609명(6.2%)은 ‘공정한 평가’, 483명(4.9%)은 ‘학생과의 인간적 관계’, 211명(2.1%)은 ‘학과 적용 및 개인 관련 문제의 조언과 지도’, 173명(1.8%)은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의 31.8%와 여학생의 31.3%가 ‘충실하고 알찬 강의’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의 응답이 여학생 29.4%, 남학생 24.3%로 여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3%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충실하고 알찬 강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학년은 ‘충실하고 알찬 강의’에 이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의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의과대학 학생 48.8%가 ‘충실하고 알찬 강의’를 기대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타 단과대학보다 더 높은 기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에서도 ‘충실하고 알찬 강의’에 대해 가장 높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에 대한 기대를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과학대학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가 40.5%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표 6>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구분		충실 하고 압찬 강의	전공 분야 연구 활동	공정 한 평가	전공 및 학업 조언 과 지도	학생 과의 인간 적인 관계	진로 및 취업 조언 과 지도	학과 적응 및 개인 문제 조언과 지도	기타	전체
성별	남	1,685 (31.8)	377 (7.1)	367 (6.9)	1,028 (19.4)	310 (5.9)	1,286 (24.3)	120 (2.3)	122 (2.3)	5,295 (100)
	여	1434 (31.3)	246 (5.4)	242 (5.3)	996 (21.7)	173 (3.8)	1348 (29.4)	91 (2.0)	51 (1.1)	4,581 (100)
학년	1학년	843 (35.0)	157 (6.5)	197 (8.2)	553 (22.9)	135 (5.6)	414 (17.2)	58 (2.4)	54 (2.2)	2,411 (100)
	2학년	702 (31.9)	153 (7.0)	117 (5.3)	449 (20.4)	118 (5.4)	593 (26.9)	37 (1.7)	32 (1.5)	2,201 (100)
	3학년	719 (28.3)	154 (6.1)	156 (6.1)	497 (19.6)	113 (4.5)	820 (32.3)	46 (1.8)	34 (1.3)	2,539 (100)
	4학년	797 (31.1)	144 (5.6)	130 (5.1)	489 (19.1)	110 (4.3)	784 (30.6)	63 (2.5)	44 (1.7)	2,561 (100)
	5학년	50 (33.6)	14 (9.4)	8 (5.4)	34 (22.8)	7 (4.7)	22 (14.8)	7 (4.7)	7 (4.7)	149 (100)
	기타	8 (53.3)	1 (6.7)	1 (6.7)	2 (13.3)	0 (0.0)	1 (6.7)	0 (0.0)	2 (13.3)	15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375 (33.3)	66 (5.9)	78 (6.9)	213 (18.9)	54 (4.8)	287 (25.5)	26 (2.3)	26 (2.3)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366 (35.5)	43 (4.2)	54 (5.2)	214 (20.8)	61 (5.9)	262 (25.4)	16 (1.6)	14 (1.4)	1,030 (100)
	경영 대학	388 (36.2)	44 (4.1)	62 (5.8)	180 (16.8)	62 (5.8)	289 (26.9)	18 (1.7)	30 (2.8)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251 (27.4)	100 (10.9)	49 (5.3)	171 (18.7)	48 (5.2)	258 (28.2)	24 (2.6)	15 (1.6)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48 (20.6)	32 (4.5)	31 (4.3)	155 (21.6)	36 (5.0)	291 (40.5)	17 (2.4)	8 (1.1)	718 (100)
	공과 대학	1,091 (32.5)	239 (7)	223 (6.6)	669 (19.9)	144 (4.3)	884 (26.3)	64 (1.9)	48 (1.4)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98 (24.3)	59 (7.2)	48 (5.9)	234 (28.7)	32 (3.9)	201 (24.7)	27 (3.3)	16 (2.0)	815 (100)
	예술 대학	73 (20.4)	28 (7.8)	34 (9.5)	101 (28.1)	27 (7.5)	78 (21.7)	11 (3.1)	7 (1.9)	359 (100)
	의과 대학	224 (48.8)	11 (2.4)	29 (6.3)	85 (18.5)	19 (4.1)	82 (17.9)	6 (1.3)	3 (0.7)	459 (100)
	기타	5 (26.3)	1 (5.3)	1 (5.3)	2 (10.5)	0 (0.0)	2 (10.5)	2 (10.5)	6 (31.6)	19 (100)
전체	3,119 (31.6)	623 (6.3)	609 (6.2)	2,024 (20.5)	483 (4.9)	2,634 (26.7)	211 (2.1)	173 (1.8)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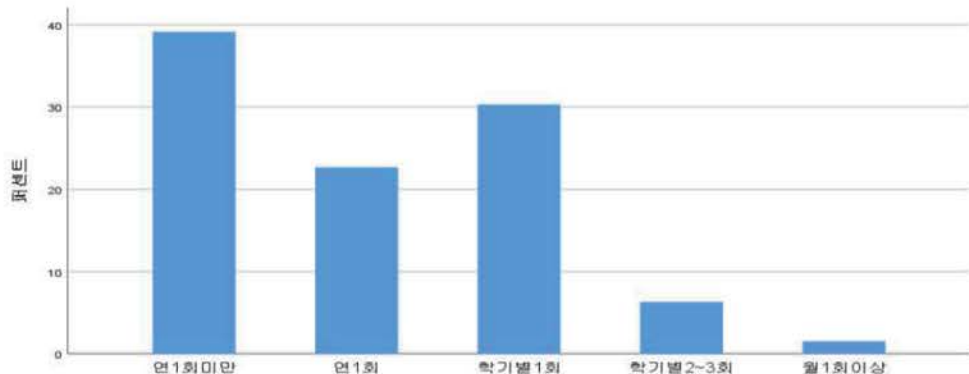
5) 지도교수와의 상담빈도

계학생의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지도교수와 상담을 ‘연 1회 미만’으로 한다는 응답이 9,876명 중 3,868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학기별 1회’ 2,994명(30.3%), ‘연 1회’ 2,240명(22.7%), ‘학기별 2~3회’ 623명(6.3%), ‘월 1회 이상’ 151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의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 1회 미만’의 응답에서 남학생이 40.8%로 여학생 37.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기별 1회’의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33.8%로 남학생의 27.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울산대학교 계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도교수와 연 1회 이하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연 1회 미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학년이 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대부분 학년에서 ‘학기별 1회’, ‘연 1회’, ‘학기별 2~3회’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지도교수와 ‘연 1회 미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대학은 50.9%의 응답으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보다 상담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은 ‘학기별 1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 의과대학은 78.6%의 응답으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연 1회’, ‘학기별 2~3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지도교수와의 상담빈도

<표 7> 지도교수와 의 상담 빈도

구분		연 1회 미만	연 1회	학기별 1회	학기별 2~3회	월 1회 이상	전체
성별	남	2,163 (40.8)	1,233 (23.3)	1,445 (27.3)	368 (6.9)	86 (1.6)	5,295 (100)
	여	1,705 (37.2)	1,007 (22.0)	1,549 (33.8)	255 (5.6)	65 (1.4)	4,581 (100)
학년	1학년	978 (40.6)	562 (23.3)	731 (30.3)	126 (5.2)	14 (0.6)	2,411 (100)
	2학년	798 (36.3)	543 (24.7)	721 (32.8)	118 (5.4)	21 (1.0)	2,201 (100)
	3학년	967 (38.1)	511 (20.1)	840 (33.1)	171 (6.7)	50 (2.0)	2,539 (100)
	4학년	1,061 (41.4)	584 (22.8)	671 (26.2)	185 (7.2)	60 (2.3)	2,561 (100)
	5학년	59 (39.6)	37 (24.8)	29 (19.5)	21 (14.1)	3 (2.0)	149 (100)
	기타	5 (33.3)	3 (20.0)	2 (13.3)	2 (13.3)	3 (20.0)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405 (36.0)	284 (25.2)	352 (31.3)	78 (6.9)	6 (0.5)	1,125 (100)
	사회과학대학	524 (50.9)	253 (24.6)	203 (19.7)	42 (4.1)	8 (0.8)	1,030 (100)
	경영대학	741 (69.1)	182 (17.0)	122 (11.4)	20 (1.9)	8 (0.7)	1,073 (100)
	자연과학대학	199 (21.7)	175 (19.1)	418 (45.6)	111 (12.1)	13 (1.4)	916 (100)
	생활과학대학	271 (37.7)	177 (24.7)	235 (32.7)	29 (4.0)	6 (0.8)	718 (100)
	공과대학	1,488 (44.3)	856 (25.5)	827 (24.6)	152 (4.5)	39 (1.2)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54 (18.9)	199 (24.4)	326 (40.0)	102 (12.5)	34 (4.2)	815 (100)
	예술대학	58 (16.2)	64 (17.8)	144 (40.1)	61 (17.0)	32 (8.9)	359 (100)
	의과대학	21 (4.6)	46 (10.0)	361 (78.6)	27 (5.9)	4 (0.9)	459 (100)
	기타	7 (36.8)	4 (21.1)	6 (31.6)	1 (5.3)	1 (5.3)	19 (100)
전체	3,868 (39.2)	2,240 (22.7)	2,994 (30.3)	623 (6.3)	151 (1.5)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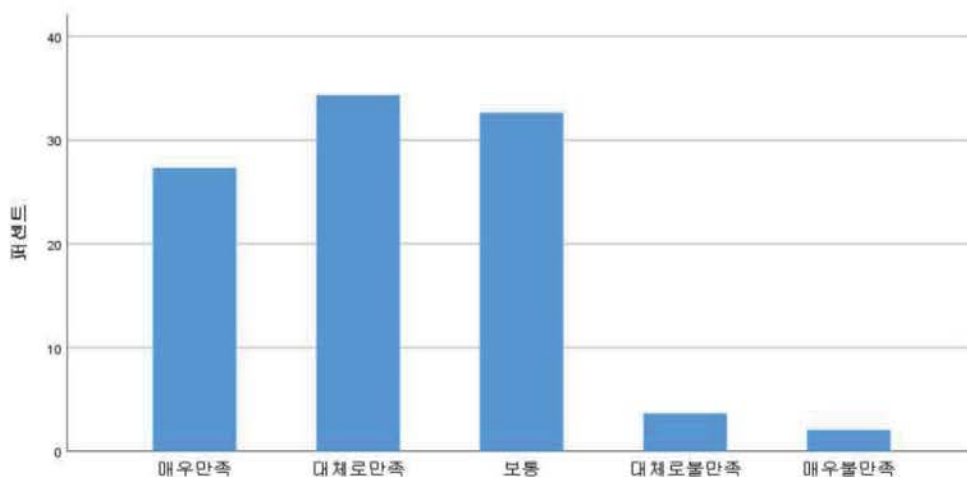
6)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재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상담했을 때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만족도가 ‘대체로 만족’이라는 응답이 9,876명 중 3,391명(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통’이 3,223명(32.6%), ‘매우 만족’ 2,698명(27.3%), ‘대체로 불만족’ 361명(3.7%), ‘매우 불만족’ 203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61.6%가 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59.9%, 여학생은 63.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는 여학생이 조금 더 높았다. ‘매우 만족’은 남학생이 28.7%로 여학생의 2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은 여학생이 38.0%로 남학생의 31.2%보다 높았다.

학년별로는 대부분의 학년이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문항에 ‘대체로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학년에서는 ‘보통’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과 ‘매우 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가 의과대학에서 77.1%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학 73.3%, 디자인·건축융합대학 70.1%, 경영대학은 47.5%로 상담만족도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를 살펴보면 경영대학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과학대학이 6.8%, 공과대학이 5.9%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영대학이 지도교수와의 상담빈도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표 8〉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 별	남	1,522 (28.7)	1,652 (31.2)	1,785 (33.7)	206 (3.9)	130 (2.5)	5,295 (100)
	여	1,176 (25.7)	1,739 (38.0)	1,438 (31.4)	155 (3.4)	73 (1.6)	4,581 (100)
학 년	1학년	716 (29.7)	838 (34.8)	766 (31.8)	60 (2.5)	31 (1.3)	2,411 (100)
	2학년	623 (28.3)	791 (35.9)	682 (31.0)	79 (3.6)	26 (1.2)	2,201 (100)
	3학년	656 (25.8)	852 (33.6)	883 (34.8)	90 (3.5)	58 (2.3)	2,539 (100)
	4학년	656 (25.6)	858 (33.5)	836 (32.6)	128 (5.0)	83 (3.2)	2,561 (100)
	5학년	43 (28.9)	45 (30.2)	52 (34.9)	4 (2.7)	5 (3.4)	149 (100)
	기타	4 (26.7)	7 (46.7)	4 (26.7)	0 (0.0)	0 (0.0)	15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352 (31.3)	381 (33.9)	346 (30.8)	33 (2.9)	13 (1.2)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296 (28.7)	377 (36.6)	303 (29.4)	35 (3.4)	19 (1.8)	1,030 (100)
	경영 대학	237 (22.1)	273 (25.4)	474 (44.2)	41 (3.8)	48 (4.5)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303 (33.1)	330 (36.0)	243 (26.5)	33 (3.6)	7 (0.8)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71 (23.8)	254 (35.4)	244 (34.0)	34 (4.7)	15 (2.1)	718 (100)
	공과 대학	830 (24.7)	1,108 (33.0)	1,224 (36.4)	125 (3.7)	75 (2.2)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38 (29.2)	333 (40.9)	203 (24.9)	30 (3.7)	11 (1.3)	815 (100)
	예술 대학	104 (29.0)	138 (38.4)	96 (26.7)	13 (3.6)	8 (2.2)	359 (100)
	의과 대학	161 (35.1)	193 (42.0)	82 (17.9)	17 (3.7)	6 (1.3)	459 (100)
기타	6 (31.6)	4 (21.1)	8 (42.1)	0 (0.0)	1 (5.3)	19 (100)	
전체	2,698 (27.3)	3,391 (34.3)	3,223 (32.6)	361 (3.7)	203 (2.1)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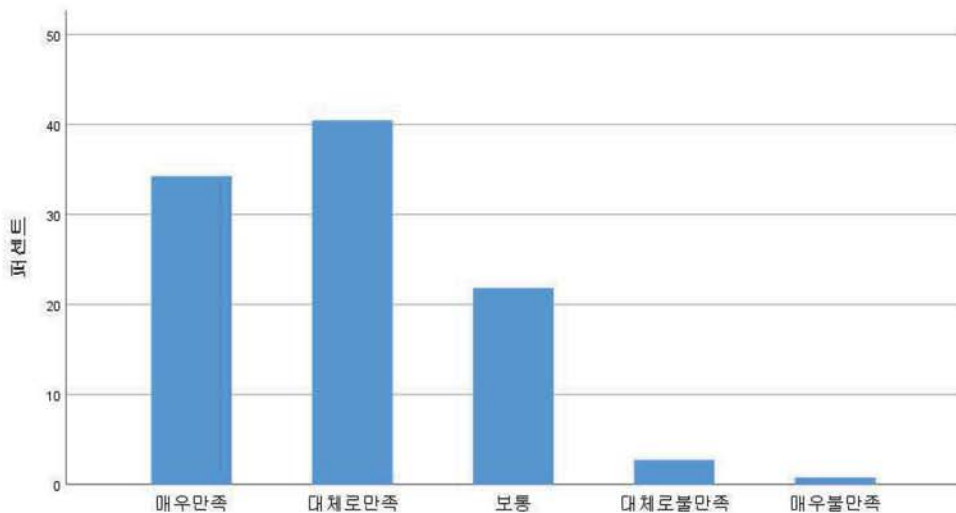
7) 대학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친구 관계에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응답이 9,876명 중 7,377명(74.7%)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의 응답은 2,154명(21.8%), ‘대체로 불만족’ 269명(2.7%), ‘매우 불만족’ 76명(0.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는 대인관계 접점이 넓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대학 친구들과 원활한 교류와 관계 형성을 잘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친구 관계에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응답이 77.2%로 남학생의 7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도 역시 여학생(3.0%)보다 남학생(3.9%)이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냄으로 비교적 여학생의 친구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77.5%, 2학년 75.0%, 3학년 74.6%, 4학년 72.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관계에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의 응답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때 친구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친구 관계에 불만족 정도는 4학년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4학년의 친구 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의과대학 86.7%, 디자인·건축융합대학 79.4%, 생활과학대학 78.4%, 자연과학대학 75.8%, 인문대학 74.6%, 공과대학 74.5%, 사회과학대학 73.1%, 예술대학 73.0%, 경영대학 65.6% 순으로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친구 관계에 불만족이라는 응답에 경영대학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의과대학이 0.9%로 가장 낮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대학에서 친구관계 만족도

<표 9> 대학에서 친구관계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822 (34.4)	2,021 (38.2)	1,245 (23.5)	156 (2.9)	51 (1.0)	5,295 (100)
	여	1,561 (34.1)	1,973 (43.1)	909 (19.8)	113 (2.5)	25 (0.5)	4,581 (100)
학년	1학년	857 (35.5)	1,012 (42.0)	484 (20.1)	49 (2.0)	9 (0.4)	2,411 (100)
	2학년	760 (34.5)	892 (40.5)	463 (21.0)	71 (3.2)	15 (0.7)	2,201 (100)
	3학년	841 (33.1)	1,054 (41.5)	554 (21.8)	72 (2.8)	18 (0.7)	2,539 (100)
	4학년	875 (34.2)	972 (38.0)	608 (23.7)	73 (2.9)	33 (1.3)	2,561 (100)
	5학년	45 (30.2)	57 (38.3)	42 (28.2)	4 (2.7)	1 (0.7)	149 (100)
	기타	5 (33.3)	7 (46.7)	3 (20.0)	0 (0.0)	0 (0.0)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385 (34.2)	454 (40.4)	240 (21.3)	38 (3.4)	8 (0.7)	1,125 (100)
	사회과학대학	343 (33.3)	410 (39.8)	241 (23.4)	25 (2.4)	11 (1.1)	1,030 (100)
	경영대학	311 (29.0)	393 (36.6)	316 (29.5)	43 (4.0)	10 (0.9)	1,073 (100)
	자연과학대학	348 (38.0)	346 (37.8)	185 (20.2)	27 (2.9)	10 (1.1)	916 (100)
	생활과학대학	268 (37.3)	295 (41.1)	136 (18.9)	14 (1.9)	5 (0.7)	718 (100)
	공과대학	1,117 (33.2)	1,387 (41.3)	746 (22.2)	85 (2.5)	27 (0.8)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05 (37.4)	342 (42.0)	145 (17.8)	20 (2.5)	3 (0.4)	815 (100)
	예술대학	127 (35.4)	135 (37.6)	83 (23.1)	13 (3.6)	1 (0.3)	359 (100)
	의과대학	175 (38.1)	223 (48.6)	57 (12.4)	4 (0.9)	0 (0.0)	459 (100)
	기타	4 (21.1)	9 (47.4)	5 (26.3)	0 (0.0)	1 (5.3)	19 (100)
전체	3,383 (34.3)	3,994 (40.4)	2,154 (21.8)	269 (2.7)	76 (0.8)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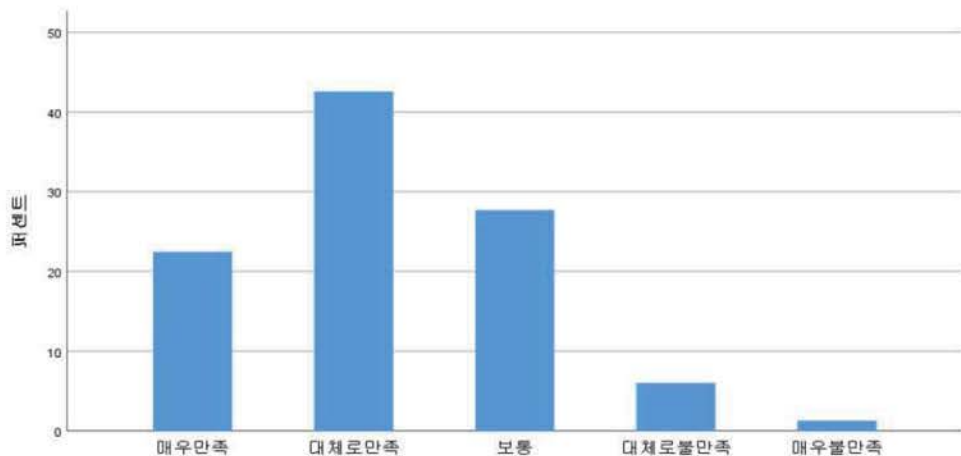
8) 전공만족도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체로 만족’이 9,876명 중 4,202명(4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2,734명(27.7%), ‘매우 만족’은 2,217명(22.4%), ‘대체로 불만족’은 595명(6.0%), ‘매우 불만족’은 128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24.7%에 해당하는 1,308명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19.8%인 909명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만족’은 여학생이 45.4%로 남학생 40.1%보다 5.3%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남학생은 8.1%로 여학생의 6.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응답 비율이 모든 학년이 비슷하게 65% 전후의 분포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5학년 10.1%, 2학년 8.4%, 4학년 7.3%, 1, 2학년 6.8%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대체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의과대학이 50.3%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의과대학과 디자인·행정대학 재학생은 각각 79.3%, 71.7%가 전공선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타 단과대학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으나, 인문대학의 경우 59.9%가 전공에 만족한다는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의 결과는 인문대학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의과대학은 3.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1> 전공만족도

<표 10> 전공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308 (24.7)	2,121 (40.1)	1,436 (27.1)	346 (6.5)	84 (1.6)	5,295 (100)
	여	909 (19.8)	2,081 (45.4)	1,298 (28.3)	249 (5.4)	44 (1.0)	4,581 (100)
학년	1학년	571 (23.7)	1,009 (41.8)	667 (27.7)	132 (5.5)	32 (1.3)	2,411 (100)
	2학년	451 (20.5)	970 (44.1)	596 (27.1)	160 (7.3)	24 (1.1)	2,201 (100)
	3학년	555 (21.9)	1,083 (42.7)	730 (28.8)	139 (5.5)	32 (1.3)	2,539 (100)
	4학년	600 (23.4)	1,073 (41.9)	700 (27.3)	154 (6.0)	34 (1.3)	2,561 (100)
	5학년	35 (23.5)	61 (40.9)	38 (25.5)	10 (6.7)	5 (3.4)	149 (100)
	기타	5 (33.3)	6 (40.0)	3 (20.0)	0 (0.0)	1 (6.7)	15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237 (21.1)	437 (38.8)	342 (30.4)	90 (8.0)	19 (1.7)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233 (22.6)	436 (42.3)	285 (27.7)	60 (5.8)	16 (1.6)	1,030 (100)
	경영 대학	206 (19.2)	441 (41.1)	356 (33.2)	58 (5.4)	12 (1.1)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226 (24.7)	367 (40.1)	254 (27.7)	59 (6.4)	10 (1.1)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62 (22.6)	314 (43.7)	195 (27.2)	38 (5.3)	9 (1.3)	718 (100)
	공과 대학	702 (20.9)	1,456 (43.3)	941 (28.0)	214 (6.4)	49 (1.5)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10 (25.8)	374 (45.9)	181 (22.2)	42 (5.2)	8 (1.0)	815 (100)
	예술 대학	104 (29.0)	142 (39.6)	92 (25.6)	19 (5.3)	2 (0.6)	359 (100)
	의과 대학	133 (29.0)	231 (50.3)	80 (17.4)	13 (2.8)	2 (0.4)	459 (100)
기타	4 (21.1)	4 (21.1)	8 (42.1)	2 (10.5)	1 (5.3)	19 (100)	
전체		2,217 (22.4)	4,202 (42.5)	2,734 (27.7)	595 (6.0)	128 (1.3)	9,876 (100)

9)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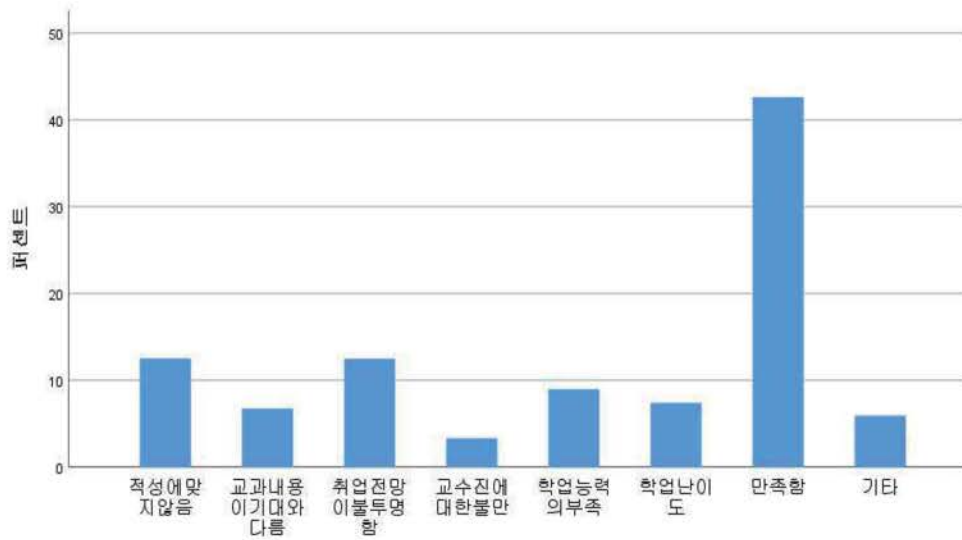
계학생들이 전공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9,876명 중 4,210명인 42.6%가 ‘만족함’으로 응답하였다.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음’이 1,237명(12.5%), ‘취업전망이 불투명함’은 1,233명(1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능력의 부족’이 887명(9.0%), ‘학업 난이도’ 730명(7.4%),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667명(6.8%), ‘학업능력의 부족’ 327명(3.3%), ‘기타’ 585(5.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는 취업전망이 불투명함과 현재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음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전체 인원 5,295명 중 ‘만족함’ 응답자 2,347명(44.3%)을 제외한 2,948명의 불만족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음’ 656명(12.4%), ‘취업전망이 불투명함’ 544명(10.3%), ‘학업 난이도’ 444명(8.4%), ‘학업능력의 부족’ 427명(8.1%),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348명(6.6%), ‘교수진에 대한 불만’ 202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4,581명 응답자 중 1,863명(40.7%)이 ‘만족함’으로 응답하였고 2,718명이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전망이 불투명함’ 689명(15%), ‘적성에 맞지 않음’ 581명(12.7%), ‘학업능력의 부족’ 460명(10.0%),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319명(7.0%), ‘학업 난이도’ 286명(6.2%), ‘교수진에 대한 불만’ 125명(2.7%)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공통으로 ‘취업전망 불투명함’과 ‘적성에 맞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족하며 특히 여학생이 ‘취업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응답보다 4.7%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공에 대한 ‘만족함’ 응답 비율이 44.6%, 40.6%, 41.9%, 43.7%로 나타났고 5학년은 3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은 ‘적성에 맞지 않음’이 각각 14.2%와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학년은 ‘취업전망이 불투명함’과 ‘적성에 맞지 않음’의 비율이 각각 12.4%와 1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취업전망의 불투명함’이 1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학년에서 ‘학업능력의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7.0%~10.7%까지 나타나 많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불만족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만족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문대학과 예술대학은 ‘취업전망이 불투명함’을 27.7%와 2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졸업 후 취업과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의과대학은 ‘학업 난이도’가 17%, ‘학업능력의 부족’이 11.5%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지 않음’의 항목에서는 경영대학이 14.2%, 공과대학이 13.6%로 타 단과대학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공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와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표 11>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구분		적성에 맞지 않음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취업 전망 불투명	교수진에 대한 불만	학업 능력의 부족	학업 난이도	만족함	기타	전체
성별	남	656 (12.4)	348 (6.6)	544 (10.3)	202 (3.8)	427 (8.1)	444 (8.4)	2,347 (44.3)	327 (6.2)	5,295 (100)
	여	581 (12.7)	319 (7.0)	689 (15.0)	125 (2.7)	460 (10.0)	286 (6.2)	1,863 (40.7)	258 (5.6)	4,581 (100)
학년	1학년	342 (14.2)	153 (6.3)	250 (10.4)	55 (2.3)	215 (8.9)	201 (8.3)	1,076 (44.6)	119 (4.9)	2,411 (100)
	2학년	292 (13.3)	161 (7.3)	246 (11.2)	73 (3.3)	209 (9.5)	203 (9.2)	893 (40.6)	124 (5.6)	2,201 (100)
	3학년	305 (12.0)	161 (6.3)	315 (12.4)	78 (3.1)	269 (10.6)	199 (7.8)	1,063 (41.9)	149 (5.9)	2,539 (100)
	4학년	278 (10.9)	178 (7.0)	400 (15.6)	112 (4.4)	178 (7.0)	120 (4.7)	1,118 (43.7)	177 (6.9)	2,561 (100)
	5학년	20 (13.4)	12 (8.1)	18 (12.1)	9 (6.0)	16 (10.7)	6 (4.0)	55 (36.9)	13 (8.7)	149 (100)
	기타	0 (0.0)	2 (13.3)	4 (26.7)	0 (0.0)	0 (0.0)	1 (6.7)	5 (33.3)	3 (20.0)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44 (12.8)	76 (6.8)	312 (27.7)	37 (3.3)	83 (7.4)	24 (2.1)	385 (34.2)	64 (5.7)	1,125 (100)
	사회과학대학	116 (11.3)	83 (8.1)	173 (16.8)	25 (2.4)	48 (4.7)	31 (3.0)	488 (47.4)	66 (6.4)	1,030 (100)
	경영대학	152 (14.2)	85 (7.9)	136 (12.7)	32 (3.0)	79 (7.4)	71 (6.6)	426 (39.7)	92 (8.6)	1,073 (100)
	자연과학대학	117 (12.8)	52 (5.7)	167 (18.2)	20 (2.2)	87 (9.5)	71 (7.8)	364 (39.7)	38 (4.1)	916 (100)
	생활과학대학	88 (12.3)	50 (7.0)	95 (13.2)	25 (3.5)	45 (6.3)	25 (3.5)	338 (47.1)	52 (7.2)	718 (100)
	공과대학	457 (13.6)	220 (6.5)	214 (6.4)	114 (3.4)	389 (11.6)	346 (10.3)	1,442 (42.9)	180 (5.4)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82 (10.1)	70 (8.6)	45 (5.5)	49 (6.0)	88 (10.8)	78 (9.6)	356 (43.7)	47 (5.8)	815 (100)
	예술대학	29 (8.1)	18 (5.0)	85 (23.7)	14 (3.9)	14 (3.9)	5 (1.4)	175 (48.7)	19 (5.3)	359 (100)
	의과대학	51 (11.1)	11 (2.4)	2 (0.4)	9 (2.0)	53 (11.5)	78 (17.0)	233 (50.8)	22 (4.8)	459 (100)
기타	1 (5.3)	2 (10.5)	4 (21.1)	2 (10.5)	1 (5.3)	1 (5.3)	3 (15.8)	5 (26.3)	19 (100)	
전체	1,237 (12.5)	667 (6.8)	1,233 (12.5)	327 (3.3)	887 (9.0)	730 (7.4)	4,210 (42.6)	585 (5.9)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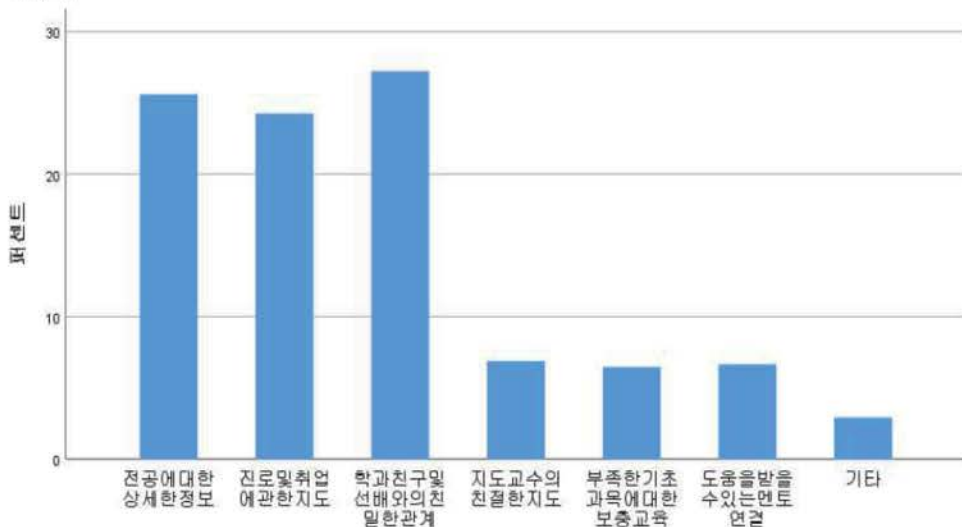
10) 학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

학과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적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688명(27.2%)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 2,528명(25.6%),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2,395명(24.3%), ‘지도교수의 친절한 지도’ 680명(6.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연결’ 657명(6.7%), ‘부족한 기초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 639명(6.5%), ‘기타’ 289명(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5.8%, 26.7%로 나타났으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도 23.8%의 응답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각각 24.7%와 23.4%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학과에 적응하기 위한 도움으로 관계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응답이 1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2학년은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3학년과 4학년은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의과대학은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대학과 공과대학은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경영대학은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림 13> 학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

<표 12> 학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

구분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학과 친구 및 선배와 친밀한 관계	지도 교수의 친절한 지도	부족한 기초 과목 보충 교육	멘토 연결	기타	전체
성 별	남	1,455 (27.5)	1,262 (23.8)	1,415 (26.7)	362 (6.8)	317 (6.0)	302 (5.7)	182 (3.4)	5,295 (100)
	여	1,073 (23.4)	1,133 (24.7)	1,273 (27.8)	318 (6.9)	322 (7.0)	355 (7.7)	107 (2.3)	4,581 (100)
학 년	1학년	659 (27.3)	417 (17.3)	743 (30.8)	181 (7.5)	200 (8.3)	143 (5.9)	68 (2.8)	2,411 (100)
	2학년	593 (26.9)	529 (24.0)	569 (25.9)	172 (7.8)	134 (6.1)	148 (6.7)	56 (2.5)	2,201 (100)
	3학년	600 (23.6)	699 (27.5)	671 (26.4)	157 (6.2)	174 (6.9)	162 (6.4)	76 (3.0)	2,539 (100)
	4학년	623 (24.3)	721 (28.2)	668 (26.1)	160 (6.2)	118 (4.6)	191 (7.5)	80 (3.1)	2,561 (100)
	5학년	48 (32.2)	26 (17.4)	35 (23.5)	6 (4.0)	13 (8.7)	13 (8.7)	8 (5.4)	149 (100)
	기타	5 (33.3)	3 (20.0)	2 (13.3)	4 (26.7)	0 (0.0)	0 (0.0)	1 (6.7)	15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287 (25.5)	279 (24.8)	282 (25.1)	90 (8.0)	83 (7.4)	64 (5.7)	40 (3.6)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264 (25.6)	264 (25.6)	321 (31.2)	61 (5.9)	43 (4.2)	55 (5.3)	22 (2.1)	1,030 (100)
	경영 대학	262 (24.4)	275 (25.6)	274 (25.5)	62 (5.8)	68 (6.3)	83 (7.7)	49 (4.6)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235 (25.7)	223 (24.3)	248 (27.1)	68 (7.4)	57 (6.2)	62 (6.8)	23 (2.5)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71 (23.8)	201 (28.0)	205 (28.6)	39 (5.4)	28 (3.9)	55 (7.7)	19 (2.6)	718 (100)
	공과 대학	902 (26.8)	859 (25.6)	867 (25.8)	199 (5.9)	243 (7.2)	208 (6.2)	84 (2.5)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17 (26.6)	141 (17.3)	229 (28.1)	80 (9.8)	67 (8.2)	54 (6.6)	27 (3.3)	815 (100)
	예술 대학	83 (23.1)	67 (18.7)	89 (24.8)	59 (16.4)	24 (6.7)	25 (7.0)	12 (3.3)	359 (100)
	의과 대학	102 (22.2)	85 (18.5)	171 (37.3)	20 (4.4)	25 (5.4)	49 (10.7)	7 (1.5)	459 (100)
기타	5 (26.3)	1 (5.3)	2 (10.5)	2 (10.5)	1 (5.3)	2 (10.5)	6 (31.6)	19 (100)	
전체		2,528 (25.6)	2,395 (24.3)	2,688 (27.2)	680 (6.9)	639 (6.5)	657 (6.7)	289 (2.9)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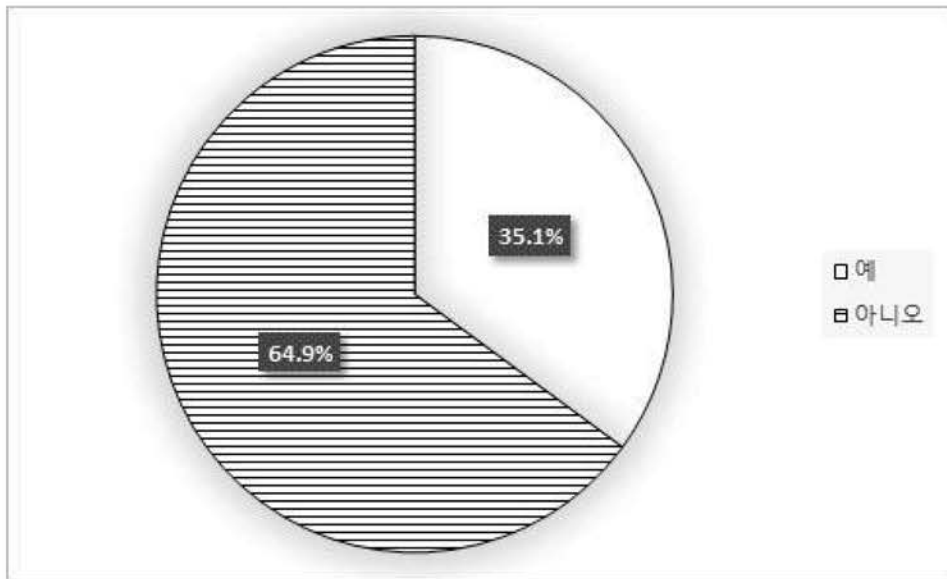
11)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유무

제학생 중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다'의 응답은 9,876명 중 6,410명(64.9%)으로 나타났고, '있다'는 3,466명(35.1%)으로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33%)보다 여학생(37.5%)이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5% 높게 나타났다.

학년 모두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가 60% 이상 비율을 보였으나 5학년은 56.4%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학년과 5학년이 각각 38.8%와 43.6%의 비율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예술대학이 40.9%로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제학생들의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 항목 응답이 평균치 34.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4>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유무

<표 13>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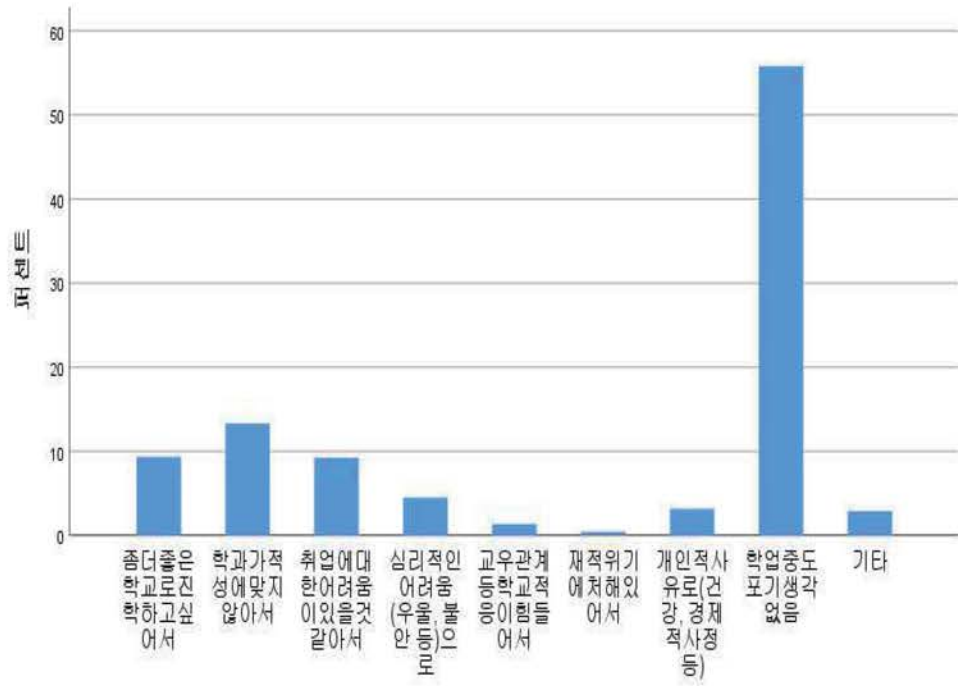
구분		예(명/%)	아니오(명/%)	전체(명/%)
성 별	남	1,748(33.0)	3,547(67.0)	5,295(100)
	여	1,718(37.5)	2,863(62.5)	4,581(100)
학 년	1학년	812(33.7)	1,599(66.3)	2,411(100)
	2학년	854(38.8)	1,347(61.2)	2,201(100)
	3학년	902(35.5)	1,637(64.5)	2,539(100)
	4학년	825(32.2)	1,736(67.8)	2,561(100)
	5학년	65(43.6)	84(56.4)	149(100)
	기타	8(53.3)	7(46.7)	15(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431(38.3)	694(61.7)	1,125(100)
	사회과학대학	346(33.6)	684(66.4)	1,030(100)
	경영대학	362(33.7)	711(66.3)	1,073(100)
	자연과학대학	331(36.1)	585(63.9)	916(100)
	생활과학대학	241(33.6)	477(66.4)	718(100)
	공과대학	1,127(33.5)	2,235(66.5)	3,362(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20(39.3)	495(60.7)	815(100)
	예술대학	147(40.9)	212(59.1)	359(100)
	의과대학	156(34.0)	303(66.0)	459(100)
	기타	5(26.3)	14(73.7)	19(100)
전체		3,466(35.1)	6,410(64.9)	9,876(100)

12)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참여 인원 9,876명 중 55.8%인 5,513명은 ‘학업 중도 포기 생각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44.2%의 학생 4,363명 중 13%에 해당하는 1,314명은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에 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서’ 9.2%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9.2%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우울)’ 4.5%, ‘재적 위기에 처해 있어서’ 4%, ‘개인적 사유(건강, 경제적 사정 등)’ 3.2%, ‘기타’ 2.9%, ‘교우 관계 등 학교적응이 힘들어서’ 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없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했다는 응답률이 각각 12.3%와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학생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와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서’에 응답률 9.5%와 9.2%를, 여학생은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서’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에 응답률 9.5%와 8.9%를 나타내었다.

단과대학에서는,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에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없음’ 응답이 모든 학과에서 가장 높았으나 인문대학은 50.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에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인문대학과 예술대학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인문대학 졸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것과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심리적인 어려움(우울)’ 문항에서는 기타 15.8%, 의과대학이 8.5%, 예술대학이 7.0%,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6.5%로 평균 6.2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5>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표 14>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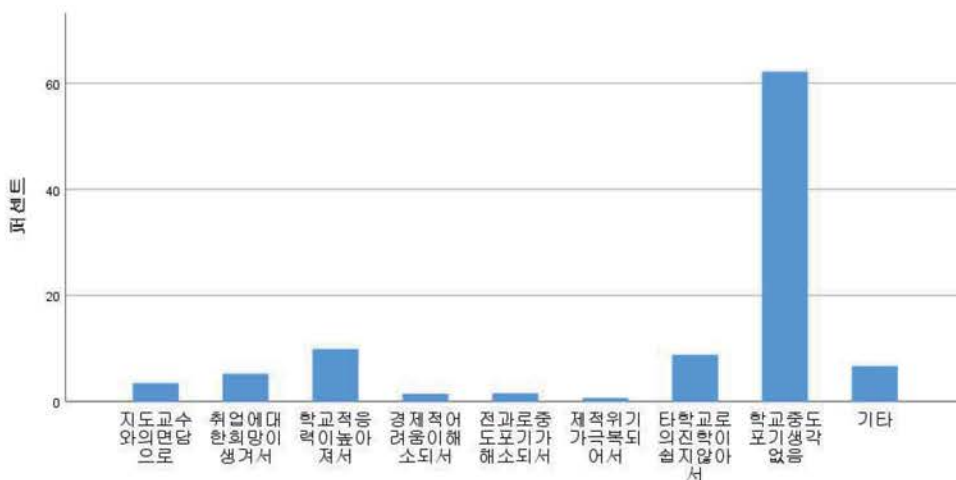
구분	더 좋은 학교로 진학	적성에 맞지 않아서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학교 적응이 힘들어서	재적 위기에 처해 있어서	개인적 사유로	중도 포기 생각 없음	기타	전체	
성별	남	487 (9.2)	651 (12.3)	504 (9.5)	196 (3.7)	72 (1.4)	30 (0.6)	197 (3.7)	2,975 (56.2)	183 (3.5)	5,295 (100)
	여	435 (9.5)	663 (14.5)	408 (8.9)	248 (5.4)	60 (1.3)	11 (0.2)	115 (2.5)	2,538 (55.4)	103 (2.2)	4,581 (100)
학년	1학년	306 (12.7)	313 (13.0)	152 (6.3)	89 (3.7)	30 (1.2)	11 (0.5)	61 (2.5)	1,376 (57.1)	73 (3.0)	2,411 (100)
	2학년	215 (9.8)	342 (15.5)	205 (9.3)	95 (4.3)	28 (1.3)	13 (0.6)	69 (3.1)	1,172 (53.2)	62 (2.8)	2,201 (100)
	3학년	181 (7.1)	329 (13.0)	272 (10.7)	118 (4.6)	34 (1.3)	7 (0.3)	90 (3.5)	1,432 (56.4)	76 (3.0)	2,539 (100)
	4학년	207 (8.1)	300 (11.7)	268 (10.5)	126 (4.9)	38 (1.5)	9 (0.4)	80 (3.1)	1,467 (57.3)	66 (2.6)	2,561 (100)
	5학년	12 (8.1)	29 (19.5)	13 (8.7)	14 (9.4)	1 (0.7)	1 (0.7)	10 (6.7)	62 (41.6)	7 (4.7)	149 (100)
	기타	1 (6.7)	1 (6.7)	2 (13.3)	2 (13.3)	1 (6.7)	0 (0.0)	2 (13.3)	4 (26.7)	2 (13.3)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20 (10.7)	141 (12.5)	158 (14.0)	42 (3.7)	15 (1.3)	6 (0.5)	36 (3.2)	569 (50.6)	38 (3.4)	1,125 (100)
	사회과학대학	96 (9.3)	119 (11.6)	116 (11.3)	36 (3.5)	9 (0.9)	2 (0.2)	24 (2.3)	603 (58.5)	25 (2.4)	1,030 (100)
	경영대학	101 (9.4)	124 (11.6)	107 (10.0)	44 (4.1)	22 (2.1)	38 (3.5)	604 (56.3)	33 (3.1)	0 (0.0)	1,073 (100)
	자연과학대학	97 (10.6)	110 (12.0)	107 (11.7)	39 (4.3)	17 (1.9)	8 (0.9)	30 (3.3)	488 (53.3)	20 (2.2)	916 (100)
	생활과학대학	61 (8.5)	95 (13.2)	56 (7.8)	35 (4.9)	11 (1.5)	1 (0.1)	16 (2.2)	421 (58.6)	22 (3.1)	718 (100)
	공과대학	306 (9.1)	494 (14.7)	267 (7.9)	128 (3.8)	37 (1.1)	15 (0.4)	102 (3.0)	1,917 (57.0)	96 (2.9)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9 (8.5)	129 (15.8)	47 (5.8)	53 (6.5)	11 (1.3)	4 (0.5)	34 (4.2)	440 (54.0)	28 (3.4)	815 (100)
	예술대학	37 (10.3)	33 (9.2)	40 (11.1)	25 (7.0)	3 (0.8)	3 (0.8)	21 (5.8)	186 (51.8)	11 (3.1)	359 (100)
	의과대학	31 (6.8)	66 (14.4)	13 (2.8)	39 (8.5)	7 (1.5)	2 (0.4)	10 (2.2)	279 (60.8)	12 (2.6)	459 (100)
	기타	4 (21.1)	3 (15.8)	1 (5.3)	3 (15.8)	0 (0.0)	0 (0.0)	1 (5.3)	6 (31.6)	1 (5.3)	19 (100)
전체	922 (9.3)	1,314 (13.3)	912 (9.2)	444 (4.5)	132 (1.3)	41 (0.4)	312 (3.2)	5,513 (55.8)	286 (2.9)	9,876 (100)	

13) 학교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

학업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참여 인원 9,876명 중 62.2%인 6,138명은 ‘학업 중도 포기 생각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37.8%의 학생 3,738명 중 9.9%에 해당하는 978명은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서’에 답하였다. 그다음으로 ‘타 학교로의 진학이 쉽지 않아서’ 872명(8.8%), ‘기타’ 660명(6.7%), ‘취업에 대한 희망이 생겨서’ 518명(5.2%), ‘지도교수와의 면담으로’ 343명(3.4%), ‘전과로 중도 포기가 해소돼서’ 156명(1.6%),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돼서’ 144명(1.5%), ‘제적 위기가 극복되어서’ 67(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학업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한 결과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없음’에 61.9%와 62.4%의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학업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서’ 8.4%, ‘타 학교로의 진학이 쉽지 않아서’ 7.7%, ‘기타’ 7.1%, ‘취업에 대한 희망이 생겨서’ 6.2%, ‘지도교수와의 면담으로’ 4.3% 등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서’ 11.6%, ‘타 학교로의 진학이 쉽지 않아서’ 10.2%, ‘기타’ 6.2%, ‘취업에 대한 희망이 생겨서’ 4.1% ‘지도교수와의 면담으로’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에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없음’ 응답이 모든 학과에서 가장 높았다. 이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서’에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타 학교로의 진학이 쉽지 않아서’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학교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

<표 15> 학교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계기

구분		지도 교수와의 면담으로	취업 희망이 생겨서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 돼서	전과로 중도 포기 해소	제적 위기 극복	타학교 진학이 쉽지 않아서	학교 중도 포기 생각 없음	기타	전체
성별	남	226 (4.3)	328 (6.2)	446 (8.4)	104 (2.0)	88 (1.7)	41 (0.8)	406 (7.7)	3,280 (61.9)	376 (7.1)	5,295 (100)
	여	117 (2.6)	190 (4.1)	532 (11.6)	40 (0.9)	68 (1.5)	26 (.06)	466 (10.2)	2,858 (62.4)	284 (6.2)	4,581 (100)
학년	1학년	71 (2.9)	93 (3.9)	252 (10.5)	24 (1.0)	37 (1.5)	12 (0.5)	237 (9.8)	1,539 (63.8)	146 (6.1)	2,411 (100)
	2학년	83 (3.8)	96 (4.4)	230 (10.4)	28 (1.3)	30 (1.4)	14 (0.6)	238 (10.8)	1,308 (59.4)	174 (7.9)	2,201 (100)
	3학년	69 (2.7)	167 (6.6)	236 (9.3)	38 (1.5)	42 (1.7)	16 (0.6)	192 (7.6)	1,616 (63.6)	163 (6.4)	2,539 (100)
	4학년	109 (4.3)	143 (5.6)	244 (9.5)	48 (1.9)	43 (1.7)	22 (0.9)	193 (7.5)	1,599 (62.4)	160 (6.2)	2,561 (100)
	5학년	10 (6.7)	17 (11.4)	13 (8.7)	6 (4.0)	4 (2.7)	1 (0.7)	12 (8.1)	71 (47.7)	15 (10.1)	149 (100)
	기타	1 (6.7)	2 (13.3)	3 (20.0)	0 (0.0)	0 (0.0)	2 (13.3)	0 (0.0)	5 (33.3)	2 (13.3)	15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48 (4.3)	48 (4.3)	129 (11.5)	20 (1.8)	23 (2.0)	12 (1.1)	123 (10.9)	643 (57.2)	79 (7.0)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34 (3.3)	38 (3.7)	89 (8.6)	17 (1.7)	16 (1.6)	5 (0.5)	88 (8.5)	673 (65.3)	70 (6.8)	1,030 (100)
	경영 대학	26 (2.4)	51 (4.8)	111 (10.3)	16 (1.5)	14 (1.3)	10 (0.9)	97 (9.0)	675 (62.9)	73 (6.8)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41 (4.5)	53 (5.8)	87 (9.5)	19 (2.1)	15 (1.6)	9 (1.0)	91 (9.9)	543 (59.3)	58 (6.3)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5 (2.1)	29 (4.0)	77 (10.7)	6 (0.8)	12 (1.7)	2 (0.3)	74 (10.3)	455 (63.4)	48 (6.7)	718 (100)
	공과 대학	108 (3.2)	212 (6.3)	287 (8.5)	50 (1.5)	45 (1.3)	23 (0.7)	290 (8.6)	2,126 (63.2)	221 (6.6)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36 (4.4)	43 (5.3)	98 (12.0)	13 (1.6)	17 (2.1)	2 (0.2)	52 (6.4)	496 (60.9)	58 (7.1)	815 (100)
	예술 대학	11 (3.1)	21 (5.8)	46 (12.8)	2 (0.6)	6 (1.7)	2 (0.6)	25 (7.0)	218 (60.7)	28 (7.8)	359 (100)
	의과 대학	22 (4.8)	22 (4.8)	52 (11.3)	0 (0.0)	5 (1.1)	1 (0.2)	31 (6.8)	305 (66.4)	21 (4.6)	459 (100)
기타	2 (10.5)	1 (5.3)	2 (10.5)	1 (5.3)	3 (15.8)	1 (5.3)	1 (5.3)	4 (21.1)	4 (21.1)	19 (100)	
전체	343 (3.5)	518 (5.2)	978 (9.9)	144 (1.5)	156 (1.6)	67 (0.7)	872 (8.8)	6,138 (62.2)	660 (6.7)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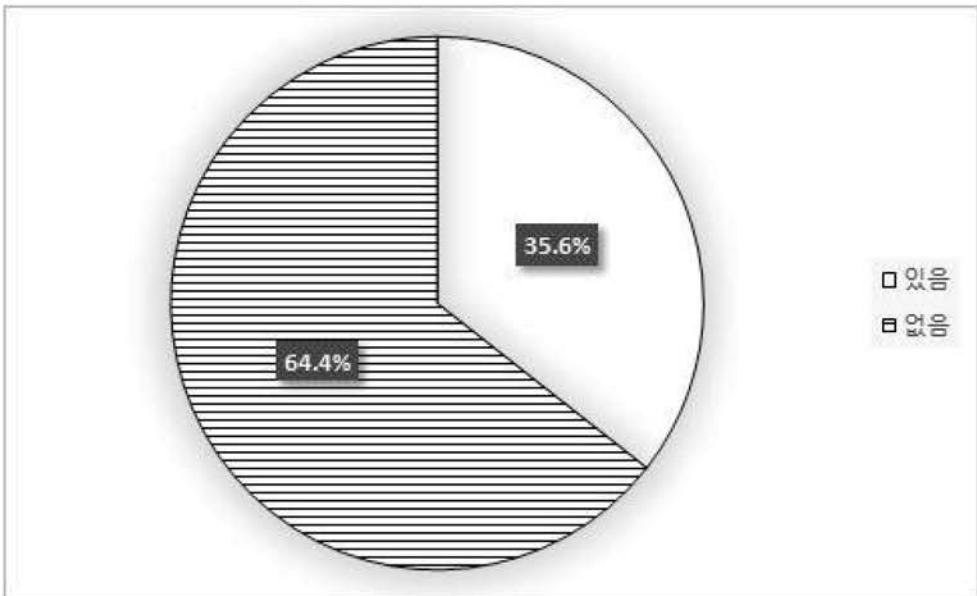
14) 휴학 의사

재학생 중 앞으로 휴학할 의사가 있는지(군 휴학 제외) 묻는 문항 결과는 <표 16>과 같다. 설문 참여 인원 9,876명 중 휴학할 의사 ‘없음’ 6,364명(64.4%), 휴학할 의사 ‘있음’ 3,512명(35.6%)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휴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40.6%로 남학생의 31.2%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학에 대한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휴학할 의사가 ‘있다’의 응답이 1학년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은 17.1%로 전체학년 평균 36.6%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휴학 의사가 가장 많다고 응답한 학년은 1학년으로 2,411명 중 1,078명(44.7%)으로 절반 정도의 학생이 휴학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휴학 의사가 ‘있다’의 평균치가 31.9%임에 비해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40.7%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평균을 넘는 휴학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 휴학 의사

<표 16> 휴학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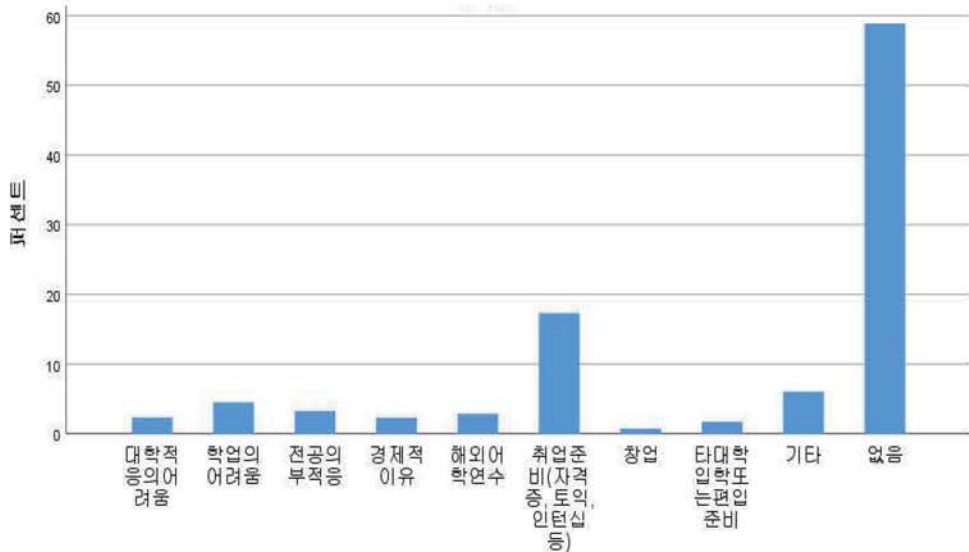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전체
성 별	남	1,651(31.2)	3,644(68.8)	5,295(100)
	여	1,861(40.6)	2,720(59.4)	4,581(100)
학 년	1학년	1,078(44.7)	1,333(55.3)	2,411(100)
	2학년	940(42.7)	1,261(57.3)	2,201(100)
	3학년	1,025(40.4)	1,514(59.6)	2,539(100)
	4학년	439(17.1)	2,122(82.9)	2,561(100)
	5학년	27(18.1)	122(81.9)	149(100)
	기타	3(20.0)	12(80.0)	15(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448(39.8)	677(60.2)	1,125(100)
	사회과학대학	455(44.2)	575(55.8)	1,030(100)
	경영대학	421(39.2)	652(60.8)	1,073(100)
	자연과학대학	306(33.4)	610(66.6)	916(100)
	생활과학대학	270(37.6)	448(62.4)	718(100)
	공과대학	1,093(32.5)	2,269(67.5)	3,362(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32(40.7)	483(59.3)	815(100)
	예술대학	96(26.7)	263(73.3)	359(100)
	의과대학	90(19.6)	369(80.4)	459(100)
	기타	1(5.3)	18(94.7)	19(100)
전체		3,512(35.6)	6,364(64.4)	9,876(100)

15) 휴학 고려 이유

휴학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9,876명 중 5,817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1,709명(17.3%), ‘기타’ 596명(6.0%), ‘학업의 어려움’ 447명(4.5%), ‘전공의 부적응’ 323명(3.3%), ‘해외 어학연수’ 282명(2.9%), ‘대학적응의 어려움’ 230명(2.3%), ‘경제적 이유’ 229명(2.3%),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준비’ 171명(1.7%), ‘창업’ 7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없음’에 각각 62.6%와 54.6%의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 ‘취업 준비’라고 응답하였는데 여학생이 22.8%, 남학생이 12.6%로 여학생이 10.2%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남학생은 기타의 응답이 8.3%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학업의 어려움’에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휴학 고려 이유 ‘없음’에 전 학년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특히 4학년은 73.4%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2, 3, 4학년에서는 휴학의 이유로 ‘취업 준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3학년이 27.1%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1학년은 ‘기타’의 응답이 1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없음’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휴학을 고려하는 이유로 ‘취업 준비’라고 응답하였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업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 학생들도 ‘학업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 휴학 고려 이유

<표 17> 휴학 고려 이유

구분		대학 적응 어려움	학업 어려움	전공 부적응	경제적 이유	해외 어학 연수	취업 준비	창업	타대학 입학/ 편입 준비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143 (2.7)	220 (4.2)	143 (2.7)	121 (2.3)	106 (2.0)	666 (12.6)	49 (0.9)	92 (1.7)	439 (8.3)	3,316 (62.6)	5,295 (100)
	여	87 (1.9)	227 (5)	180 (3.9)	108 (2.4)	176 (3.8)	1,043 (22.8)	23 (0.5)	79 (1.7)	157 (3.4)	2,501 (54.6)	4,581 (100)
학년	1학년	65 (2.7)	120 (5.0)	83 (3.4)	47 (1.9)	90 (3.7)	268 (11.1)	25 (1.0)	85 (3.5)	360 (14.9)	1,268 (52.6)	2,411 (100)
	2학년	61 (2.8)	138 (6.3)	107 (4.9)	58 (2.6)	96 (4.4)	385 (17.5)	14 (0.6)	54 (2.5)	114 (5.2)	1,174 (53.3)	2,201 (100)
	3학년	49 (1.9)	114 (4.5)	73 (2.9)	55 (2.2)	62 (2.4)	689 (27.1)	17 (0.7)	12 (0.5)	83 (3.3)	1,385 (54.5)	2,539 (100)
	4학년	51 (2.0)	64 (2.5)	54 (2.1)	60 (2.3)	29 (1.1)	355 (13.9)	15 (0.6)	18 (0.7)	35 (1.4)	1,880 (73.4)	2,561 (100)
	5학년	3 (2.0)	11 (7.4)	6 (4.0)	5 (3.4)	5 (3.4)	12 (8.1)	1 (0.7)	2 (1.3)	3 (2.0)	101 (67.8)	149 (100)
	기타	1 (6.7)	0 (0.0)	0 (0.0)	4 (26.7)	0 (0.0)	0 (0.0)	0 (0.0)	0 (0.0)	1 (6.7)	9 (60.0)	15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45 (4.0)	33 (2.9)	40 (3.6)	43 (3.8)	44 (3.9)	202 (18.0)	7 (0.6)	25 (2.2)	63 (5.6)	623 (55.4)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31 (3.0)	24 (2.3)	31 (3.0)	21 (2.0)	28 (2.7)	288 (28.0)	9 (0.9)	10 (1.0)	71 (6.9)	517 (50.2)	1,030 (100)
	경영 대학	14 (1.3)	41 (3.8)	40 (3.7)	18 (1.7)	33 (3.1)	268 (25.0)	11 (1.0)	15 (1.4)	49 (4.6)	584 (54.4)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22 (2.4)	40 (4.4)	29 (3.2)	26 (2.8)	21 (2.3)	118 (12.9)	11 (1.2)	25 (2.7)	60 (6.6)	564 (61.6)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3 (1.8)	24 (3.3)	20 (2.8)	11 (1.5)	21 (2.9)	15 (21.0)	8 (1.1)	9 (1.3)	40 (5.6)	421 (58.6)	718 (100)
	공과 대학	64 (1.9)	170 (5.1)	98 (2.9)	58 (1.7)	83 (2.5)	509 (15.1)	19 (0.6)	55 (1.6)	231 (6.9)	2,075 (61.7)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1 (2.6)	76 (9.3)	40 (4.9)	27 (3.3)	28 (3.4)	127 (15.6)	6 (0.7)	13 (1.6)	46 (5.6)	431 (52.9)	815 (100)
	예술 대학	12 (3.3)	10 (2.8)	12 (3.3)	18 (5.0)	11 (3.1)	27 (7.5)	0 (0.0)	12 (3.3)	15 (4.2)	242 (67.4)	359 (100)
	의과 대학	8 (1.7)	29 (6.3)	13 (2.8)	5 (1.1)	13 (2.8)	18 (3.9)	0 (0.0)	6 (1.3)	19 (4.1)	348 (75.8)	459 (100)
기타	0 (0.0)	0 (0.0)	0 (0.0)	2 (10.5)	0 (0.0)	1 (5.3)	1 (5.3)	1 (5.3)	2 (10.5)	12 (63.2)	19 (100)	
전체		230 (2.3)	447 (4.5)	323 (3.3)	229 (2.3)	282 (2.9)	1,709 (17.3)	72 (0.7)	171 (1.7)	596 (6.0)	5,817 (58.9)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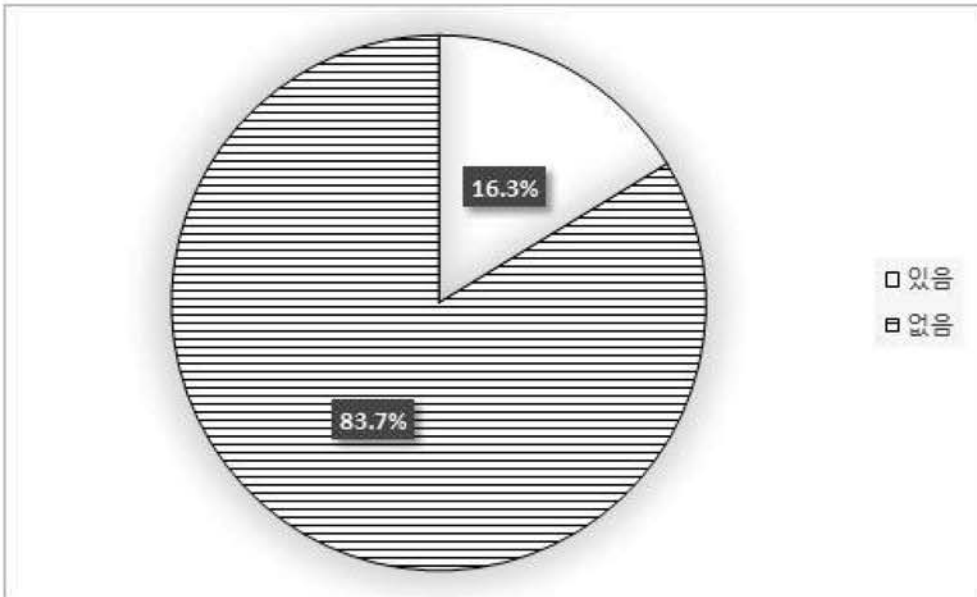
16) 편입 고려 여부

편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문항에서는 <표 18>과 같이 전체 인원 9,876명 중 ‘없음’이 8,264명(83.7%)으로 ‘있음’의 응답 1,612명(16.3%)보다 월등히 더 높아 편입을 고려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편입을 고려해 본 적이 ‘없음’의 응답이 각각 83.8%와 83.5%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 4, 5학년은 편입에 대한 생각이 ‘없음’이 91.2%, 90.5%, 91.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편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이 편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8.5%와 20.2%의 학생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편입을 고려해 본 적이 ‘없음’의 응답이 모든 단과대학에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이 22.7%, 인문대학이 22.5%, 예술대학이 20.6%로 타 단과대학보다 편입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4.4%로 가장 낮았다.



<그림 19> 편입 의사

<표 18> 편입 의사

구분		있음	없음	전체
성 별	남	857(16.2)	4,438(83.8)	5,295(100)
	여	755(16.5)	3,826(83.5)	4,581(100)
학 년	1학년	688(28.5)	1,723(71.5)	2,411(100)
	2학년	444(20.2)	1,757(79.8)	2,201(100)
	3학년	223(8.8)	2,316(91.2)	2,539(100)
	4학년	243(9.5)	2,318(90.5)	2,561(100)
	5학년	12(8.1)	137(91.9)	149(100)
	기타	2(13.3)	13(86.7)	15(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253(22.5)	872(77.5)	1,125(100)
	사회과학대학	144(14.0)	886(86.0)	1,030(100)
	경영대학	181(16.9)	892(83.1)	1,073(100)
	자연과학대학	208(22.7)	708(77.3)	916(100)
	생활과학대학	121(16.9)	597(83.1)	718(100)
	공과대학	474(14.1)	2,888(85.9)	3,362(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34(16.4)	681(83.6)	815(100)
	예술대학	74(20.6)	285(79.4)	359(100)
	의과대학	20(4.4)	439(95.6)	459(100)
	기타	3(15.8)	16(84.2)	19(100)
전체		1,612(16.3)	8,264(83.7)	9,87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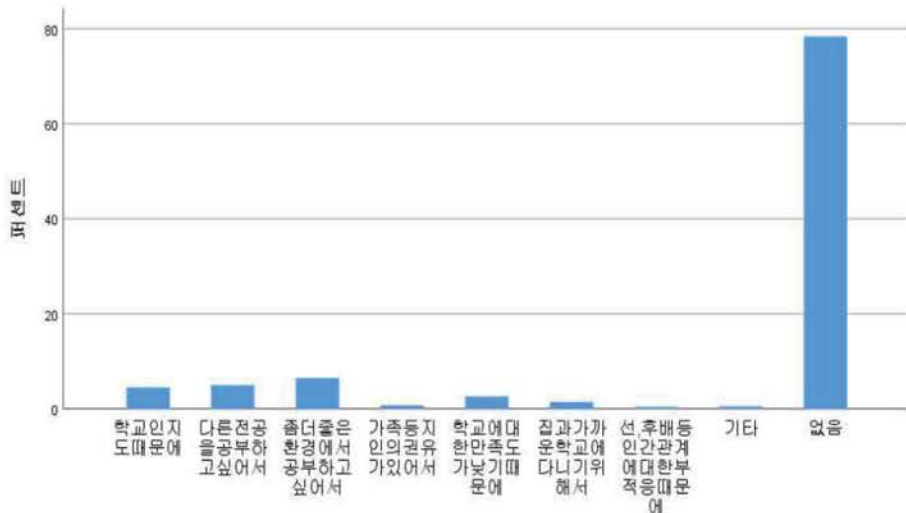
17) 편입 고려 이유

재학생들이 편입을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없음’ 항목이 7,738명(78.4%)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640명(6.5%),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 492명(5.0%), ‘학교 인지도 때문에’ 444명(4.5%)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225명(2.6%), ‘집과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143명(1.4%), ‘가족 등 지인의 권유가 있어서’ 72명(0.7%), ‘기타’ 53명(0.5%), ‘선, 후배 등 인간관계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39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없음’의 응답 다음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여학생은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 남학생은 ‘학교 인지도 때문에’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없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모든 학년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편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많은 단과대학에서 편입의 고려 이유로 ‘없음’ 항목을 제외했을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의 응답 비율이 모든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가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을 제외한 학과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위 세 단과대학은 ‘학교 인지도 때문에’ 편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의 응답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0> 편입 고려 이유

<표 19> 편입 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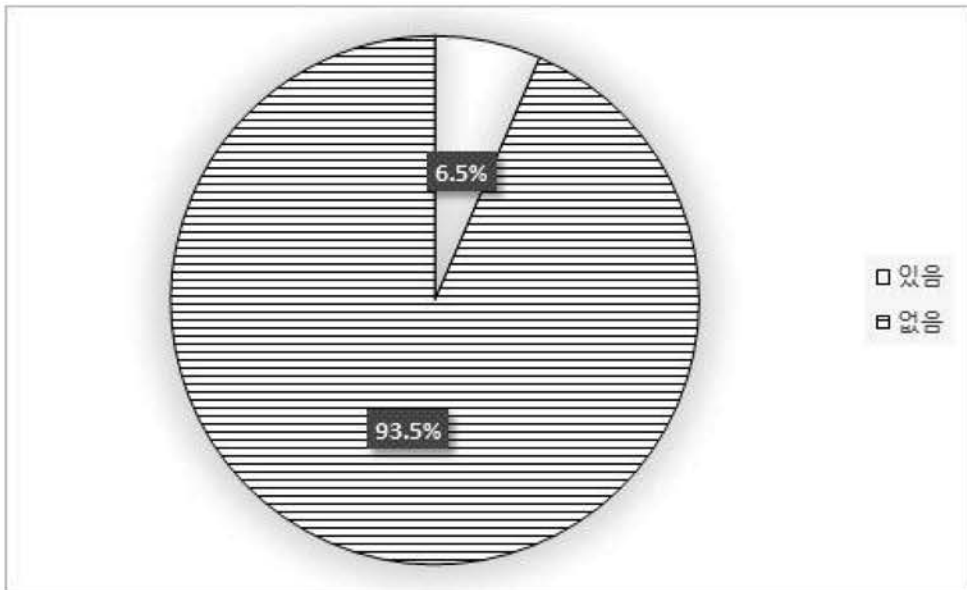
구분	학교 인지도 때문	다른 전공 공부 하고 싶어 서	더좋은 환경 에서 공부 하고 싶어 서	가족, 지인 의 권유	학교 만족 도 낮아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선,후배 등 인간 관계 부적응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276 (5.2)	243 (4.6)	329 (6.2)	40 (0.8)	140 (2.6)	91 (1.7)	25 (0.5)	30 (0.6)	4,121 (77.8)	5,295 (100)
	여	168 (3.7)	249 (5.4)	311 (6.8)	32 (0.7)	115 (2.5)	52 (1.1)	14 (0.3)	23 (0.5)	3,617 (79.0)	4,581 (100)
학년	1학년	135 (5.6)	173 (7.2)	255 (10.6)	26 (1.1)	85 (3.5)	81 (3.4)	16 (0.7)	12 (0.5)	1,628 (67.5)	2,411 (100)
	2학년	104 (4.7)	145 (6.6)	157 (7.1)	14 (0.6)	67 (3.0)	36 (1.6)	8 (0.4)	20 (0.9)	1,650 (75.0)	2,201 (100)
	3학년	97 (3.8)	66 (2.6)	105 (4.1)	16 (0.6)	41 (1.6)	10 (0.4)	7 (0.3)	10 (0.4)	2,187 (86.1)	2,539 (100)
	4학년	102 (4.0)	102 (4.0)	112 (4.4)	15 (0.6)	60 (2.3)	12 (0.5)	7 (0.3)	10 (0.4)	2,141 (83.6)	2,561 (100)
	5학년	6 (4.0)	5 (3.4)	10 (6.7)	0 (0.0)	1 (0.7)	3 (2.0)	1 (0.7)	1 (0.7)	122 (81.9)	149 (100)
	기타	0 (0.0)	1 (6.7)	1 (6.7)	1 (6.7)	1 (6.7)	1 (6.7)	0 (0.0)	0 (0.0)	10 (66.7)	15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60 (5.3)	87 (7.7)	92 (8.2)	8 (0.7)	32 (2.8)	18 (1.6)	2 (0.2)	4 (0.4)	822 (73.1)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48 (4.7)	55 (5.3)	56 (5.4)	8 (0.8)	17 (1.7)	12 (1.2)	5 (0.5)	8 (0.8)	821 (79.7)	1,030 (100)
	경영 대학	52 (4.8)	58 (5.4)	62 (5.8)	9 (0.8)	34 (3.2)	16 (1.5)	3 (0.3)	3 (0.3)	836 (77.9)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31 (3.4)	59 (6.4)	80 (8.7)	13 (1.4)	32 (3.5)	22 (2.4)	6 (0.7)	8 (0.9)	665 (72.6)	916 (100)
	생활과학 대학	23 (3.2)	34 (4.7)	47 (6.5)	10 (1.4)	24 (3.3)	11 (1.5)	3 (0.4)	4 (0.6)	562 (78.3)	718 (100)
	공과 대학	174 (5.2)	135 (4.0)	189 (5.6)	16 (0.5)	73 (2.2)	48 (1.4)	11 (0.3)	20 (0.6)	2,696 (80.2)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38 (4.7)	31 (3.8)	69 (8.5)	2 (0.2)	26 (3.2)	10 (1.2)	5 (0.6)	2 (0.2)	632 (77.5)	815 (100)
	예술 대학	7 (1.9)	26 (7.2)	33 (9.2)	3 (0.8)	10 (2.8)	5 (1.4)	0 (0.0)	3 (0.8)	272 (75.8)	359 (100)
	의과 대학	10 (2.2)	7 (1.5)	11 (2.4)	2 (0.4)	5 (1.1)	1 (0.2)	4 (0.9)	0 (0.0)	419 (91.3)	459 (100)
	기타	1 (5.3)	0 (0.0)	1 (5.3)	1 (5.3)	2 (10.5)	0 (0.0)	0 (0.0)	1 (5.3)	13 (68.4)	19 (100)
전체	444 (4.5)	492 (5.0)	640 (6.5)	72 (0.7)	255 (2.6)	143 (1.4)	39 (0.4)	53 (0.5)	7,738 (78.4)	9,876 (100)	

18) 자퇴 의사 유무

재학생 중 자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자퇴 의사가 '없음'의 응답이 9,234명 중 9,234명(93.5%)으로 '있음'의 응답은 642명(6.5%)으로 자퇴 의사가 없는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학년 모두 자퇴 의사가 '없음'이 현저히 높았으며, 1학년이 자퇴 의사가 '있음'에 10.0% 응답률로 타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3.6%로 자퇴 의사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자퇴 의사가 9.2%로 타 단과대학보다 가장 높았으며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은 자퇴 의사가 '있음'의 평균 6.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2.8%로 자퇴 의사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림 21> 자퇴 의사 유무

<표 20> 자퇴 의사 유무

구분		있음	없음	전체
성별	남	383(7.2)	4,912(92.8)	5,295(100)
	여	259(5.7)	4,322(94.3)	4,581(100)
학년	1학년	240(10.0)	2,171(90.0)	2,411(100)
	2학년	174(7.9)	2,027(92.1)	2,201(100)
	3학년	126(5.0)	2,413(95.0)	2,539(100)
	4학년	93(3.6)	2,468(96.4)	2,561(100)
	5학년	7(4.7)	142(95.3)	149(100)
	기타	2(13.3)	13(86.7)	15(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04(9.2)	1,021(90.8)	1,125(100)
	사회과학대학	72(7.0)	958(93.0)	1,030(100)
	경영대학	66(6.2)	1,007(93.8)	1,073(100)
	자연과학대학	71(7.8)	845(92.2)	916(100)
	생활과학대학	39(5.4)	679(94.6)	718(100)
	공과대학	195(5.8)	3,167(94.2)	3,362(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7(7.0)	758(93.0)	815(100)
	예술대학	24(6.7)	335(93.3)	359(100)
	의과대학	13(2.8)	446(97.2)	459(100)
	기타	1(5.3)	18(94.7)	19(100)
전체		642(6.5)	9,234(93.5)	9,87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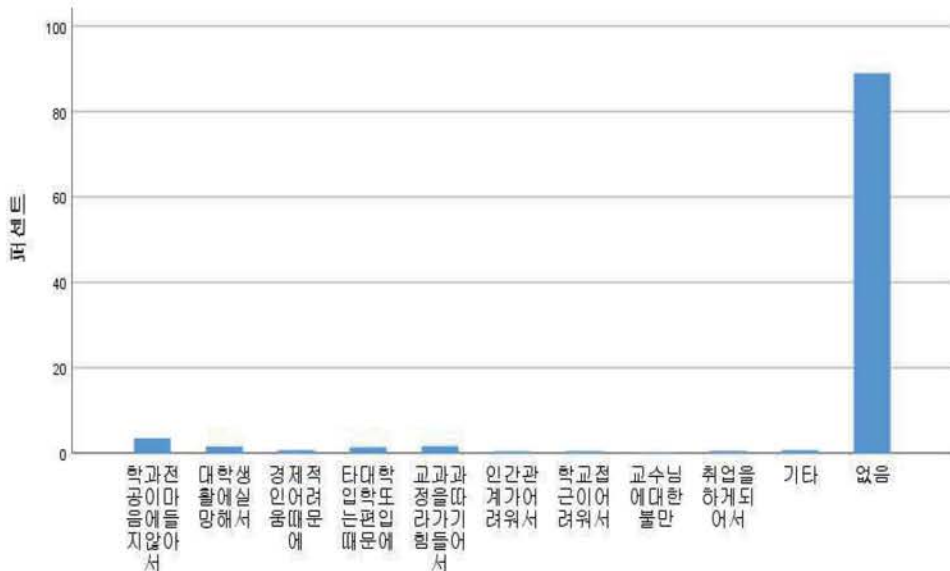
19) 자퇴 고려 이유

자퇴를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재학생 9,876명 중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8,784명(88.9%)으로 나타났고, ‘학과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44명(3.5%),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163명(1.7%), ‘대학 생활에 실망해서’ 153명(1.5%),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 때문에’ 139명(1.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69명(0.7%), ‘기타’ 70명(0.7%), ‘취업을 하게 돼서’ 48명(0.5%), ‘학교 접근이 어려워져서’ 47명(0.5%),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41명(0.4%), ‘교수님에 대한 불만’ 18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퇴를 고려한 이유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없음’이 87.6%, 90.5%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학과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학 생활에 실망해서’,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 때문에’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학년별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기타’, ‘없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 2, 3학년에서는 ‘학과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4, 5학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자퇴의 고려 이유로 ‘없음’ 항목을 제외했을 때, 모든 단과대학에서 ‘학과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자퇴 고려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인문대학, 사회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에서는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을 이유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고, 타 단과대학에서는 ‘대학 생활에 실망해서’를 자퇴 고려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림 22> 자퇴 고려 이유

<표 21> 자퇴 고려 이유

구분		학과 전공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학 생활 실망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	타대학 입학 또는 편입 때문	교과 과정 따라가기 힘들어서	인간 관계 어려워서	학교 접근 어려워서	교수님에 대한 불만	취업을 하게 되어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205 (3.9)	84 (1.6)	45 (0.8)	79 (1.5)	101 (1.9)	26 (0.5)	32 (0.6)	11 (0.2)	26 (0.5)	48 (0.9)	4,638 (87.6)	5,295 (100)
	여	139 (3.0)	69 (1.5)	24 (0.5)	60 (1.3)	62 (1.4)	15 (0.3)	15 (0.3)	7 (0.2)	22 (0.5)	22 (0.5)	4,146 (90.5)	4,581 (100)
학년	1학년	110 (4.6)	56 (2.3)	17 (0.7)	51 (2.1)	39 (1.6)	11 (0.5)	5 (0.2)	4 (0.2)	17 (0.7)	26 (1.1)	2,075 (86.1)	2,411 (100)
	2학년	92 (4.2)	33 (1.5)	16 (0.7)	34 (1.5)	43 (2.0)	7 (0.3)	9 (0.4)	5 (0.2)	9 (0.4)	19 (0.9)	1,934 (87.9)	2,201 (100)
	3학년	66 (2.6)	30 (1.2)	15 (0.6)	22 (0.9)	45 (1.8)	11 (0.4)	15 (0.6)	3 (0.1)	10 (0.4)	14 (0.6)	2,308 (90.9)	2,539 (100)
	4학년	72 (2.8)	32 (1.2)	15 (0.6)	28 (1.1)	33 (1.3)	11 (0.4)	16 (0.6)	5 (0.2)	10 (0.4)	11 (0.4)	2,328 (90.9)	2,561 (100)
	5학년	4 (2.7)	2 (1.3)	5 (3.4)	3 (2.0)	3 (2.0)	1 (0.7)	1 (0.7)	1 (0.7)	2 (1.3)	0 (0.0)	127 (85.2)	149 (100)
	기타	0 (0.0)	0 (0.0)	1 (6.7)	1 (6.7)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12 (80.0)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62 (5.5)	22 (2.0)	12 (1.1)	27 (2.4)	15 (1.3)	4 (0.4)	7 (0.6)	1 (0.1)	4 (0.4)	9 (0.8)	962 (85.5)
사회과학대학	39 (3.8)	18 (1.7)	5 (0.5)	19 (1.8)	6 (0.6)	4 (0.4)	8 (0.8)	3 (0.3)	10 (1.0)	11 (1.1)	907 (88.1)	1,030 (100)	
경영대학	31 (2.9)	19 (1.8)	3 (0.3)	23 (2.1)	16 (1.5)	3 (0.3)	6 (0.6)	1 (0.1)	9 (0.8)	5 (0.5)	957 (89.2)	1,073 (100)	
자연과학대학	30 (3.3)	16 (1.7)	13 (1.4)	15 (1.6)	10 (1.1)	8 (0.9)	4 (0.4)	1 (0.1)	5 (0.5)	4 (0.4)	810 (88.4)	916 (100)	
생활과학대학	19 (2.6)	8 (1.1)	3 (0.4)	11 (1.5)	8 (1.1)	3 (0.4)	5 (0.7)	1 (0.1)	3 (0.4)	3 (0.4)	654 (91.1)	718 (100)	
공과대학	118 (3.5)	39 (1.2)	24 (0.7)	31 (0.9)	75 (2.2)	12 (0.4)	13 (0.4)	3 (0.1)	9 (0.3)	27 (0.8)	3,011 (89.6)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5 (3.1)	23 (2.8)	4 (0.5)	6 (0.7)	20 (2.5)	5 (0.6)	1 (0.1)	5 (0.6)	5 (0.6)	5 (0.6)	716 (87.9)	815 (100)	
예술대학	10 (2.8)	4 (1.1)	4 (1.1)	3 (0.8)	6 (1.7)	2 (0.6)	0 (0.0)	3 (0.8)	2 (0.6)	5 (1.4)	320 (89.1)	359 (100)	
의과대학	10 (2.2)	3 (0.7)	1 (0.2)	3 (0.7)	6 (1.5)	0 (0.0)	1 (0.2)	0 (0.0)	1 (0.2)	1 (0.2)	433 (94.3)	459 (100)	
기타	0 (0.0)	1 (5.3)	0 (0.0)	1 (5.3)	1 (5.3)	0 (0.0)	2 (10.5)	14 (73.7)	19 (100)	0 (0.0)	14 (73.7)	19 (100)	
전체		344 (3.5)	153 (1.5)	69 (0.7)	139 (1.4)	163 (1.7)	41 (0.4)	47 (0.5)	18 (0.2)	48 (0.5)	70 (0.7)	8,784 (88.9)	9,876 (100)

3. 진로 및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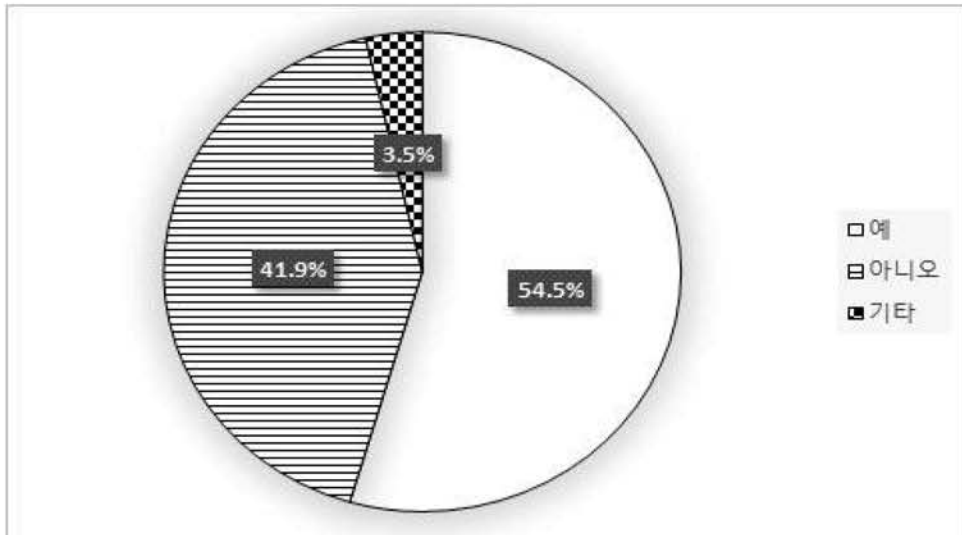
1)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유무

재학생 중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2>와 같다. 참여자 9,876명 중 5,422명(54.9%)이 ‘예(했음)’, 4,106명(41.6%)이 ‘아니오(안 했음)’, 348명(3.5%)은 ‘기타’로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이 이루어진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3,102명(58.6%)이 ‘예’ 2,009명(37.9%)이 ‘아니오’, 184명(3.5%)은 ‘기타’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2,320명(50.6%)이 ‘예’, 2,097명(45.8%)이 ‘아니오’, 164명(3.6%)이 ‘기타’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진로 선택/결정에 ‘예(했음)’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데 1학년 45.5%, 5학년 71.1%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에 ‘예’의 응답이 의과대학에서 89.1%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대학이 61.4%, 디자인·건축융합대학 57.7%, 공과대학 53.4%, 예술대학 50.4%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 중 인문대학이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문항에 ‘예’로 응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낮았다.



<그림 23>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 결정 유무

<표 22>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 유무

구분		예 (했음)	아니요 (안했음)	기타	전체
성 별	남	3,102(58.6)	2,009(37.9)	184(3.5)	5,295(100)
	여	2,320(50.6)	2,097(45.8)	164(3.6)	4,581(100)
학 년	1학년	1,096(45.5)	131(51.1)	84(3.5)	2,411(100)
	2학년	1,044(47.4)	1,072(48.7)	85(3.9)	2,201(100)
	3학년	1,414(55.7)	1,034(40.7)	91(3.6)	2,539(100)
	4학년	1,750(68.3)	733(28.6)	78(3.0)	2,561(100)
	5학년	16(71.1)	35(23.5)	8(5.4)	149(100)
	기타	12(80.0)	1(6.7)	2(13.3)	15(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528(46.9)	534(47.5)	63(5.6)	1,125(100)
	사회과학대학	632(61.4)	370(35.9)	28(2.7)	1,030(100)
	경영대학	517(48.2)	508(47.3)	48(4.5)	1,073(100)
	자연과학대학	517(56.4)	368(40.2)	31(3.4)	916(100)
	생활과학대학	370(51.5)	318(44.3)	30(4.2)	718(100)
	공과대학	1,796(53.4)	1,473(43.8)	93(2.8)	3,362(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70(57.7)	319(39.1)	26(3.2)	815(100)
	예술대학	181(50.4)	158(44.0)	20(5.6)	359(100)
	의과대학	409(89.1)	45(9.8)	5(1.1)	459(100)
	기타	2(10.5)	13(68.4)	4(21.1)	19(100)
전체		5,422(54.9)	4,106(41.6)	348(3.5)	9,87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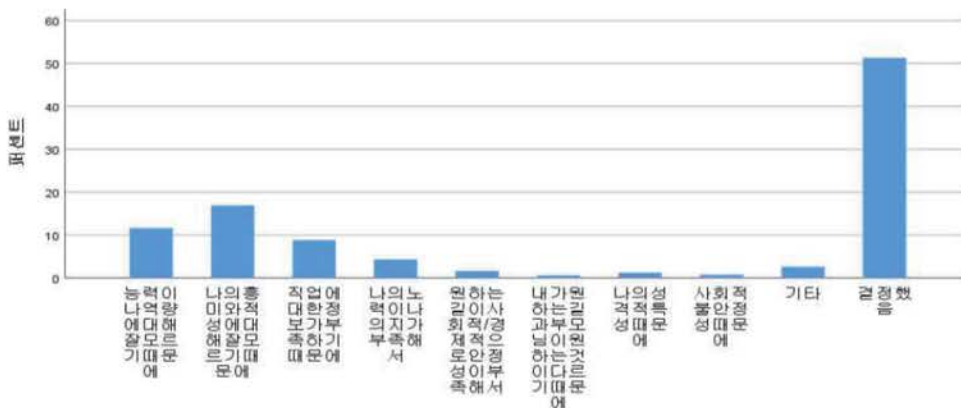
2) 진로 결정/ 선택하지 않은 이유

재학생 중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3>과 같다. 참여자 9,876명 중 5,068명(51.3%)이 ‘결정했음’으로 응답하였고 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 중 1,671명(16.9%)은 ‘나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1,149명(11.6%)은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73명(8.8%)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429명(4.3%)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259명(2.6%)은 ‘기타’, 163명(1.7%)은 ‘원하는 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성이 부족해서’, 124명(1.3%)은 ‘나의 성격적 특성 때문에’, 76명(0.8%)은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에’, 64명(0.6%)은 ‘내가 원하는 길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로 응답하였다.

성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54.4%, 여학생은 47.8% ‘결정했음’으로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결정 비율이 6.6% 높게 나타났다. 진로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나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와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결정했음’ 응답 비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며, 진로 결정/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학년이 ‘흥미와 적성’, ‘능력과 역량’, ‘직업 정보 부족’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흥미와 적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예술대학은 ‘능력과 역량’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의과대학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결정했음’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85.8%로 나타났다.



<그림 24> 진로 결정/선택하지 않은 이유

<표 23> 진로 결정/선택하지 않은 이유

구분		능력, 역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흥미, 적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나의 노력, 의지 부족	원하는 길의 사회·경제적 인정성 부족	원하는 길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 다름	성격 특성 때문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	기타	결정했음	전체
성별	남	536 (10.1)	803 (15.2)	450 (8.5)	250 (4.7)	66 (1.2)	41 (0.8)	78 (1.5)	43 (0.8)	150 (2.8)	2,878 (54.4)	5,295 (100)
	여	613 (13.5)	868 (18.9)	423 (9.2)	179 (3.9)	97 (2.1)	23 (0.5)	46 (1.0)	33 (0.7)	109 (2.4)	2,190 (47.8)	4,581 (100)
학년	1학년	347 (14.4)	518 (21.5)	248 (10.3)	113 (4.7)	36 (1.5)	17 (0.7)	38 (1.6)	17 (0.7)	70 (2.9)	1,007 (41.8)	2,411 (100)
	2학년	281 (12.8)	456 (20.7)	244 (11.1)	98 (4.5)	34 (1.5)	15 (0.7)	27 (1.2)	15 (0.7)	58 (2.6)	973 (44.2)	2,201 (100)
	3학년	294 (11.6)	401 (15.8)	227 (8.9)	103 (4.1)	48 (1.9)	13 (0.5)	27 (1.1)	19 (0.7)	59 (2.3)	1,348 (53.1)	2,539 (100)
	4학년	216 (8.4)	278 (10.9)	148 (5.8)	108 (4.2)	40 (1.6)	17 (0.7)	31 (1.2)	24 (0.9)	67 (2.6)	1,632 (63.7)	2,561 (100)
	5학년	11 (7.4)	18 (12.1)	4 (2.7)	7 (4.7)	5 (3.4)	1 (0.7)	0 (0.0)	0 (0.0)	4 (2.7)	97 (65.1)	149 (100)
	기타	0 (0.0)	0 (0.0)	2 (13.3)	0 (0.0)	0 (0.0)	1 (6.7)	0 (0.0)	0 (0.0)	1 (6.7)	11 (73.3)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65 (14.7)	202 (18.0)	87 (7.7)	70 (6.2)	39 (3.5)	13 (1.2)	19 (1.7)	9 (0.8)	40 (3.6)	481 (42.8)	1,125 (100)
	사회과학대학	102 (9.9)	171 (16.6)	49 (4.8)	44 (4.3)	17 (1.7)	8 (0.8)	18 (1.7)	10 (1.0)	28 (2.7)	583 (56.6)	1,030 (100)
	경영대학	154 (14.4)	220 (20.5)	82 (7.6)	56 (5.2)	12 (1.1)	6 (0.6)	9 (0.8)	16 (1.5)	30 (2.8)	488 (45.5)	1,073 (100)
	자연과학대학	90 (9.8)	169 (18.4)	92 (10.0)	46 (5.0)	15 (1.6)	5 (0.5)	9 (1.0)	5 (0.5)	20 (2.2)	465 (50.8)	916 (100)
	생활과학대학	81 (11.3)	136 (18.9)	78 (10.9)	27 (3.8)	13 (1.8)	6 (0.8)	10 (1.4)	6 (0.8)	16 (2.2)	345 (48.1)	718 (100)
	공과대학	381 (11.3)	602 (17.9)	367 (10.9)	131 (3.9)	27 (0.8)	19 (0.6)	38 (1.1)	20 (0.6)	79 (2.3)	1,698 (50.5)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11 (13.6)	106 (13.0)	68 (8.3)	33 (4.0)	12 (1.5)	6 (0.7)	10 (1.2)	5 (0.6)	24 (2.9)	440 (54.0)	815 (100)
	예술대학	47 (13.1)	39 (10.9)	34 (9.5)	18 (5.0)	22 (6.1)	1 (0.3)	8 (2.2)	4 (1.1)	16 (4.5)	170 (47.4)	359 (100)
	의과대학	15 (3.3)	25 (5.4)	14 (3.1)	2 (0.4)	4 (0.9)	0 (0.0)	3 (0.7)	1 (0.2)	1 (0.2)	394 (85.8)	459 (100)
	기타	3 (15.8)	1 (5.3)	2 (10.5)	2 (10.5)	2 (10.5)	0 (0.0)	0 (0.0)	0 (0.0)	5 (26.3)	4 (21.1)	19 (100)
전체	1,149 (11.6)	1,671 (16.9)	873 (8.8)	429 (4.3)	163 (1.7)	64 (0.6)	124 (1.3)	76 (0.8)	259 (2.6)	5,068 (51.3)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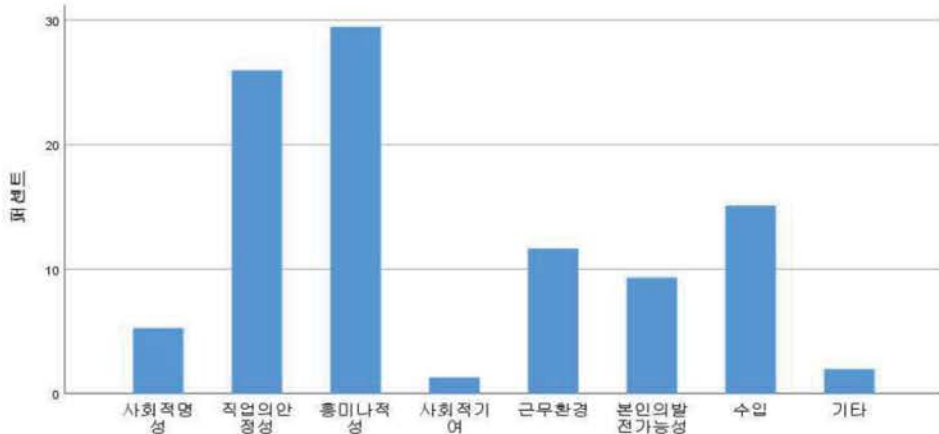
3)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의 설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흥미나 적성’ 이 2,910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의 안정성’ 2,565명(26.0%), ‘수입’ 1,491명(15.1%), ‘근무환경’ 1,151명(11.7%), ‘본인의 발전 가능성’ 919명(9.3%), ‘사회적 명성’ 519명(5.3%), ‘기타’ 193명(2.0%), ‘사회적 기여’ 128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흥미나 적성’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직업의 안정성’, ‘수입’, ‘근무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은 ‘흥미나 적성’ 과 ‘직업의 안정성’ 에 각각 32.8%와 29.5%의 응답률을 보여 남학생의 26.6%와 2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입’ 기준에서는 남학생이 17.4%로 여학생의 12.4%보다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에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와 적성과 흥미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학생은 경제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모든 학년에서 ‘흥미나 적성’, ‘직업의 안정성’, ‘수입’, ‘근무환경’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흥미나 적성’ 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은 ‘직업의 안정성’ 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생활과학대학, 인문대학은 ‘흥미나 적성’ 이 각각 45.1%, 38.4%, 36.8%, 33.6%로 평균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과대학과 경영대학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수입’ 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25>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표 24>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구분		사회적 명성	직업의 안정성	흥미, 적성	사회적 기여	근무 환경	발전 가능성	수입	기타	전체
성별	남	344 (6.5)	1,214 (22.9)	1,409 (26.6)	88 (1.7)	631 (11.9)	551 (10.4)	922 (17.4)	136 (2.6)	5,295 (100)
	여	175 (3.8)	1,351 (29.5)	1,501 (32.8)	40 (0.9)	520 (11.4)	368 (8.0)	569 (12.4)	57 (1.2)	4,581 (100)
학년	1학년	131 (5.4)	624 (25.9)	753 (31.2)	30 (1.2)	210 (8.7)	197 (8.2)	428 (17.8)	38 (1.6)	2,411 (100)
	2학년	108 (4.9)	589 (26.8)	711 (32.3)	33 (1.5)	220 (10.0)	184 (8.4)	319 (14.5)	37 (1.7)	2,201 (100)
	3학년	120 (4.7)	695 (27.4)	749 (29.5)	31 (1.2)	336 (13.2)	204 (8.0)	358 (14.1)	46 (1.8)	2,539 (100)
	4학년	154 (6.0)	622 (24.3)	652 (25.5)	30 (1.2)	367 (14.3)	314 (12.3)	361 (14.1)	61 (2.4)	2,561 (100)
	5학년	5 (3.4)	33 (22.1)	38 (25.5)	3 (2.0)	17 (11.4)	19 (12.8)	24 (16.1)	10 (6.7)	149 (100)
	기타	1 (6.7)	2 (13.3)	7 (46.7)	1 (6.7)	1 (6.7)	1 (6.7)	1 (6.7)	1 (6.7)	1 (6.7)
단과대학	인문 대학	80 (7.1)	290 (25.8)	378 (33.6)	13 (1.2)	117 (10.4)	94 (8.4)	121 (10.8)	32 (2.8)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54 (5.2)	329 (31.9)	311 (30.2)	30 (2.9)	122 (11.8)	61 (5.9)	107 (10.4)	16 (1.6)	1,030 (100)
	경영 대학	49 (4.6)	302 (28.1)	274 (25.5)	12 (1.1)	132 (12.3)	89 (8.3)	193 (18.0)	22 (2.1)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39 (4.3)	247 (27.0)	284 (31.0)	10 (1.1)	79 (8.6)	97 (10.6)	144 (15.7)	16 (1.7)	916 (100)
	생활과학 대학	31 (4.3)	181 (25.2)	264 (36.8)	10 (1.4)	74 (10.3)	57 (7.9)	90 (12.5)	11 (1.5)	718 (100)
	공과 대학	169 (5.0)	853 (25.4)	823 (24.5)	38 (1.1)	484 (14.4)	332 (9.9)	612 (18.2)	51 (1.5)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2 (6.4)	164 (20.1)	313 (38.4)	3 (0.4)	67 (8.2)	92 (11.3)	104 (12.8)	20 (2.5)	815 (100)
	예술 대학	18 (5.0)	75 (20.9)	162 (45.1)	2 (0.6)	19 (5.3)	44 (12.3)	28 (7.8)	11 (3.1)	359 (100)
	의과 대학	26 (5.7)	121 (26.4)	98 (21.4)	10 (2.2)	57 (12.4)	51 (11.1)	90 (19.6)	6 (1.3)	459 (100)
	기타	1 (5.3)	3 (15.8)	3 (15.8)	0 (0.0)	0 (0.0)	2 (10.5)	2 (10.5)	8 (42.1)	19 (100)
전체	519 (5.3)	2,565 (26.0)	2,910 (29.5)	128 (1.3)	1,151 (11.7)	919 (9.3)	1,491 (15.1)	193 (2.0)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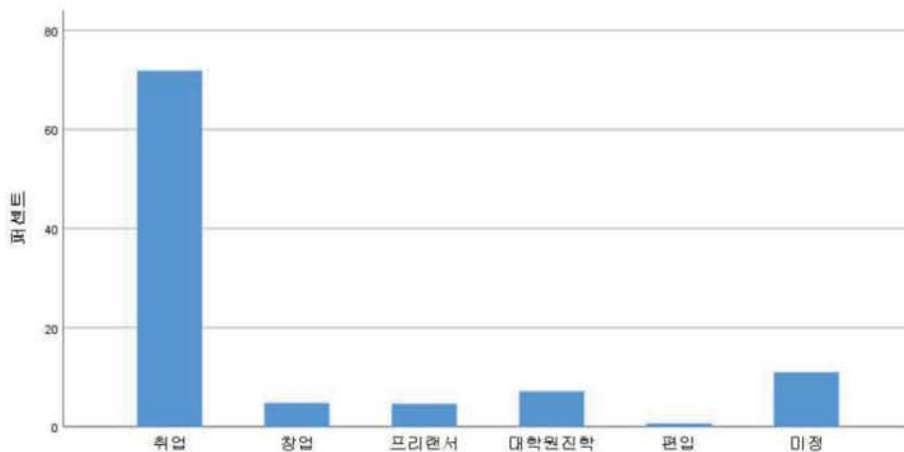
4) 졸업 후 희망 진로

재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7,096명(71.9%)이 졸업 후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미정’이 1,083명(11.0%)으로 그다음을 기록했다. ‘대학원진학’ 704명(7.1%), ‘창업’ 473명(4.8%), ‘프리랜서’ 456명(4.6%), ‘편입’ 64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각각 3,748명(70.8%), 3,348명(73.1%)으로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미정’ 각각 11%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원진학’은 동일하게 7.1%의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은 남학생 5.9%, 여학생 3.5%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 모두 ‘취업’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취업’에 대한 희망이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창업’은 1, 2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원진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희망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의과대학은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를 정하지 못한 ‘미정’의 응답에서는 예술대학이 17.3%로 가장 높았다. 예술대학은 희망하는 진로로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타 단과대학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대학원진학’과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진로에서는 예술대학이 각각 20.1% 17.8%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았다.



<그림 26> 졸업 후 희망 진로

<표 25> 졸업 후 희망 진로

구분		취업	창업	프리랜서	대학원진학	편입	미정	전체
성별	남	3,748 (70.8)	312 (5.9)	236 (4.5)	377 (7.1)	41 (0.8)	581 (11.0)	5,295 (100)
	여	3,348 (73.1)	161 (3.5)	220 (4.8)	327 (7.1)	23 (0.5)	502 (11.0)	4,581 (100)
학년	1학년	1,579 (65.5)	158 (6.6)	126 (5.2)	145 (6.0)	19 (0.8)	384 (15.9)	2,411 (100)
	2학년	1,567 (71.2)	110 (5.0)	99 (4.5)	150 (6.8)	14 (0.6)	261 (11.9)	2,201 (100)
	3학년	1,908 (75.1)	98 (3.9)	92 (3.6)	191 (7.5)	12 (0.5)	238 (9.4)	2,539 (100)
	4학년	1,922 (75.0)	101 (3.9)	126 (4.9)	210 (8.2)	17 (0.7)	185 (7.2)	2,561 (100)
	5학년	114 (76.5)	5 (3.4)	12 (8.1)	5 (3.4)	0 (0.0)	13 (8.7)	149 (100)
	기타	6 (40.0)	1 (6.7)	1 (6.7)	3 (20.0)	2 (13.3)	2 (13.3)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732 (65.1)	68 (6.0)	87 (7.7)	66 (5.9)	5 (0.4)	167 (14.8)	1,125 (100)
	사회과학대학	796 (77.3)	36 (3.5)	34 (3.3)	28 (2.7)	7 (0.7)	129 (12.5)	1,030 (100)
	경영대학	775 (72.2)	94 (8.8)	31 (2.9)	33 (3.1)	11 (1.0)	129 (12.0)	1,073 (100)
	자연과학대학	501 (54.7)	36 (3.9)	48 (5.2)	205 (22.4)	15 (1.6)	111 (12.1)	916 (100)
	생활과학대학	519 (72.3)	47 (6.5)	31 (4.3)	26 (3.6)	5 (0.7)	90 (12.5)	718 (100)
	공과대학	2,618 (77.9)	113 (3.4)	83 (2.5)	242 (7.2)	14 (0.4)	292 (8.7)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93 (72.8)	45 (5.5)	72 (8.8)	25 (3.1)	3 (0.4)	77 (9.4)	815 (100)
	예술대학	131 (36.5)	27 (7.5)	64 (17.8)	72 (20.1)	3 (0.8)	62 (17.3)	359 (100)
	의과대학	421 (91.7)	6 (1.3)	6 (1.3)	5 (1.1)	0 (0.0)	21 (4.6)	459 (100)
	기타	10 (52.6)	1 (5.3)	0 (0.0)	2 (10.5)	1 (5.3)	5 (26.3)	19 (100)
전체	7,096 (71.9)	473 (4.8)	456 (4.6)	704 (7.1)	64 (0.6)	1,083 (11.0)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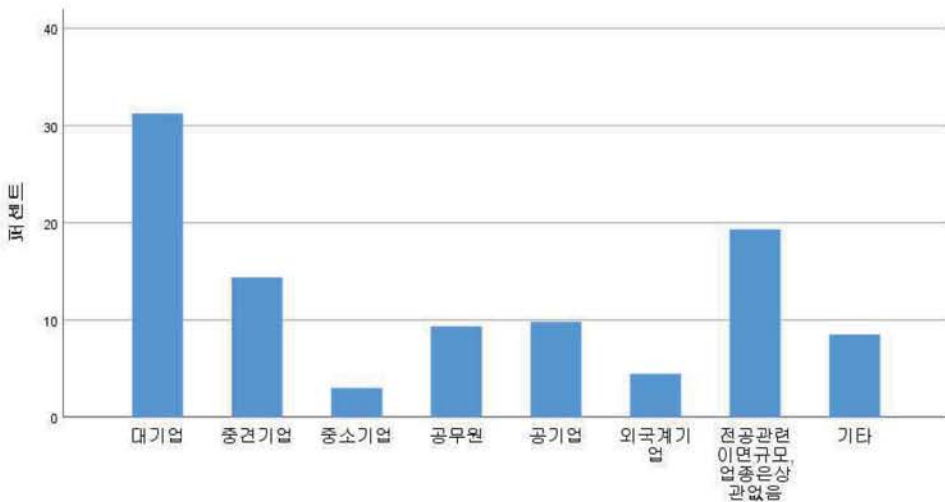
5) 취업 희망하는 기업 형태

재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3,085명(31.2%)은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907명(19.3%), ‘중견기업’ 1,420명(14.4%), ‘공기업’ 968명(9.8%), ‘공무원’ 921명(9.3%), ‘기타’ 840명(8.5%), ‘외국계 기업’ 439명(4.4%), ‘중소기업’ 296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기업’ 희망이 각각 35.6%, 26.2%,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6.0%, 23.2%, ‘중견기업’ 15.9%, 12.7%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남학생은 ‘공기업’ 이 9.9%, 여학생은 ‘공무원’ 이 11.4%의 응답을 하였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대기업’ 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중견기업’ 과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의 응답이 전 학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취업 희망 기업 형태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대기업’ 과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으로 나누어졌다. ‘대기업’ 을 희망하는 단과대학은 경영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이었으며, 특히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은 61.9%와 46.1%로 ‘대기업’ 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을 희망하는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으로 나타났는데 예술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이 52.1%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과학대학은 타 단과대학들과 다르게 ‘공무원’ 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38.3%로 나타났다.



<그림 27> 취업 희망하는 기업 형태

<표 26> 취업 희망하는 기업 형태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공기업	외국계기업	전공관련업종	기타	전체	
성별	남	1,887 (35.6)	840 (15.9)	155 (2.9)	401 (7.6)	525 (9.9)	187 (3.5)	845 (16.0)	455 (8.6)	5,295 (100)
	여	1,198 (26.2)	580 (12.7)	141 (3.1)	520 (11.4)	443 (9.7)	252 (5.5)	1,062 (23.2)	385 (8.4)	4,581 (100)
학년	1학년	836 (34.7)	233 (9.7)	77 (3.2)	190 (7.9)	219 (9.1)	133 (5.5)	500 (20.7)	223 (9.2)	2,411 (100)
	2학년	719 (32.7)	259 (11.8)	52 (2.4)	231 (10.5)	223 (10.1)	111 (5.0)	432 (19.6)	174 (7.9)	2,201 (100)
	3학년	718 (28.3)	450 (17.7)	67 (2.6)	263 (10.4)	267 (10.5)	99 (3.9)	472 (18.6)	203 (8.0)	2,539 (100)
	4학년	783 (30.6)	446 (17.4)	88 (3.4)	222 (8.7)	243 (9.5)	88 (3.4)	473 (18.5)	218 (8.5)	2,561 (100)
	5학년	27 (18.1)	32 (21.5)	11 (7.4)	15 (10.1)	14 (9.4)	6 (4.0)	25 (16.8)	19 (12.8)	149 (100)
	기타	2 (13.3)	0 (0.0)	1 (6.7)	0 (0.0)	2 (13.3)	2 (13.3)	5 (33.3)	3 (20.0)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91 (17.0)	131 (11.6)	47 (4.2)	148 (13.2)	84 (7.5)	142 (12.6)	236 (21.0)	146 (13.0)	1,125 (100)
	사회과학대학	116 (11.3)	79 (7.7)	31 (3.0)	394 (38.3)	130 (12.6)	32 (3.1)	156 (15.1)	92 (8.9)	1,030 (100)
	경영대학	244 (22.7)	225 (21.0)	48 (4.5)	71 (6.6)	160 (14.9)	44 (4.1)	158 (14.7)	123 (11.5)	1,073 (100)
	자연과학대학	225 (24.6)	140 (15.3)	34 (3.7)	69 (7.5)	85 (9.3)	37 (4.0)	243 (26.5)	83 (9.1)	916 (100)
	생활과학대학	158 (22.0)	81 (11.3)	24 (3.3)	72 (10.0)	57 (7.9)	27 (3.8)	242 (33.7)	57 (7.9)	718 (100)
	공과대학	1,550 (46.1)	600 (17.8)	58 (1.7)	117 (3.5)	395 (11.7)	103 (3.1)	385 (11.5)	154 (4.6)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59 (31.8)	130 (16.0)	48 (5.9)	32 (3.9)	43 (5.3)	28 (3.4)	218 (26.7)	57 (7.0)	815 (100)
	예술대학	52 (14.5)	23 (6.4)	4 (1.1)	11 (3.1)	7 (1.9)	18 (5.0)	187 (52.1)	57 (15.9)	359 (100)
	의과대학	284 (61.9)	11 (2.4)	2 (0.4)	6 (1.3)	7 (1.5)	6 (1.3)	79 (17.2)	64 (13.9)	459 (100)
기타	6 (31.6)	0 (0.0)	0 (0.0)	1 (5.3)	0 (0.0)	2 (10.5)	3 (15.8)	7 (36.8)	19 (100)	
전체	3,085 (31.2)	1,420 (14.4)	296 (3.0)	921 (9.3)	968 (9.8)	439 (4.4)	1,907 (19.3)	840 (8.5)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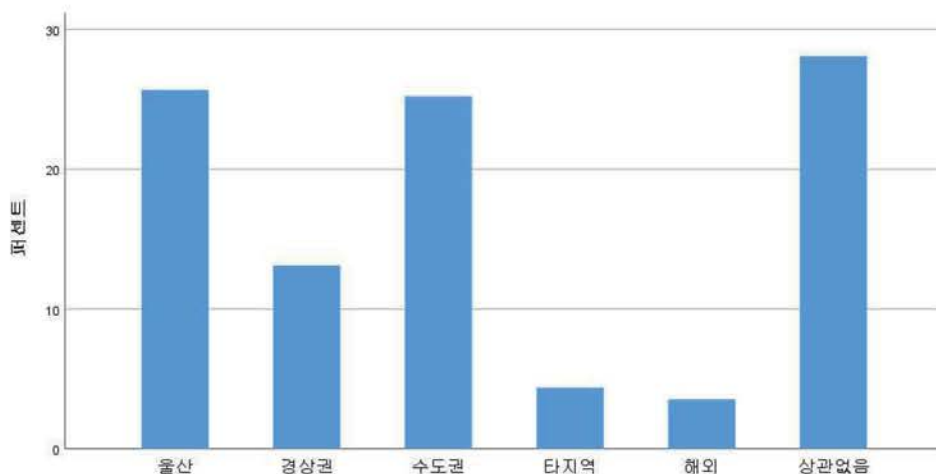
6)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재학생들이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2,774명(28.1%)은 취업 희망 지역으로 어디든 ‘상관없음’ 이라고 응답하였고, ‘울산’ 2,536명(25.7%), ‘수도권’ 2,490명(25.2%), ‘경상권’ 1,295명(13.1%), ‘타지역’ 432명(4.4%), ‘해외’ 349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상관없음’ 30.1%, ‘울산’ 28.6%, ‘수도권’ 21.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수도권’ 30.1%, ‘상관없음’ 25.8%, ‘울산’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수도권 취업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학년은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으로 ‘상관없음’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은 ‘울산’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도권에서의 취업 희망은 줄어들고 있고, 경상권의 취업 희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을 비교해보면 의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수도권’ 지역 희망이 가장 높았고, 그중 의과대학이 7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은 ‘울산’ 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은 ‘상관없음’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표 27>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구분		울산	경상권	수도권	타 지역	해외	상관 없음	전체
성 별	남	1,517 (28.6)	723 (13.7)	1,110 (21.0)	203 (3.8)	148 (2.8)	1,594 (30.1)	5,295 (100)
	여	1,019 (22.2)	572 (12.5)	1,380 (30.1)	229 (5.0)	201 (4.4)	1,180 (25.8)	4,581 (100)
학 년	1학년	480 (19.9)	262 (10.9)	703 (29.2)	115 (4.8)	104 (4.3)	747 (31.0)	2,411 (100)
	2학년	496 (22.5)	295 (13.4)	590 (26.8)	112 (5.1)	85 (3.9)	623 (28.3)	2,201 (100)
	3학년	734 (28.9)	367 (14.5)	582 (22.9)	95 (3.7)	74 (2.9)	687 (27.1)	2,539 (100)
	4학년	782 (30.5)	345 (13.5)	565 (22.1)	104 (4.1)	77 (3.0)	688 (26.9)	2,561 (100)
	5학년	41 (27.5)	23 (15.4)	48 (32.2)	6 (4.0)	6 (4.0)	25 (16.8)	149 (100)
	기타	3 (20.0)	3 (20.0)	2 (13.3)	0 (0.0)	3 (20.0)	4 (26.7)	15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253 (22.5)	130 (11.6)	233 (20.7)	52 (4.6)	101 (9.0)	356 (31.6)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361 (35.0)	201 (19.5)	154 (15.0)	61 (5.9)	24 (2.3)	229 (22.2)	1,030 (100)
	경영 대학	369 (34.4)	144 (13.4)	189 (17.6)	42 (3.9)	24 (2.2)	305 (28.4)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207 (22.6)	111 (12.1)	219 (23.9)	53 (5.8)	27 (2.9)	299 (32.6)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88 (26.2)	112 (15.6)	191 (26.6)	41 (5.7)	22 (3.1)	164 (22.8)	718 (100)
	공과 대학	968 (28.8)	444 (13.2)	712 (21.2)	122 (3.6)	73 (2.2)	1,043 (31.0)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97 (11.9)	92 (11.3)	359 (44.0)	35 (4.3)	46 (5.6)	186 (22.8)	815 (100)
	예술 대학	57 (15.9)	43 (12.0)	75 (20.9)	18 (5.0)	27 (7.5)	139 (38.7)	359 (100)
	의과 대학	31 (6.8)	17 (3.7)	355 (77.3)	7 (1.5)	4 (0.9)	45 (9.8)	459 (100)
기타	5 (26.3)	1 (5.3)	3 (15.8)	1 (5.3)	1 (5.3)	8 (42.1)	19 (100)	
전체	2,536 (25.7)	1,295 (13.1)	2,490 (25.2)	432 (4.4)	349 (3.5)	2,774 (28.1)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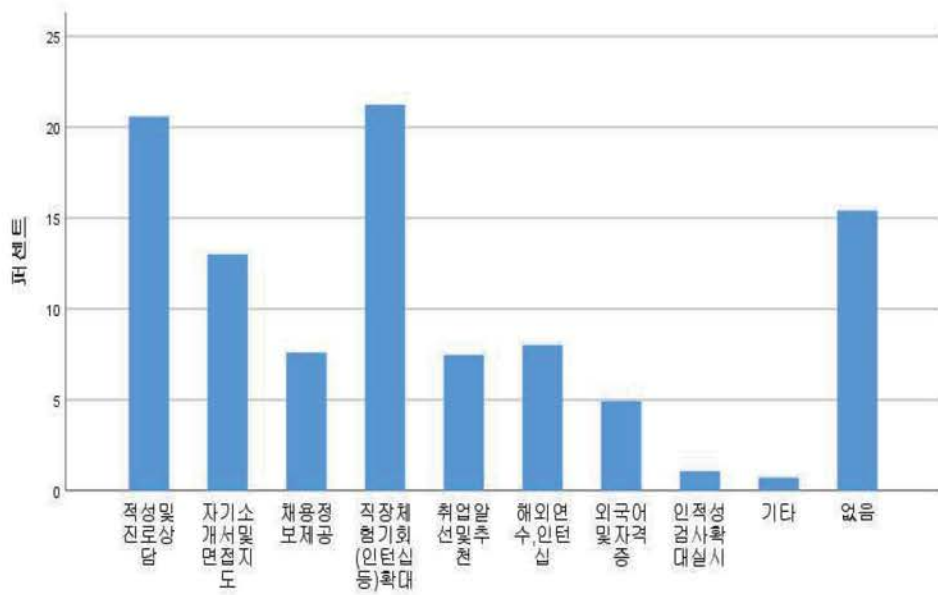
7)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 2,096명(21.2%), ‘적성 및 진로상담’ 이 2,032명(20.6%), ‘없음’ 1,522명(15.4%),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1,284명(13.0%), ‘해외연수·인턴십’ 791명(8.0%), ‘채용정보 제공’ 750명(7.6%) ‘취업알선 및 추천’ 738명(7.5%), ‘외국어 및 자격증’ 486명(4.9%), ‘인적성 검사 확대 실시’ 106명(1.1%), ‘기타’ 7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서비스가 다양했으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15.4%)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적성 및 진로상담’ 이 22.8%로 진로·취업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 확대’를 24.5%로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에서 여학생은 14.6%로 남학생의 11.6%보다 높은 요구를 보임으로 여학생들이 자기소개와 면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경우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연수, 인턴십’에서 여학생은 10.3%, 남학생은 6.0%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없음’에 남학생이 19.3%로 여학생의 10.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역시, 모든 학년에서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 확대’와 ‘적성 및 진로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경험을 중시하는 등 능력 중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이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재학 중 직무 경험 기회를 넓혀나가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4학년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에 대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15.0%로 나타나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에서 ‘적성 및 진로상담’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은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를 39.2%, ‘적성 및 진로상담’을 11.1% 희망하였으며, 예술대학은 ‘없음’에 25.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적성 및 진로상담’을 18.4% 희망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적성 및 진로상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로심리상담센터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림 29>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받기 희망하는 서비스

<표 28>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

구분		적성 및 진로 상담	자기 소개서 및 면접 지도	채용 정보 제공	직장 체험 기회 확대	취업 알선 및 추천	해외 연수, 인턴십	외국어 및 자격증	인적성 검사 확대 실시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1,208 (22.8)	616 (11.6)	412 (7.8)	972 (18.4)	386 (7.3)	320 (6.0)	271 (5.1)	45 (0.8)	42 (0.8)	1,023 (19.3)	5,295 (100)
	여	824 (18.0)	668 (14.6)	338 (7.4)	1,124 (24.5)	352 (7.7)	471 (10.3)	215 (4.7)	61 (1.3)	29 (0.6)	499 (10.9)	4,581 (100)
학년	1학년	568 (23.6)	250 (10.4)	159 (6.6)	468 (19.4)	129 (5.4)	245 (10.2)	132 (5.5)	25 (1.0)	16 (0.7)	419 (17.4)	2,411 (100)
	2학년	496 (22.5)	275 (12.5)	176 (8.0)	495 (22.5)	127 (5.8)	196 (8.9)	102 (4.6)	21 (1.0)	16 (0.7)	297 (13.5)	2,201 (100)
	3학년	500 (19.7)	355 (14)	182 (7.2)	606 (23.9)	202 (8.0)	200 (7.9)	121 (4.8)	22 (0.9)	18 (0.7)	333 (13.1)	2,539 (100)
	4학년	434 (16.9)	385 (15.0)	215 (8.4)	503 (19.6)	271 (10.6)	140 (5.5)	126 (4.9)	35 (1.4)	20 (0.8)	432 (16.9)	2,561 (100)
	5학년	32 (21.5)	19 (12.8)	18 (12.1)	22 (14.8)	9 (6.0)	9 (6.0)	4 (2.7)	3 (2.0)	0 (0.0)	33 (22.1)	149 (100)
	기타	2 (13.3)	0 (0.0)	0 (0.0)	2 (13.3)	0 (0.0)	1 (6.7)	1 (6.7)	0 (0.0)	1 (6.7)	8 (53.3)	15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244 (21.7)	101 (9.0)	85 (7.6)	223 (19.8)	77 (6.8)	129 (11.5)	68 (6.0)	15 (1.3)	10 (0.9)	173 (15.4)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222 (21.6)	130 (12.6)	83 (8.1)	219 (21.3)	84 (8.2)	51 (5.0)	64 (6.2)	12 (1.2)	7 (0.7)	158 (15.3)	1,030 (100)
	경영 대학	200 (18.6)	126 (11.7)	87 (8.1)	242 (22.6)	90 (8.4)	67 (6.2)	70 (6.5)	16 (1.5)	8 (0.7)	167 (15.6)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187 (20.4)	98 (10.7)	69 (7.5)	186 (20.3)	73 (8.0)	70 (7.6)	45 (4.9)	17 (1.9)	7 (0.8)	164 (17.9)	916 (100)
	생활과학 대학	174 (24.2)	102 (14.2)	54 (7.5)	167 (23.3)	58 (8.1)	45 (6.3)	28 (3.9)	6 (0.8)	5 (0.7)	79 (11.0)	718 (100)
	공과 대학	707 (21.0)	414 (12.3)	260 (7.7)	76 (23.7)	253 (7.5)	269 (8.0)	143 (4.3)	24 (0.7)	17 (0.5)	479 (14.2)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77 (21.7)	97 (11.9)	59 (7.2)	171 (21.0)	60 (7.4)	81 (9.9)	26 (3.2)	5 (0.6)	7 (0.9)	132 (16.2)	815 (100)
	예술 대학	66 (18.4)	35 (9.7)	30 (8.4)	51 (14.2)	27 (7.5)	32 (8.9)	15 (4.2)	5 (1.4)	7 (1.9)	91 (25.3)	359 (100)
	의과 대학	51 (11.1)	180 (39.2)	23 (5.0)	39 (8.5)	12 (2.6)	47 (10.2)	27 (5.9)	6 (1.3)	3 (0.7)	71 (15.5)	459 (100)
	기타	4 (21.1)	1 (5.3)	0 (0.0)	2 (10.5)	4 (21.1)	0 (0.0)	0 (0.0)	0 (0.0)	0 (0.0)	8 (42.1)	19 (100)
전체		2,032 (20.6)	1,284 (13.0)	750 (7.6)	2,096 (21.2)	738 (7.5)	791 (8.0)	486 (4.9)	106 (1.1)	71 (0.7)	1,522 (15.4)	9,876 (100)

4.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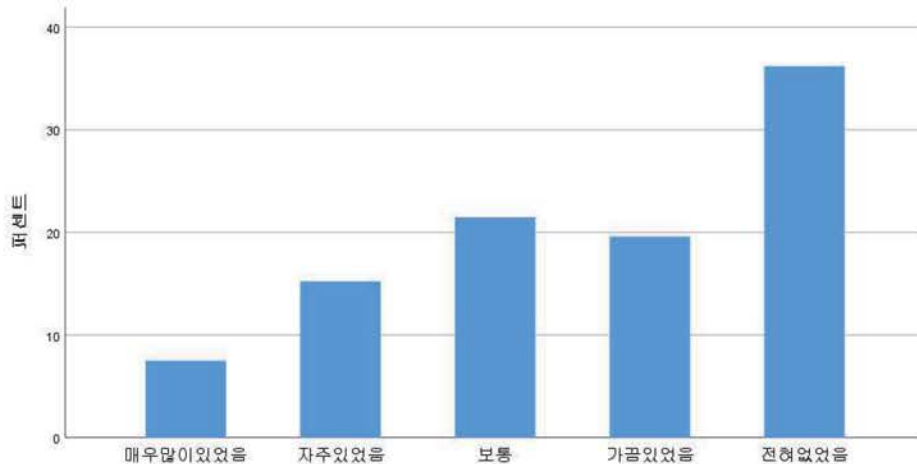
1)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의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9>와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3,575명(36.2%)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으며, 2,121명(21.5%)은 ‘보통’으로, 1,935명(19.6%)은 ‘가끔 있었음’, 1,505명(15.2%)은 ‘자주 있었음’, 740명(7.5%)은 ‘매우 많이 있었음’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학생 중 63.8%는 최근 3개월간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 22.7%의 학생은 잦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25.2%)의 불안 정도가 남학생(20.7%)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있었음’부터 ‘매우 많이 있었음’의 응답 빈도가 남학생보다 높아 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학년별로는 ‘전혀 없었음’, ‘가끔 있었음’에 응답한 비율은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주 있었음’, ‘매우 많이 있었음’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4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와 졸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 40.3%, 자연과학대학 39.7%이었으며, 반대로 ‘자주 있었음’과 ‘매우 많이 있었음’의 응답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29.5%로 가장 높은 불안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문대학과 예술대학이 24.8%로 많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표 29>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구분		매우 많이 있었음	자주 있었음	보통	가끔 있었음	전혀 없었음	전체
성별	남	369 (7.0)	723 (13.7)	1,087 (20.5)	937 (17.7)	2,179 (41.2)	5,295 (100)
	여	371 (8.1)	782 (17.1)	1,034 (22.6)	998 (21.8)	1,396 (30.5)	4,581 (100)
학년	1학년	140 (5.8)	299 (12.4)	524 (21.7)	500 (20.7)	948 (39.3)	2,411 (100)
	2학년	164 (7.5)	341 (15.5)	480 (21.8)	423 (19.2)	793 (36.0)	2,201 (100)
	3학년	197 (7.8)	411 (16.2)	559 (22.0)	483 (19.0)	889 (35.0)	2,539 (100)
	4학년	224 (8.7)	435 (17.0)	528 (20.6)	503 (19.6)	871 (34.0)	2,561 (100)
	5학년	12 (8.1)	19 (12.8)	27 (18.1)	24 (16.1)	67 (45.0)	149 (100)
	기타	3 (20.0)	0 (0.0)	3 (20.0)	2 (13.3)	7 (46.7)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02 (9.1)	177 (15.7)	234 (20.8)	239 (21.2)	373 (33.2)	1,125 (100)
	사회과학대학	69 (6.7)	134 (13.0)	214 (20.8)	198 (19.2)	415 (40.3)	1,030 (100)
	경영대학	65 (6.1)	158 (14.7)	249 (23.2)	203 (18.9)	398 (37.1)	1,073 (100)
	자연과학대학	67 (7.3)	124 (13.5)	187 (20.4)	174 (19.0)	364 (39.7)	916 (100)
	생활과학대학	45 (6.3)	104 (14.5)	166 (23.1)	158 (22.0)	245 (34.1)	718 (100)
	공과대학	234 (7.0)	529 (15.7)	729 (21.7)	623 (18.5)	1,247 (37.1)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95 (11.7)	14 (17.8)	172 (21.1)	144 (17.7)	259 (31.8)	815 (100)
	예술대학	31 (8.6)	58 (16.2)	79 (22.0)	78 (21.7)	113 (31.5)	359 (100)
	의과대학	29 (6.3)	74 (16.1)	87 (19.0)	117 (25.5)	152 (33.1)	459 (100)
	기타	3 (15.8)	2 (10.5)	4 (21.1)	1 (5.3)	9 (47.4)	19 (100)
전체		740 (7.5)	1,505 (15.2)	2,121 (21.5)	1,935 (19.6)	3,575 (36.2)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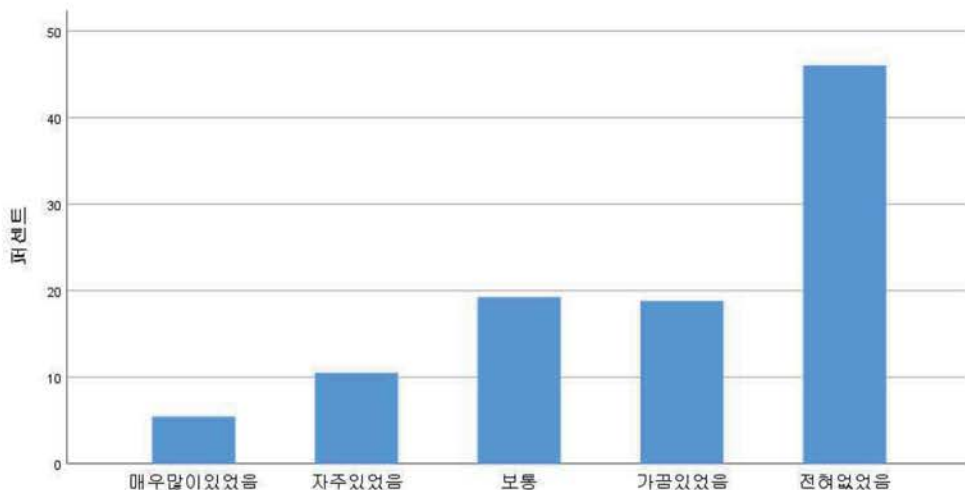
2)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의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0>과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4,546명(46%)은 ‘전혀 없었음’, 1,900명(19.2%)은 ‘보통’, 1,858명(18.8%)은 ‘가끔 있었음’, 1,035명(10.5%)은 ‘자주 있었음’, 537명(5.4%)은 ‘매우 많이 있었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 재학생 중 54%는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20.5%의 학생은 잦은 우울/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우울/무기력경험이 ‘전혀 없었음’으로 응답한 남학생 52.8%보다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음’의 응답이 38.2%로 남학생보다 월등히 우울/무기력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음’은 전체학년 평균 47.7%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우울/무기력 경험도 전 학년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우울/무기력의 경험이 ‘전혀 없었음’의 응답 비율이 49.8%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3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이 있었음’과 ‘자주 있었음’에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23.3%, 예술대학이 20.4%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우울/무기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작을 필요로 하는 단과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1> 최근 3개월 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표 30>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구분		매우 많이 있었음	자주 있었음	보통	가끔 있었음	전혀 없었음	전체
성별	남	271 (5.1)	447 (8.4)	919 (17.4)	861 (16.3)	2,797 (52.8)	5,295 (100)
	여	266 (5.8)	588 (12.8)	981 (21.4)	997 (21.8)	1,749 (38.2)	4,581 (100)
학년	1학년	114 (4.7)	234 (9.7)	435 (18.0)	462 (19.2)	1,166 (48.4)	2,411 (100)
	2학년	122 (5.5)	242 (11.0)	409 (18.6)	419 (19.0)	1,009 (45.8)	2,201 (100)
	3학년	140 (5.5)	262 (10.3)	520 (20.5)	480 (18.9)	1,137 (44.8)	2,539 (100)
	4학년	154 (6.0)	276 (10.8)	509 (19.9)	469 (18.3)	1,153 (45.0)	2,561 (100)
	5학년	6 (4.0)	20 (13.4)	25 (16.8)	25 (16.8)	73 (49.0)	149 (100)
	기타	1 (6.7)	1 (6.7)	2 (13.3)	3 (20.0)	8 (53.3)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84 (7.5)	122 (10.8)	209 (18.6)	222 (19.7)	488 (43.4)	1,125 (100)
	사회과학대학	52 (5.0)	94 (9.1)	199 (19.3)	188 (18.3)	497 (48.3)	1,030 (100)
	경영대학	45 (4.2)	96 (8.9)	227 (21.2)	211 (19.7)	494 (46.0)	1,073 (100)
	자연과학대학	52 (5.7)	88 (9.6)	166 (18.1)	155 (16.9)	455 (49.7)	916 (100)
	생활과학대학	37 (5.2)	68 (9.5)	148 (20.6)	158 (22.0)	307 (42.8)	718 (100)
	공과대학	148 (4.4)	366 (10.0)	641 (19.1)	564 (16.8)	1,673 (49.8)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72 (8.8)	118 (14.5)	159 (19.5)	161 (19.8)	305 (37.4)	815 (100)
	예술대학	25 (7.0)	48 (13.4)	66 (18.4)	79 (22.0)	141 (39.3)	359 (100)
	의과대학	21 (4.6)	64 (13.9)	80 (17.4)	119 (25.9)	175 (38.1)	459 (100)
	기타	1 (5.3)	1 (5.3)	5 (26.3)	1 (5.3)	11 (57.9)	19 (100)
전체		537 (5.4)	1,035 (10.5)	1,900 (19.2)	1,858 (18.8)	4,546 (46.0)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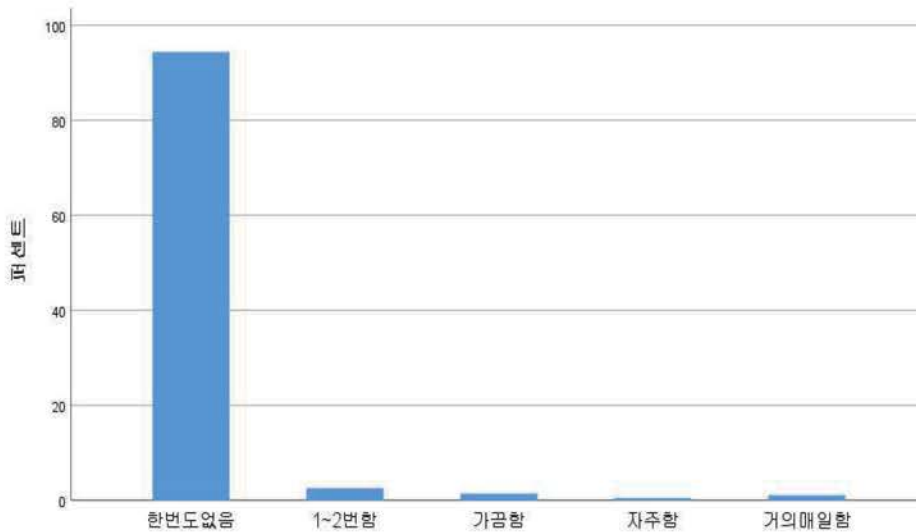
3)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이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1>과 같다. 전체 응답자 9,876명 중 ‘한 번도 없음’ 9,321명(94.4%), ‘1~2번 함’ 256명(2.6%), ‘가끔 함’ 142명(1.4%), ‘거의 매일 함’ 108명(1.1%), ‘자주 함’ 49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대부분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전혀 없지만,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를 경험한 학생이 555명(5.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비율이지만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서는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남학생이 95.4%, 여학생의 93.1%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자살 사고 경험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음’으로 평균 90.6%가 응답하였다. 4학년은 ‘자주 함’과 ‘거의 매일 함’의 응답 비율이 다른 학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단과대학별로 92.4%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지만, 자살 사고 경험을 ‘자주 함’과 ‘거의 매일 함’에 대한 응답 비율도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32>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표 31>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

구분		한 번도 없음	1~2번 함	가끔함	자주함	거의 매일 함	전체
성별	남	5,054 (95.4)	95 (1.8)	60 (1.1)	23 (0.4)	63 (1.2)	5,295 (100)
	여	4,267 (93.1)	161 (3.5)	82 (1.8)	26 (0.6)	45 (1.0)	4,581 (100)
학년	1학년	2,292 (95.1)	53 (2.2)	29 (1.2)	14 (0.6)	23 (1.0)	2,411 (100)
	2학년	2,075 (94.3)	58 (2.6)	37 (1.7)	8 (0.4)	23 (1.0)	2,201 (100)
	3학년	2,417 (95.2)	47 (1.9)	35 (1.4)	9 (0.4)	31 (1.2)	2,539 (100)
	4학년	2,388 (93.2)	93 (3.6)	34 (1.3)	17 (0.7)	29 (1.1)	2,561 (100)
	5학년	138 (92.6)	4 (2.7)	6 (4.0)	0 (0.0)	1 (0.7)	149 (100)
	기타	11 (73.3)	1 (6.7)	1 (6.7)	1 (6.7)	1 (6.7)	15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040 (92.4)	44 (3.9)	20 (1.8)	10 (0.9)	11 (1.0)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960 (93.2)	33 (3.2)	16 (1.6)	2 (0.2)	19 (1.8)	1,030 (100)
	경영 대학	1,018 (94.9)	23 (2.1)	17 (1.6)	6 (0.6)	9 (0.8)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863 (94.2)	22 (2.4)	15 (1.6)	6 (0.7)	10 (1.1)	916 (100)
	생활과학 대학	686 (95.5)	13 (1.8)	5 (0.7)	4 (0.6)	10 (1.4)	718 (100)
	공과 대학	3,217 (95.7)	65 (1.9)	38 (1.1)	13 (0.4)	29 (0.9)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59 (93.1)	27 (3.3)	14 (1.7)	5 (0.6)	10 (1.2)	815 (100)
	예술 대학	339 (94.4)	9 (2.5)	7 (1.9)	1 (0.3)	3 (0.8)	359 (100)
	의과 대학	427 (93.0)	18 (3.9)	8 (1.7)	2 (0.4)	4 (0.9)	459 (100)
	기타	12 (63.2)	2 (10.5)	2 (10.5)	0 (0.0)	3 (15.8)	19 (100)
전체	9,321 (94.4)	256 (2.6)	142 (1.4)	49 (0.5)	108 (1.1)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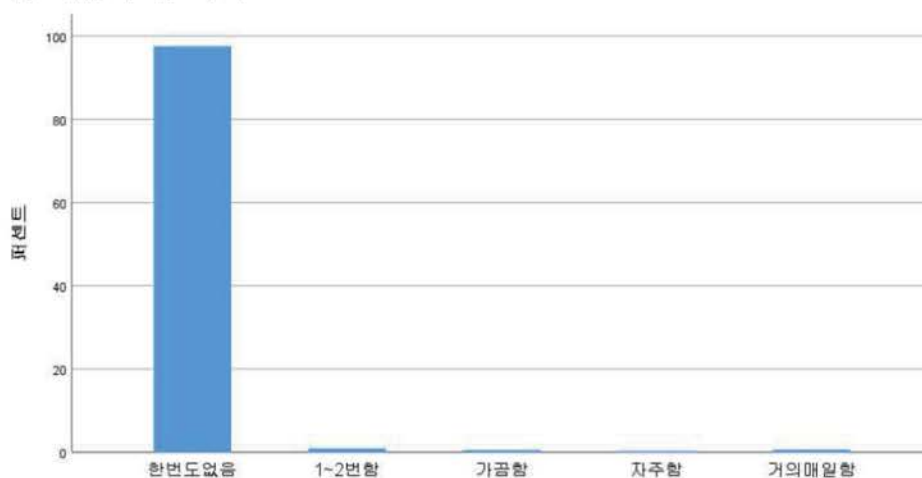
4) 자살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재학생들의 최근 1년 이내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2>에 나타나 있다.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은 9,636명(97.6%)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1~2번 함’ 92명(0.9%), ‘거의 매일 함’ 64명(0.6%), ‘가끔 함’ 53명(0.5%) ‘자주 함’ 31명(0.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 대부분은 최근 1년 이내 자살시도를 하지 않지만, 2.4%에 해당하는 학생 240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매일 혹은 자주 하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특별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별에서는 자살시도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남학생이 97.5%, 여학생이 97.7%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시도를 ‘자주 함’에 남학생은 21명(0.4%), 여학생은 10명(0.2%)으로 2배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응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한 번도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98%로 가장 높았고 다른 학년들도 비슷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함’에 4학년이 26명(1.0%)의 응답으로 타 학년보다 자살시도에 노출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 17명(0.7%), 1학년 11명(0.5%), 2학년 10명(0.5%)의 학생들도 자살시도의 경험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 자살시도 경험이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의과대학이 98.5%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대학이 96.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살시도 경험을 매일 하는 학생들은 사회과학대학이 10명(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과대학은 15명(0.4%)이 ‘거의 매일 함’에 응답하였다. 모든 단과대학에서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한 학생들 모두에 대한 선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림 33> 자살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표 32〉 자살시도 경험(최근 1년 이내)

구분		한번도 없음	1~2번 함	가끔함	자주함	거의 매일함	전체
성별	남	5,161 (97.5)	50 (0.9)	29 (0.5)	21 (0.4)	34 (0.6)	5,295 (100)
	여	4,475 (97.7)	42 (0.9)	24 (0.5)	10 (0.2)	30 (0.7)	4,581 (100)
학년	1학년	2,357 (97.8)	23 (1.0)	13 (0.5)	7 (0.3)	11 (0.5)	2,411 (100)
	2학년	215 (98.0)	16 (0.7)	12 (0.5)	7 (0.3)	10 (0.5)	2,201 (100)
	3학년	2,484 (97.8)	20 (0.8)	13 (0.5)	5 (0.2)	17 (0.7)	2,539 (100)
	4학년	2,480 (96.8)	31 (1.2)	14 (0.5)	10 (0.4)	26 (1.0)	2,561 (100)
	5학년	146 (98.0)	2 (1.3)	1 (0.7)	0 (0.0)	0 (0.0)	149 (100)
	기타	13 (86.7)	0 (0.0)	0 (0.0)	2 (13.3)	0 (0.0)	15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089 (96.8)	17 (1.5)	6 (0.5)	5 (0.4)	8 (0.7)
사회과학 대학		1,001 (97.2)	10 (1.0)	6 (0.6)	3 (0.3)	10 (1.0)	1,030 (100)
경영 대학		1,036 (96.6)	11 (1.0)	9 (0.8)	8 (0.7)	9 (0.8)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895 (97.7)	6 (0.7)	5 (0.5)	4 (0.4)	6 (0.7)	916 (100)
생활과학 대학		704 (98.1)	3 (0.4)	4 (0.6)	1 (0.1)	6 (0.8)	718 (100)
공과 대학		3,301 (98.2)	24 (0.7)	13 (0.4)	9 (0.3)	15 (0.4)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96 (97.7)	12 (1.5)	3 (0.4)	0 (0.0)	4 (0.5)	815 (100)
예술 대학		350 (97.5)	6 (1.7)	2 (0.6)	0 (0.0)	1 (0.3)	359 (100)
의과 대학		452 (98.5)	1 (0.2)	3 (0.7)	0 (0.0)	3 (0.7)	459 (100)
기타		12 (63.2)	2 (10.5)	2 (10.5)	1 (5.3)	2 (10.5)	19 (100)
전체	9,636 (97.6)	92 (0.9)	53 (0.5)	31 (0.3)	64 (0.6)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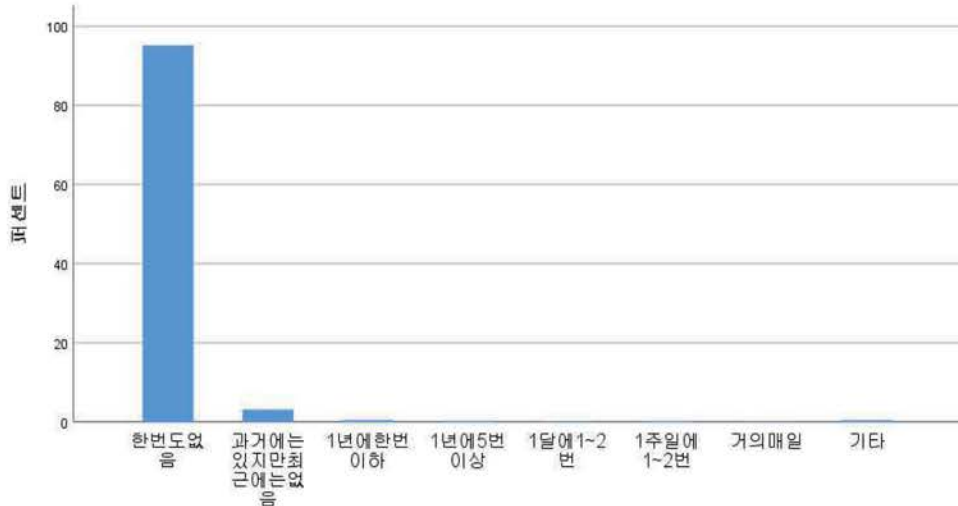
5) 자해 경험

재학생들의 자해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3>과 같다.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은 9,398명(95.2%)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과거에는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이 308명(3.1%), ‘1년에 한 번 이하’ 48명(0.5%), ‘기타’ 44명(0.4%), ‘1년에 5번 이상’ 27명(0.3%), ‘1주일에 1~2번’ 21명(0.2%), ‘1달에 1~2번’ 18명(0.2%), ‘거의 매일’ 12명(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 중 1.3%에 해당하는 126명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해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남학생이 96.1%, 여학생이 94.1%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1.5%는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했으며, 여학생은 1.1%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년 사이 자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한 비율은 1학년 1.3%, 2학년 1.1%, 3학년 0.7%, 4학년 1.9%로 4학년이 가장 높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공과대학이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대학이 9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한 비율은 경영대학이 2.3%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과학대학이 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4> 자해 경험

<표 33> 자해 경험

구분		한번도 없음	최근에 없음	1년 한번 이하	1년 5번 이상	1달 1~2번	1주일 1~2번	거의매 일	기타	전체
성별	남	5,089 (96.1)	106 (2.0)	30 (0.6)	12 (0.2)	8 (0.2)	17 (0.3)	8 (0.2)	25 (0.5)	5,295 (100)
	여	4,309 (94.1)	202 (4.4)	18 (0.4)	15 (0.3)	10 (0.2)	4 (0.1)	4 (0.1)	19 (0.4)	4,581 (100)
학년	1학년	2,291 (95.0)	80 (3.3)	10 (0.4)	11 (0.5)	7 (0.3)	2 (0.1)	1 (0.0)	9 (0.4)	2,411 (100)
	2학년	2,103 (95.5)	62 (2.8)	9 (0.4)	3 (0.1)	2 (0.1)	8 (0.4)	3 (0.1)	11 (0.5)	2,201 (100)
	3학년	2,427 (95.6)	80 (3.2)	8 (0.3)	3 (0.1)	5 (0.2)	1 (0.0)	3 (0.1)	12 (0.5)	2,539 (100)
	4학년	2,429 (94.8)	78 (3.0)	17 (0.7)	10 (0.4)	4 (0.2)	10 (0.4)	5 (0.2)	8 (0.3)	2,561 (100)
	5학년	136 (91.3)	7 (4.7)	3 (2.0)	0 (0.0)	0 (0.0)	0 (0.0)	0 (0.0)	3 (2.0)	149 (100)
	기타	12 (80.0)	1 (6.7)	1 (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6.7)
단과 대학	인문 대학	1,047 (93.1)	48 (4.3)	5 (0.4)	5 (0.40)	2 (0.2)	5 (0.4)	1 (0.1)	12 (1.1)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986 (95.7)	31 (3.0)	5 (0.5)	1 (0.1)	2 (0.2)	2 (0.2)	0 (0.0)	3 (0.3)	1,030 (100)
	경영 대학	1,025 (95.5)	23 (2.1)	7 (0.7)	4 (0.4)	2 (0.2)	2 (0.2)	3 (0.3)	7 (0.7)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874 (95.4)	22 (2.4)	4 (0.4)	3 (0.3)	3 (0.3)	4 (0.4)	1 (0.1)	5 (0.5)	916 (100)
	생활과학 대학	683 (95.1)	30 (4.2)	1 (0.1)	1 (0.1)	1 (0.1)	1 (0.1)	0 (0.0)	1 (0.1)	718 (100)
	공과 대학	3,247 (96.6)	69 (2.1)	18 (0.5)	6 (0.2)	4 (0.1)	7 (0.2)	0 (0.0)	11 (0.3)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54 (92.5)	5 (6.1)	3 (0.4)	3 (0.4)	2 (0.2)	0 (0.0)	2 (0.2)	1 (0.1)	815 (100)
	예술 대학	327 (91.1)	25 (7.0)	2 (0.6)	1 (0.3)	1 (0.3)	0 (0.0)	0 (0.0)	3 (0.8)	359 (100)
	의과 대학	443 (96.5)	9 (2.0)	2 (0.4)	2 (0.4)	1 (0.2)	0 (0.0)	2 (0.4)	0 (0.0)	459 (100)
	기타	12 (63.2)	1 (5.3)	1 (5.3)	1 (5.3)	0 (0.0)	0 (0.0)	0 (0.0)	4 (21.1)	19 (100)
전체	9,398 (95.2)	308 (3.1)	48 (0.5)	27 (0.3)	18 (0.2)	21 (0.2)	12 (0.1)	44 (0.4)	9,876 (100)	

5. 진로심리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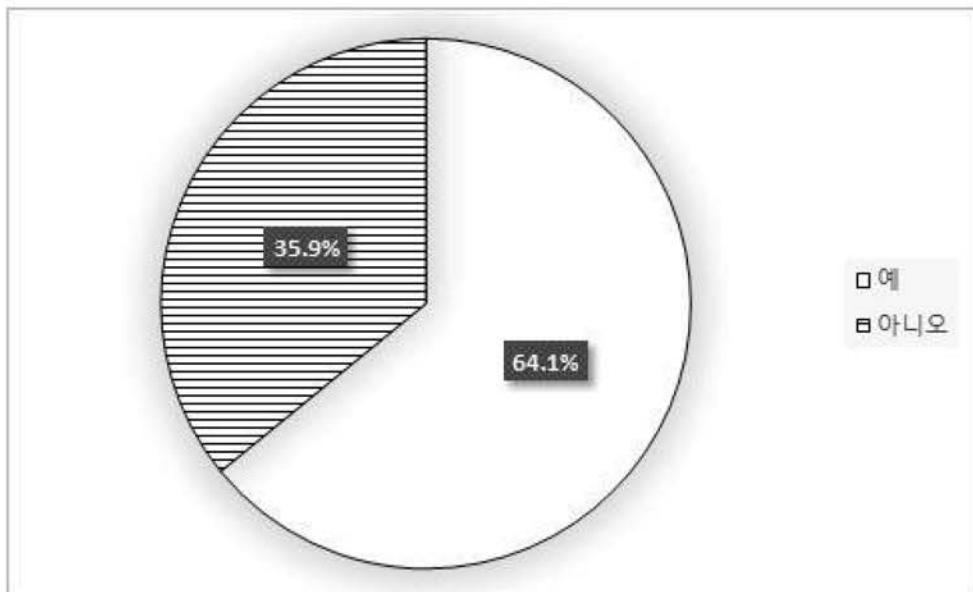
1)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재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예'에 대한 답변으로 6,335명(64.1%), 모르고 있다는 '아니오'가 3,541명(35.9%)으로, 재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69.9%, 남학생은 59.1%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센터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1학년들 대상으로 한 센터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음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예'의 응답이 생활과학대학 70.1%, 사회과학대학 69.2%, 인문대학 66.2%, 의과대학 64.7%, 경영대학 63.5%, 공과대학 63.1%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1.8%, 자연과학대학 61.1%, 예술대학 56.5%로 나타나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진로심리상담센터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 인식 유무

<표 34> 교내 진로심리 상담센터의 존재 인식 유무

구분		예 (알고 있음)	아니오 (모름)	전체
성별	남	3,131 (59.1)	2,164 (40.9)	5,295 (100)
	여	3,204 (69.9)	1,377 (30.1)	4,581 (100)
학년	1학년	1,210 (50.2)	1,201 (49.8)	2,411 (100)
	2학년	1,384 (62.9)	817 (37.1)	2,201 (100)
	3학년	1,760 (69.3)	779 (30.7)	2,539 (100)
	4학년	1,872 (73.1)	689 (26.9)	2,561 (100)
	5학년	99 (66.4)	50 (33.6)	149 (100)
	기타	10 (66.7)	5 (33.3)	15 (100)
단과 대학	인문대학	745 (66.2)	380 (33.8)	1,125 (100)
	사회과학대학	713 (69.2)	317 (30.8)	1,030 (100)
	경영대학	681 (63.5)	392 (36.5)	1,073 (100)
	자연과학대학	560 (61.1)	356 (38.9)	916 (100)
	생활과학대학	503 (70.1)	215 (29.9)	718 (100)
	공과대학	2,122 (63.1)	1,240 (36.9)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04 (61.8)	311 (38.2)	815 (100)
	예술대학	203 (56.5)	156 (43.5)	359 (100)
	의과대학	297 (64.7)	162 (35.3)	459 (100)
	기타	7 (36.8)	12 (63.2)	19 (100)
전체		6,335 (64.1)	3,541 (35.9)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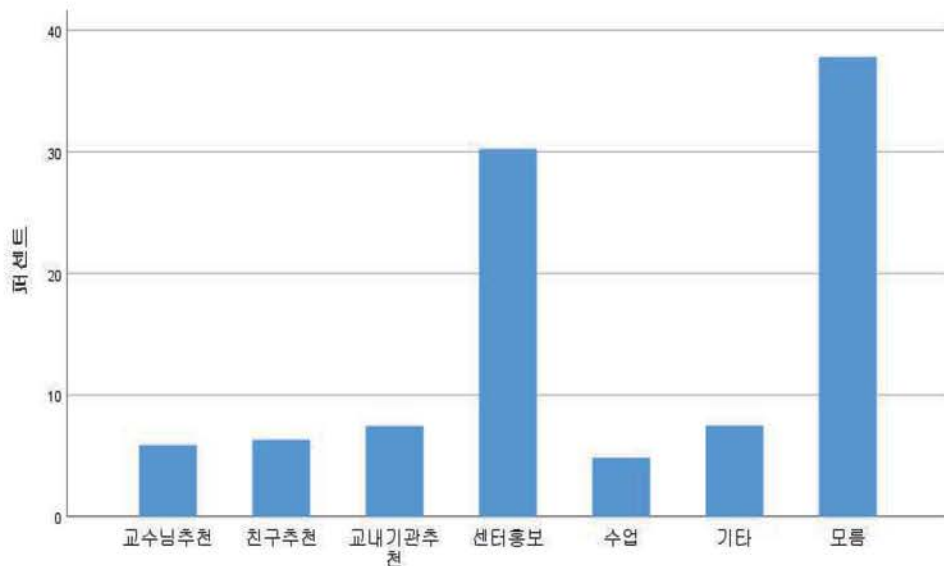
2) 진로심리 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계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해 9,876명 중 3,733명(37.8%)은 ‘모름’, 2,986명(30.2%)은 ‘센터홍보’, 739명(7.5%)은 ‘기타’, 736명(7.5%)은 ‘교내기관 추천’, 624명(6.3%)은 ‘친구추천’, 580명(5.9%)은 ‘교수님추천’, 478명(4.8%)은 ‘수업’ 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7.8%의 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해 모르고 있으므로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성별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센터홍보’ 를 통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35.7%와 25.5%로 나타났다. ‘모름’ 의 응답이 남학생 42.9%, 여학생 31.9%로 나타나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여학생이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모름’ 으로 51.5%가 응답하였고 4학년은 28.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를 모른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모든 학년에서 ‘센터홍보’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의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은 ‘센터홍보’ 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교내 기관 추천’ 과 ‘친구추천’, ‘교수님추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진로심리 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표 35> 진로심리 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

	구분	교수님 추천	친구 추천	교내기관 추천	센터 홍보	수업	기타	모름	전체
성별	남	366 (6.9)	303 (5.7)	372 (7.0)	1,349 (25.5)	234 (4.4)	399 (7.5)	2,272 (42.9)	5,295 (100)
	여	214 (4.7)	321 (7.0)	364 (7.9)	1,637 (35.7)	244 (5.3)	340 (7.4)	1,461 (31.9)	4,581 (100)
학년	1학년	100 (4.1)	83 (3.4)	138 (5.7)	550 (22.8)	162 (6.7)	136 (5.6)	1,242 (51.5)	2,411 (100)
	2학년	157 (7.1)	137 (6.2)	150 (6.8)	614 (27.9)	118 (5.4)	171 (7.8)	854 (38.8)	2,201 (100)
	3학년	160 (6.3)	185 (7.3)	192 (7.6)	830 (32.7)	97 (3.8)	225 (8.9)	850 (33.5)	2,539 (100)
	4학년	156 (6.1)	198 (7.7)	245 (9.6)	944 (36.9)	95 (3.7)	191 (7.5)	732 (28.6)	2,561 (100)
	5학년	6 (4.0)	19 (12.8)	10 (6.7)	42 (28.2)	6 (4.0)	15 (10.1)	51 (34.2)	149 (100)
	기타	1 (6.7)	2 (13.3)	1 (6.7)	6 (40.0)	0 (0.0)	1 (6.7)	4 (26.7)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06 (9.4)	89 (7.9)	78 (6.9)	323 (28.7)	47 (4.2)	90 (8.0)	392 (34.8)	1,125 (100)
	사회과학대학	85 (8.3)	58 (56)	82 (8.0)	340 (33.0)	72 (7.0)	72 (7.0)	321 (31.2)	1,030 (100)
	경영대학	52 (4.8)	73 (6.8)	82 (7.6)	325 (30.3)	51 (4.8)	75 (7.0)	415 (38.7)	1,073 (100)
	자연과학대학	52 (5.7)	44 (4.8)	62 (6.8)	280 (30.6)	37 (4.0)	65 (7.1)	376 (41.0)	916 (100)
	생활과학대학	38 (5.3)	48 (6.7)	59 (8.2)	233 (32.5)	59 (8.2)	51 (7.1)	230 (32.0)	718 (100)
	공과대학	175 (5.2)	204 (6.1)	264 (7.9)	1,028 (30.6)	120 (3.6)	251 (7.5)	1,320 (39.3)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2 (3.9)	61 (7.5)	55 (6.7)	211 (25.9)	59 (7.2)	63 (7.7)	334 (41.0)	815 (100)
	예술대학	12 (3.3)	13 (3.6)	29 (8.1)	88 (24.5)	15 (4.2)	36 (10.0)	166 (46.2)	359 (100)
	의과대학	26 (5.7)	30 (6.5)	23 (5.0)	157 (3.2)	17 (3.7)	32 (7.0)	174 (37.9)	459 (100)
	기타	2 (10.5)	4 (21.1)	2 (10.5)	1 (5.3)	1 (5.3)	4 (21.1)	5 (26.3)	19 (100)
전체	580 (5.9)	624 (6.3)	736 (7.5)	2,986 (30.2)	478 (4.8)	739 (7.5)	3,733 (37.8)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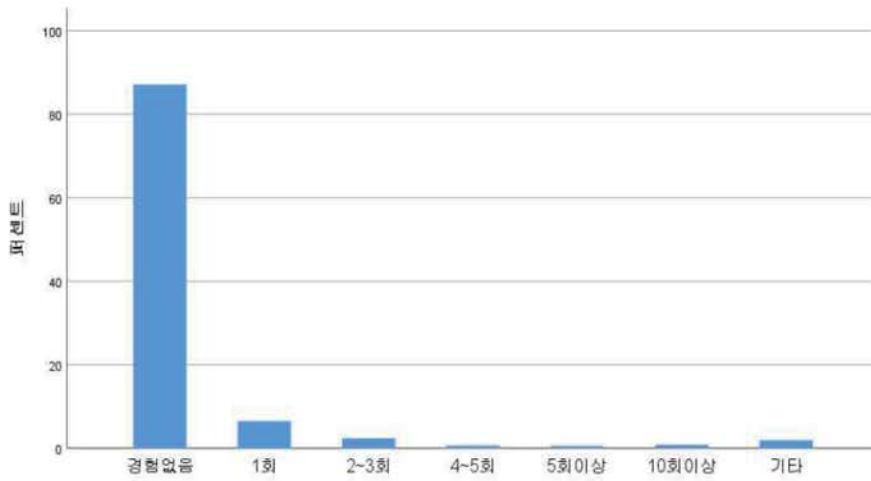
3)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 상담센터 이용 경험

재학생들이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8,602명(87.1%)은 ‘경험 없음’, 645명(6.5%)은 ‘1회’, 238명(2.4%)은 ‘2~3회’, 191명(1.9%)은 ‘기타’, 80명(0.8%)은 ‘10회 이상’, 64명(0.6%)은 ‘4~5회’, 56명(0.6%)은 ‘5회 이상’ 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소수의 인원이 중복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학생 89.2%와 여학생 84.7%가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5.4%가 ‘1회’ 이용으로 그쳤음을 알 수 있다. 2~3회 이상의 이용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3.4%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7.9%가 ‘1회’ 이용으로 그쳤으며 2~3회 이상의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5.7%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회 이상’ 과 ‘10회 이상’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도 남학생, 여학생 각각 0.9%와 2.0%로 여학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최근 1년 이내 ‘경험 없음’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82.2%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와 ‘2~3회’ 경험에 응답한 학년 비율은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센터를 ‘5회 이상’ 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학년은 2학년과 4학년의 비율이 타 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최근 1년 이내 ‘경험 없음’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예술대학이 88.9%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진로심리상담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험을 한 단과대학은 생활과학대학이며,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험이 많은 단과대학은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2~3회’ 이하로 그쳤으며 반복적인 이용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 학생들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 상담센터 이용 경험

<표 36>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 상담센터 이용 경험

구분		경험 없음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10회 이상	기타	전체
성 별	남	4,723 (89.2)	285 (5.4)	100 (1.9)	30 (0.6)	19 (0.4)	24 (0.5)	114 (2.2)	5,295 (100)
	여	3,879 (84.7)	360 (7.9)	138 (3.0)	34 (0.7)	37 (0.8)	56 (1.2)	77 (1.7)	4,581 (100)
학 년	1학년	2,207 (91.5)	101 (4.2)	34 (1.4)	11 (0.5)	5 (0.2)	12 (0.5)	41 (1.7)	2,411 (100)
	2학년	1,948 (88.5)	127 (5.8)	42 (1.9)	9 (0.4)	15 (0.7)	21 (1.0)	39 (1.8)	2,201 (100)
	3학년	2,207 (86.9)	186 (7.3)	67 (2.6)	14 (0.6)	11 (0.4)	15 (0.6)	39 (1.5)	2,539 (100)
	4학년	2,105 (82.2)	221 (8.6)	92 (3.6)	27 (1.1)	22 (0.9)	29 (1.1)	65 (2.5)	2,561 (100)
	5학년	125 (83.9)	9 (6.0)	3 (2.0)	3 (2.0)	2 (1.3)	1 (0.7)	6 (4.0)	149 (100)
	기타	10 (66.7)	1 (6.7)	0 (0.0)	0 (0.0)	1 (6.7)	2 (13.3)	1 (6.7)	15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966 (85.9)	71 (6.3)	33 (2.9)	6 (0.5)	9 (0.8)	10 (0.9)	30 (2.7)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886 (86.0)	79 (7.7)	27 (2.6)	4 (0.4)	4 (0.4)	14 (1.4)	16 (1.6)	1,030 (100)
	경영 대학	925 (86.2)	69 (6.4)	26 (2.4)	9 (0.8)	11 (1.0)	14 (1.3)	19 (1.8)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808 (88.2)	48 (5.2)	19 (2.1)	8 (0.9)	3 (0.3)	8 (0.9)	22 (2.4)	916 (100)
	생활과학 대학	594 (82.7)	66 (9.2)	26 (3.6)	4 (0.6)	7 (1.0)	12 (1.7)	9 (1.3)	718 (100)
	공과 대학	2,982 (88.7)	216 (6.4)	65 (1.9)	24 (0.7)	12 (0.4)	16 (0.5)	47 (1.4)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19 (88.2)	49 (6.0)	19 (2.3)	3 (0.4)	3 (0.4)	2 (0.2)	20 (2.5)	815 (100)
	예술 대학	319 (88.9)	14 (3.9)	4 (1.1)	1 (0.3)	4 (1.1)	2 (0.6)	15 (4.2)	359 (100)
	의과 대학	393 (85.6)	33 (7.2)	18 (3.9)	4 (0.9)	2 (0.4)	2 (0.4)	7 (1.5)	459 (100)
	기타	10 (52.6)	0 (0.0)	1 (5.3)	1 (5.3)	1 (5.3)	0 (0.0)	6 (31.6)	19 (100)
전체		8,602 (87.1)	645 (6.5)	238 (2.4)	64 (0.6)	56 (0.6)	80 (0.8)	191 (1.9)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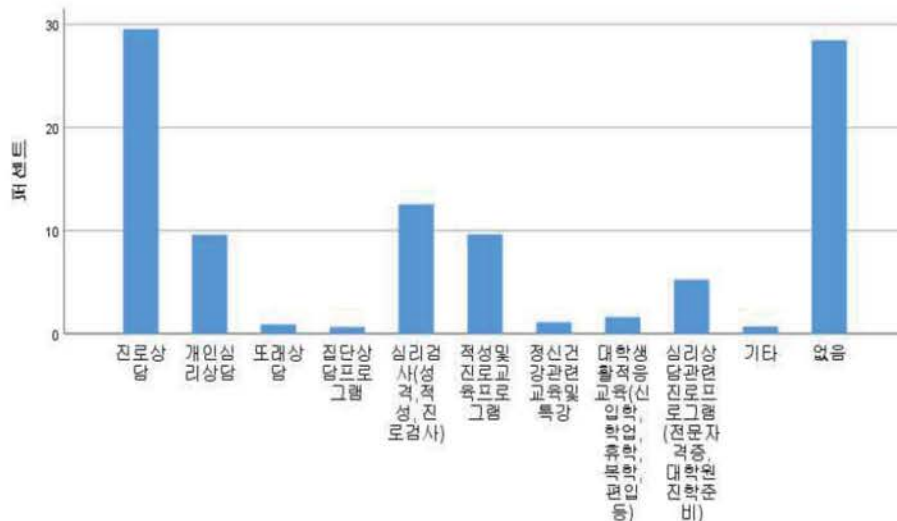
4) 진로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진로상담’이 2,918명(2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없음’ 2,810명(28.5%),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1,239명(12.5%), ‘적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950명(9.6%), ‘개인 심리상담’ 948명(9.6%), ‘심리상담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전문자격증, 대학원진학준비)’ 517명(5.2%), ‘대학 생활 적응 교육(신입학, 학업, 휴학 복학, 편입 등)’ 160명(1.6%),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특강’ 111명(1.1%), ‘또래 상담’ 90명(0.9%), ‘집단상담 프로그램’ 64명(0.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없음’ 35.1%, ‘진로상담’ 32.5%, ‘개인 심리상담’ 7.9%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진로상담’ 26.1%, ‘없음’ 20.7%,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1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진로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과 더불어 ‘없음’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진로상담’ 서비스를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상담’에 이어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서비스에서는 생활과학대학과 의과대학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진로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표 37> 진로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구분	진로상담	개인심리상담	포레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사격,성성,진로검사	적성진로교육프로그램	정신건강관련교육특강	대학생활응용교육학(신학,인문학,인문등)	심리상담프로그램(전문자,대학원준비)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1,722 (32.5)	419 (7.9)	65 (1.2)	39 (0.7)	390 (7.4)	419 (7.9)	39 (0.7)	80 (1.5)	215 (4.1)	47 (0.9)	1,860 (35.1)	5,295 (100)
	여	1,196 (26.1)	529 (11.5)	25 (0.5)	25 (0.5)	849 (18.5)	531 (11.6)	72 (1.6)	80 (1.7)	302 (6.6)	22 (0.5)	950 (20.7)	4,581 (100)
학년	1학년	722 (30.0)	193 (8.0)	25 (1.0)	12 (0.5)	290 (12.0)	194 (8.1)	19 (0.8)	74 (3.1)	122 (5.1)	1 (0.0)	748 (31.0)	2,411 (100)
	2학년	681 (30.9)	224 (10.2)	21 (1.0)	18 (0.8)	271 (12.3)	230 (10.4)	23 (1.0)	31 (1.4)	99 (4.5)	12 (0.5)	591 (26.9)	2,201 (100)
	3학년	759 (29.9)	241 (9.5)	18 (0.7)	12 (0.5)	327 (12.9)	253 (10)	28 (1.1)	33 (1.3)	154 (6.1)	17 (0.7)	697 (27.5)	2,539 (100)
	4학년	714 (27.9)	267 (10.4)	23 (0.9)	21 (0.8)	332 (13.0)	260 (10.2)	39 (1.5)	21 (0.8)	139 (5.4)	28 (1.1)	717 (28.0)	2,561 (100)
	5학년	40 (26.8)	21 (14.1)	3 (2.0)	1 (0.7)	17 (11.4)	13 (8.7)	2 (1.3)	0 (0.0)	2 (1.3)	0 (0.0)	50 (33.6)	149 (100)
	기타	2 (13.3)	2 (13.3)	0 (0.0)	0 (0.0)	2 (13.3)	0 (0.0)	0 (0.0)	1 (6.7)	1 (6.7)	0 (0.0)	7 (46.7)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326 (29.0)	119 (10.6)	16 (1.4)	4 (0.4)	141 (12.5)	135 (11.8)	12 (1.1)	17 (1.5)	61 (5.4)	14 (1.2)	282 (25.1)
사회과학대학	334 (32.4)	101 (9.8)	7 (0.7)	11 (1.1)	154 (15.0)	94 (9.1)	17 (1.7)	14 (1.4)	53 (5.1)	4 (0.4)	241 (23.4)	1,030 (100)	
경영대학	310 (28.9)	86 (8.0)	7 (0.7)	10 (0.9)	125 (11.6)	127 (11.8)	12 (1.1)	24 (2.2)	61 (5.7)	5 (0.5)	306 (28.5)	1,073 (100)	
자연과학대학	228 (24.9)	63 (6.9)	7 (0.8)	7 (0.8)	116 (12.7)	97 (10.6)	14 (1.5)	20 (2.2)	61 (6.7)	6 (0.7)	297 (32.4)	916 (100)	
생활과학대학	215 (29.9)	76 (10.6)	1 (0.1)	5 (0.7)	140 (19.5)	74 (10.3)	11 (1.5)	12 (1.7)	55 (7.7)	3 (0.4)	126 (17.5)	718 (100)	
공과대학	1,134 (33.7)	290 (8.6)	33 (1.0)	17 (0.5)	331 (9.8)	308 (9.2)	20 (0.6)	51 (1.5)	151 (4.5)	27 (0.8)	1,000 (29.7)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03 (24.9)	92 (11.3)	13 (1.6)	5 (0.6)	89 (10.9)	61 (7.5)	13 (1.6)	13 (1.6)	38 (4.7)	6 (0.7)	282 (34.6)	815 (100)	
예술대학	75 (20.9)	38 (10.6)	0 (0.0)	1 (0.3)	52 (14.5)	17 (4.7)	5 (1.4)	6 (1.7)	15 (4.2)	2 (0.6)	148 (41.2)	359 (100)	
의과대학	87 (19.0)	81 (17.6)	6 (1.3)	4 (0.9)	90 (19.6)	38 (8.3)	7 (1.5)	3 (0.7)	22 (4.8)	2 (0.4)	119 (25.9)	459 (100)	
기타	6 (31.6)	2 (10.5)	0 (0.0)	0 (0.0)	1 (5.3)	1 (5.3)	0 (0.0)	0 (0.0)	0 (0.0)	0 (0.0)	9 (47.4)	19 (100)	
전체	2,918 (29.5)	948 (9.6)	90 (0.9)	64 (0.6)	1,239 (12.5)	950 (9.6)	111 (1.1)	160 (1.6)	517 (5.2)	69 (0.7)	2,810 (28.5)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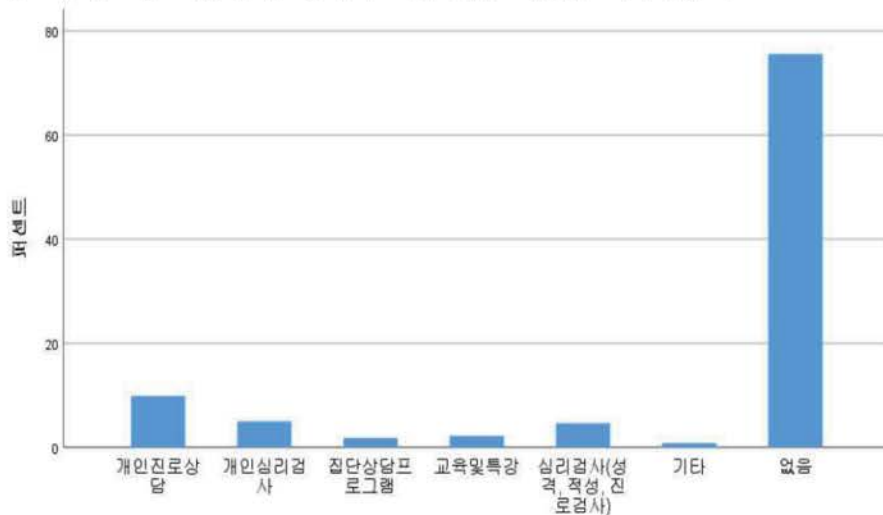
5) 진로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이용해 본 서비스가 ‘없음’이 7,464명(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진로상담’이 977명(9.9%), ‘개인심리검사’ 494명(5.0%),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458명(4.6%), ‘교육 및 특강’ 219명(2.2%), ‘집단상담 프로그램’ 182명(1.8%), ‘기타’ 82명(0.8%) 순으로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가 ‘없음’ 77.5%, ‘개인 진로상담’ 11.3%, ‘개인심리검사’ 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없음’ 73.3%, ‘개인 진로상담’ 8.2%,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6.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없음’에 응답한 인원을 제외한 학생들의 응답 중 모든 학년에서 ‘개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심리검사’,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개인의 진로와 적성,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탐색을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검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없음’에 응답한 인원을 제외한 학생들의 응답 중 의과대학을 뺀 모든 단과대학에서 ‘개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심리검사’,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개인심리검사’,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를 이용해 본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9> 진로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표 38> 진로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구분		개인 진로 상담	개인 심리 검사	집단 상담 프로 그램	교육 및 특강	심리 검사 (성격, 적성, 진로 검사)	기타	없음	전체
성 별	남	600 (11.3)	210 (4.0)	88 (1.7)	96 (1.8)	155 (2.9)	42 (0.8)	4,104 (77.5)	5,295 (100)
	여	377 (8.2)	284 (6.2)	94 (2.1)	123 (2.7)	303 (6.6)	40 (0.9)	3,360 (73.3)	4,581 (100)
학 년	1학년	174 (7.2)	96 (4.0)	34 (1.4)	46 (1.9)	100 (4.1)	14 (0.6)	1,947 (80.8)	2,411 (100)
	2학년	176 (8.0)	92 (4.2)	41 (1.9)	67 (3.0)	110 (5.0)	16 (0.7)	1,699 (77.2)	2,201 (100)
	3학년	265 (10.4)	127 (5.0)	58 (2.3)	48 (1.9)	115 (4.5)	21 (0.8)	1,905 (75.0)	2,539 (100)
	4학년	339 (13.2)	161 (6.3)	47 (1.8)	55 (2.1)	128 (5.0)	30 (1.2)	1,801 (70.3)	2,561 (100)
	5학년	21 (14.1)	18 (12.1)	1 (0.7)	2 (1.3)	2 (1.3)	1 (0.7)	104 (69.8)	149 (100)
	기타	2 (13.3)	0 (0.0)	1 (6.7)	1 (6.7)	3 (20.0)	0 (0.0)	8 (53.3)	15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137 (12.2)	61 (5.4)	15 (1.3)	29 (2.6)	58 (5.2)	15 (1.3)	810 (72.0)	1,125 (100)
	사회과학 대학	105 (10.2)	55 (5.3)	29 (2.8)	23 (2.2)	58 (5.6)	9 (0.9)	751 (72.9)	1,030 (100)
	경영 대학	113 (10.5)	51 (4.8)	19 (1.8)	24 (2.2)	30 (2.8)	8 (0.7)	828 (77.2)	1,073 (100)
	자연과학 대학	85 (9.3)	35 (3.8)	20 (2.2)	16 (1.7)	35 (3.8)	10 (1.1)	715 (78.1)	916 (100)
	생활과학 대학	64 (8.9)	51 (7.1)	13 (1.8)	26 (3.6)	51 (7.1)	5 (0.7)	508 (70.8)	718 (100)
	공과 대학	347 (10.3)	134 (4.0)	68 (2.0)	69 (2.1)	138 (4.1)	22 (0.7)	2,584 (76.9)	3,36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5 (9.2)	47 (5.8)	13 (1.6)	18 (2.2)	44 (5.4)	4 (0.5)	614 (75.3)	815 (100)
	예술 대학	23 (6.4)	21 (5.8)	0 (0.0)	5 (1.4)	15 (4.2)	6 (1.7)	289 (80.5)	359 (100)
	의과 대학	24 (5.2)	38 (8.3)	4 (0.9)	9 (2.0)	29 (6.3)	2 (0.4)	353 (76.9)	459 (100)
	기타	4 (21.1)	1 (5.3)	1 (5.3)	0 (0.0)	0 (0.0)	1 (5.3)	12 (63.2)	19 (100)
전체	977 (9.9)	494 (5.0)	182 (1.8)	219 (2.2)	458 (4.6)	82 (0.8)	7,464 (75.6)	9,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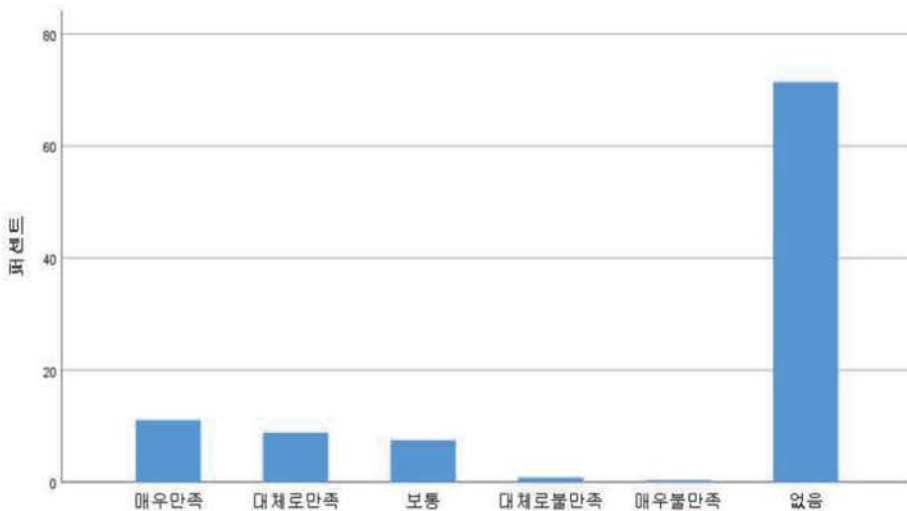
6) 진로심리 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39>와 같다. 응답자 9,876명 중 ‘없음’ 7,052명(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만족’은 1,095명(11.1%), ‘대체로 만족’은 872명(8.8%), ‘보통’은 741명(7.5%), ‘대체로 불만족’은 79명 (0.8%), ‘매우 불만족’은 37명(0.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센터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에 ‘없음’이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 73.8%, 여학생 68.6%로 남학생의 이용이 좀 더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에서 남학생은 ‘매우 만족’ 10.4%, ‘대체로 만족’ 6.7%, ‘보통’ 7.9%, ‘대체로 불만족’ 0.8%, ‘매우 불만족’ 0.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매우 만족’ 11.9%, ‘대체로 만족’ 11.3%, ‘보통’ 7.1%, ‘대체로 불만족’ 0.8%, ‘매우 불만족’ 0.3%로 나타나 여학생의 이용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도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에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을 제외 하고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응답은 모든 학년이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에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각 단과대학마다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만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과학대학은 25.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 학도 24.1%, 23.6%로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림 40> 진로심리 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표 39> 진로심리 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없음	전체
성별	남	550 (10.4)	354 (6.7)	417 (7.9)	44 (0.8)	22 (0.4)	3,908 (73.8)	5,295 (100)
	여	545 (11.9)	518 (11.3)	324 (7.1)	35 (0.8)	15 (0.3)	3,144 (68.6)	4,581 (100)
학년	1학년	227 (9.4)	167 (6.9)	154 (6.4)	17 (0.7)	9 (0.4)	1,837 (76.2)	2,411 (100)
	2학년	238 (10.8)	184 (8.4)	143 (6.5)	16 (0.7)	4 (0.2)	1,616 (73.4)	2,201 (100)
	3학년	284 (11.2)	250 (9.8)	184 (7.2)	19 (0.7)	1 (0.4)	1,791 (70.5)	2,539 (100)
	4학년	330 (12.9)	254 (9.9)	239 (9.3)	23 (0.9)	10 (0.4)	1,705 (66.6)	2,561 (100)
	5학년	14 (9.4)	14 (9.4)	20 (13.4)	3 (2.0)	3 (2.0)	95 (63.8)	149 (100)
	기타	2 (13.3)	3 (20.0)	1 (6.7)	1 (6.7)	0 (0.0)	8 (53.3)	15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43 (12.7)	123 (10.9)	69 (6.1)	14 (1.2)	2 (0.2)	774 (68.8)	1,125 (100)
	사회과학대학	130 (12.6)	118 (11.5)	82 (8.0)	5 (0.5)	6 (0.6)	689 (66.9)	1,030 (100)
	경영대학	104 (9.7)	94 (8.8)	73 (6.8)	12 (1.1)	6 (0.6)	784 (73.1)	1,073 (100)
	자연과학대학	97 (10.6)	58 (6.3)	61 (6.7)	5 (0.5)	2 (0.2)	693 (75.7)	916 (100)
	생활과학대학	96 (13.4)	87 (12.1)	58 (8.1)	3 (0.4)	3 (0.4)	471 (65.6)	718 (100)
	공과대학	363 (10.8)	263 (7.8)	266 (7.9)	29 (0.9)	15 (0.4)	2,426 (72.2)	3,362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84 (10.3)	67 (8.2)	79 (9.7)	4 (0.5)	1 (0.1)	580 (71.2)	815 (100)
	예술대학	31 (8.6)	22 (6.1)	27 (7.5)	0 (0.0)	1 (0.3)	278 (77.4)	359 (100)
	의과대학	46 (10.0)	40 (8.7)	22 (4.8)	5 (1.1)	1 (0.2)	345 (75.2)	459 (100)
	기타	1 (5.3)	0 (0.0)	4 (21.1)	2 (10.5)	0 (0.0)	12 (63.2)	19 (100)
전체	1,095 (11.1)	872 (8.8)	741 (7.5)	79 (0.8)	37 (0.4)	7,052 (71.4)	9,876 (100)	

IV. 종합

본 조사는 2022학년도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작성하여 매년 사용해 온 설문지를 바탕으로 2022년도 재학생들을 위해 수정·보완된 실태조사 설문지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월 2일까지 63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9,876명으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공과대학’이 3,362명(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대학’ 1,125명(11.4%), ‘경영대학’ 1,073명(10.9%), ‘사회과학대학’ 1,030명(10.4%), ‘자연과학대학’ 916명(9.3%)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815명(8.3%), ‘생활과학대학’은 718명(7.3%), ‘의과대학’은 459명(4.6%)이었으며, ‘예술대학’은 359명(3.6%)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이 5,295명(53.6%), 여학생이 4,581명(46.4%)으로, 남학생이 7.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4학년이 2,561명(25.9%)으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은 2,539명(25.7%), 1학년은 2,411명(24.4%), 2학년은 2,201명(22.3%), 5학년은 149명(1.5%) 순으로 나타났다.

2. 대학 생활 및 학업

가) 대학생활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4,430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929명(29.7%), ‘매우 만족’ 2,064명(20.9%), ‘대체로 불만족’ 341명(3.5%), ‘매우 불만족’ 11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40.9%, 여학생의 49.4%가 ‘대체로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불만족’과 ‘불만족’은 남학생 280명(5.3%), 여학생 173명(3.8%)으로 남학생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3,204명(32.4%)이 ‘취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적성 및 진로’ 2,011명(20.4%), ‘성적 문제’ 1,631명

(16.5%) 등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취업’, ‘적성 및 진로’, ‘성적’, ‘학업 문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성적 문제’ (25.9%)와 ‘학업 문제’ (22.5%)가, 2학년은 ‘적성 및 진로’ (24.7%)와 ‘취업’ (23.9%), 3학년은 ‘취업’ (40.4%)과 ‘적성 및 진로’ (19.8%), 4학년 역시 ‘취업’ (49.4%)과 ‘적성 및 진로’ (18.4%)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어려움 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친구’ 2,710명(27.4%), ‘지도교수’ 2,705명(27.4%), ‘부모님’ 1,485명(15.0%), ‘전문상담사(진로심리상담센터)’ 1,071명(10.8%)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지도교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과 3학년은 ‘지도교수’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학년은 ‘지도교수’와 ‘친구’의 응답 비율이 거의 같았으며 1학년은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다.

재학생들이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은 ‘충실하고 알찬 강의’ 3,119명(31.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2,634명(26.7%),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2,024명(20.5%)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의 31.8%와 여학생의 31.3%가 ‘충실하고 알찬 강의’ 응답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의 응답이 여학생 29.4%, 남학생 24.3%로 여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충실하고 알찬 강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도교수와의 상담빈도는 ‘연 1회 미만’으로 한다는 응답이 9,876명 중 3,868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학기별 1회’ 2,994명(30.3%), ‘연 1회’ 2,240명(22.7%), ‘학기별 2~3회’ 623명(6.3%), ‘월 1회 이상’ 151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 1회 미만’의 응답에서 남학생이 40.8%로 여학생 37.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도교수와 연 1회 이하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연 1회 미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라는 응답이 9,876명 중 3,391명(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생들의 61.6%가 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59.9%, 여학생은 63.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는 여학생이 조금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대부분의 학년이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 문항에 ‘대체로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도교수와의 상담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응답이 9,876명 중 7,377명(74.7%)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친구 관계에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응답’ 이 77.2%로 남학생의 7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77.5%, 2학년 75.0%, 3학년 74.6%, 4학년 72.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관계에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의 응답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때 친구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대학 전공 관련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이 9,876명 중 4,202명(4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은 2,734명(27.7%), ‘매우 만족’ 은 2,217명(22.4%)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체로 만족’ 과 ‘매우 만족’ 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의 응답 비율이 모든 학년이 비슷하게 65% 전후의 분포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음’ 이 1,237명(12.5%), ‘취업전망이 불투명함’ 은 1,233명(1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능력의 부족’ 이 887명(9.0%), ‘학업 난이도’ 730명(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적성에 맞지 않음’ 656명(12.4%), ‘취업전망이 불투명함’ 544명(10.3%), ‘학업 난이도’ 444명(8.4%), ‘학업능력의 부족’ 427명(8.1%) 등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취업전망이 불투명함’ 689명(15%), ‘적성에 맞지 않음’ 581명(12.7%), ‘학업능력의 부족’ 460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은 ‘적성에 맞지 않음’ 이 각각 14.2%와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학년은 ‘취업전망이 불투명함’ 과 ‘적성에 맞지 않음’ 의 비율이 각각 12.4%와 1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취업전망의 불투명함’ 이 1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학년에서 ‘학업능력의 부족’ 에 대한 응답률이 7.0%~10.7%까지 나타나 많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불만족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과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 가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688명(27.2%)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 2,528명(25.6%),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2,395명(24.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

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 2학년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 3학년과 4학년은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에 대한 문항은 전체적으로 '없음'이 64.9%로 성별과 학년별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있음'은 2학년과 5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는 55.8%는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없음'이며, 나머지 44.2%는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비교에서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도 포기 생각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는 전체적으로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서'와 '타 학교로의 진학이 쉽지 않아서'의 응답이 높았고, 성별, 학년별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휴학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64.4%는 '없음'으로 나타났고 35.6%는 '있음'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학 의사가 더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의 '있음'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44.7%의 학생이 휴학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학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전체적인 비율과 성별, 학년별에서 '취업 준비'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학업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편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는 '없음' 78.4%로 나타났고, 성별, 학년별에서도 '없음'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편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을 고려한 이유는 전체적, 성별, 학년별 응답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인지도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편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93.5%가 '없음'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학년 모두 자퇴 의사가 '없음'이 현저히 높았으며, 1학년이 자퇴 의사가 '있음'에 10.0% 응답률로 타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3.6%로 자퇴 의사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를 고려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학과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대학 생활에 실망해서'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비교도 같은 이유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1, 2, 3학년에서는 '학과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4, 5학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진로 및 취업

가) 진로

재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응답은 54.9%가 '예', 41.6%가 '아니오', 3.5%는 '기타'로 응답했다. 성별 비교에서도 남, 여 모두 '예'의 응답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진로 선택/결정에 '예(했음)'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데 1학년 45.5%, 5학년 71.1%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결정/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나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년별로도 같은 이유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전체적, 성별 비교, 학년별 결과에서 '흥미나 적성', '직업의 안정성', '수입', '근무환경'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 진로가 무엇인지의 응답은 응답자 9,876명 중 7,096명(71.9%)이 졸업 후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미정'이 1,083명(11.0%), '대학원 진학'이 704명(7.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도 변동 없이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희망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취업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는 응답자 9,876명 중 3,085명(31.2%)은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907명(19.3%), '중견기업' 1,420명(14.4%), '공기업' 968명(9.8%), '공무원' 921명(9.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기업',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중견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남학생은 '공기업'이 9.9%, 여학생은 공무원이 11.4%의 응답을 하였다. 학년별로도 '대기업', '중견기업'과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의 응답이 전 학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응답은 '상관없음' (28.1%), '울산' (25.7%), '수도권' (25.2%), '경상권' (13.1%), '타지역' (4.4%), '해외' 349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상관없음' 30.16%, '울산' 28.6%, '수도권' 21.0%의 순으로, 여학생은 '수도권' 30.1%, '상관없음' 25.8%, '울

산'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 2학년은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으로 '상관없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은 '울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는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 '적성 및 진로상담', '없음',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순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적성 및 진로상담'을, 여학생은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역시, 모든 학년에서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 확대'와 '적성 및 진로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경험을 중시하는 등 능력 중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이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재학 중 직무 경험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재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4학년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에 대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15.0%로 나타나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신건강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음'과 '보통'의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비율은 63.8%며 그중 22.7%의 학생은 잦은 불안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불안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자주 있었음', '매우 많이 있었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와 졸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음'이 46.0%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우울을 경험한 학생은 54%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15.9%는 잦은 우울/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전혀 없었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자살 사고에 대한 경험에 전체 응답자 9,876명 중 94.4%는 '한 번도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5.6%에 해당하는 555명은 최근 3개월간 자살사고를 경험하였다는 것으로 응답해 이들에 대한 선별적 관심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자살 사고 경험이 조금 더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이 자살 사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서는 97.6%가 '한 번도 없음'이며, 2.4%에 해당하는 학생 240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매일 혹은 자주 하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특별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남학생이 자살시도를 '자주 함' 0.4%로 여학생 0.2%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거의 매일 함'에 4학년 26명(1.0%), 3학년 17명(0.7%), 1학년 11명, 2학년 10명(각 0.5%)의 학생이 자살시도의 경험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 경험에 대해서는 95.2%의 학생이 ‘한 번도 없음’이며, 1.3%에 해당하는 126명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년 사이에 자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한 비율은 1학년 1.3%, 2학년 1.1%, 3학년 0.7%, 4학년 1.9%로 4학년이 가장 높았다.

5. 진로심리상담센터

가)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식

재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예’ 64.1%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69.9%로 남학생의 59.1%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의 50.2%가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해 1학년 대상으로 센터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존재함을 아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로는 ‘센터홍보’, ‘기타’, ‘교내 기관 추천’, ‘친구추천’, ‘교수님추천’, ‘수업’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는 ‘센터홍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도 ‘센터홍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87.1%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경험이 있는 학생은 ‘1회’, ‘2~3회’,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는 ‘1회’로 그쳤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이용 경험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의 이용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진로심리상담센터 서비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진로상담’, ‘없음’,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적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인 심리상담’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비교로 보면 남학생은 ‘없음’, ‘진로상담’, ‘개인 심리상담’ 순으로, 여학생은 ‘진로상담’, ‘없음’,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진로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과 더불어 ‘없음’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로는 ‘없음’이 75.6%, ‘개인 진로상담’ 9.9%, ‘개인심리검사’ 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로는 ‘없음’과

‘개인 진로상담’의 응답이 높아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개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심리검사’,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개인의 진로와 적성,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탐색을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검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는 응답자 9,876명 중 ‘없음’ 7,052명(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만족’은 1,095명(11.1%), ‘대체로 만족’은 872명(8.8%), ‘보통’은 741명(7.5%), ‘대체로 불만족’은 79명(0.8%), ‘매우 불만족’은 37명(0.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센터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비교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이용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이용 만족도도 여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 만족도에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을 제외하고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응답은 모든 학년이 진로심리상담센터 이용에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함의

재학생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학 만족도는 불만족의 비율이 9,876명 중 453명(4.6%)로 나타나 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한 4.6%의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의 가장 고민거리는 취업(3,204명, 32.4%), 적성 및 진로(2,011명, 20.4%)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공 불만족 학생은 723명(7.3%)이며, 불만족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거나(1,237명, 12.5%) 취업전망이 불투명(1,233명, 12.5%)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전공에 불만족한 학생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원이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3,512명(35.6%)이며, 휴학 이유의 가장 높은 비중은 취업준비(1,709명, 17.3%)로 나타나 학생들의 고민거리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진로 결정 및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흥미, 적성에 대해 잘 모르고(1,671명, 16.9%), 능력, 역량에 대해 잘 모르기(1,149명, 11.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 역량이나 흥미 적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 원하는 서비스는 직장체험기회 확대(2,096명, 21.2%)와 적성 및 진로상담(2,032명, 20.6%)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취업과 진로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학생 실태조사는 성적공시 이전에 미리 공지하였으나 참여율이 미미하여 성적공시와 연결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성적공시 이전에 참여하는 학생을 독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성적공시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22학년도 마음건강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목 차

I. 서론	109
II. 연구방법	110
1. 조사대상 및 기간	110
2. 조사도구	110
3. 조사내용	110
III. 조사결과	112
1. 일반사항	112
1) 소속 단과대학	112
2) 성별	114
3) 학년	115
2. 설문 문항 분석	116
가. 학교적응 상태	116
1)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16
2) 나는 지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18
3)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120
4)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122
5)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124
6)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126
7)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128
8)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30
나. 심리 정서 상태	132
1)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132

2)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134
3)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36
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138
5)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140
6)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142

IV. 종합144

1. 일반사항	144
2. 설문 문항분석	144

V. 후속프로그램151

1. 대상	151
2. 운영 기간	151
3. 운영 내용	151
4. 환류	152

표 목 차

<표 1> 마음건강 설문조사 문항	110
<표 2> 소속 단과대학 현황	113
<표 3>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17
<표 4> 나는 지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19
<표 5>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121
<표 6>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123
<표 7>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125
<표 8>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127
<표 9>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129
<표 10>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31
<표 11>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133
<표 12>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135
<표 13>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37
<표 1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139
<표 15>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141
<표 16>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143
<표 17> 후속 프로그램 개입 내용	152

그림 목 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112
<그림 2> 성별 현황	114
<그림 3> 학년 현황	115
<그림 4>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16
<그림 5> 나는 지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18
<그림 6>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120
<그림 7>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122
<그림 8>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124
<그림 9>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126
<그림 10>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128
<그림 11>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30
<그림 12>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132
<그림 13>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134
<그림 14>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36
<그림 15>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138
<그림 16>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140
<그림 17>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142

2022학년도 with 코로나 마음건강 실태조사

I. 서론

대학생활은 학업적 탐구와 진로에 대한 설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면에서 삶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다.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이외의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교수, 선배, 동기 등 새로운 사람과 강의실 안팎에서 상호교류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이룬다(Bowman, 2010).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동아리, 해외연수, 자원 봉사와 같은 비교과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리더십, 협업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내적 자원을 키워간다(김유경, 이지은, 2021). 하지만, 2020년 1월 대한민국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이전에 비해 불안, 우울, 공포와 같은 부정 정서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였고, 일상생활 전반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였다(장준혁 외, 2021).

2022년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등교가 재개되었는데, 비대면 대인관계에 익숙해진 대학생들에게 새롭게 부과된 대면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뒤바뀌는 대인관계 방식에 대한 적응을 전제로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최옥숙, 2023).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구성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학습과 역량을 늘리며, 학생의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적응을 이루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이명심, 2022). 대학생 시기에 획득한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는 성인기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의 적응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첫해를 보낸 본교 재학생들의 「with 코로나」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재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재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제도적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며, 본 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개입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11,215명(2022년 5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22년 5월 2일 ~ 7월 10일 69일간 학교 포털 USTAR와 UWINS를 통해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800명으로 재학생 전체 대비 참여율은 16.05%이다. 조사에 참여한 총 1,800명의 데이터는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College Questionnaire; SACQ) 중 발췌 및 수정한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마음건강 설문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성 내용	세부 문항	
일반 사항	인적 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	성별
		3	학년
with 코로나 마음 건강 실태 조사	학교 적응 상태	4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5	나는 지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6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7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8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9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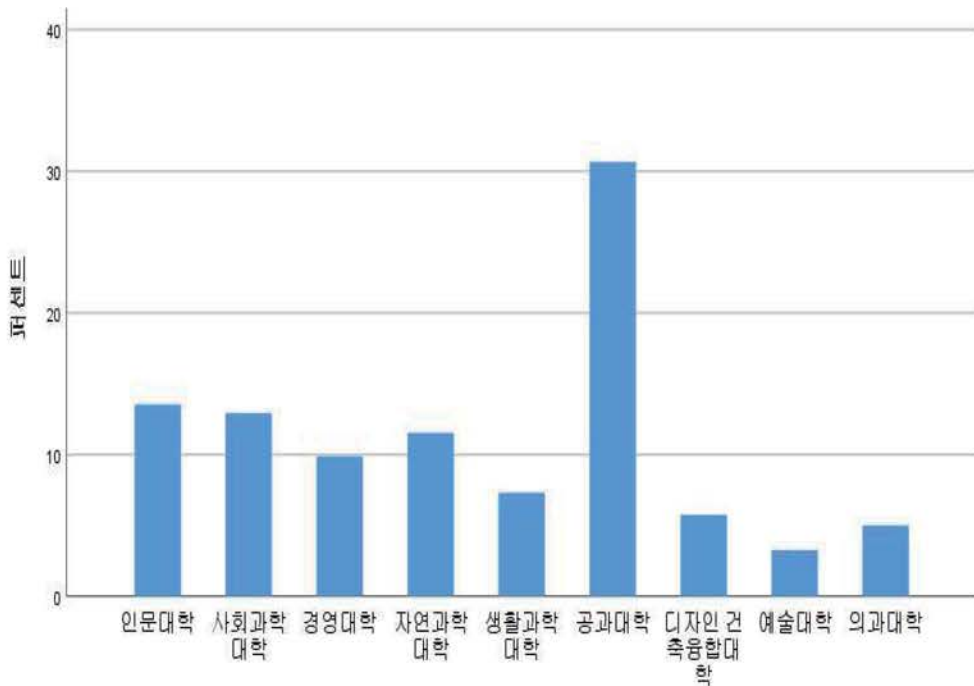
	10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11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리 정서 상태	12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13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14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5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16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17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문항 수	총 17문항	

Ⅲ. 조사 결과

1. 일반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022년 울산대학교 「with 코로나」 마음건강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800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 분포는 <표 2>와 같다. ‘공과대학’이 552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문대학’ 244명(13.6%), ‘사회과학대학’ 233명(12.9%), ‘자연과학대학’ 208명(11.6%), ‘경영대학’ 178명(9.9%), ‘생활과학대학’ 132명(7.3%),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04명(5.8%), ‘의과대학’ 90명(5.0%), ‘예술대학’ 59명(3.3%)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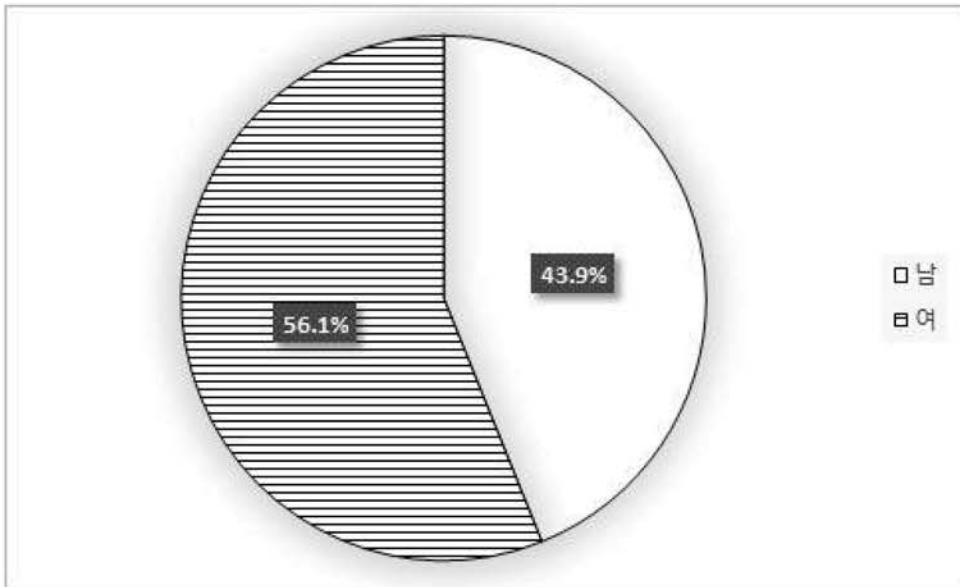
<표 2> 소속 단과대학 현황

구분		단과대학									전체
		인문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영 대학	자연과 학대학	생활 과학 대학	공과 대학	디자인 건축 융합 대학	예술 대학	의과 대학	
성 별	남	70 (8.9)	83 (10.5)	67 (8.5)	83 (10.5)	20 (2.5)	409 (51.8)	34 (4.3)	13 (1.6)	11 (1.4)	790 (100)
	여	174 (17.2)	150 (14.9)	111 (11.0)	125 (12.4)	112 (11.1)	143 (14.2)	70 (6.9)	46 (4.6)	79 (7.8)	1,010 (100)
학 년	1학년	85 (14.7)	96 (16.6)	46 (8.0)	70 (12.1)	38 (6.6)	157 (27.2)	30 (5.2)	22 (3.8)	33 (5.7)	577 (100)
	2학년	52 (13.1)	50 (12.6)	45 (11.3)	44 (11.1)	30 (7.5)	129 (32.4)	25 (6.3)	10 (2.5)	13 (3.3)	398 (100)
	3학년	54 (12.5)	49 (11.3)	46 (10.6)	50 (11.5)	30 (6.9)	134 (30.9)	30 (6.9)	12 (2.8)	28 (6.5)	433 (100)
	4학년	50 (13.2)	36 (9.5)	39 (10.3)	42 (11.1)	34 (9.0)	129 (34.0)	18 (4.7)	15 (4.0)	16 (4.2)	379 (100)
	5학년	3 (23.1)	2 (15.4)	2 (15.4)	2 (15.4)	0 (0.0)	3 (23.1)	1 (7.7)	0 (0.0)	0 (0.0)	13 (100)
전체		244 (13.6)	233 (12.9)	178 (9.9)	208 (11.6)	132 (7.3)	552 (30.7)	104 (5.8)	59 (3.3)	90 (5.0)	1,800 (100)

2) 성별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790명(43.9%), 여학생이 1,010명(56.1%)으로, 여학생이 220명(12.2%) 더 많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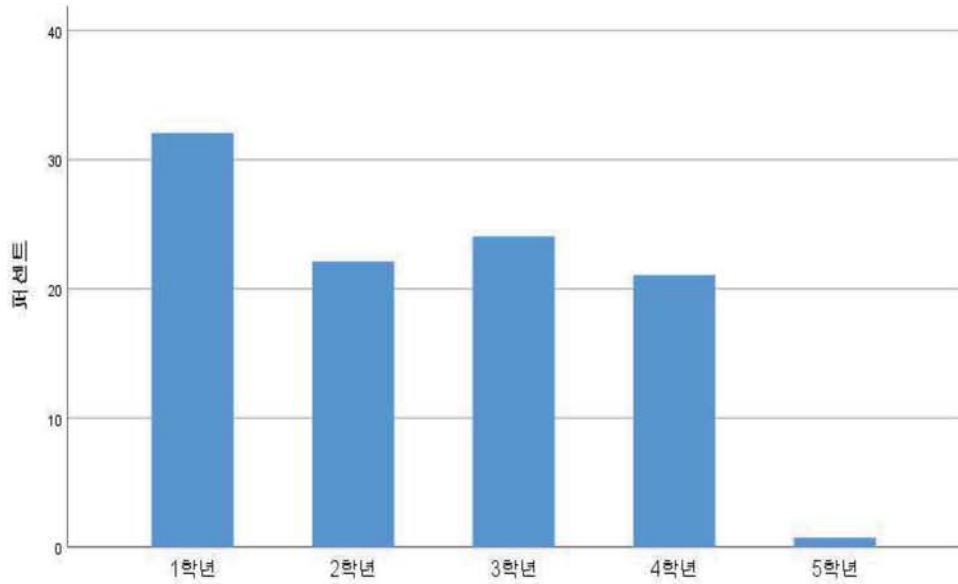
<표 2>를 참고하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1.8%인 409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대학' 과 '자연과학대학' 이 각각 10.5%, '인문대학' 8.9%, '경영대학' 8.5% 순으로 참여하였으며, 의과대학이 1.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인문대학' 이 174명, 17.2%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대학' 14.9%, '공과대학' 14.2%, '자연과학대학' 12.4%, '생활과학대학' 11.1%, '경영대학'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대학이 4.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현황

3) 학년

재학생의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이 577명(32.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였으며, 3학년 433명(24.1%), 2학년 398명(22.1%), 4학년 379명(21.0%), 5학년 1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년 현황

2. 설문 문항 분석

가. 학교적용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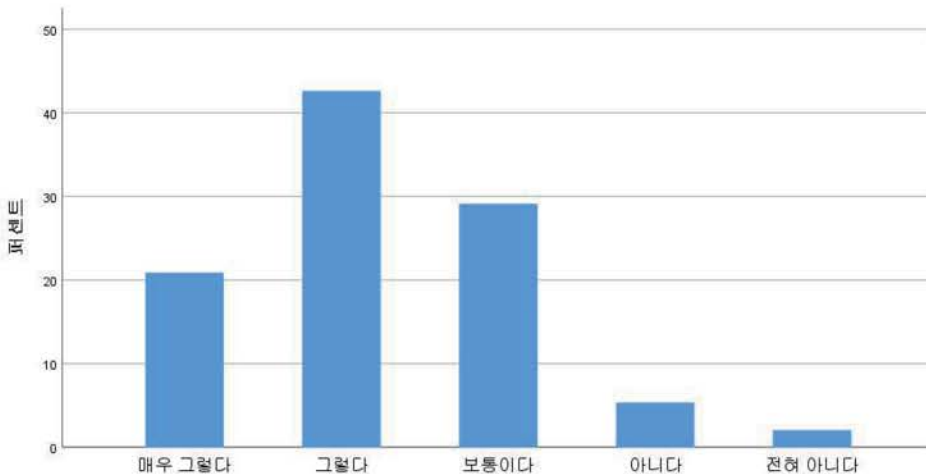
1)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그렇다’ 767명(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524명 (29.1%), ‘매우 그렇다’ 376명(20.9%), ‘아니다’ 96명(5.3%), ‘전혀 아니다’ 3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63.5%가 울산대학교 선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 학생들은 7.4%로 나타나 재학생들의 본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 39.7%보다 여학생이 44.9%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24.1%로 여학생의 18.4%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성별에 차이 없이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 결과로는, 모든 학년이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학년의 만족도가 69.3%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의 만족도는 57.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울산대학교 선택 만족도에 ‘아니다’의 응답은 5.3%로 3학년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이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교 선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72.2%이며,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예술대학이며 50.9%로 나타났다.



<그림 4>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표 3>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 별	남	190 (24.1)	314 (39.7)	229 (29.0)	40 (5.1)	17 (2.2)	790 (100)
	여	186 (18.4)	453 (44.9)	295 (29.2)	56 (5.5)	20 (2.0)	1,010 (100)
학 년	1학년	144 (25.0)	242 (41.9)	140 (24.3)	36 (6.2)	15 (2.6)	577 (100)
	2학년	85 (21.4)	164 (41.2)	117 (29.4)	24 (6.0)	8 (2.0)	398 (100)
	3학년	78 (18.0)	204 (47.1)	127 (29.3)	19 (4.4)	5 (1.2)	433 (100)
	4학년	66 (17.4)	151 (39.8)	137 (36.1)	16 (4.2)	9 (2.4)	379 (100)
	5학년	3 (23.1)	6 (46.2)	3 (23.1)	1 (7.7)	0 (0.0)	13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51 (20.9)	95 (38.9)	74 (30.3)	21 (8.6)	3 (1.2)	244 (100)
	사회과학 대학	51 (21.9)	100 (42.9)	67 (28.8)	12 (5.2)	3 (1.3)	233 (100)
	경영 대학	45 (25.3)	72 (40.4)	45 (25.3)	12 (6.7)	4 (2.2)	178 (100)
	자연과학 대학	43 (20.7)	97 (46.6)	55 (26.4)	6 (2.9)	7 (3.4)	208 (100)
	생활과학 대학	20 (15.2)	63 (47.7)	42 (31.8)	6 (4.5)	1 (0.8)	132 (100)
	공과 대학	109 (19.7)	235 (42.6)	169 (30.6)	27 (4.9)	12 (2.2)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8 (26.9)	39 (37.5)	31 (29.8)	3 (2.9)	3 (2.9)	104 (100)
	예술 대학	9 (15.3)	21 (35.6)	19 (32.2)	8 (13.6)	2 (3.4)	59 (100)
의과 대학	20 (22.2)	45 (50.0)	22 (24.4)	1 (1.1)	2 (2.2)	90 (100)	
전체	376 (20.9)	767 (42.6)	524 (29.1)	96 (5.3)	37 (2.1)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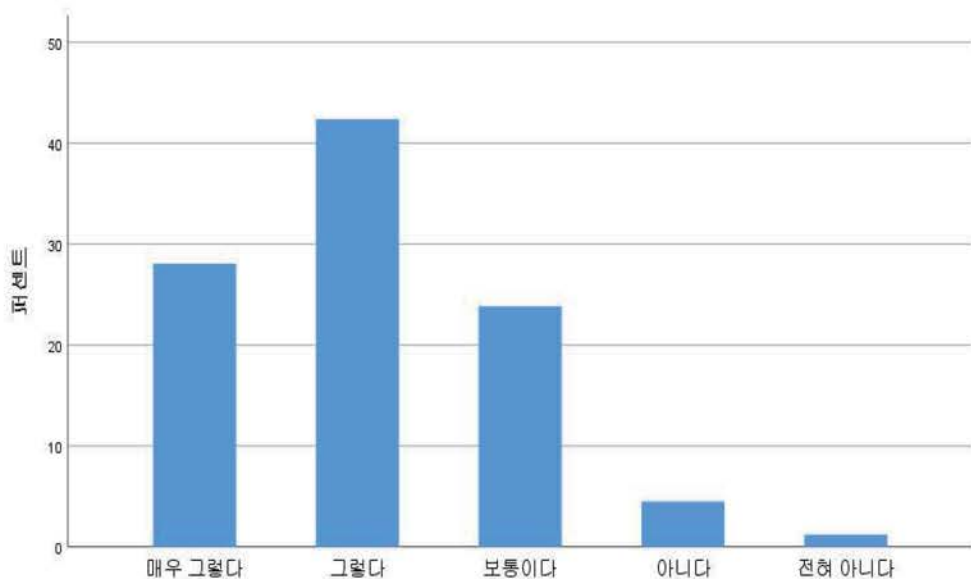
2)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1,800명 중 ‘그렇다’ 763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 505명(28.1%), ‘보통이다’ 429명(23.8%), ‘아니다’ 81명(4.5%), ‘전혀 아니다’ 2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39.2%, 여학생 44.9%의 응답이 ‘그렇다’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67.9%)보다 여학생(72.4%)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그렇다’가 가장 높았고, 3학년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1, 2, 5학년에서 30%가 넘는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지금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1학년은 71.4%, 2학년은 71.6%, 3학년은 68.9%, 4학년은 70.1%, 5학년은 53.9%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모든 단과대학에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의과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아니다’의 응답은 예술대학이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나는 지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표 4> 나는 지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 별	남	227 (28.7)	310 (39.2)	204 (25.8)	40 (5.1)	9 (1.1)	790 (100)
	여	278 (27.5)	453 (44.9)	225 (22.3)	41 (4.1)	13 (1.3)	1,010 (100)
학 년	1학년	178 (30.8)	234 (40.6)	126 (21.8)	31 (5.4)	8 (1.4)	577 (100)
	2학년	123 (30.9)	162 (40.7)	88 (22.1)	20 (5.0)	5 (1.3)	398 (100)
	3학년	99 (22.9)	199 (46.0)	115 (26.6)	15 (3.5)	5 (1.2)	433 (100)
	4학년	101 (26.6)	165 (43.5)	95 (25.1)	14 (3.7)	4 (1.1)	379 (100)
	5학년	4 (30.8)	3 (23.1)	5 (38.5)	1 (7.7)	0 (0.0)	13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71 (29.1)	95 (38.9)	64 (26.2)	13 (5.3)	1 (0.4)	244 (100)
	사회과학 대학	61 (26.2)	102 (43.8)	52 (22.3)	15 (6.4)	3 (1.3)	233 (100)
	경영 대학	56 (31.5)	70 (39.3)	40 (22.5)	6 (3.4)	6 (3.4)	178 (100)
	자연과학 대학	51 (24.5)	88 (42.3)	63 (30.3)	6 (2.9)	0 (0.0)	208 (100)
	생활과학 대학	39 (29.5)	60 (45.5)	24 (18.2)	6 (4.5)	3 (2.3)	132 (100)
	공과 대학	146 (26.40)	241 (43.7)	139 (25.2)	20 (3.6)	6 (1.1)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32 (30.8)	43 (41.3)	22 (21.2)	6 (5.8)	1 (1.0)	104 (100)
	예술 대학	16 (27.1)	26 (44.1)	11 (18.6)	4 (6.8)	2 (3.4)	59 (100)
	의과 대학	33 (36.7)	38 (42.2)	14 (15.6)	5 (5.6)	0 (0.0)	90 (100)
전체	505 (28.1)	763 (42.4)	429 (23.8)	81 (4.5)	22 (1.2)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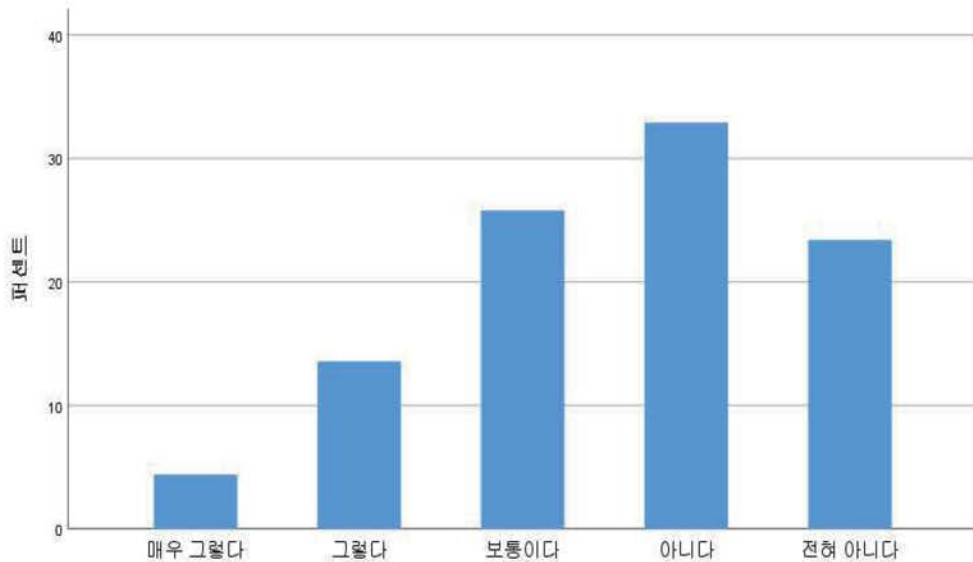
3)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설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1,800명 중 ‘아니다’가 592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464명(25.8%), ‘전혀 아니다’ 421명(23.4%), ‘그렇다’ 244명(13.6%), ‘매우 그렇다’ 79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수업방식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 1,013명(56.3%)으로 과반수이지만, 18%에 해당하는 323명은 적응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14.9% 여학생의 18.9%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이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21.1%로 가장 높았고, 3학년 19.4%, 4학년 16.6%, 1학년 15.8%, 5학년 7.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생활과학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수업방식 적응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생활과학대학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22.7%,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47.0%로 나타나 타 단과대학보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의과대학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표 5>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40 (5.1)	93 (11.8)	225 (28.5)	233 (29.5)	199 (25.2)	790 (100)
	여	39 (3.9)	151 (15.0)	239 (23.7)	359 (35.5)	222 (22.0)	1,010 (100)
학년	1학년	23 (4.0)	68 (11.8)	159 (27.6)	184 (31.9)	143 (24.8)	577 (100)
	2학년	26 (6.5)	58 (14.6)	100 (25.1)	131 (32.9)	83 (20.9)	398 (100)
	3학년	14 (3.2)	70 (16.2)	110 (25.4)	152 (35.1)	87 (20.1)	433 (100)
	4학년	16 (4.2)	47 (12.4)	93 (24.5)	121 (31.9)	102 (26.9)	379 (100)
	5학년	0 (0.0)	1 (7.7)	2 (15.4)	4 (30.8)	6 (46.2)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7 (7.0)	33 (13.5)	70 (28.7)	83 (34.0)	41 (16.8)	244 (100)
	사회과학 대학	6 (2.6)	37 (15.9)	62 (26.6)	81 (34.8)	47 (20.2)	233 (100)
	경영 대학	9 (5.1)	24 (13.5)	45 (25.3)	52 (29.2)	48 (27.0)	178 (100)
	자연과학 대학	6 (2.9)	32 (15.4)	62 (29.8)	58 (27.9)	50 (24.0)	208 (100)
	생활과학 대학	6 (4.5)	24 (18.2)	40 (30.3)	41 (31.1)	21 (15.9)	132 (100)
	공과 대학	22 (4.0)	70 (12.7)	133 (24.1)	188 (34.1)	139 (25.2)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8 (7.7)	10 (9.6)	21 (20.2)	34 (32.7)	31 (29.8)	104 (100)
	예술 대학	4 (6.8)	6 (10.2)	14 (23.7)	15 (25.4)	20 (33.9)	59 (100)
	의과 대학	1 (1.1)	8 (8.9)	17 (18.9)	40 (44.4)	24 (26.7)	90 (100)
전체	79 (4.4)	244 (13.6)	464 (25.8)	592 (32.9)	421 (23.4)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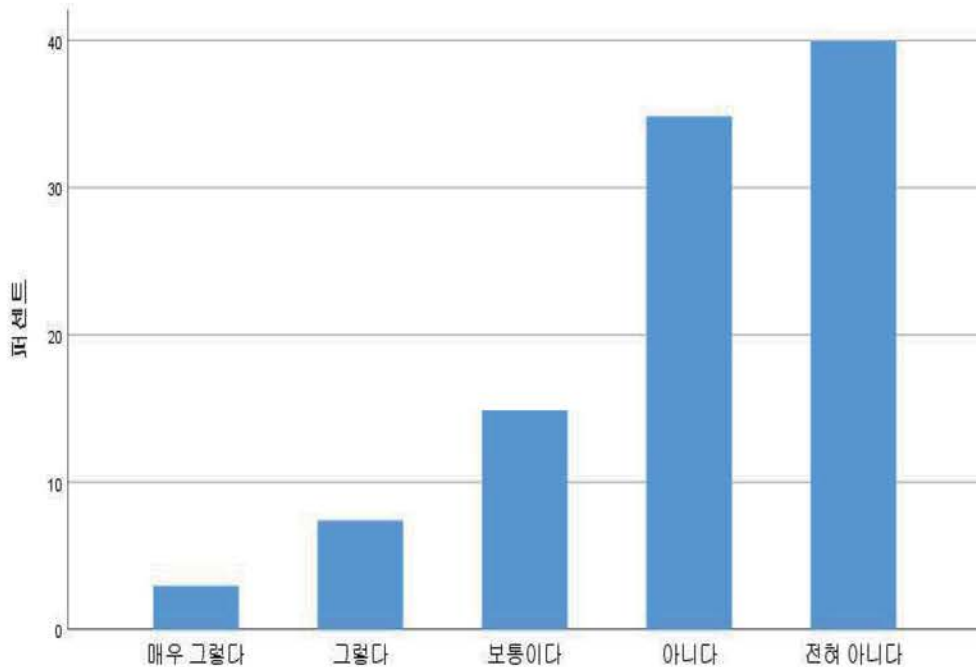
4)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의 설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전혀 아니다’가 719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627명(34.8%), ‘보통이다’ 268명(14.9%), ‘그렇다’ 133명(7.4%), ‘매우 그렇다’ 5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4.7%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응답해 휴학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0.1%의 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79.7% 여학생의 70.9%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휴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휴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77.3%, 3학년 72.1%, 2학년 70.9%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휴학 의사가 ‘있다’에 생활과학대학과 인문대학이 각각 22.7%와 20.5%, 경영대학 18.6%, 사회과학대학 18.5%, 자연과학대학 18.3%로 평균 17.7%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7>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표 6>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21 (2.7)	45 (5.7)	94 (11.9)	253 (32.0)	377 (47.7)	790 (100)
	여	32 (3.2)	88 (8.7)	174 (17.2)	374 (37.0)	342 (33.9)	1,010 (100)
학년	1학년	16 (2.8)	37 (6.4)	74 (12.8)	199 (34.5)	251 (43.5)	577 (100)
	2학년	13 (3.3)	32 (8.0)	71 (17.8)	144 (36.2)	138 (34.7)	398 (100)
	3학년	12 (2.8)	41 (9.5)	68 (15.7)	154 (35.6)	158 (36.5)	433 (100)
	4학년	12 (3.2)	21 (5.5)	53 (14.0)	127 (33.5)	166 (43.8)	379 (100)
	5학년	0 (0.0)	2 (15.4)	2 (15.4)	3 (23.1)	6 (46.2)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7 (2.9)	20 (8.2)	47 (19.3)	94 (38.5)	76 (31.1)	244 (100)
	사회과학 대학	7 (3.0)	12 (5.2)	31 (13.3)	98 (42.1)	85 (36.5)	233 (100)
	경영 대학	10 (5.6)	16 (9.0)	16 (9.0)	53 (29.8)	83 (46.6)	178 (100)
	자연과학 대학	5 (2.4)	15 (7.2)	35 (16.8)	71 (34.1)	82 (39.4)	208 (100)
	생활과학 대학	5 (3.8)	6 (4.5)	20 (15.2)	56 (42.4)	45 (34.1)	132 (100)
	공과 대학	12 (2.2)	43 (7.8)	77 (13.9)	170 (30.8)	250 (45.3)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3.8)	8 (7.7)	18 (17.3)	35 (33.7)	39 (37.5)	104 (100)
	예술 대학	1 (1.7)	7 (11.9)	11 (18.6)	13 (22.0)	27 (45.8)	59 (100)
	의과 대학	2 (2.2)	6 (6.7)	13 (14.4)	37 (41.1)	32 (35.6)	90 (100)
전체	53 (2.9)	133 (7.4)	268 (14.9)	627 (34.8)	719 (39.9)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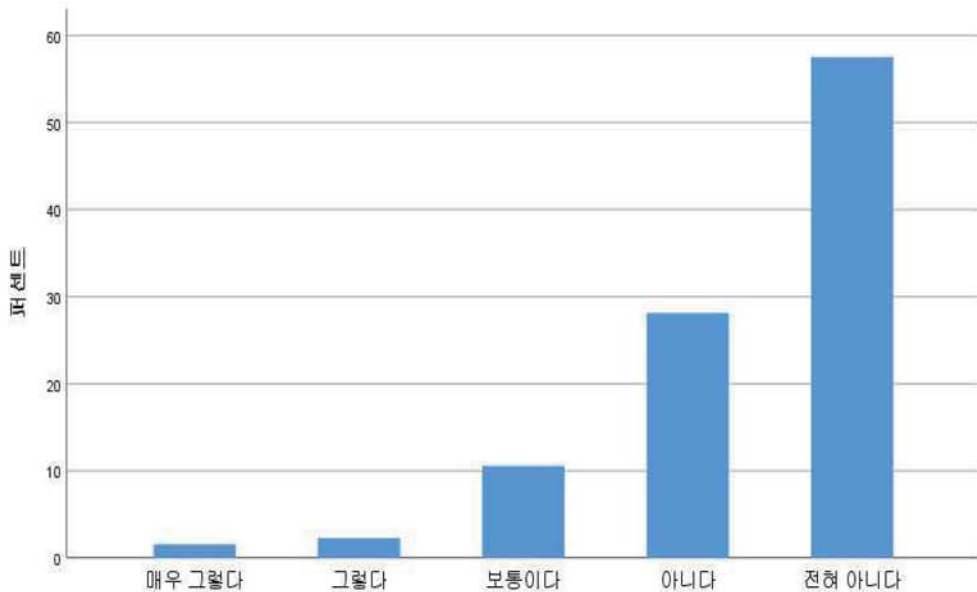
5)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하고 있다’의 설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전혀 아니다’가 1,035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506명(28.1%), ‘보통이다’ 190명(10.6%), ‘그렇다’ 41명(2.3%), ‘매우 그렇다’ 28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5.6%인 1,541명이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응답해 자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3.9%의 학생 69명은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85.3%, 여학생의 85.8%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자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자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 86.3%, 3학년 85.7%, 2학년 80.9%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휴학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이 6.8%와 6.6%, 경영대학 5.0%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이 2.1%고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표 7> 대학생 생활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14 (1.8)	17 (2.2)	85 (10.8)	217 (27.5)	457 (57.8)	790 (100)
	여	14 (1.4)	24 (2.4)	105 (10.4)	289 (28.6)	578 (57.2)	1,010 (100)
학년	1학년	15 (2.6)	16 (2.8)	48 (8.3)	176 (30.5)	322 (55.8)	577 (100)
	2학년	6 (1.5)	10 (2.5)	60 (15.1)	116 (29.1)	206 (51.8)	398 (100)
	3학년	1 (0.2)	12 (2.8)	49 (11.3)	116 (26.8)	255 (58.9)	433 (100)
	4학년	5 (1.3)	3 (0.8)	30 (7.9)	96 (25.3)	245 (64.6)	379 (100)
	5학년	1 (7.7)	0 (0.0)	3 (23.1)	2 (15.4)	7 (53.8)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2 (0.8)	5 (2.0)	30 (12.3)	68 (27.9)	139 (57.0)	244 (100)
	사회과학 대학	1 (0.4)	4 (1.7)	16 (6.9)	70 (30.0)	142 (60.9)	233 (100)
	경영 대학	4 (2.2)	5 (2.8)	12 (6.7)	46 (25.8)	111 (62.4)	178 (100)
	자연과학 대학	5 (2.4)	4 (1.9)	31 (14.9)	57 (27.4)	111 (53.4)	208 (100)
	생활과학 대학	1 (0.8)	3 (2.3)	17 (12.9)	38 (28.8)	73 (55.3)	132 (100)
	공과 대학	11 (2.0)	12 (2.2)	59 (10.7)	154 (27.9)	316 (57.2)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3 (2.9)	2 (1.9)	14 (13.5)	25 (24.0)	60 (57.7)	104 (100)
	예술 대학	1 (1.7)	3 (5.1)	8 (13.6)	15 (25.4)	32 (54.2)	59 (100)
	의과 대학	3 (3.3)	3 (3.3)	33 (36.7)	51 (56.7)	90 (100)	0 (0.0)
전체		28 (1.6)	41 (2.3)	190 (10.6)	506 (28.1)	1,035 (57.5)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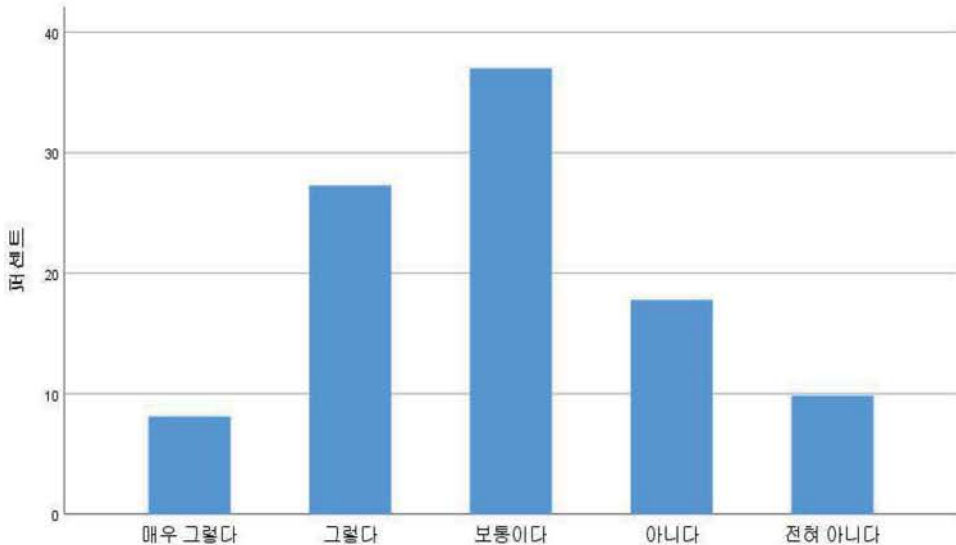
6)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보통이다’가 666명(37.0%), ‘그렇다’ 491명 (27.3%), ‘아니다’ 320명 (17.8%), ‘전혀 아니다’ 177명(9.8%), ‘매우 그렇다’ 146명(8.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의 비율은 여학생이 36.2%로 남학생의 34.3%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에서 대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년들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 하였다. 현재 3학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는 해에 대학에 입학한 학년으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타 학년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대학 공부가 어려운가에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예술대학에서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의과대학에서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공과대학 44.2%와 자연과학대학 38.5%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의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표 8>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 별	남	72 (9.1)	199 (25.2)	277 (35.1)	134 (17.0)	108 (13.7)	790 (100)
	여	74 (7.3)	292 (28.9)	389 (38.5)	186 (18.4)	69 (6.8)	1,010 (100)
학 년	1학년	55 (9.5)	154 (26.7)	222 (38.5)	90 (15.6)	56 (9.7)	577 (100)
	2학년	28 (7.0)	113 (28.4)	150 (37.7)	67 (16.8)	40 (10.1)	398 (100)
	3학년	35 (8.1)	127 (29.3)	153 (35.3)	83 (19.2)	35 (8.1)	433 (100)
	4학년	25 (6.6)	94 (24.8)	137 (36.1)	79 (20.8)	44 (11.6)	379 (100)
	5학년	3 (23.1)	3 (23.1)	4 (30.8)	1 (7.7)	2 (15.4)	13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14 (5.7)	60 (24.6)	99 (40.6)	54 (22.1)	17 (7.0)	244 (100)
	사회과학 대학	15 (6.4)	43 (18.5)	104 (44.6)	47 (20.2)	24 (10.3)	233 (100)
	경영 대학	11 (6.2)	45 (25.3)	66 (37.1)	31 (17.4)	25 (14.0)	178 (100)
	자연과학 대학	16 (7.7)	64 (30.8)	79 (38.0)	36 (17.3)	13 (6.3)	208 (100)
	생활과학 대학	7 (5.3)	37 (28.0)	54 (40.9)	25 (18.9)	9 (6.8)	132 (100)
	공과 대학	63 (11.4)	181 (32.8)	172 (31.2)	83 (15.0)	53 (9.6)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 (4.8)	20 (19.2)	44 (42.3)	20 (19.2)	15 (14.4)	104 (100)
	예술 대학	1 (1.7)	8 (13.6)	21 (35.6)	15 (25.4)	14 (23.7)	59 (100)
	의과 대학	14 (15.6)	33 (36.7)	27 (30.0)	9 (10.0)	7 (7.8)	90 (100)
전체	146 (8.1)	491 (27.3)	666 (37.0)	320 (17.8)	177 (9.8)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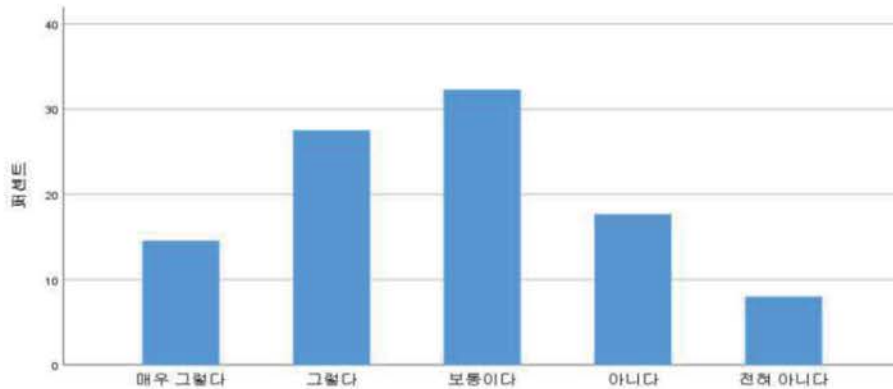
7)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 1,800명 중 581명(32.4%)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그렇다’ 495명(27.5%), ‘아니다’ 318명(17.7%), ‘매우 그렇다’ 262명(14.6%), ‘전혀 아니다’ 144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은과 여학생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이 29.2%와 34.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44.5%와 40.1%로 나타나 남·여 모두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3학년은 38.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입학하여 대인관계 형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으나, 3학년은 코로나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비대면 수업과 제한된 활동 환경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학년과 1학년은 각각 42.4%와 41.7%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그렇다’의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이 51.1%, 디자인·건축융합대학 51.0%, 예술대학 45.7%, 자연과학대학 44.7% 등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경영대학은 33.1%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중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표 9>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125 (15.8)	227 (28.7)	231 (29.2)	133 (16.8)	74 (9.4)	790 (100)
	여	137 (13.6)	268 (26.5)	350 (34.7)	185 (18.3)	70 (6.9)	1,010 (100)
학년	1학년	78 (13.5)	165 (28.2)	205 (35.5)	97 (16.8)	34 (5.9)	577 (100)
	2학년	63 (15.8)	106 (26.6)	127 (31.9)	68 (17.1)	34 (8.5)	398 (100)
	3학년	51 (11.8)	117 (27.0)	147 (33.9)	79 (18.2)	39 (9.0)	433 (100)
	4학년	68 (17.9)	105 (27.7)	97 (25.6)	72 (19.0)	37 (9.8)	379 (100)
	5학년	2 (15.4)	4 (30.8)	5 (38.5)	2 (15.4)	0 (0.0)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35 (14.3)	62 (25.4)	79 (32.4)	49 (20.1)	19 (7.8)	244 (100)
	사회과학 대학	26 (11.2)	61 (26.2)	78 (33.5)	51 (21.9)	17 (7.3)	233 (100)
	경영 대학	25 (14.0)	34 (19.1)	67 (37.6)	35 (19.7)	17 (9.6)	178 (100)
	자연과학 대학	25 (12.0)	68 (32.7)	70 (33.7)	28 (13.5)	17 (8.2)	208 (100)
	생활과학 대학	20 (15.2)	37 (28.0)	42 (31.8)	26 (19.7)	7 (5.3)	132 (100)
	공과 대학	84 (15.2)	154 (27.9)	166 (30.1)	98 (17.8)	50 (9.1)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4 (23.1)	29 (27.9)	35 (33.7)	8 (7.7)	8 (7.7)	104 (100)
	예술 대학	11 (18.6)	16 (27.1)	19 (32.2)	10 (16.9)	3 (5.1)	59 (100)
	의과 대학	12 (13.3)	34 (37.8)	25 (27.8)	13 (14.4)	6 (6.7)	90 (100)
전체	262 (14.6)	495 (27.5)	581 (32.3)	318 (17.7)	144 (8.0)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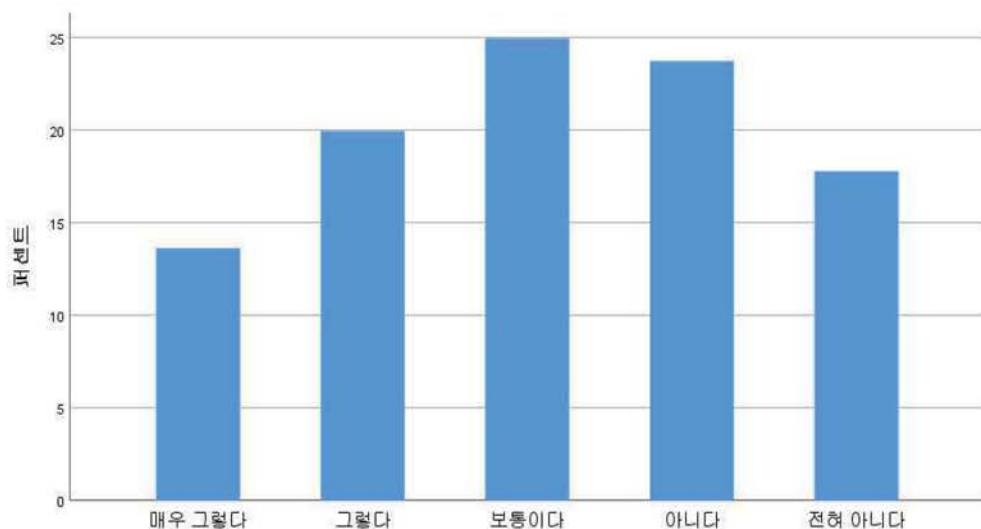
8)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보통이다’가 449명(24.9%), ‘아니다’ 427명(23.7%), ‘그렇다’ 359명(19.9%), ‘전혀 아니다’ 320명(17.8%), ‘매우 그렇다’ 245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아니다’가 25.4%, 남학생은 ‘보통이다’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참여도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항목의 비율 32.9%는 남학생의 34.4%보다 약간 낮으나 성별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은 ‘보통이다’의 응답이, 3학년과 4학년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항목과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 두 항목을 비교해보면 1학년은 40.8%가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학년은 52.5%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이 활동에 참여가 저조한 것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 학교 내 모임보다는 개인의 진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1학년의 적극적인 참여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신입생 시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학대학이 적극적인 참여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경영대학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11>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10>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118 (14.9)	154 (19.5)	198 (25.1)	170 (21.5)	150 (19.0)	790 (100)
	여	127 (12.6)	205 (20.3)	251 (24.9)	257 (25.4)	170 (16.8)	1,010 (100)
학년	1학년	91 (15.8)	144 (25.0)	164 (28.4)	111 (19.2)	67 (11.6)	577 (100)
	2학년	61 (15.3)	80 (20.1)	104 (26.1)	100 (25.1)	53 (13.3)	398 (100)
	3학년	43 (9.9)	80 (18.5)	98 (22.6)	113 (26.1)	99 (22.9)	433 (100)
	4학년	47 (12.4)	53 (14.0)	80 (21.1)	101 (26.6)	98 (25.9)	379 (100)
	5학년	3 (23.1)	2 (15.4)	3 (23.1)	2 (15.4)	3 (23.1)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30 (12.3)	52 (21.3)	63 (25.8)	59 (24.2)	40 (16.4)	244 (100)
	사회과학 대학	33 (14.2)	35 (15.0)	64 (27.5)	55 (23.6)	46 (19.7)	233 (100)
	경영 대학	20 (11.2)	24 (13.5)	44 (24.7)	51 (28.7)	39 (21.9)	178 (100)
	자연과학 대학	25 (12.0)	62 (29.8)	38 (18.3)	50 (24.0)	33 (15.9)	208 (100)
	생활과학 대학	20 (15.2)	29 (22.0)	35 (26.5)	34 (25.8)	14 (10.6)	132 (100)
	공과 대학	79 (14.3)	106 (19.2)	136 (24.6)	120 (21.7)	111 (20.1)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0 (19.2)	21 (20.2)	30 (28.8)	24 (23.1)	9 (8.7)	104 (100)
	예술 대학	6 (10.2)	11 (18.6)	19 (32.2)	12 (20.3)	11 (18.6)	59 (100)
	의과 대학	12 (15.3)	19 (21.1)	20 (22.2)	22 (24.4)	17 (18.9)	90 (100)
전체	245 (13.6)	359 (19.9)	449 (24.9)	427 (23.7)	320 (17.8)	1,800 (100)	

나. 심리 정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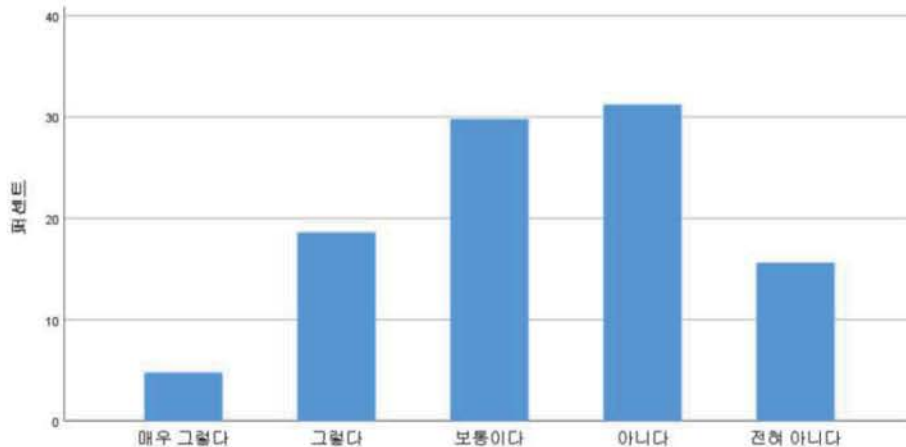
1)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아니다’가 562명(31.2%), ‘보통이다’ 536명(29.8%), ‘그렇다’ 335명(18.6%), ‘전혀 아니다’ 281명(15.6%), ‘매우 그렇다’ 86명(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보통이다’ 30.3%, ‘아니다’ 29.2%, ‘전혀 아니다’ 19.6%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아니다’ 32.8%, ‘보통이다’ 29.4%, ‘그렇다’ 20.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25.3%에 비해 남학생은 20.9%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과 4학년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과 3학년은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1학년과 4학년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49.9%와 50.6%로 힘들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학년과 3학년은 25.2%와 26.3%로 타 학년에 비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33.6%, 사회과학대학 40.8%, 자연과학대학 33.2%, 생활과학대학 34.8%로 나타났고 그 외의 대학은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대학은 힘들지 않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고, 의과대학과 예술대학은 힘들다는 응답이 각각 31.1%와 27.1%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의 실기와 실습의 비중이 높은 학과들에서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표 11> 나는 요즘 대학생들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34 (4.3)	131 (16.6)	239 (30.3)	231 (29.2)	155 (19.6)	790 (100)
	여	52 (5.1)	204 (20.2)	297 (29.4)	331 (32.8)	126 (12.5)	1,010 (100)
학년	1학년	23 (4.0)	93 (16.1)	173 (30.0)	190 (32.9)	98 (17.0)	577 (100)
	2학년	19 (4.8)	81 (20.4)	128 (32.2)	113 (28.4)	57 (14.3)	398 (100)
	3학년	22 (5.1)	92 (21.2)	133 (30.7)	130 (30.0)	56 (12.9)	433 (100)
	4학년	21 (5.5)	67 (17.7)	99 (26.1)	126 (33.2)	66 (17.4)	379 (100)
	5학년	1 (7.7)	2 (15.4)	3 (23.1)	3 (23.1)	4 (30.8)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2 (4.9)	39 (16.0)	75 (30.7)	82 (33.6)	36 (14.8)	244 (100)
	사회과학 대학	10 (4.3)	31 (13.3)	63 (27.0)	95 (40.8)	34 (14.6)	233 (100)
	경영 대학	10 (5.6)	27 (15.2)	53 (29.8)	52 (29.2)	36 (20.2)	178 (100)
	자연과학 대학	4 (1.9)	48 (23.1)	56 (26.9)	69 (33.2)	31 (14.9)	208 (100)
	생활과학 대학	4 (3.0)	28 (21.2)	42 (31.8)	46 (34.8)	12 (9.1)	132 (100)
	공과 대학	27 (4.9)	111 (20.1)	157 (28.4)	154 (27.9)	103 (18.7)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8 (7.7)	18 (17.3)	35 (33.7)	31 (29.8)	12 (11.5)	104 (100)
	예술 대학	5 (8.5)	11 (18.6)	23 (39.0)	11 (18.6)	9 (15.3)	59 (100)
	의과 대학	6 (6.7)	22 (24.4)	32 (35.6)	22 (24.4)	8 (8.9)	90 (100)
전체		86 (4.8)	335 (18.6)	536 (29.8)	562 (31.2)	281 (15.6)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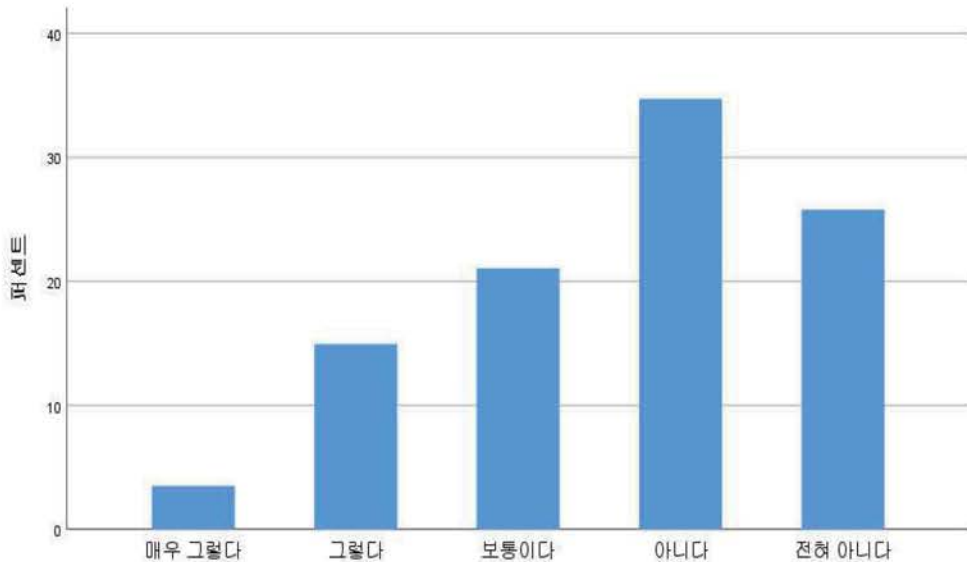
2)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 1,800명 중 ‘아니다’ 625명(34.7%)이 가장 많았으며, ‘전혀 아니다’ 464명(25.8%), ‘보통이다’ 379명(21.1%), ‘그렇다’ 269명(14.9%), ‘매우 그렇다’ 63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아니다’가 높게 나타났고, ‘전혀 아니다’에서는 남학생이 29.5%로 여학생의 2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짜증을 잘 낸다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항목의 응답을 비교하면 남학생은 12.8%, 여학생은 22.9%로 여학생의 응답이 10.1%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아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학년이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는 항목에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52.7%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반대로 짜증을 잘 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 1학년들이 위드(with) 코로나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 일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경영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아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의과대학이 41.1%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생활과학대학과 예술대학이 각각 22.7%, 23.7%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표 12>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20 (2.5)	81 (10.3)	164 (20.8)	292 (37.0)	233 (29.5)	790 (100)
	여	43 (4.3)	188 (18.6)	215 (21.3)	333 (33.0)	231 (22.9)	1,010 (100)
학년	1학년	19 (3.3)	70 (12.1)	105 (18.2)	209 (36.2)	174 (30.2)	577 (100)
	2학년	7 (1.8)	72 (18.1)	79 (19.8)	139 (34.9)	101 (25.4)	398 (100)
	3학년	14 (3.2)	68 (15.7)	95 (21.9)	161 (37.2)	95 (21.9)	433 (100)
	4학년	23 (6.1)	56 (14.8)	100 (26.4)	110 (29.0)	90 (23.7)	379 (100)
	5학년	0 (0.0)	3 (23.1)	0 (0.0)	6 (46.2)	4 (30.8)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4 (5.7)	35 (14.3)	48 (19.70)	86 (35.2)	61 (25.0)	244 (100)
	사회과학 대학	7 (3.0)	37 (15.9)	52 (22.3)	82 (35.2)	55 (23.6)	233 (100)
	경영 대학	4 (2.2)	25 (14.0)	50 (28.1)	47 (26.4)	52 (29.2)	178 (100)
	자연과학 대학	6 (2.9)	23 (11.1)	55 (26.4)	62 (29.8)	62 (29.8)	208 (100)
	생활과학 대학	3 (2.3)	30 (22.7)	25 (18.9)	52 (39.4)	22 (16.7)	132 (100)
	공과 대학	19 (3.4)	71 (12.9)	105 (19.0)	204 (37.0)	153 (27.7)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 (4.8)	19 (18.3)	19 (18.3)	42 (40.4)	19 (18.3)	104 (100)
	예술 대학	3 (5.1)	14 (23.7)	12 (20.3)	13 (22.0)	17 (28.8)	59 (100)
	의과 대학	2 (2.2)	15 (16.7)	13 (14.4)	37 (41.1)	23 (25.6)	90 (100)
전체	63 (3.5)	269 (14.9)	379 (21.1)	625 (34.7)	464 (25.8)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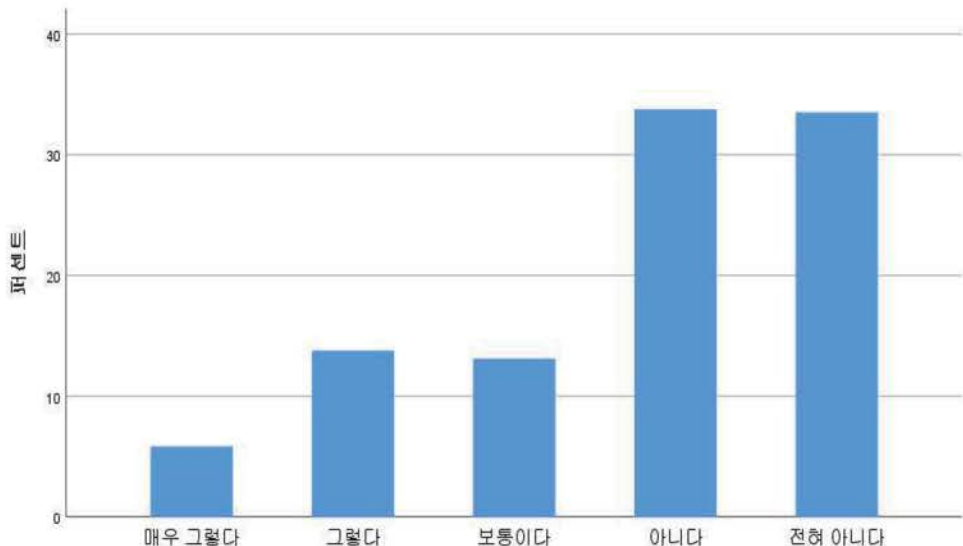
3)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608명(33.8%)이 ‘아니다’, 603명(33.5%)이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해 전체 학생의 1,211명(67.3%)은 숙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그렇다’ 248명(13.8%), ‘보통이다’ 236명(13.1%), ‘매우 그렇다’ 105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보면, 남학생은 ‘아니다’ 34.9%, ‘전혀 아니다’가 31.6%의 응답을 하였고, 여학생은 ‘아니다’가 32.9%, ‘전혀 아니다’가 35.0%의 응답을 나타내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학년에서는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에서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단과대학 중 예술대학이 각각 16.9%로 동일하게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각각 16.9%, 13.5%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타 단과대학보다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 단과대학보다 과제량도 많고 실습 위주의 작업이 많아 숙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표 13>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43 (5.4)	107 (13.5)	114 (14.4)	276 (34.9)	250 (31.6)	790 (100)
	여	62 (6.1)	141 (14.0)	122 (12.1)	332 (32.9)	353 (35.0)	1,010 (100)
학년	1학년	31 (5.4)	74 (12.8)	76 (13.2)	183 (31.7)	213 (36.9)	577 (100)
	2학년	25 (6.3)	54 (13.6)	52 (13.1)	128 (32.2)	139 (34.9)	398 (100)
	3학년	14 (3.2)	66 (15.2)	57 (13.2)	159 (36.7)	137 (31.6)	433 (100)
	4학년	33 (8.7)	54 (14.2)	49 (12.9)	130 (34.3)	113 (29.8)	379 (100)
	5학년	2 (15.4)	0 (0.0)	2 (15.4)	8 (61.5)	1 (7.7)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8 (3.3)	41 (16.8)	33 (13.5)	84 (34.4)	78 (32.0)	244 (100)
	사회과학 대학	13 (5.6)	34 (14.6)	35 (15.0)	78 (33.5)	73 (31.3)	233 (100)
	경영 대학	8 (4.5)	18 (10.1)	24 (13.5)	51 (28.7)	77 (43.3)	178 (100)
	자연과학 대학	12 (5.8)	29 (13.9)	27 (13.0)	79 (38.0)	61 (29.3)	208 (100)
	생활과학 대학	8 (6.1)	17 (12.9)	13 (9.8)	55 (41.7)	39 (29.5)	132 (100)
	공과 대학	25 (4.5)	73 (13.2)	75 (13.6)	182 (33.0)	197 (35.7)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4 (13.5)	17 (16.3)	12 (11.5)	36 (34.6)	25 (24.0)	104 (100)
	예술 대학	10 (16.9)	10 (16.9)	8 (13.6)	13 (22.0)	18 (30.5)	59 (100)
	의과 대학	7 (7.8)	9 (10.0)	9 (10.0)	30 (33.3)	35 (38.9)	90 (100)
전체	105 (5.8)	248 (13.8)	236 (13.1)	608 (33.8)	603 (33.5)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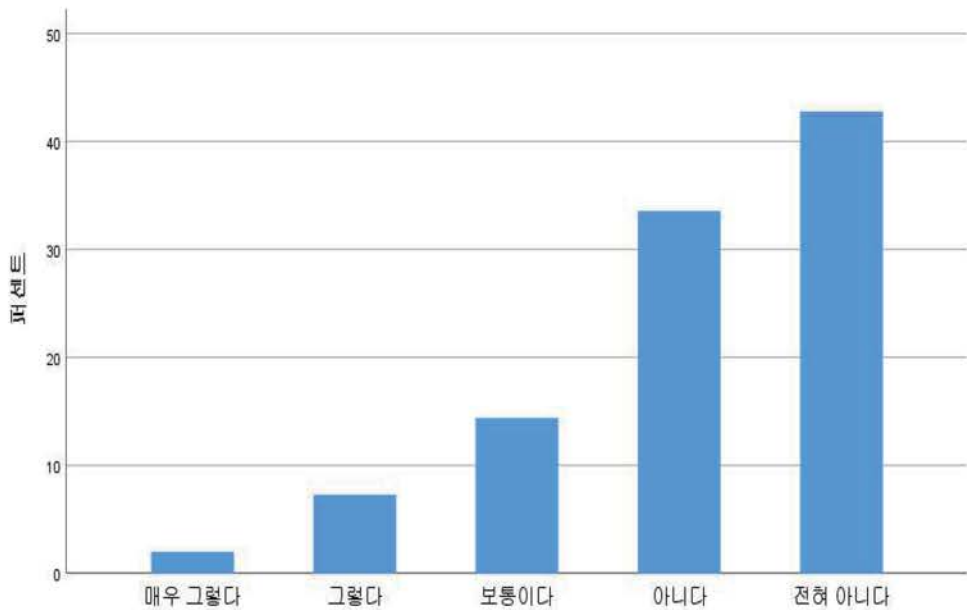
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나는 최근 식욕이 없다’의 설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 1,800명 중 ‘전혀 아니다’가 770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604명(33.6%), ‘보통이다’ 259명(14.4%), ‘그렇다’ 131명(7.3%), ‘매우 그렇다’ 36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 중 1,410명(76.4%)의 학생들은 식욕 저하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각각 40.8%, 44.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중 1학년이 44.7%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이 4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생활과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의과대학이 46.7%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3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5>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표 1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별성	남	16 (2.0)	56 (7.1)	114 (14.4)	282 (35.7)	322 (40.8)	790 (100)
	여	20 (2.0)	75 (7.4)	145 (14.4)	322 (31.9)	448 (44.4)	1,010 (100)
학년	1학년	8 (1.4)	40 (6.9)	75 (13.0)	196 (34.0)	258 (44.7)	577 (100)
	2학년	6 (1.5)	33 (8.3)	66 (16.6)	133 (33.4)	160 (40.2)	398 (100)
	3학년	9 (2.1)	30 (6.9)	63 (14.5)	148 (34.2)	183 (42.3)	433 (100)
	4학년	11 (2.9)	27 (7.1)	55 (14.5)	123 (32.5)	163 (43.0)	379 (100)
	5학년	2 (15.4)	1 (7.7)	0 (0.0)	4 (30.8)	6 (46.2)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4 (1.6)	25 (10.2)	37 (15.2)	83 (34.0)	95 (38.9)	244 (100)
	사회과학 대학	5 (2.1)	20 (8.6)	26 (11.2)	83 (35.6)	99 (42.5)	233 (100)
	경영 대학	4 (2.2)	12 (6.7)	24 (13.5)	47 (26.4)	91 (51.1)	178 (100)
	자연과학 대학	6 (2.9)	15 (7.2)	29 (13.9)	77 (37.0)	81 (38.9)	208 (100)
	생활과학 대학	1 (0.8)	4 (3.0)	23 (17.4)	55 (41.7)	49 (37.1)	132 (100)
	공과 대학	9 (1.6)	33 (6.0)	81 (14.7)	182 (33.0)	247 (44.7)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 (4.8)	10 (9.6)	16 (15.4)	34 (32.7)	39 (37.5)	104 (100)
	예술 대학	0 (0.0)	2 (3.4)	13 (22.0)	17 (28.8)	27 (45.8)	59 (100)
의과 대학	2 (2.2)	10 (11.1)	10 (11.1)	26 (28.9)	42 (46.7)	90 (100)	
전체	36 (2.0)	131 (7.3)	259 (14.4)	604 (33.6)	770 (42.8)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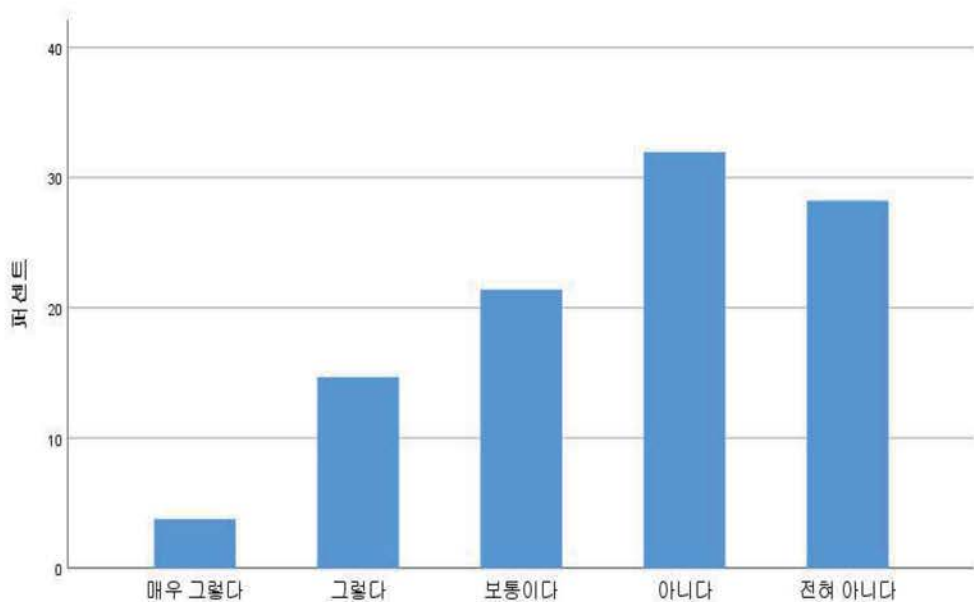
5)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전체 1,800명 중 575명(31.9%)이 ‘아니다’, 508명(28.2%)이 ‘전혀 아니다’ 385명(21.4%)이 ‘보통이다’, 264명(14.7%)이 ‘그렇다’, 68명(3.8%)이 ‘전혀 아니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응답 비율은 ‘전혀 아니다’ 32.5%, ‘아니다’ 30.8%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아니다’ 32.9%, ‘전혀 아니다’ 24.9%로 나타났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여학생(20.1%)이 남학생(16.3%)보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3, 4학년에서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4학년이 22.7%로 타 학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23.7%의 인문대학이며, 그다음으로는 22.3%의 의과대학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표 15>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성별	남	23 (2.9)	106 (13.4)	161 (20.4)	243 (30.8)	257 (32.5)	790 (100)
	여	45 (4.5)	158 (15.6)	224 (22.2)	332 (32.9)	251 (24.9)	1,010 (100)
학년	1학년	26 (4.5)	70 (12.1)	103 (17.9)	187 (32.4)	191 (33.1)	577 (100)
	2학년	11 (2.8)	63 (15.8)	82 (20.6)	128 (32.2)	114 (28.6)	398 (100)
	3학년	14 (3.2)	60 (13.9)	100 (23.1)	152 (35.1)	107 (24.7)	433 (100)
	4학년	16 (4.2)	70 (18.5)	96 (25.3)	105 (27.7)	92 (24.3)	379 (100)
	5학년	1 (7.7)	1 (7.7)	4 (30.8)	3 (23.1)	4 (30.8)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4 (5.7)	44 (18.0)	55 (22.5)	81 (33.2)	50 (20.5)	244 (100)
	사회과학 대학	7 (3.0)	35 (15.0)	51 (21.9)	72 (30.9)	68 (29.2)	233 (100)
	경영 대학	5 (2.8)	22 (12.4)	45 (25.3)	43 (24.2)	63 (35.4)	178 (100)
	자연과학 대학	11 (5.3)	28 (13.5)	38 (18.3)	78 (37.5)	53 (25.5)	208 (100)
	생활과학 대학	4 (3.0)	19 (14.4)	25 (18.9)	55 (41.7)	29 (22.0)	132 (100)
	공과 대학	16 (2.9)	76 (13.8)	114 (20.7)	166 (30.1)	180 (32.6)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3 (2.9)	17 (16.3)	21 (20.2)	35 (33.7)	28 (26.9)	104 (100)
	예술 대학	3 (5.1)	8 (13.6)	18 (30.5)	13 (22.0)	17 (28.8)	59 (100)
	의과 대학	5 (5.6)	15 (16.7)	18 (20.0)	32 (35.6)	20 (22.2)	90 (100)
전체	68 (3.8)	264 (14.7)	385 (21.4)	575 (31.9)	508 (28.2)	1,8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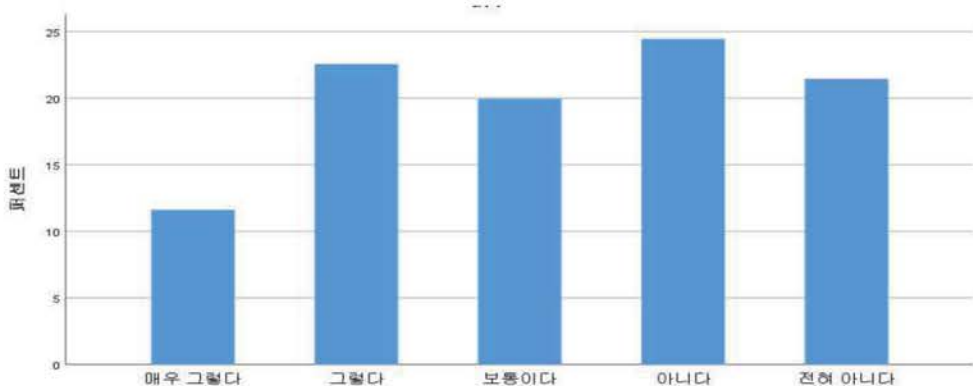
6)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전체 1,800명 중 ‘아니다’ 440명(24.4%), ‘그렇다’, 406명(22.6%), ‘전혀 아니다’ 386명(21.4%), ‘보통이다’ 359명(19.9%) ‘매우 그렇다’ 209명(1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34.2%에 이른다는 결과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응답 비율은 ‘전혀 아니다’ 26.3%, ‘아니다’ 25.2%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여학생은 ‘그렇다’ 25.1%, ‘아니다’ 23.9%로 나타났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응답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28.4%, 여학생은 38.6%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더 많은 여학생들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 3학년에서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학년에서는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학년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는 질문에 42.7%의 긍정 응답과 36.2%의 부정 응답을 하여 타 학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제한적 활동과 경험,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과대학별로는, 사회과학대학과 의과대학에서는 ‘그렇다’,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아니다’, 경영대학과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에서는 ‘전혀 아니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아니다’와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아니다’의 응답이 ‘그렇다’의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의과대학은 43.3%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 37.7%보다 높게 나타나 최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타 단과대학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표 16>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체
별도	남	73 (9.2)	152 (19.2)	158 (20.0)	199 (25.2)	208 (26.3)	790 (100)
	여	136 (13.5)	254 (25.1)	201 (19.9)	241 (23.9)	178 (17.6)	1,010 (100)
학년	1학년	62 (10.7)	112 (19.4)	116 (20.1)	146 (25.3)	141 (24.4)	577 (100)
	2학년	39 (9.8)	90 (22.6)	69 (17.3)	103 (25.9)	97 (24.4)	398 (100)
	3학년	47 (10.9)	96 (22.2)	90 (20.8)	128 (29.6)	72 (16.6)	433 (100)
	4학년	57 (15.0)	105 (27.7)	80 (21.1)	62 (16.4)	75 (19.8)	379 (100)
	5학년	4 (30.8)	3 (23.1)	4 (30.8)	1 (7.7)	1 (7.7)	13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31 (12.7)	54 (22.1)	52 (21.3)	68 (27.9)	39 (16.0)	244 (100)
	사회과학 대학	19 (8.2)	60 (25.8)	52 (22.3)	56 (24.0)	46 (19.7)	233 (100)
	경영 대학	15 (8.4)	40 (22.5)	28 (15.7)	43 (24.2)	52 (29.2)	178 (100)
	자연과학 대학	31 (14.9)	47 (22.6)	34 (16.3)	53 (25.5)	43 (20.7)	208 (100)
	생활과학 대학	14 (10.6)	31 (23.5)	31 (23.5)	36 (27.3)	20 (15.2)	132 (100)
	공과 대학	60 (10.9)	119 (21.6)	107 (19.4)	126 (22.8)	140 (25.4)	552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3 (12.5)	20 (19.2)	26 (25.0)	26 (25.0)	19 (18.3)	104 (100)
	예술 대학	9 (15.3)	13 (22.0)	12 (20.3)	11 (18.6)	14 (23.7)	59 (100)
의과 대학	17 (18.9)	22 (24.4)	17 (18.9)	21 (23.3)	13 (14.4)	90 (100)	
전체	209 (11.6)	406 (22.6)	359 (19.9)	440 (24.4)	386 (21.4)	1,800 (100)	

IV. 종합

본 조사의 대상은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11,215명이다(2022년 5월 기준). 조사는 2022년 5월 2일 ~ 7월 10일 69일간 학교 포털 USTAR와 UWINS를 통해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800명으로 참여율 재학생 대비 16.05%이며, 총 1,800명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일반사항

1)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공과대학’이 552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문대학’ 244명(13.6%), ‘사회과학대학’ 233명(12.9%), ‘자연과학대학’ 208명(11.6%), ‘경영대학’ 178명(9.9%), ‘생활과학대학’ 132명(7.3%),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04명(5.8%), ‘의과대학’ 90명(5.0%), ‘예술대학’ 59명(3.3%)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790명(43.9%), 여학생이 1010명(56.1%)으로, 여학생이 220명(12.2%) 더 많이 참여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1.8%인 409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각각 10.5%, ‘인문대학’ 8.9%, ‘경영대학’ 8.5% 순으로 참여하였으며, 의과대학이 1.4%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인문대학’이 174명 17.2%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대학’ 14.9%, ‘공과대학’ 14.2%, ‘자연과학대학’ 12.4%, ‘생활과학대학’ 11.1%, ‘경영대학’ 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대학이 4.6%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이 577명(32.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였으며, 3학년 433명(24.1%), 2학년 398명(22.1%), 4학년 379명(21.0%), 5학년 1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2. 설문 문항분석

- 나는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그렇다’ 767명(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524명(29.1%), ‘매우 그렇다’ 376명(20.9%), ‘아니다’ 96명(5.3%), ‘전혀 아니다’ 3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63.5%가 울산대학교 선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 학생

들은 7.4%로 나타나 재학생들의 본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 39.7%보다 여학생이 44.9%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24.1%로 여학생의 18.4%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성별에 차이 없이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여 보면, 5학년의 만족도가 69.3%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의 만족도는 57.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울산대학교 선택 만족도에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를 합한 응답이 5.3%로 3학년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이 577명(32.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였으며, 3학년 433명(24.1%), 2학년 398명(22.1%), 4학년 379명(21.0%), 5학년 1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렇다’ 763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 505명(28.1%), ‘보통이다’ 429명(23.8%), ‘아니다’ 81명(4.5%), ‘전혀 아니다’ 2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39.2%, 여학생 44.9%의 응답이 ‘그렇다’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67.9%)보다 여학생(72.4%)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지금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1학년은 71.4%, 2학년은 71.6%, 3학년은 68.9%, 4학년은 70.1%, 5학년은 53.9%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아니다’가 592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464명(25.8%), ‘전혀 아니다’ 421명(23.4%), ‘그렇다’ 244명(13.6%), ‘매우 그렇다’ 79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수업방식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 1,013명(56.3%)으로 과반수 이상이지만, 18%에 해당하는 323명은 적응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14.9% 여학생의 18.9%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이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21.1%로 가장 높았고, 3학년 19.4%, 4학년 16.6%, 1학년 15.8%, 5학년 7.7% 순으로 고 나타났다.

-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가 719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627명(34.8%), ‘보통이다’ 268명(14.9%), ‘그렇다’ 133명(7.4%), ‘매우 그렇다’ 5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4.7%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응답해 휴학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0.1%의 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79.7% 여학생의 70.9%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휴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휴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의 응답의 비율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77.3%, 3학년 72.1%, 2학년 70.9% 순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활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가 1,035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506명(28.1%), ‘보통이다’ 190명(10.6%), ‘그렇다’ 41명(2.3%), ‘매우 그렇다’ 28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5.6%인 1,541명이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응답해 자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3.9%의 학생 69명은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85.3%, 여학생의 85.8%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자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자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의 응답의 비율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 86.3%, 3학년 85.7%, 2학년 80.9% 순으로 나타났다.

-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보통이다’가 666명(37.0%), ‘그렇다’ 491명 (27.3%), ‘아니다’ 320명 (17.8%), ‘전혀 아니다’ 177명(9.8%), ‘매우 그렇다’ 146명(8.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의 비율은 여학생이 36.2%로 남학생의 34.3%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에서 대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년들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 하였다. 현재 3학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는 해에 대학에 입학한 학년으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타 학년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전체 1,800명 중 581명(32.4%)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그렇다’ 495명(27.5%), ‘아니다’ 318명(17.7%), ‘매우 그렇다’ 262명(14.6%), ‘전혀 아니다’ 144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이 29.2%와 34.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44.5%와 40.1%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3학년은 38.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입학하여 대인관계 형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으나, 3학년은 코로나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비대면 수업과 제한된 활동 환경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학년과 1학년은 각각 42.4%와 41.7%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나는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통이다’가 449명(24.9%), ‘아니다’ 427명(23.7%), ‘그렇다’ 359명(19.9%), ‘전혀 아니다’ 320명(17.8%), ‘매우 그렇다’ 245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아니다’가 25.4%, 남학생은 ‘보통이다’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참여도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항목의 비율 32.9%는 남학생의 34.4%보다 약간 낮으나 성별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은 ‘보통이다’의 응답이, 3학년과 4학년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항목과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 두 항목을 비교해보면 1학년은 40.8%가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학년은 52.5%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이 활동에 참여가 저조한 것은 졸업을 앞둔

학년으로 학교 내 모임보다는 개인의 진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1학년의 적극적인 참여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신입생 시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나는 요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아니다’가 562명(31.2%), ‘보통이다’ 536명(29.8%), ‘그렇다’ 335명(18.6%), ‘전혀 아니다’ 281명(15.6%), ‘매우 그렇다’ 86명(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보통이다’ 30.3%, ‘아니다’ 29.2%, ‘전혀 아니다’ 19.6%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아니다’ 32.8%, ‘보통이다’ 29.4%, ‘그렇다’ 20.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응답한 여학생 25.3%에 비해 남학생은 20.9%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과 4학년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과 3학년은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1학년과 4학년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49.9%와 50.6%로 힘들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학년과 3학년은 25.2%와 26.3%로 타학년에 비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아니다’ 625명(34.7%)이 가장 많았으며, ‘전혀 아니다’ 464명(25.8%), ‘보통이다’ 379명(21.1%), ‘그렇다’ 269명(14.9%), ‘매우 그렇다’ 63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아니다’가 높게 나타났고, ‘전혀 아니다’에서는 남학생이 29.5%로 여학생의 2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짜증을 잘 낸다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항목의 응답을 비교하면 남학생은 12.8%, 여학생은 22.9%로 여학생의 응답이 10.1%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아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학년이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는 항목에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52.7%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전체 1,800명 중 608명(33.8%)이 ‘아니다’, 603명(33.5%)이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해 전체 학생의 1,211명(67.3%)은 숙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그렇다’ 248명(13.8%), ‘보통이다’ 236명(13.1%), ‘매우 그렇다’

105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보면, 남학생은 ‘아니다’ 34.9%, ‘전혀 아니다’가 31.6%의 응답을 하였고, 여학생은 ‘아니다’가 32.9%, ‘전혀 아니다’가 35.0%의 응답을 나타내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학년에서는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에서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전혀 아니다’가 770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 604명(33.6%), ‘보통이다’ 259명(14.4%), ‘그렇다’ 131명(7.3%), ‘매우 그렇다’ 36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 중 1,410명(76.4%)의 학생들은 식욕 저하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각각 40.8%, 44.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전혀 아니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 1학년이 44.7%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이 4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나는 최근에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

전체 1,800명 중 575명(31.9%)이 ‘아니다’, 508명(28.2%)이 ‘전혀 아니다’ 385명(21.4%)이 ‘보통이다’, 264명(14.7%)이 ‘그렇다’, 68명(3.8%)이 ‘전혀 아니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응답 비율은 ‘전혀 아니다’ 32.5%, ‘아니다’ 30.8%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아니다’ 32.9%, ‘전혀 아니다’ 24.9%로 나타났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여학생(20.1%)이 남학생(16.3%)보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전혀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3, 4학년에서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4학년이 22.7%로 타 학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

‘아니다’ 440명(24.4%), ‘그렇다’, 406명(22.6%), ‘전혀 아니다’ 386명(21.4%), ‘보통이다’ 359명(19.9%) ‘매우 그렇다’ 209명(11.6%)의 순으로 응답하

였다. 최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34.2%에 이른다는 결과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응답 비율은 ‘전혀 아니다’ 26.3%, ‘아니다’ 25.2%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여학생은 ‘그렇다’ 25.1%, ‘아니다’ 23.9%로 나타났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두 응답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28.4%, 여학생은 38.6%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더 많은 여학생들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 3학년에서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나 4학년에서는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학년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많이 느낀다는 질문에 42.7%의 긍정 응답과 36.2%의 부정 응답을 하여 타 학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졸업을 맞이하게 되는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후속프로그램

후속 프로그램은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후속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개입 및 검사, 상담 등을 지원한다.

1. 대상

후속 프로그램은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심리 정서 상태 평균 점수가 2.45점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45점 이하로 선정한 이유는 2.45점 이하의 학생은 현재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65명의 학생은 조사에 참여한 1,800명 대비 3.61%에 해당한다.

2. 운영 기간

후속 프로그램은 2022년 7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하였다.

3. 운영 내용

후속 프로그램은 심리 정서 상태가 힘든 65명(3.6%)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개입이 이루어졌다. 1차 전화 상담은 전화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2차는 PAI-단축형(성격평가질문지) 검사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고, 해석 상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2차 개입을 진행한 학생 중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3차 개입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4차 개입은 슈퍼비전을 통해 위기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담의 질적인 향상 지원한다.

세부적인 진행 내용은 1차 개입은 65명에게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다. 1차 개입 대상자의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추가적인 개입을 원하는 16명의 학생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개입은 심리검사를 실시한 16명의 학생에게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해석 상담을 진행하였다.

해석 상담을 진행한 학생 중에 추가적인 개입을 원하는 6명의 학생은 3차 개입으로 개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3차 개입을 진행한 6명 중에 한 사례는 슈퍼비전을 통해 위기사례를 공유하고, 상담개입을 평가함으로써 위기사례에 대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표 17> 후속 프로그램 개입 내용

프로그램	참여 인원	스크리닝 인원	1차 개입	2차 개입	3차 개입	4차 개입	합계
2022년 마음건강 스크리닝	1,800명	65명	65명	16명	6명	1명	88명
2021년 with 코로나	1,185명	311명	279명 (메일) 32명 (전화)	27명	15명	미실시	311명

4. 환류

첫째, 후속프로그램은 전년도에는 3차 개입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차 개입을 추가하여 위기사례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전년도에 비해 위기사례 스크리닝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19가 완화됨으로 학교생활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환경이 바뀌므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1차 개입 후 2차 개입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조사가 5월 초부터 진행되었는데 개입이 이루어진 7월 말에는 어려움이 완화되었다는 학생이 많았다. 이는 5월 학기 초에는 갑자기 바뀐 대면 상황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차츰 학교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방학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개입에서 이미 검사와 상담이 진행 중인 학생도 있어서 학교생활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금년도 마음건강 실태조사는 1학기 중반부터 69일간 장기간 진행되었다.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다보니 개입의 시기가 늦어졌고, 학기가 끝나고 개입을 하게 되어 개입의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추후에는 조사시기와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22학년도 1학년 대학생활적응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목 차

I. 서론	156
II. 연구방법	157
1. 조사대상	157
2. 조사도구	157
III. 조사결과	159
1. 1학년의 대학적응력 현황	159
2. 1학년의 학생특성	161
3. 1학년의 대학특성	162
4. 1학년의 학업여건 안정성	163
IV. 종합	164
V. 후속 프로그램	166
1.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166
2. 진로상담 지원 프로그램	166

표 목 차

<표 1> 대학적응력검사(CAT)의 하위척도 소개	157
<표 2> 대학적응력의 수준과 결과해석	158
<표 3> 단과대별 참여 인원	159
<표 4> 1학년의 대학적응력 현황	160
<표 5> 1학년의 학생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161
<표 6> 1학년의 대학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162
<표 7> 1학년의 학업여건 안정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163
<표 8> 심리상담 지원 개입 과정	166
<표 9> 진로상담 지원 개입과정	167
<표 10> 진로특강 프로그램 진행 일정	167
<표 11> 만족도 문항별 응답	167

2022학년도 1학년 대학생활적응조사 연구

I. 서론

적응에 관한 문제는 인간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전 문성과 사회성을 계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는 시점이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인간의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현태, 2014). 특히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현재의 발달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박진아, 이은경, 2011).

하지만 신입생들은 고교 졸업까지 입시 위주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을 해오다가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이 요구되는 대학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임경희, 2021). 이는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태도 및 양상을 띠게 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대학생활 초기부터 취업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대학 생활 부적응, 학점,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효진, 이은주, 2012). 위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대학생들은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현상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진로 선택 및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은이, 2017).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1학년은 다른 학년들보다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김정엽, 2008; 이순덕, 이미아, 2012)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 자율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부적응 등의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정, 송현아, 2016). 이에 본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신입생들의 대학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개인적 요인, 대학기관적 요인, 학업여건 안정성 요인을 탐색하여 예상되는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시행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며,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과 운영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조사를 통해 적응에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2022년도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양과목인 ‘인본적 사고와 공동체의 가치’ 수강생 중 1학년 1,311명(2022년 9월 기준)이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19일~10월 7일까지 총 19일간 실시하였고, 1,311명 중 90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대학적응력검사(College student Adaptability Test, CAT)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도구는 대학생의 대학적응력, 학업지속 경향성과 중도탈락 경향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총 158개 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결과는 종합지수인 대학적응력 지수를 비롯한 학생특성, 대학특성, 학업여건 안정성검사의 항목으로 나뉘지며 각 하위척도에 대한 소개는 <표 1>과 같다. 소척도별 T점수를 기준으로 3수준(성공역량집단, 잠재위험 집단, 고위험집단)으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표 1> 대학적응력검사(CAT)의 하위척도 소개

특성	하위척도	척도설명
학생특성	학문적 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 학습습관 형성 정도 등을 측정• 지적 관심, 읽기를 즐기는 정도 및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하는 정도를 측정• 기초학습능력에 대해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
	사회적 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인 정도를 측정• 타인과의 의사소통 정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정도 및 선·후배와의 관계를 측정
	정서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안정성, 주의집중력, 충동성 장애의 정도를 측정
	진로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목적의 명확성,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과 진로 정체성의 정도를 측정

대학특성	대학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육지원체제, 대학 이미지 및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생활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
	교육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수업, 대학생활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교수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의 이미지, 보살핌 정도,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
학업여건 안정성	가정의 경제성,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다닐 동안 유용 가능한 금전적 여유(등록금 및 생활비용 등 직간접 비용)에 만족하는 정도, 재정적 비용 자원의 안정성을 측정
	가정의 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정서적 지원 및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측정
	학업지속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하여 학업 지속 안정성의 정도를 측정

<표 2> 대학적응력의 수준과 결과해석

소척도	T 점수 범위	구분	집단	결과 해석
학생특성지수, 대학특성지수, 학업여건 특성지수	45이하 (하30%)	낮음	대학적응력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음
	46~54 (31~69%)	평균	대학적응력 보통(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활 적응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적응과 관련한 어려움 없음 • 다만, 낮은 척도에 대해서는 잠재적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있으며,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55이상 (상30%)	높음	대학적응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중단 가능성이 낮음

Ⅲ. 조사 결과

1. 1학년의 대학적응력 현황

울산대학교 1학년 대학생활적응 실태조사에서 대학적응력검사(College student Adaptability Test, CAT)의 158개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총 902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 509명(56.4%), 인문대학 207명(23%), 의과대학 106명(11.8%), 자연과학대학 66명(7.3%), 경영대학 5명(0.6%),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명(0.3%),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각 2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단과대별 참여 인원

인문 대학	사회과학 대학	경영 대학	자연과학 대학	생활과학 대학	공과 대학	디자인 건축 융합 대학	예술 대학	의과 대학	전체
207 (23%)	2 (0.2%)	5 (0.6%)	66 (7.3%)	2 (0.2%)	509 (56.4%)	3 (0.3%)	2 (0.2%)	106 (11.8%)	902 (100%)

응답자의 대학생활적응력 평균은 55.2점으로 평균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를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역량집단은 455명(50%),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 위험집단은 299명(33%),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은 148명(16%)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집단은 위기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적응력 소척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여건 안정성 점수가 5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생특성 54.8점, 대학특성은 53.3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위험집단의 비율은 ‘대학특성’ 199명(22%), ‘학생특성’ 175명(19%), ‘학업여건 안정성’ 9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학, 자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 휴학 317명(35%), 자퇴 44명(5%)으로 중도탈락 위험 학생은 327명, 응답자의 36%에 해당한다. 이는 대학적응력 고위험 집단(148명, 16%)보다 높기에 잠재위험집단의 응답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학년의 대학적응력 현황

	평균(T점수)	1학년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대학적응력	55.2	148명 (16%)	299명 (33%)	455명 (50%)	902명 (100%)
학생특성	54.8	175 (19%)	264 (29%)	463 (51%)	902명 (100%)
대학특성	53.3	199 (22%)	306 (34%)	397 (44%)	902명 (100%)
학업여건 안정성	59.4	91 (10%)	157 (17%)	654 (73%)	902명 (100%)

<중도탈락위험 학생 분포 현황>

중도탈락 위험	휴학	지퇴	중복인원	327명 (36%)
	317명 (35%)	44명 (5%)	34명 (4%)	

2. 1학년의 학생 특성

소척도 학생특성은 1학년의 학업 수행, 진로 정체성, 사회성 및 정서 등의 측면에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정서적 안정성’, ‘진로정체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특성’의 하위요소별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생특성 평균은 54.8점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수준은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463명(51%),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264명(29%),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75명(19%)으로 나타났다.

학생특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성이 5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문적 통합성 55.4점, 사회적 통합성 51.6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성은 48.7점으로 평균 점수로 나타나 다른 하위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특성의 하위척도 집단별 수준 중 고위험집단은 ‘진로 정체성’ 379명(42%), ‘사회적 통합성’ 262명(29%), ‘정서적 안정성’ 166명(18%), ‘학문적 통합성’ 15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성(379명, 42%)’, ‘사회적 통합성(262명, 29%)’의 고위험집단은 학생특성의 고위험 집단(175명, 19%)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나 잠재적 위험집단(264명, 29%)의 학생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1학년의 학생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평균 (점수)	1학년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학생특성	54.8	175 (19%)	264 (29%)	463 (51%)	902명 (100%)
학문적 통합성	55.4	156 (17%)	278 (31%)	468 (52%)	902명 (100%)
사회적 통합성	51.6	262 (29%)	283 (31%)	357 (40%)	902명 (100%)
정서적 안정성	55.8	166 (18%)	249 (28%)	487 (54%)	902명 (100%)
진로 정체성	48.7	379 (42%)	256 (28%)	267 (30%)	902명 (100%)

3. 1학년의 대학특성

소척도 대학특성은 1학년의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 교육과정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교수와의 관계, 교육서비스 만족도, 대학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특성’의 하위요소별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특성 평균은 53.3점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수준은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 집단이 397명(44%),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306명(34%),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99명(22%)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교육 만족도’는 5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만족도’ 54.7점, ‘교수와의 관계’가 45.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양호하며, 교수와의 관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결과 중 고위험집단은 ‘교수와의 관계’가 507명(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 만족도’ 151명(17%), ‘대학교육 만족도’ 11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관계(507명, 56%)’는 대학특성의 고위험집단(199명, 22%)보다 높은 결과로 잠재위험 집단(306명, 34%)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1학년의 대학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평균 (T점수)	1학년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대학특성	53.3	199 (22%)	306 (34%)	397 (44%)	902명 (100%)
교수와의 관계	45.1	507 (56%)	241 (27%)	154 (17%)	902명 (100%)
교육서비스 만족도	54.7	151 (17%)	305 (34%)	446 (49%)	902명 (100%)
대학교육 만족도	55.5	112 (12%)	289 (32%)	501 (56%)	902명 (100%)

4. 1학년의 학업여건 안정성

소척도 학업여건 안정성은 1학년이 대학을 다닐 동안의 경제적 안정성 여부와 가정 내의 정서적 지원 여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 가정의 정서적 지원, 학업 지속 안정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여건 안정성’의 하위요소별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업여건 안정성 평균은 59.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별 수준은 학업여건 안정성 요인에 따라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역량집단이 654명(73%),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 위험집단이 157명(17%),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91명(10%)으로 나타났다.

학업여건 안정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성 점수가 5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업 지속 가능성 55.8점, 가정의 정서적 지지 5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나 학업 지속 가능성, 정서적 지지 모두 높은 적용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결과 중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가정의 정서적 지지’ 118명(13%)이며, 그다음으로는 ‘학업 지속 안정성’ 101명(11%),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 65명(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정서적 지지’ (118명, 13%)와 ‘학업 지속 안정성’ (101명, 11%)은 학업여건 안정성의 고위험집단(91명, 10%)보다 높은 결과로 잠재위험 집단(157명, 17%)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1학년의 학업여건 안정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평균 (T점수)	1학년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학업여건 안정성	59.4	91 (10%)	157 (17%)	654 (73%)	902명 (100%)
경제적 안정성	59.9	65 (7%)	165 (18%)	672 (75%)	902명 (100%)
가정의 정서적 지지	55.5	118 (13%)	315 (35%)	469 (52%)	902명 (100%)
학업지속 안정성	55.8	101 (11%)	232 (26%)	569 (63%)	902명 (100%)

VI. 종합

본 조사는 대학 1학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학업적, 심리적 위기로 인하여 학업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 상황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고취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 1학년 90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대학교 1학년 대학생활적응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902명이며,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509명, 56.4%)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인문대학(207명, 23%), 의과대학(106명, 11.8%), 자연과학대학(66명, 7.3%), 경영대학(5명, 0.6%), 디자인·건축융합대학(3명, 0.3%),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각 2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인원이 100명 미만인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아 보편적인 해석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인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1학년 중 조사 참여자 902명에 대한 대학생활적응력 평균은 55.2점(T점수)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조사 참여자의 754명(83%)이 적응적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대학적응력이 낮은 91명(10%)에 대해서는 대학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역량집단이 455명(50%),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299명(33%),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48명(1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148명, 16%)에 대해 대학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학년들이 큰 기대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지만, 진학 후 대학생활에서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접하게 될 수 있고, 대학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변화된 환경과 주어진 역할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적응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위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잠재위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 및 자퇴 의사를 표시한 학생은 휴학 317명(35%), 자퇴 44명(5%)으로 나타나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327명(36%)이다. 이는 대학적응력이 낮은 학생(91명, 1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 휴학, 어학연수 등 휴학을 고려하는 이유가 다양하여 휴학 및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이 대학적응력이 낮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휴학 및 자퇴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력 소척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여건 안정성은 59.4점으로 대학적응력 전체 평균인 55.2점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 참여자의 가정 환경적인 부분은 안정적인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학년들이 학업에 몰입하기 위한 가정 환경적 요소인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대학특성은 53.3점, 학생특성은 54.8점으로 대학적응력 전체 평균(55.2점)보다 낮게 나타나 대학 내의 환경적인 특성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하위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대학적응력의 하위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59.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상태가 안정적이어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수와의 관계는 45.1점으로 대학적응력이 낮은 편이어서 교수와의 관계가 대학적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위요소별 대학적응력이 낮은 집단에 대해 살펴보면, 교수와의 관계가 507명(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대학적응력이 낮은 학생은 교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수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대학적응력을 향상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상황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도움과 지도가 절실하다.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진로정체성은 379명(42%)으로 대학적응력이 낮은 학생은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미래진로에 대한 비전이나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을 찾도록 지원하면 대학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학년은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부족한 학생이 많으며, 이러한 진로의 불명확함은 대학적응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학업 중도탈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사회적 통합성은 262명(29%)으로 대학적응력이 낮은 학생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훈련이 대학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학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원만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태도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정서적 안정성은 166명(18%)으로 대학적응력이 낮은 학생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주의집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학년 대학생활적응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검사 결과는 학업중단 가능성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1학년의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이 적응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업 중도탈락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V. 후속 프로그램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학년의 대학생활적용을 향상하기 위하여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중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166명(18%)에게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로 정체성이 낮은 379명(42%) 학생에게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166명(18%)을 대상으로 T점수 45점 이하인 102명의 학생을 스크리닝하였다. 스크리닝한 학생을 대상으로 1차로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였고, 이 중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은 2차로 PAI-단축형(성격평가질문지)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알게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생은 3차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고위기 사례의 경우에는 4차로 외부 슈퍼바이저를 초빙하여 위기사례를 공유하고 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지원하였다.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표 8> 심리상담 지원 개입과정

스크리닝 대상	최종 스크리닝	1차 개입	2차 개입	3차 개입	4차 개입
		전화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개인상담	슈퍼비전 및 외부기관연계
166명	102명	102명	17명	5명	1명 (슈퍼비전)

2. 진로상담 지원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진로정체성이 낮은 379명(42%)을 대상으로 T점수 40점 이하인 296명을 1차로 스크리닝하였으며, 2차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심리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와 중복되는 학생은 제외하고 최종 246명의 학생을 스크리닝하였다. 최종 스크리닝한 2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진로특강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학년 진로특강 프로그램’은 USTAR에 게시하고 대상 학생들에게 SNS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홍보였다. ‘1학년 진로특강 프로그램’은 1차로 진로 종합검사(U&I)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진로 탐색을 하는 2시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신청은 15명의 학생이 신청하였고, 이

중 진로종합검사(U&I) 실시는 13명, 해석 및 프로그램은 12명이 참여하였다.

<표 9> 진로상담 지원 개입과정

스크리닝 대상	1차 스크리닝	최종 스크리닝	프로그램 신청	검사 실시	해석 및 프로그램 참여
379명	296명	246명	15명	13명	12명

1) 일정

‘1학년 진로특강 프로그램’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하였다.

<표 10> 진로특강 프로그램 진행 일정

차시	일시	참여/신청인원	강사	만족도 (10점)
1	2022.11.21.(월) 16:00~18:00(2시간)	4/5명	하은경	8.58
2	2022.11.22.(화) 16:00~18:00(2시간)	2/3명	김영아	
3	2022.11.23.(수) 10:00~12:00(2시간)	1/2명	김영아	
4	2022.11.25.(금) 10:00~12:00(2시간)	3/3명	김영아	
5	2022.11.25.(금) 15:00~17:00(2시간)	1/2명	김영아	
6	2022.11.28.(월) 11:00~12:00(1시간)	1명	김영아	
합계	11시간	12명		

2) 만족도

‘1학년 진로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전반적으로 8.27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표 11> 만족도 문항별 응답

문항	만족도 (10점 만점)
1. 진로상담을 통해 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8.27

2. 진로상담을 통해 직무를 선택하고 진로방향을 설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8.27
3. 진행시간은 적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8.91
4. 상담사는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8.64
5. 상담사의 진행방식은 만족하였습니까?	8.82
6. 진로상담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점, 개선점 등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해서 내 진로에 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나의 진로를 구체화 해나가고 싶다. •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것 보단 소규모가 좋은 거 같다. 	

3) 평가

2022학년도에 ‘1학년 진로특강 프로그램’ 실적은 심리상담 125건, 진로상담 25건 총 150건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기에 차후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스크리닝 대상에 비하면 참여인원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사진



2022. 11. 21.



2022.11.21.



2022.11.22.



2022.11.25.

2022학년도 4학년 진로심리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목 차

I. 서론	174
II. 연구방법	175
1. 조사대상 및 기간	175
2. 조사도구	175
3. 조사내용	175
III. 조사결과	177
1. 일반사항	177
1) 소속 단과대학	177
2) 성별	178
2. 진로 및 취업	179
가. 개인의 진로 인식	179
1) 직업 선택 기준	179
2)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181
3)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183
나. 진로 및 취업 서비스	186
1)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기관을 이용할 의향	186
2)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189
3)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91
4)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93
5)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196
6)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198
7)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200
다. 진로성숙도	202

1)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정도	202
2)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관한 독립성 정도	204
3)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206
4)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 대한 흥미 및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208
5)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정도	210
6) 자신의 진로에 관한 선택 및 결정 정도	212
7)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214
라. 정서 상태	216
1)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	216
2)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 유무	218
3)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정도	220
4)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	222
5)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	224
IV. 종합	226
1. 일반 사항	226
2. 진로 및 취업	227
3. 진로성숙도	232
4. 정서 상태	235
5. 함의	237

표 목 차

〈표 1〉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문항	175
〈표 2〉 소속 단과대학	177
〈표 3〉 직업선택 기준	180
〈표 4〉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182
〈표 5〉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185
〈표 6〉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 기관 이용 의향	188
〈표 7〉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190
〈표 8〉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92
〈표 9〉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95
〈표 10〉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197
〈표 11〉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199
〈표 12〉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201
〈표 13〉 자신의 진로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203
〈표 14〉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	205
〈표 15〉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207
〈표 16〉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다	209
〈표 17〉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는 확신이 있다	211
〈표 18〉 나는 흥미가 가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	213
〈표 19〉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215
〈표 20〉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잠이 안 온다	217
〈표 21〉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이 없다	219
〈표 22〉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221
〈표 23〉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223
〈표 24〉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225

그림 목 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177
〈그림 2〉 성별	178
〈그림 3〉 직업 선택 기준	179
〈그림 4〉 직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181
〈그림 5〉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184
〈그림 6〉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 기관 이용 의향	187
〈그림 7〉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189
〈그림 8〉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91
〈그림 9〉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94
〈그림 10〉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196
〈그림 11〉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198
〈그림 12〉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200
〈그림 13〉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202
〈그림 14〉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	204
〈그림 15〉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206
〈그림 16〉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다	208
〈그림 17〉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210
〈그림 18〉 나는 흥미가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	212
〈그림 19〉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214
〈그림 20〉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잠이 안 온다	216
〈그림 21〉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이 없다	218
〈그림 22〉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220
〈그림 23〉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222
〈그림 24〉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224

2022학년도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단계 중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의 욕구, 흥미, 가치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적합한 직업을 획득하여 직업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다. 대학생 시기 이전에 개인은 성장기를 거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기개념을 발달시켜 나간다(김봉환 외, 2006).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자기개념을 평가하고 재탐색함으로써 최초의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 졸업예정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의 단계에 놓인 학생으로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출발선에 위치해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코로나 19, 고용 없는 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윤지영, 2020).

현재 고용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위축되어 있고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악화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허지운, 2021). 또한 코로나19를 경험한 대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어학연수, 현장 경험 등에 대한 기회가 줄었으며, 취업과 관련된 경험이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생은 고용시장의 위축과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으며, 심리 정서적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지원 부서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상담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각 학과에서도 진로 교과는 개설되어 있지만, 진로 혹은 취업에 대한 교육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특강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진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로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높은 취업 장벽을 느끼고 있으며 한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진로를 설정하고 있다(도민희, 2020).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가는데 필요한 진로 교육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방법 및 취업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4학년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과 지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 2022년 4학년 진로 심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결과가 4학년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생각과 어려움

을 이해하고, 그들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은 2022학년도 4학년 재학생 중 휴학생을 제외한 3,157명이다(2022년 9월 1일 기준). 조사는 2022년 6월 8일~ 7월 29일까지 총 50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U-WINS’ 팝업창 통해 안내하였고, ‘U-WINS’ 로그인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585명으로 4학년 재학생 대비 참여율은 18.5%이며, 데이터 오류로 인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58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본 센터에서 매년 사용해 온 설문지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 관련 문항을 발췌 및 추가, 수정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성 내용	세부문항	
일반 사항	인적 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	성별
		3	학년
진로 및 취업	개인의 진로 인식	4	직업선택 기준
		5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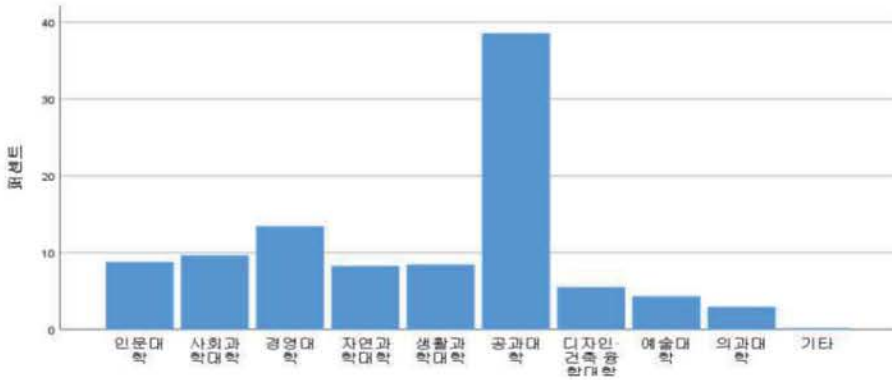
	6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진로 및 취업 서비스	7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기관을 이용할 의향
	8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9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0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11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12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13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진로 성숙도	14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15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관한 독립성 정도
	16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17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 대한 흥미 및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18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비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19	나는 흥미가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
정서 상태	20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21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잠이 안 온다
	22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이 없다
	23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불안하다
	24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우울하다
	25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하다
문항 수	25문항	

Ⅲ. 조사결과

1. 일반 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022년 울산대학교 1학기 4학년 재학생 진로심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85명이며, 데이터 오류로 인한 4명을 제외한 581명의 소속 단과대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단과대학별 결과를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224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78명(13.4%), ‘사회과학대학’ 56명(9.6%), ‘인문대학’ 51명(8.8%), ‘생활과학대학’ 49명(8.4%), ‘자연과학대학’ 48명(8.3%)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32명(5.5%)이었으며, ‘예술대학’ 25명(4.3%), ‘의과대학’ 17명(2.9%), ‘기타’ 1명(0.2%)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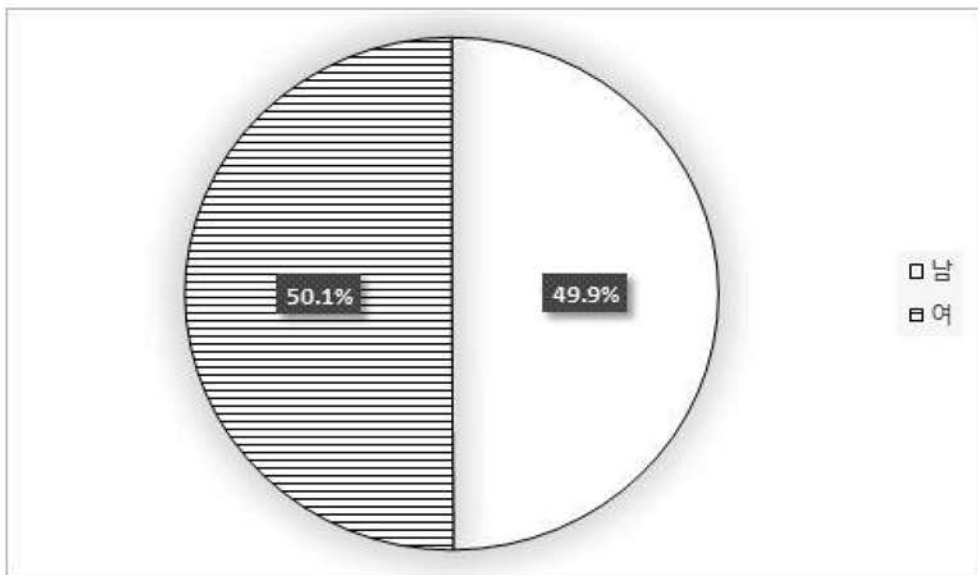
<표 2> 소속 단과대학

구분	단과대학										전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기타		
성별	남	19 (6.6)	15 (5.2)	34 (11.7)	20 (6.9)	7 (2.4)	174 (60.0)	9 (3.1)	7 (2.4)	5 (1.7)	0 (0.0)	290 (100)
	여	32 (11.1)	41 (14.1)	44 (15.1)	28 (9.6)	42 (14.4)	50 (17.2)	23 (7.9)	18 (6.2)	12 (4.1)	1 (0.3)	291 (100)
전체	51 (8.8)	56 (9.6)	78 (13.4)	48 (8.3)	49 (8.4)	224 (38.6)	32 (5.5)	25 (4.3)	17 (2.9)	1 (0.2)	581 (100)	

2) 성별

4학년 재학생 진로심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의 성별은 <그림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290명 (49.9%), 여학생이 291명(50.1%)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 2>를 참고하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60%인 174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1.7%(34명), ‘자연과학대학’ 6.9%(20명), ‘인문대학’ 6.6%(19명), ‘사회과학대학’ 5.2%(15명),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1%(9명),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이 각각 2.4%(7명), ‘의과대학’ 1.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공과대학’ 이 50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대학’ 44명(15.1%), ‘생활과학대학’ 42명(14.4%), ‘사회과학대학’ 41명(14.1%), ‘인문대학’ 32명(11.1%), ‘자연과학대학’ 28명(9.6%),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3명(7.9%), ‘예술대학’ 18명(6.2%), ‘의과대학’ 12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2. 진로 및 취업

가. 개인의 진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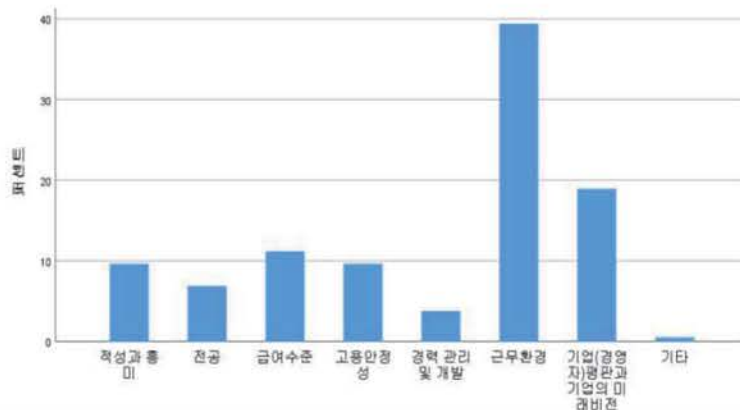
1) 직업선택 기준

4학년 재학생들이 직업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3>과 같다. 직업 선택 기준에 대한 결과는 ‘근무환경’이 229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경영자) 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110명(18.9%), ‘급여 수준’ 65명(11.2%), ‘적성과 흥미’와 ‘고용 안정성’ 56명(9.6%), ‘전공’ 40명(6.9%), ‘경력관리 및 개발’ 22명(3.8%), ‘기타’ 3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기준으로 ‘근무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업(경영자)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급여 수준’ 36명(12.4%), ‘고용 안정성’ 33명(11.4%), ‘적성과 흥미’ 및 ‘전공’ 각각 24명(8.3%), ‘경력관리 및 개발’ 15명(5.2%)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적성과 흥미’ 32명(11.0%), ‘급여 수준’ 29명(10.0%), ‘고용 안정성’ 23명(7.9%), ‘전공’ 16명(5.5%), ‘경력관리 및 개발’ 7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은 ‘급여 수준’,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은 ‘고용 안정성’, 경영대학, 예술대학은 ‘적성과 흥미’, 디자인 건축융합대학은 ‘적성과 흥미’ 및 ‘급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근무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기업의 평판과 미래비전’을 중요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3> 직업 선택기준

<표 3> 직업선택 기준

구분		적성과 흥미	전공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경력 및 개발	근무 환경	기업 평판과 기업의 미래 비전	기타	전체
성별	남	24 (8.3)	24 (8.3)	36 (12.4)	33 (11.4)	15 (5.2)	103 (35.5)	54 (18.6)	1 (0.3)	290 (100)
	여	32 (11.0)	16 (5.5)	29 (10.0)	23 (7.9)	7 (2.4)	126 (43.3)	56 (19.2)	2 (0.7)	291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4 (7.8)	1 (2.0)	7 (13.7)	6 (11.8)	0 (0.0)	27 (52.9)	5 (9.8)	1 (2.0)	51 (100)
	사회과학 대학	6 (10.7)	3 (5.4)	3 (5.4)	9 (16.1)	1 (1.8)	21 (37.5)	13 (23.2)	0 (0.0)	56 (100)
	경영 대학	10 (12.8)	3 (3.8)	7 (9.0)	4 (5.1)	4 (5.1)	30 (38.5)	20 (25.6)	0 (0.0)	78 (100)
	자연과학 대학	4 (8.3)	4 (8.3)	9 (18.8)	6 (12.5)	0 (0.0)	14 (29.2)	11 (22.9)	0 (0.0)	48 (100)
	생활과학 대학	4 (8.2)	2 (4.1)	8 (16.3)	4 (8.2)	1 (2.0)	21 (42.9)	9 (18.4)	0 (0.0)	49 (100)
	공과 대학	15 (6.7)	20 (8.9)	23 (10.3)	20 (8.9)	12 (5.4)	90 (40.2)	43 (19.2)	1 (0.4)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 (15.6)	2 (6.3)	5 (15.6)	0 (0.0)	2 (6.3)	12 (37.5)	5 (15.6)	1 (3.1)	32 (100)
	예술 대학	5 (20.0)	3 (12.0)	2 (8.0)	3 (12.0)	1 (4.0)	9 (36.0)	2 (8.0)	0 (0.0)	25 (100)
	의과 대학	2 (11.8)	2 (11.8)	1 (5.9)	4 (23.5)	1 (5.9)	5 (29.4)	2 (11.8)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56 (9.6)	40 (6.9)	65 (11.2)	56 (9.6)	22 (3.8)	229 (39.4)	110 (18.9)	3 (0.5)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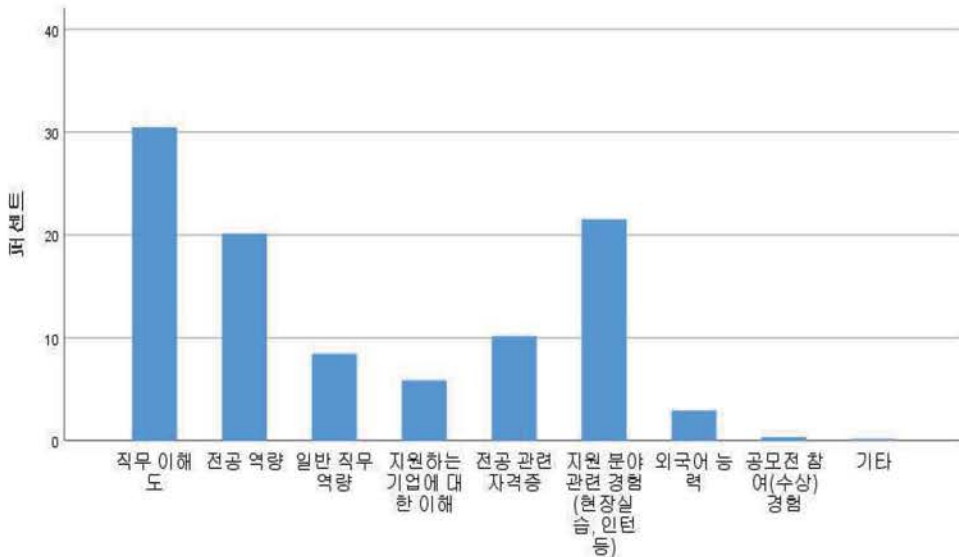
2)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결과는 ‘직무 이해도’ 177명(30.5%),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125명(21.5%), ‘전공역량’ 117명(20.1%), ‘전공 관련 자격증’ 59명(10.2%), ‘일반 직무역량’ 49명(8.4%),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34명(5.9%), ‘외국어 능력’ 17명(2.9%),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2명(0.3%), ‘기타’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무 이해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이 33.1%, 여학생이 27.8%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남학생은 ‘전공역량’이 21.4%,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이 18.3% 순이었고, 여학생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24.7%, ‘전공역량’이 18.9%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채용에 있어서 ‘직무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대학, 의과대학은 ‘전공역량’이 생활과학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전공에 무관하게 ‘직무 이해도’를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활과학대학의 경우에만 ‘직무 이해도’ 보다는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 실습, 인턴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표 4>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	직무 이해도	전공 역량	일반 직무 역량	지원 기업에 대한 이해	관련 자격증	지원 관련 경험(현장습득,턴 등)	외국어 능력	공모전 참여(수상)경험	기타	전체	
성별	남	96 (33.1)	62 (21.4)	21 (7.2)	20 (6.9)	26 (9.0)	53 (18.3)	10 (3.4)	1 (0.3)	1 (0.3)	290 (100)
	여	81 (27.8)	55 (18.9)	28 (9.6)	14 (4.8)	33 (11.3)	72 (24.7)	7 (2.4)	1 (0.3)	0 (0.0)	291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3 (25.5)	8 (15.7)	4 (7.8)	5 (9.8)	4 (7.8)	13 (25.5)	4 (7.8)	0 (0.0)	0 (0.0)	51 (100)
	사회과학대학	20 (35.7)	7 (12.5)	9 (16.1)	1 (1.8)	4 (7.1)	13 (23.2)	2 (3.6)	0 (0.0)	0 (0.0)	56 (100)
	경영대학	23 (29.5)	6 (7.7)	6 (7.7)	5 (6.4)	14 (17.9)	22 (28.2)	1 (1.3)	1 (1.3)	0 (0.0)	78 (100)
	자연과학대학	12 (25.0)	8 (16.7)	6 (12.5)	2 (4.2)	7 (14.6)	10 (20.8)	2 (4.2)	0 (0.0)	1 (2.1)	48 (100)
	생활과학대학	10 (20.4)	10 (20.4)	5 (10.2)	2 (4.1)	6 (12.2)	16 (32.7)	0 (0.0)	0 (0.0)	0 (0.0)	49 (100)
	공과대학	77 (34.4)	48 (21.4)	16 (7.1)	15 (6.7)	18 (8.0)	42 (18.8)	8 (3.6)	0 (0.0)	0 (0.0)	22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2 (37.5)	11 (34.4)	1 (3.1)	2 (6.3)	3 (9.4)	3 (9.4)	0 (0.0)	0 (0.0)	0 (0.0)	32 (100)
	예술대학	5 (20.0)	7 (28.0)	1 (4.0)	2 (8.0)	3 (12.0)	6 (24.0)	0 (0.0)	1 (4.0)	0 (0.0)	25 (100)
	의과대학	4 (23.5)	12 (70.6)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177 (30.5)	117 (20.1)	49 (8.4)	34 (5.9)	59 (10.2)	125 (21.5)	17 (2.9)	2 (0.3)	1 (0.2)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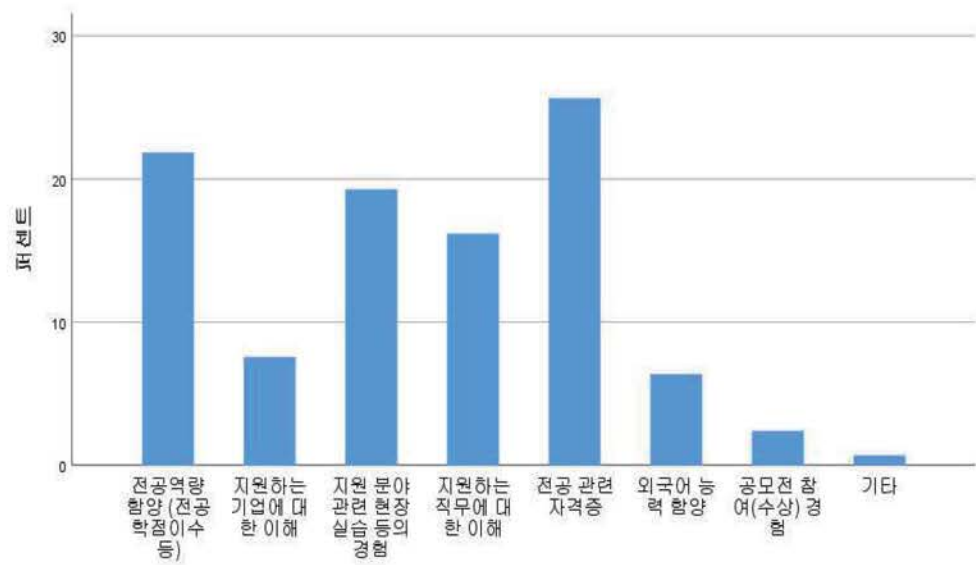
3)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 관련 자격증’ 149명(25.6%),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127명(21.9%),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112명(19.3%),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94명(16.2%),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44명(7.6%), ‘외국어 능력 함양’ 37명(6.4%),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14명(2.4%),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전공 관련 자격증’ 이 83명(2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54명(18.6%),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51명(17.6%),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46명(15.9%),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30명(10.3%), ‘외국어 능력 함양’ 19명(6.6%),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5명(1.7%), ‘기타’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이 76명(2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전공 관련 자격증’ 이 66명(22.7%),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58명(19.9%),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48명(16.5%), ‘외국어 능력 함양’ 18명(6.2%),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14명(4.8%),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9명(3.1%), ‘기타’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은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전공 관련 자격증’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예술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의과대학은 ‘전공역량’ 이 생활과학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성별과 전공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공역량 함양’ 과 ‘전공 관련 자격증’ 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과대학은 지원 분야의 관련 현장실습의 경험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표 5>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구분		전공역량 함양(전공수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이해	현장 실습 경험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	전공 관련 자격 증	외국어 능력 함양	공모전 참여 (수상 경험)	기타	전체
성 별	남	51 (17.6)	30 (10.3)	54 (18.6)	46 (15.9)	83 (28.6)	19 (6.6)	5 (1.7)	2 (0.7)	290 (100)
	여	76 (26.1)	14 (4.8)	58 (19.9)	48 (16.5)	66 (22.7)	18 (6.2)	9 (3.1)	2 (0.7)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13 (25.5)	6 (11.8)	8 (15.7)	7 (13.7)	10 (19.6)	7 (13.7)	0 (0.0)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14 (25.0)	7 (12.5)	10 (17.9)	10 (17.9)	10 (17.9)	3 (5.4)	1 (1.8)	1 (1.8)	56 (100)
	경영 대학	8 (10.3)	7 (9.0)	20 (25.6)	11 (14.1)	23 (29.5)	8 (10.3)	0 (0.0)	1 (1.3)	78 (100)
	자연과학 대학	10 (20.8)	2 (4.2)	7 (14.6)	11 (22.9)	15 (31.3)	1 (2.1)	1 (2.1)	1 (2.1)	48 (100)
	생활과학 대학	16 (32.7)	3 (6.1)	8 (16.3)	5 (10.2)	14 (28.6)	2 (4.1)	1 (2.0)	0 (0.0)	49 (100)
	공과 대학	35 (15.6)	14 (6.3)	46 (20.5)	38 (17.0)	71 (31.7)	15 (6.7)	4 (1.8)	1 (0.4)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2 (37.5)	1 (3.1)	5 (15.6)	5 (15.6)	5 (15.6)	0 (0.0)	4 (12.5)	0 (0.0)	32 (100)
	예술 대학	7 (28.0)	2 (8.0)	8 (32.0)	5 (20.0)	1 (4.0)	0 (0.0)	2 (8.0)	0 (0.0)	25 (100)
	의과 대학	11 (64.7)	2 (11.8)	0 (0.0)	2 (11.8)	0 (0.0)	1 (5.9)	1 (5.9)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127 (21.9)	44 (7.6)	112 (19.3)	94 (16.2)	149 (25.6)	37 (6.4)	14 (2.4)	4 (0.7)	581 (100)

나. 진로 및 취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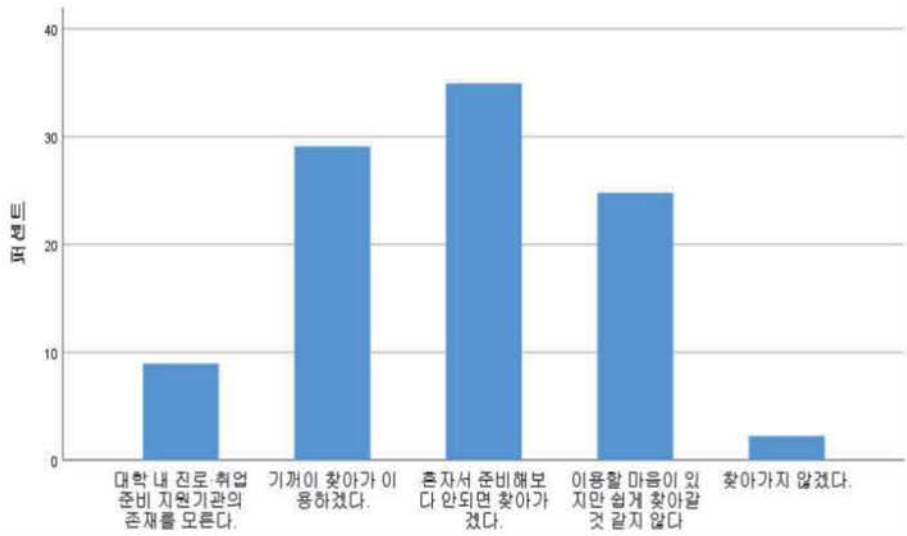
1)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 기관(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센터)을 이용할 의향

4학년 재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에 대한 결과는 ‘혼자서 준비해보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가 203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기꺼이 찾아가 이용하겠다’ 169명(29.1%),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가 144명(24.8%)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진로취업상담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52명(9.0%),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3명(2.2%)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혼자서 준비해보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가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이 35.2%로 여학생의 34.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의 응답에서 29.2%, ‘기꺼이 찾아가 이용하겠다’ 26.8%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기꺼이 찾아가 이용하겠다’ 31.4%,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 20.3%로 나타나 남학생의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 이용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혼자서 준비해보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공과대학은 ‘기꺼이 찾아가 이용 하겠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과학대학은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과대학 학생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지만, 자연과학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기관 이용 의사가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전공에 상관없이 대부분 ‘혼자서 준비해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자연과학대학은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공과대학은 ‘기꺼이 찾아가 이용 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림 6>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표 6>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구분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을 모른다.	기꺼이 찾아가겠다.	혼자서 준비해보는 안 되겠다. 찾아가겠다.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찾아갈 것 같지 않다	찾아가지 않겠다.	전체	
성 별	남	31 (10.7)	91 (31.4)	102 (35.2)	59 (20.3)	7 (2.4)	290 (100)
	여	21 (7.2)	78 (26.8)	101 (34.7)	85 (29.2)	6 (2.1)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5 (9.8)	12 (23.5)	18 (35.3)	16 (31.4)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2 (3.6)	14 (25.0)	22 (39.5)	17 (30.4)	1 (1.8)	56 (100)
	경영 대학	6 (7.7)	26 (33.3)	30 (38.5)	15 (19.2)	1 (1.3)	78 (100)
	자연과학 대학	3 (6.3)	9 (18.8)	12 (25.0)	23 (47.9)	1 (2.1)	48 (100)
	생활과학 대학	4 (8.2)	12 (24.5)	17 (34.7)	14 (28.6)	2 (4.1)	49 (100)
	공과 대학	22 (9.8)	80 (35.7)	76 (33.9)	43 (19.2)	3 (1.3)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2.5)	9 (28.1)	10 (31.3)	7 (21.9)	2 (6.3)	32 (100)
	예술 대학	4 (16.0)	3 (12.0)	13 (52.0)	5 (20.0)	0 (0.0)	25 (100)
	의과 대학	1 (5.9)	4 (23.5)	5 (29.4)	4 (23.5)	3 (17.6)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52 (9.0)	169 (29.1)	203 (34.9)	144 (24.8)	13 (2.2)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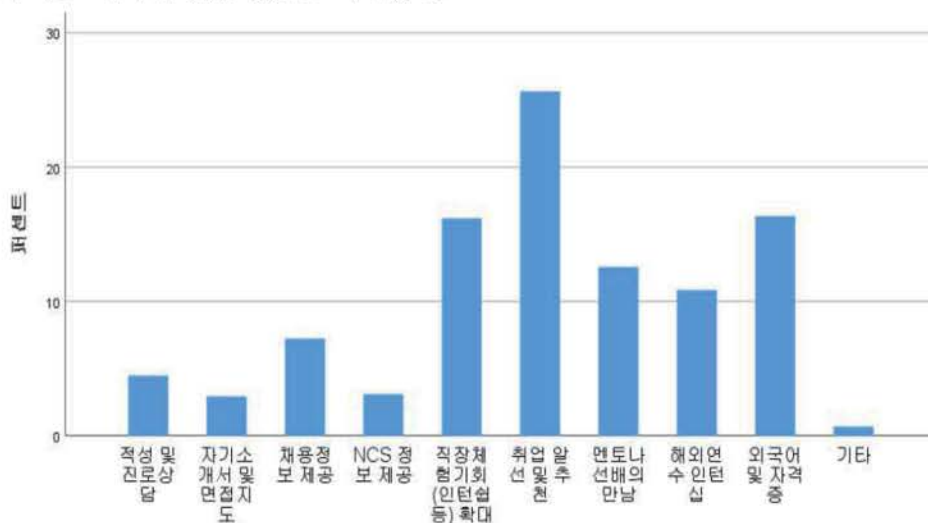
2)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취업알선 및 추천’ 149명(25.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어 및 자격증’ 95명(16.4%),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가 94명(16.2%), ‘멘토나 선배의 만남’ 73명(12.6%), ‘해외연수·인턴십’ 63명(10.8%), ‘채용정보 제공’ 42명(7.2%), ‘적성 및 진로상담’이 26명(4.5%), ‘NCS 정보제공’ 18명(3.1%),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17명(2.9%),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은 실질적인 취업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취업알선 및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학생의 경우,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 ‘외국어 및 자격증’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외국어 및 자격증’,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외국어 및 자격증’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에서는 ‘취업알선 및 추천’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의과대학의 경우 ‘멘토나 선배의 만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는 성별에 상관없이 ‘취업알선 및 추천’이 높게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는 희망하는 서비스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표 7>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구분		적성 진로상담	자기 소개서 및 면접 지도	채용 정보 제공	NCS 정보 제공	직장 체험 회 시 업 기 회 확 대	취 업 선 및 추 천	멘 토 니 의 선 배 만 남	해 외 수 업 기 회 확 대	외 국 어 학 력 증 명	기 타	전 체
성 별	남	15 (5.2)	10 (3.4)	21 (7.2)	8 (2.8)	50 (17.2)	78 (26.9)	35 (12.1)	23 (7.9)	46 (15.9)	4 (1.4)	290 (100)
	여	11 (3.8)	7 (2.4)	21 (7.2)	10 (3.4)	44 (15.1)	71 (24.4)	38 (13.1)	40 (13.7)	49 (16.8)	0 (0.0)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0 (0.0)	1 (2.0)	2 (3.9)	1 (2.0)	9 (17.6)	12 (23.5)	3 (5.9)	10 (19.6)	13 (25.5)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2 (3.6)	2 (3.6)	3 (5.4)	3 (5.4)	11 (19.6)	12 (21.4)	6 (10.7)	6 (10.7)	10 (17.9)	1 (1.8)	56 (100)
	경영대학	2 (2.6)	1 (1.3)	6 (7.7)	2 (2.6)	8 (10.3)	30 (38.5)	7 (9.0)	6 (7.7)	16 (20.5)	0 (0.0)	78 (100)
	자연과학 대학	2 (4.2)	0 (0.0)	5 (10.4)	3 (6.3)	7 (14.6)	10 (20.8)	4 (8.3)	3 (6.3)	14 (29.2)	0 (0.0)	48 (100)
	생활과학 대학	1 (2.0)	2 (4.1)	4 (8.2)	1 (2.0)	7 (14.3)	15 (30.6)	9 (18.4)	7 (14.3)	3 (6.1)	0 (0.0)	49 (100)
	공과대학	13 (5.8)	7 (3.1)	15 (6.7)	7 (3.1)	43 (19.2)	56 (25.0)	28 (12.5)	21 (9.4)	31 (13.8)	3 (1.3)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6.3)	1 (3.1)	2 (6.3)	1 (3.1)	4 (12.5)	6 (18.8)	8 (25.0)	3 (9.4)	5 (15.6)	0 (0.0)	32 (100)
	예술대학	1 (4.0)	1 (4.0)	3 (12.0)	0 (0.0)	3 (12.0)	8 (32.0)	2 (8.0)	5 (20.0)	2 (8.0)	0 (0.0)	25 (100)
	의과대학	2 (11.8)	2 (11.8)	2 (11.8)	0 (0.0)	2 (11.8)	0 (0.0)	6 (35.3)	2 (11.8)	1 (5.9)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26 (4.5)	17 (2.9)	42 (7.2)	18 (3.1)	94 (16.2)	149 (25.6)	73 (12.6)	63 (10.8)	95 (16.4)	4 (0.7)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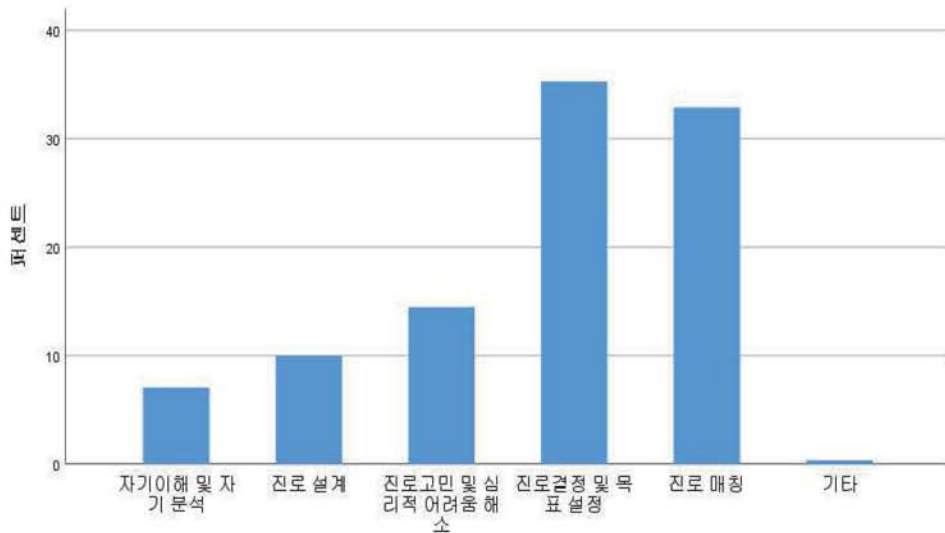
3)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이 205명(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진로 매칭’ 191명(32.9%), ‘진로 고민 및 심리적 어려움 해소’ 84명(14.5%), ‘진로 설계’ 58명(10.0%), ‘자기이해 및 자기 분석’ 41명(7.1%), ‘기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 매칭’이 30.7%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 및 ‘진로 매칭’이 각각 35.1%로 나타나 여학생 모두 직접적인 진로에 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은 모두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디자인 건축 융합대학, 예술대학은 ‘진로 매칭’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진로 결정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는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과 ‘진로 매칭’으로 성별과 전공 분야에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표 8>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구분		자기이해 및 자기 분석	진로 설계	진로 고민 및 심리적 어려움 해소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	진로 매칭	기타	전체
성 별	남	25 (8.6)	31 (10.7)	40 (13.8)	103 (35.5)	89 (30.7)	2 (0.7)	290 (100)
	여	16 (5.5)	27 (9.3)	44 (15.1)	102 (35.1)	102 (35.1)	0 (0.0)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3 (5.9)	1 (2.0)	7 (13.7)	23 (45.1)	17 (33.3)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3 (5.4)	3 (5.4)	11 (19.6)	22 (39.3)	16 (28.6)	1 (1.8)	56 (100)
	경영대학	3 (3.8)	7 (9.0)	7 (9.0)	28 (35.9)	32 (41.0)	1 (1.3)	78 (100)
	자연과학 대학	1 (2.1)	4 (8.3)	6 (12.5)	17 (35.4)	20 (41.7)	0 (0.0)	48 (100)
	생활과학 대학	3 (6.1)	4 (8.2)	3 (6.1)	21 (42.9)	18 (36.7)	0 (0.0)	49 (100)
	공과대학	20 (8.9)	27 (12.1)	35 (15.6)	76 (33.9)	66 (29.5)	0 (0.0)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6.3)	5 (15.6)	6 (18.8)	8 (25.0)	11 (34.4)	0 (0.0)	32 (100)
	예술대학	2 (8.0)	3 (12.0)	5 (20.0)	5 (20.0)	10 (40.0)	0 (0.0)	25 (100)
	의과대학	3 (17.6)	4 (23.5)	4 (23.5)	5 (29.4)	1 (5.9)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41 (7.1)	58 (10.0)	84 (14.5)	205 (35.3)	191 (32.9)	2 (0.3)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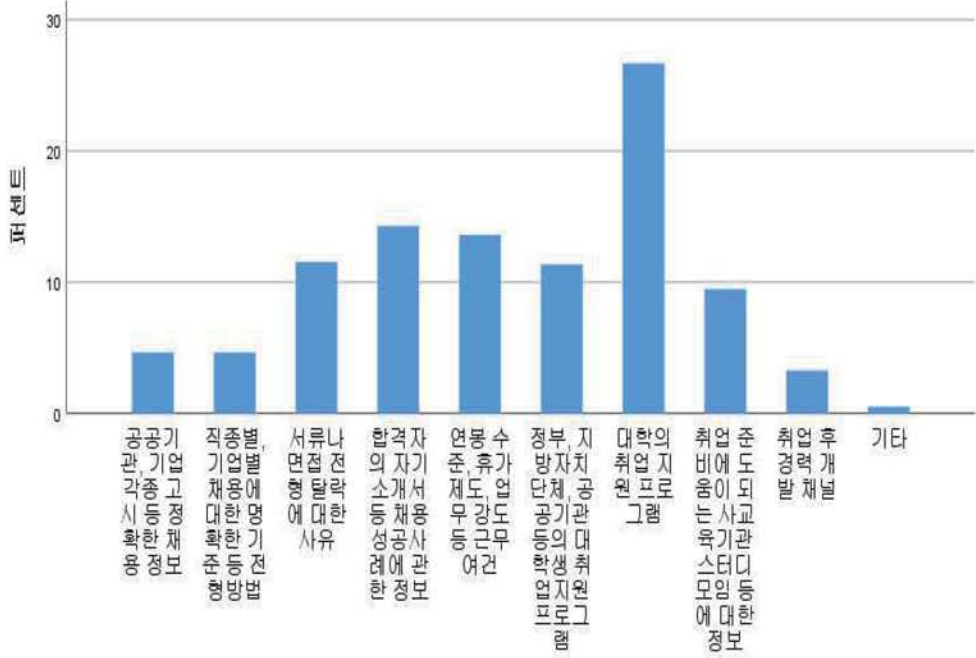
4)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 155명(26.7%)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83명(14.3%), ‘연봉 수준, 휴가제도, 업무 강도 등 근무 여건’ 79명(13.6%),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67명(11.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66명(11.4%),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55명(9.5%),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정보’, ‘직종별,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각각 27명(4.6%), ‘취업 후 경력개발 채널’ 19명(3.3%) ‘기타’ 3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가장 많이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남학생은 ‘연봉 수준, 휴가제도, 업무 강도 등 근무 여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연봉 수준, 휴가제도, 업무 강도 등 근무 여건’,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가장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에서는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를 가장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가 가장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연봉 수준, 휴가제도, 업무 강도 등 근무 여건’ 이 가장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는 성별과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9〉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표 9>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구분	정확한 채용정 보	채용 전형 방법	서류, 면접 전형 탈락 사유	합격자 성공 사례 정보	연봉, 휴가, 업무 강도 등 근무 여건	공공 기관 등의 취업 지원 프로 그램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 그램	취업 준비 사교육 ,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취업 후 경력 개발 채널	기타	전체	
성 별	남	19 (6.6)	18 (6.2)	40 (13.8)	42 (14.5)	50 (17.2)	20 (6.9)	74 (25.5)	20 (6.9)	5 (1.7)	2 (0.7)	290 (100)
	여	8 (2.7)	9 (3.1)	27 (9.3)	41 (14.1)	29 (10.0)	46 (15.8)	81 (27.8)	35 (12.0)	14 (4.8)	1 (0.3)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1 (2.0)	4 (7.8)	7 (13.7)	6 (11.8)	4 (7.8)	7 (13.7)	13 (25.5)	6 (11.8)	3 (5.9)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1 (1.8)	2 (3.6)	11 (19.6)	8 (14.3)	3 (5.4)	9 (16.1)	11 (19.6)	5 (8.9)	4 (7.1)	2 (3.6)	56 (100)
	경영대학	2 (2.6)	2 (2.6)	9 (11.5)	9 (11.5)	12 (15.4)	12 (15.4)	26 (33.3)	3 (3.8)	3 (3.8)	0 (0.0)	78 (100)
	자연과학 대학	3 (6.3)	1 (2.1)	5 (10.4)	6 (12.5)	8 (16.7)	6 (12.5)	17 (35.4)	1 (2.1)	1 (2.1)	0 (0.0)	48 (100)
	생활과학 대학	1 (2.0)	3 (6.1)	0 (0.0)	12 (24.5)	3 (6.1)	8 (16.3)	11 (22.4)	11 (22.4)	0 (0.0)	0 (0.0)	49 (100)
	공과대학	15 (6.7)	10 (4.5)	24 (10.7)	30 (13.4)	35 (15.6)	21 (9.4)	61 (27.2)	21 (9.4)	6 (2.7)	1 (0.4)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6.3)	2 (6.3)	4 (12.5)	2 (6.3)	9 (28.1)	1 (3.1)	7 (21.9)	4 (12.5)	1 (3.1)	0 (0.0)	32 (100)
	예술대학	1 (4.0)	1 (4.0)	4 (16.0)	7 (28.0)	2 (8.0)	2 (8.0)	5 (20.0)	2 (8.0)	1 (4.0)	0 (0.0)	25 (100)
	의과대학	0 (0.0)	2 (11.8)	3 (17.6)	3 (17.6)	3 (17.6)	0 (0.0)	4 (23.5)	2 (11.8)	0 (0.0)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27 (4.6)	27 (4.6)	67 (11.5)	83 (14.3)	79 (13.6)	66 (11.4)	155 (26.7)	55 (9.5)	19 (3.3)	3 (0.5)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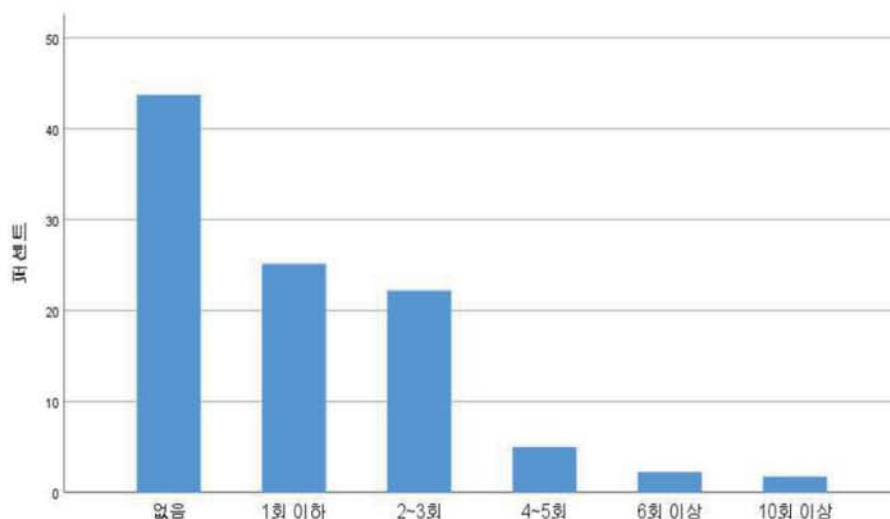
5)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해 본 횟수가 ‘없음’ 이 254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이하’ 146명(25.1%), ‘2회~3회’ 129명(22.2%), ‘4~5회’ 29명(5.0%), ‘6회 이상’ 13명(2.2%), ‘10회 이상’ 10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41.4%, 여학생 46.0%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 에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단과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 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과학대학에서만 ‘1회 이하’ 가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 다음으로 ‘2~3회’ 참여한 비율이 각각 19.6%, 28.6%, 25.0%로 나타났으며, 경영대학 23.1%, 공과대학 29.5%,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1.9%, 예술대학 20.0%, 의과대학 17.6%는 ‘1회 이하’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성별이나 단과대학의 차이 없이 대부분 ‘없음’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생활과학대학만이 ‘1회 이하’ 로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응답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표 10>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구분		없음	1회 이하	2~3회	4~5회	6회 이상	10회 이상	전체
성별	남	120 (41.4)	78 (26.9)	68 (23.4)	12 (4.1)	8 (2.8)	4 (1.4)	290 (100)
	여	134 (46.0)	68 (23.4)	61 (21.0)	17 (5.8)	5 (1.7)	6 (2.1)	291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29 (56.9)	8 (15.7)	10 (19.6)	3 (5.9)	1 (2.0)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21 (37.5)	15 (26.8)	16 (28.6)	2 (3.6)	1 (1.8)	1 (1.8)	56 (100)
	경영 대학	34 (43.6)	18 (23.1)	14 (17.9)	6 (7.7)	3 (3.8)	3 (3.8)	78 (100)
	자연과학 대학	29 (60.4)	5 (10.4)	12 (25.0)	1 (2.1)	1 (2.1)	0 (0.0)	48 (100)
	생활과학 대학	15 (30.6)	19 (38.8)	10 (20.4)	2 (4.1)	1 (2.0)	2 (4.1)	49 (100)
	공과 대학	78 (34.8)	66 (29.5)	57 (25.4)	14 (6.3)	5 (2.2)	4 (1.8)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1 (65.6)	7 (21.9)	4 (12.5)	0 (0.0)	0 (0.0)	0 (0.0)	32 (100)
	예술 대학	18 (72.0)	5 (20.0)	2 (8.0)	0 (0.0)	0 (0.0)	0 (0.0)	25 (100)
	의과 대학	8 (47.1)	3 (17.6)	4 (23.5)	1 (5.9)	1 (5.9)	0 (0.0)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254 (43.7)	146 (25.1)	129 (22.2)	29 (5.0)	13 (2.2)	10 (1.7)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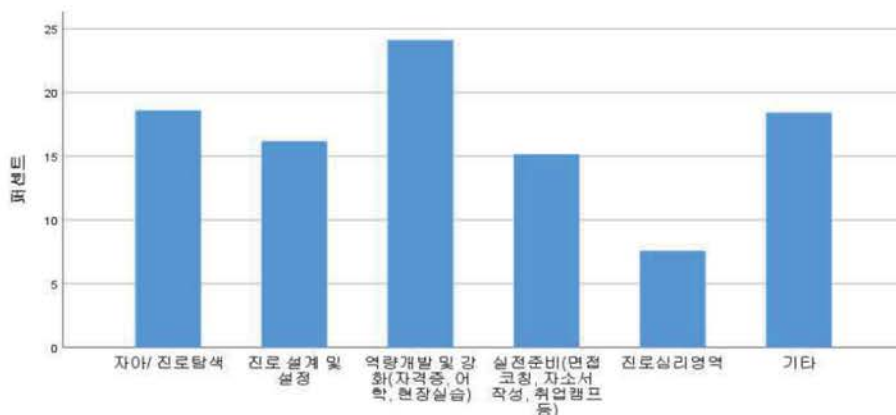
6)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140명(24.1%)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자아/진로 탐색’ 108명(18.6%), ‘기타’ 107명(18.4%), ‘진로 설계 및 설정’ 94명(16.2%), ‘실전 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88명(15.1%), ‘진로 심리영역’ 44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남학생은 ‘진로 설계 및 설정’, ‘자아/진로 탐색’, ‘기타’, ‘실전 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진로 심리영역’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기타’, ‘자아/진로 탐색’, ‘실전 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진로 설계 및 설정’, ‘진로 심리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은 ‘기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하였고,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은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생활과학대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자아/진로 탐색’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은 ‘자아/진로 탐색’ 및 ‘기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예술대학은 ‘진로 설계 및 설정’, 의과대학은 ‘실전 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는 성별 차이 없이 자격증이나 어학, 현장 실습과 관련된 역량개발 및 강화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단과대학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전공별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만족도가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림 11>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표 11>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구분		자아/ 진로 탐색	진로 설계 및 설정	역량개발 및 강화 (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실전준비 (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진로 심리영역	기타	전체
성 별	남	53 (18.3)	64 (22.1)	73 (25.2)	39 (13.4)	16 (5.5)	45 (15.5)	290 (100)
	여	55 (18.9)	30 (10.3)	67 (23.0)	49 (16.8)	28 (9.6)	62 (21.3)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10 (19.6)	10 (19.6)	8 (15.7)	7 (13.7)	3 (5.9)	13 (25.5)	51 (100)
	사회과학 대학	10 (17.9)	8 (14.3)	16 (28.6)	9 (16.1)	3 (5.4)	10 (17.9)	56 (100)
	경영대학	7 (9.0)	9 (11.5)	28 (35.9)	10 (12.8)	7 (9.0)	17 (21.8)	78 (100)
	자연과학 대학	11 (22.9)	7 (14.6)	10 (20.8)	4 (8.3)	5 (10.4)	11 (22.9)	48 (100)
	생활과학 대학	15 (30.6)	5 (10.2)	6 (12.2)	7 (14.3)	8 (16.3)	8 (16.3)	49 (100)
	공과대학	33 (14.7)	43 (19.2)	65 (29.0)	34 (15.2)	15 (6.7)	34 (15.2)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9 (28.1)	3 (9.4)	4 (12.5)	7 (21.9)	1 (3.1)	8 (25.0)	32 (100)
	예술대학	7 (28.0)	8 (32.0)	1 (4.0)	2 (8.0)	2 (8.0)	5 (20.0)	25 (100)
	의과대학	5 (29.4)	1 (5.9)	2 (11.8)	8 (47.1)	0 (0.0)	1 (5.9)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108 (18.6)	94 (16.2)	140 (24.1)	88 (15.1)	44 (7.6)	107 (18.4)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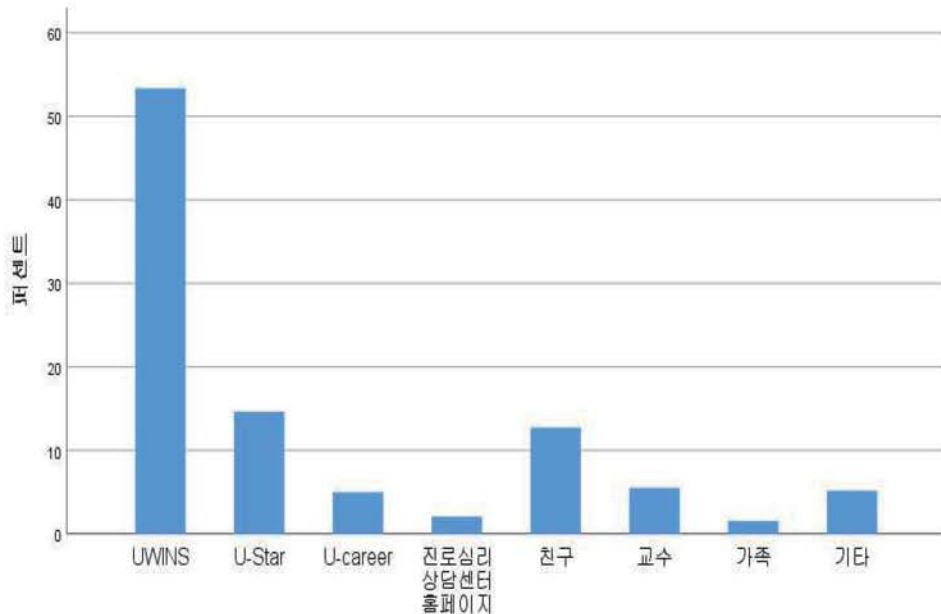
7)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를 ‘UWINS’ 에서 획득하는 경우가 310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U-Star’ 85명(14.6%), ‘친구’ 74명(12.7%), ‘교수’ 32명(5.5%), ‘기타’ 30명(5.2%), ‘U-career’ 29명(5.0%), ‘진로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 12명(2.1%), ‘가족’ 9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여학생은 ‘U-career’ 의 응답이 6.2%, ‘교수’의 응답’ 이 4.8%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교수’의 응답’ 이 6.2%, ‘U-career’ 의 응답이 3.8%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교수’ 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이 ‘UWINS’ 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의과대학은 23.5%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 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성별이나 전공의 차이 없이 대부분 ‘UWINS’ 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UWINS’ 를 통한 정보 획득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표 12>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구분	UWINS	U-Star	U-career	진로 심리 상담 센터 홈페 이지	친구	교수	가족	기타	전체	
성별	남	149 (51.4)	45 (15.5)	11 (3.8)	6 (2.1)	38 (13.1)	18 (6.2)	7 (2.4)	16 (5.5)	290 (100)
	여	161 (55.3)	40 (13.7)	18 (6.2)	6 (2.1)	36 (12.4)	14 (4.8)	2 (0.7)	14 (4.8)	291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33 (64.7)	9 (17.6)	0 (0.0)	0 (0.0)	7 (13.7)	0 (0.0)	1 (2.0)	1 (2.0)	51 (100)
	사회과학대학	31 (55.4)	5 (8.9)	3 (5.3)	2 (3.6)	6 (10.7)	2 (3.6)	1 (1.8)	6 (10.7)	56 (100)
	경영대학	44 (56.4)	11 (14.1)	8 (10.3)	0 (0.0)	8 (10.3)	0 (0.0)	2 (2.6)	5 (6.4)	78 (100)
	자연과학대학	28 (58.3)	6 (12.5)	4 (8.3)	0 (0.0)	4 (8.3)	4 (8.3)	0 (0.0)	2 (4.2)	48 (100)
	생활과학대학	29 (59.2)	6 (12.2)	2 (4.1)	1 (2.0)	7 (14.3)	2 (4.1)	1 (2.0)	1 (2.0)	49 (100)
	공과대학	117 (52.2)	45 (20.1)	9 (4.0)	5 (2.2)	25 (11.2)	10 (4.5)	4 (1.8)	9 (4.0)	22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2 (37.5)	1 (3.1)	0 (0.0)	3 (9.4)	7 (21.9)	7 (21.9)	0 (0.0)	2 (6.3)	32 (100)
	예술대학	11 (44.0)	0 (0.0)	1 (4.0)	1 (4.0)	5 (20.0)	4 (16.0)	0 (0.0)	3 (12.0)	25 (100)
	의과대학	4 (23.5)	2 (11.8)	2 (11.8)	0 (0.0)	5 (29.4)	3 (17.6)	0 (0.0)	1 (5.9)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310 (53.4)	85 (14.6)	29 (5.0)	12 (2.1)	74 (12.7)	32 (5.5)	9 (1.5)	30 (5.2)	581 (100)	

다.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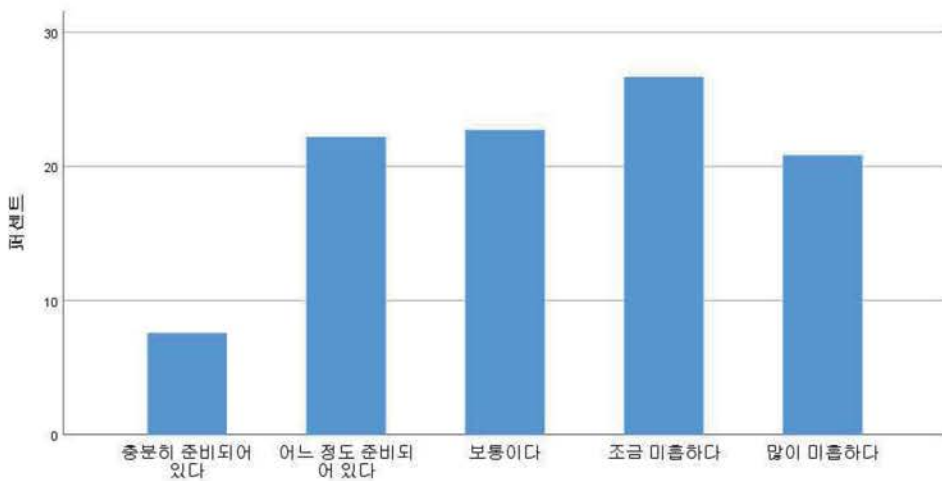
1)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진로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조금 미흡하다’가 155명(26.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 132명(22.7%),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129명(22.2%), ‘많이 미흡하다’ 121명(20.8%),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44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29.8%는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47.5%는 진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30.7%가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거나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28.9%로 응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58.8%가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거나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예술대학은 16.0%로 준비와 계획 정도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에서는 성별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공에 따라서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3>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표 13> 자신의 진로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구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보통이다	조금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다	전체
성 별	남	28 (9.7)	61 (21.0)	69 (23.8)	78 (26.9)	54 (18.6)	290 (100)
	여	16 (5.5)	68 (23.4)	63 (21.6)	77 (26.5)	67 (23.0)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2 (3.9)	11 (21.6)	10 (19.6)	10 (19.6)	18 (35.3)	51 (100)
	사회과학 대학	5 (8.9)	14 (25.0)	14 (25.0)	10 (17.9)	13 (23.2)	56 (100)
	경영대학	6 (7.7)	13 (16.7)	22 (28.2)	23 (29.5)	14 (17.9)	78 (100)
	자연과학 대학	4 (8.3)	9 (18.8)	8 (16.7)	15 (31.3)	12 (25.0)	48 (100)
	생활과학 대학	0 (0.0)	14 (28.6)	10 (20.4)	15 (30.6)	10 (20.4)	49 (100)
	공과대학	19 (8.5)	53 (23.7)	49 (21.9)	59 (26.3)	44 (19.6)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6.3)	6 (18.8)	6 (18.8)	14 (43.8)	4 (12.5)	32 (100)
	예술대학	2 (8.0)	2 (8.0)	9 (36.0)	7 (28.0)	5 (20.0)	25 (100)
	의과대학	3 (17.6)	7 (41.2)	4 (23.5)	2 (11.8)	1 (5.9)	17 (100)
	기타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전체		44 (7.6)	129 (22.2)	132 (22.7)	155 (26.7)	121 (20.8)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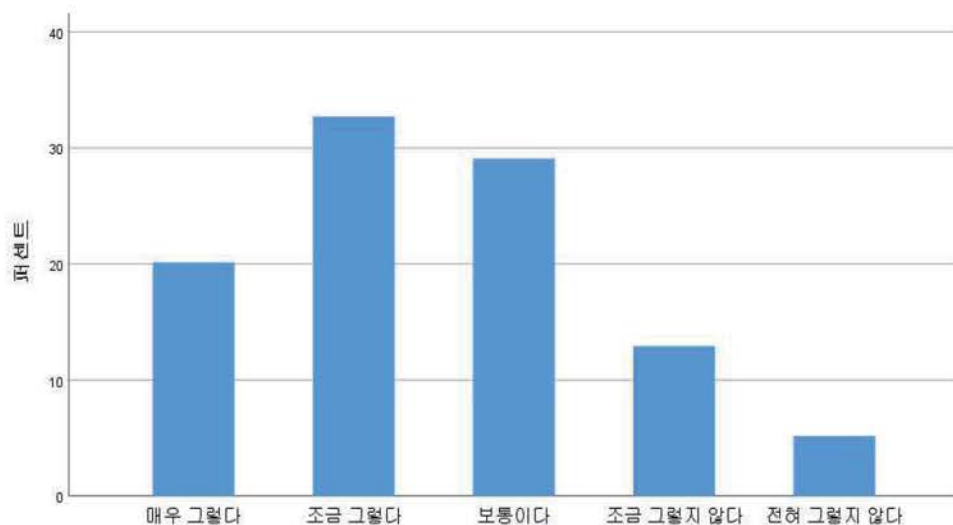
2)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의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독립성 정도의 수준이 ‘조금 그렇다’가 190명(32.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69명(29.1%), ‘매우 그렇다’ 117명(20.1%), ‘조금 그렇지 않다’ 75명(12.9%), ‘전혀 그렇지 않다’ 30명(5.2%)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52.8%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4.1%, 여학생은 51.5%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64.7%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타 단과대학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을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각각 45.1%, 43.8%, 46.9%로 독립성 정도 수준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의 수준은 성별의 차이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공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

<표 14>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68 (23.4)	89 (30.7)	82 (28.3)	36 (12.4)	15 (5.2)	290 (100)
	여	49 (16.8)	101 (34.7)	87 (29.9)	39 (13.4)	15 (5.2)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6 (11.8)	17 (33.3)	12 (23.5)	10 (19.6)	6 (11.8)	51 (100)
	사회과학 대학	12 (21.4)	21 (37.5)	17 (30.4)	2 (3.6)	4 (7.1)	56 (100)
	경영대학	16 (20.5)	27 (34.6)	24 (30.8)	10 (12.8)	1 (1.3)	78 (100)
	자연과학 대학	7 (14.6)	14 (29.2)	15 (31.3)	9 (18.8)	3 (6.3)	48 (100)
	생활과학 대학	8 (16.3)	15 (30.6)	15 (30.6)	10 (20.4)	1 (2.0)	49 (100)
	공과대학	50 (22.3)	72 (32.1)	63 (28.1)	28 (12.5)	11 (4.9)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 (21.9)	11 (34.4)	10 (31.3)	2 (6.3)	2 (6.3)	32 (100)
	예술대학	5 (20.0)	8 (32.0)	9 (36.0)	2 (8.0)	1 (4.0)	25 (100)
	의과대학	6 (35.3)	5 (29.4)	3 (17.6)	2 (11.8)	1 (5.9)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117 (20.1)	190 (32.7)	169 (29.1)	75 (12.9)	30 (5.2)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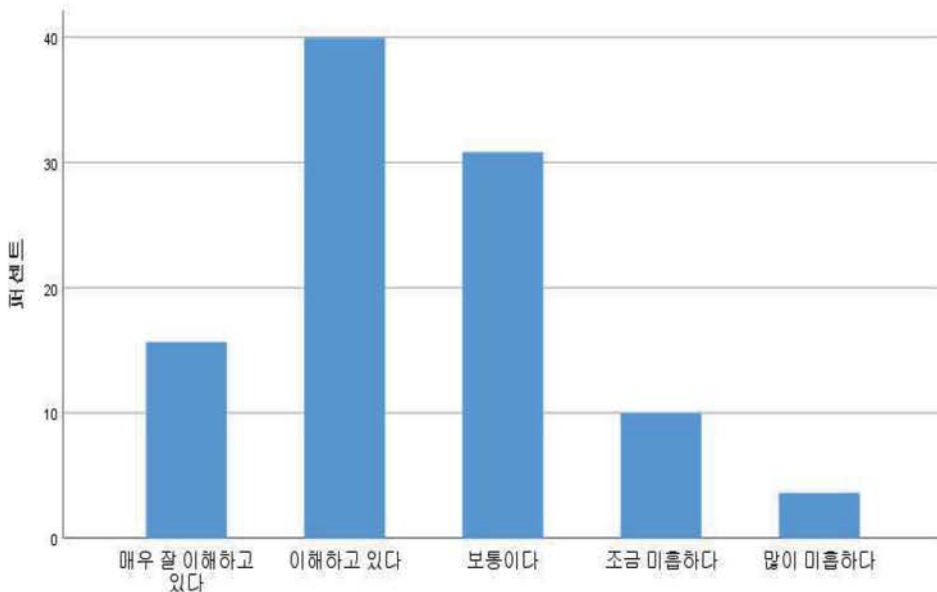
3)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의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자기이해 정도의 수준이 ‘이해하고 있다’ 232명(39.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79명(30.8%),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91명(15.7%), ‘조금 미흡하다’ 58명(10.0%), ‘많이 미흡하다’ 21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55.6%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5.5%, 여학생은 55.7%가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70.6%가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예술대학 68%, 사회과학대학 64.2%, 생활과학대학 61.3%,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9.4%, 경영대학 59%, 공과대학 52.2%, 인문대학 47%, 자연과학대학 45.9%로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는 성별의 차이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공에 따라서는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표 15>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구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보통이다	조금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다	전체
성별	남	50 (17.2)	111 (38.3)	92 (31.7)	28 (9.7)	9 (3.1)	290 (100)
	여	41 (14.1)	121 (41.6)	87 (29.9)	30 (10.3)	12 (4.1)	291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4 (7.8)	20 (39.2)	18 (35.3)	7 (13.7)	2 (3.9)	51 (100)
	사회과학대학	11 (19.6)	25 (44.6)	14 (25.0)	4 (7.1)	2 (3.6)	56 (100)
	경영대학	10 (12.8)	36 (46.2)	24 (30.8)	6 (7.7)	2 (2.6)	78 (100)
	자연과학대학	9 (18.8)	13 (27.1)	15 (31.3)	8 (16.7)	3 (6.3)	48 (100)
	생활과학대학	9 (18.4)	21 (42.9)	14 (28.6)	4 (8.2)	1 (2.0)	49 (100)
	공과대학	31 (13.8)	86 (38.4)	75 (33.5)	24 (10.7)	8 (3.6)	22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 (18.8)	13 (40.6)	10 (31.3)	1 (3.1)	2 (6.3)	32 (100)
	예술대학	7 (28.0)	10 (40.0)	5 (20.0)	3 (12.0)	0 (0.0)	25 (100)
	의과대학	4 (23.5)	8 (47.1)	3 (17.6)	1 (5.9)	1 (5.9)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91 (15.7)	232 (39.9)	179 (30.8)	58 (10.0)	21 (3.6)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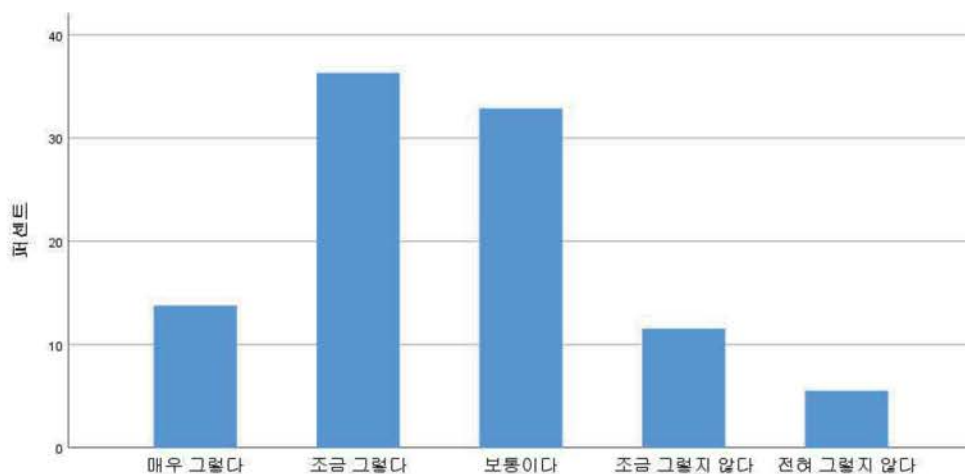
4)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 대한 흥미 및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조금 그렇다’가 211명(36.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91명(32.9%), ‘매우 그렇다’ 80명(13.8%), ‘조금 그렇지 않다’ 67명(11.5%),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5.5%)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50.1%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4.1%, 여학생은 46.0%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예술대학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의과대학 58.8%,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6.3%, 경영대학 53.9%, 사회과학대학 53.6%, 생활과학대학 53.1%, 공과대학 49.1%, 자연과학대학 43.7%, 인문대학 3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단과대학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인문대학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가는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다

<표 16>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43 (14.8)	114 (39.3)	86 (29.7)	33 (11.4)	14 (4.8)	290 (100)
	여	37 (12.7)	97 (33.3)	105 (36.1)	34 (11.7)	18 (6.2)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5 (9.8)	14 (27.5)	19 (37.3)	9 (17.6)	4 (7.8)	51 (100)
	사회과학 대학	9 (16.1)	21 (37.5)	19 (33.9)	4 (7.1)	3 (5.4)	56 (100)
	경영대학	7 (9.0)	35 (44.9)	28 (35.9)	6 (7.7)	2 (2.6)	78 (100)
	자연과학 대학	11 (22.9)	10 (20.8)	14 (29.2)	8 (16.7)	5 (10.4)	48 (100)
	생활과학 대학	7 (14.3)	19 (38.8)	18 (36.7)	2 (4.1)	3 (6.1)	49 (100)
	공과대학	29 (12.9)	81 (36.2)	72 (32.1)	30 (13.4)	12 (5.4)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2.5)	14 (43.8)	9 (28.1)	3 (9.4)	2 (6.3)	32 (100)
	예술대학	4 (16.0)	11 (44.0)	6 (24.0)	3 (12.0)	1 (4.0)	25 (100)
	의과대학	4 (23.5)	6 (35.3)	5 (29.4)	2 (11.8)	0 (0.0)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80 (13.8)	211 (36.3)	191 (32.9)	67 (11.5)	32 (5.5)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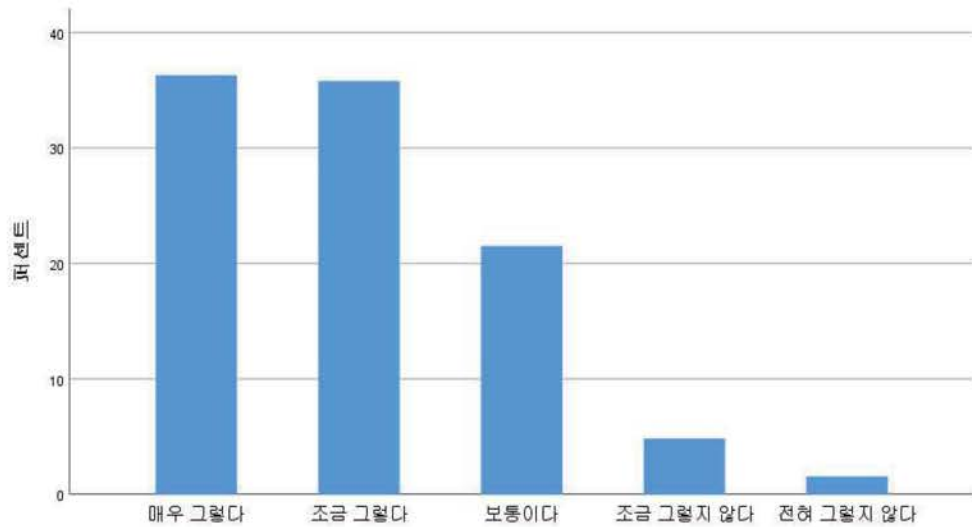
5)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정도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매우 그렇다’ 211명(36.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조금 그렇다’가 208명(35.8%), ‘보통이다’ 125명(21.5%), ‘조금 그렇지 않다’ 28명(4.8%), ‘전혀 그렇지 않다’ 9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72.1%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69.3%, 여학생은 74.9%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76.9%, 사회과학대학 76.7%,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75.0%, 인문대학 74.5%, 생활과학대학 73.5%, 공과대학 69.2%, 자연과학대학 68.8%, 예술대학이 6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단과대학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예술대학의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표 17>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99 (34.1)	102 (35.2)	66 (22.8)	16 (5.5)	7 (2.4)	290 (100)
	여	112 (38.5)	106 (36.4)	59 (20.3)	12 (4.1)	2 (0.7)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21 (41.2)	17 (33.3)	12 (23.5)	1 (2.0)	0 (0.0)	51 (100)
	사회과학 대학	25 (44.6)	18 (32.1)	9 (16.1)	3 (5.4)	1 (1.8)	56 (100)
	경영대학	28 (35.9)	32 (41.0)	16 (20.5)	1 (1.3)	1 (1.3)	78 (100)
	자연과학 대학	13 (27.1)	20 (41.7)	11 (22.9)	4 (8.3)	0 (0.0)	48 (100)
	생활과학 대학	19 (38.8)	17 (34.7)	12 (24.5)	1 (2.0)	0 (0.0)	49 (100)
	공과대학	76 (33.9)	79 (35.3)	50 (22.3)	13 (5.8)	6 (2.7)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1 (34.4)	13 (40.6)	5 (15.6)	2 (6.3)	1 (3.1)	32 (100)
	예술대학	9 (36.0)	7 (28.0)	7 (28.0)	2 (8.0)	0 (0.0)	25 (100)
	의과대학	9 (52.9)	5 (29.4)	2 (11.8)	1 (5.9)	0 (0.0)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211 (36.3)	208 (35.8)	125 (21.6)	28 (4.8)	9 (1.5)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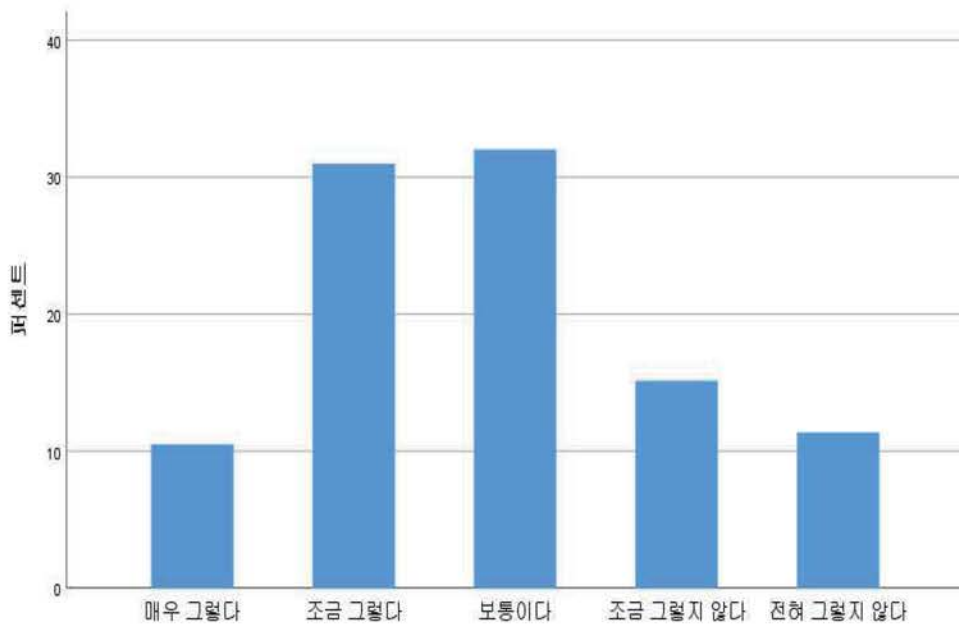
6) 자신의 진로에 관한 선택 및 결정 정도

자신이 흥미가 가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관한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보통이다’가 186명(32.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조금 그렇다’가 180명(31.0%), ‘조금 그렇지 않다’ 88명(15.1%), ‘전혀 그렇지 않다’ 66명(11.4%), ‘매우 그렇다’ 61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41.5%는 직업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35.9%, 여학생은 47.0%가 직업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직업을 결정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생활과학대학 49%, 사회과학대학 44.6%,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40.6%, 자연과학대학 40.0%, 경영대학 39.8%, 공과대학 37.9%, 예술대학 36.0%, 의과대학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과학대학이 직업 결정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고 의과대학은 가장 어려움을 적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흥미가 가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나는 흥미가 가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

<표 18> 나는 흥미가 가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28 (9.7)	76 (26.2)	106 (36.6)	45 (15.5)	35 (12.1)	290 (100)
	여	33 (11.3)	104 (35.7)	80 (27.5)	43 (14.8)	31 (10.7)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5 (9.8)	21 (41.2)	11 (21.6)	8 (15.7)	6 (11.8)	51 (100)
	사회과학 대학	5 (8.9)	20 (35.7)	15 (26.8)	9 (16.1)	7 (12.5)	56 (100)
	경영대학	12 (15.4)	19 (24.4)	31 (39.7)	11 (14.1)	5 (6.4)	78 (100)
	자연과학 대학	7 (14.6)	17 (35.4)	13 (27.1)	7 (14.6)	4 (8.3)	48 (100)
	생활과학 대학	5 (10.2)	19 (38.8)	15 (30.6)	7 (14.3)	3 (6.1)	49 (100)
	공과대학	20 (8.9)	65 (29.0)	74 (33.0)	40 (17.9)	25 (11.2)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2.5)	9 (28.1)	9 (28.1)	2 (6.3)	8 (25.0)	32 (100)
	예술대학	2 (8.0)	7 (28.0)	13 (52.0)	1 (4.0)	2 (8.0)	25 (100)
	의과대학	1 (5.9)	3 (17.6)	4 (23.5)	3 (17.6)	6 (35.3)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61 (10.5)	180 (31.0)	186 (32.0)	88 (15.1)	66 (11.4)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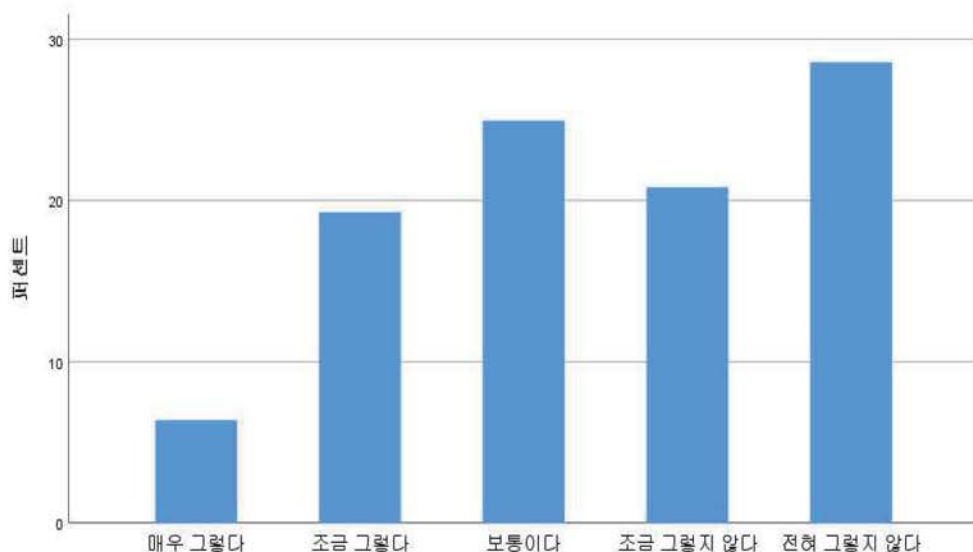
7)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생각 차이로 인해 얼마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6명(28.6%)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45명(25.0%), ‘조금 그렇지 않다’ 121명(20.8%), ‘조금 그렇다’가 112명(19.3%), ‘매우 그렇다’ 37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25.7%는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생각 차이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4.1%, 여학생은 27.1%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4.4%로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32.1%, 경영대학 30.8%, 공과대학 26.3%, 인문대학이 23.5%, 예술대학 20.0%, 생활과학대학 18.4%, 의과대학 17.6%, 자연과학대학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대학이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가장 적게 겪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생각 차이로 인해 얼마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가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표 19> 나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21 (7.2)	49 (16.9)	73 (25.2)	58 (20.0)	89 (30.7)	290 (100)
	여	16 (5.5)	63 (21.6)	72 (24.7)	63 (21.6)	77 (26.5)	291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3 (5.9)	9 (17.6)	16 (31.4)	9 (17.6)	14 (27.5)	51 (100)
	사회과학대학	4 (7.2)	14 (25.0)	13 (23.2)	9 (16.1)	16 (28.6)	56 (100)
	경영대학	7 (9.0)	17 (21.8)	18 (23.1)	19 (24.4)	17 (21.8)	78 (100)
	자연과학대학	2 (4.2)	6 (12.5)	13 (27.1)	14 (29.2)	13 (27.1)	48 (100)
	생활과학대학	0 (0.0)	9 (18.4)	16 (32.7)	13 (26.5)	11 (22.4)	49 (100)
	공과대학	18 (8.0)	41 (18.3)	50 (22.3)	44 (19.6)	71 (31.7)	22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 (6.3)	9 (28.1)	7 (21.9)	1 (3.1)	13 (40.6)	32 (100)
	예술대학	1 (4.0)	4 (16.0)	8 (32.0)	6 (24.0)	6 (24.0)	25 (100)
	의과대학	0 (0.0)	3 (17.6)	3 (17.6)	6 (35.3)	5 (29.4)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37 (6.4)	112 (19.3)	145 (25.0)	121 (20.8)	166 (28.6)	581 (100)

라. 정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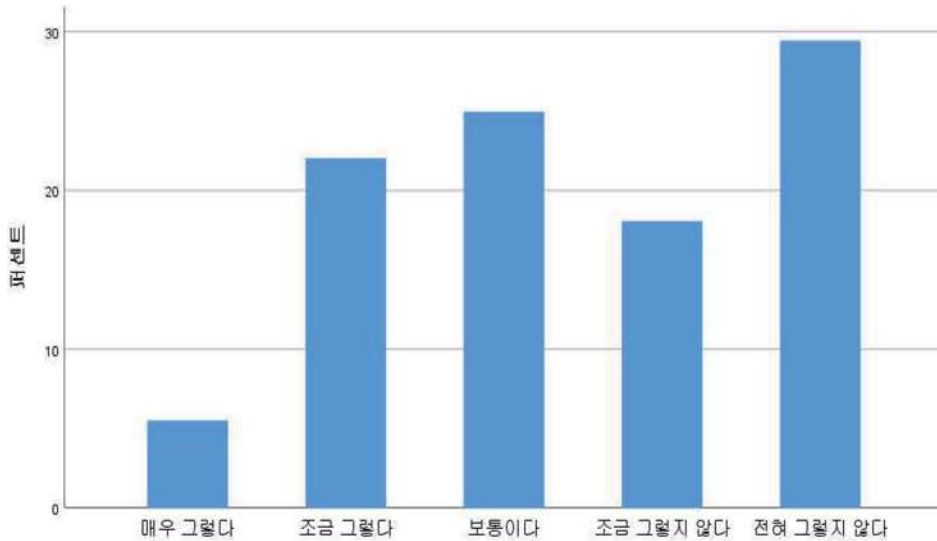
1)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

4학년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1명(29.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45명(25.0%), ‘조금 그렇다’가 128명(22.0%), ‘조금 그렇지 않다’ 105명(18.1%), ‘매우 그렇다’ 32명(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27.5%는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7.6%, 여학생은 27.5%로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43.2%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33.9%, 예술대학 32.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8.2%, 공과대학 27.6%, 자연과학대학 14.2%, 경영대학 23.0%, 의과대학 17.6%, 생활과학대학 14.2%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과학대학이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가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잠이 안 온다

<표 20>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잠이 안 온다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19 (6.6)	61 (21.0)	66 (22.8)	47 (16.2)	97 (33.4)	290 (100)
	여	13 (4.5)	67 (23.0)	79 (27.1)	58 (19.9)	74 (25.4)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3 (5.9)	19 (37.3)	15 (29.4)	6 (11.8)	8 (15.7)	51 (100)
	사회과학 대학	1 (1.8)	18 (32.1)	12 (21.4)	9 (16.1)	16 (28.6)	56 (100)
	경영대학	3 (3.8)	15 (19.2)	22 (28.2)	16 (20.5)	22 (28.2)	78 (100)
	자연과학 대학	3 (6.3)	9 (18.8)	14 (29.2)	10 (20.8)	12 (25.0)	48 (100)
	생활과학 대학	1 (2.0)	6 (12.2)	19 (38.8)	9 (18.4)	14 (28.6)	49 (100)
	공과대학	16 (7.1)	46 (20.5)	47 (21.0)	40 (17.9)	75 (33.5)	22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 (9.4)	6 (18.8)	4 (12.5)	6 (18.8)	13 (40.6)	32 (100)
	예술대학	2 (8.0)	6 (24.0)	7 (28.0)	4 (16.0)	6 (24.0)	25 (100)
	의과대학	0 (0.0)	3 (17.6)	4 (23.5)	5 (29.4)	5 (29.4)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32 (5.5)	128 (22.0)	145 (25.0)	105 (18.1)	171 (29.4)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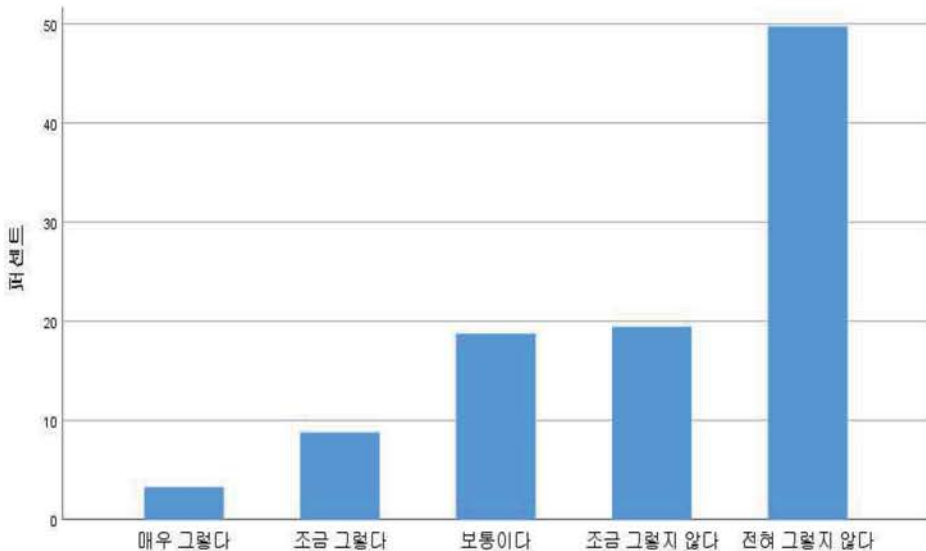
2)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 유무

4학년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 유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89명(49.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그렇지 않다’ 113명(19.4%), ‘보통이다’가 109명(18.8%), ‘조금 그렇다’가 51명(8.8%), ‘매우 그렇다’ 19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12.1%는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5.5%, 여학생은 8.6%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사회과학대학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예술대학 16.0%, 공과대학 14.7%, 자연과학대학 14.6%, 인문대학이 11.8%,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9.4%, 생활과학대학 6.1%, 의과대학 5.9%, 경영대학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대학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 문제는 다른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에 문제가 있는가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이 없다

<표 21>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이 없다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13 (4.5)	32 (11.0)	57 (19.7)	46 (15.9)	142 (49.0)	290 (100)
	여	6 (2.1)	19 (6.5)	52 (17.9)	67 (23.0)	147 (50.5)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1 (2.0)	5 (9.8)	14 (27.5)	12 (23.5)	19 (37.3)	51 (100)
	사회과학 대학	2 (3.6)	7 (12.5)	7 (12.5)	11 (19.6)	29 (51.8)	56 (100)
	경영대학	1 (1.3)	3 (3.8)	14 (17.9)	16 (20.5)	44 (56.4)	78 (100)
	자연과학 대학	0 (0.0)	7 (14.6)	8 (16.7)	12 (25.0)	21 (43.8)	48 (100)
	생활과학 대학	0 (0.0)	3 (6.1)	14 (28.6)	6 (12.2)	26 (53.1)	49 (100)
	공과대학	11 (4.9)	22 (9.8)	38 (17.0)	45 (20.1)	108 (48.2)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6.3)	1 (3.1)	5 (15.6)	2 (6.3)	22 (68.8)	32 (100)
	예술대학	1 (4.0)	3 (12.0)	5 (20.0)	4 (16.0)	12 (48.0)	25 (100)
	의과대학	1 (5.9)	0 (0.0)	3 (17.6)	5 (29.4)	8 (47.1)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19 (3.3)	51 (8.8)	109 (18.8)	113 (19.4)	289 (49.7)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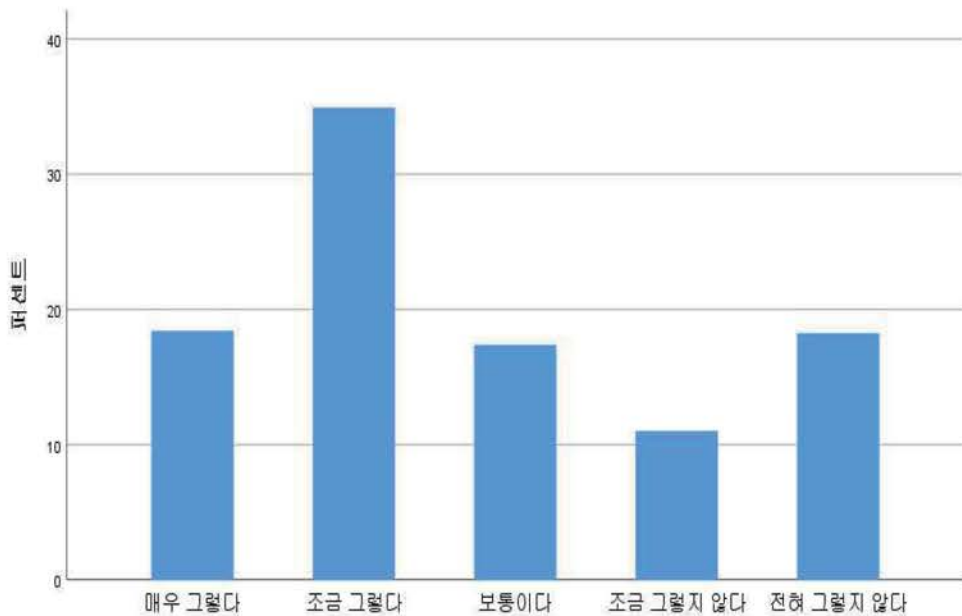
3)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정도

4학년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 그렇다’가 203명(34.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107명(18.4%),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6명(18.2%) ‘보통이다’가 101명(17.4%), ‘조금 그렇지 않다’ 64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53.3%는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51.4%, 여학생은 55.3%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불안하다고 응답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76.4%로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64.6%, 생활과학대학 53.1%, 의과대학 53.0%, 사회과학대학이 51.7%, 공과대학 51.4%, 경영대학 46.2%, 예술대학 44.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43.7%의 순으로 응답해 디자인 건축융합대학의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정도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표 22>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56 (19.3)	93 (32.1)	50 (17.2)	29 (10.0)	62 (21.4)	290 (100)
	여	51 (17.5)	110 (37.8)	51 (17.5)	35 (12.0)	44 (15.1)	291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17 (33.3)	22 (43.1)	5 (9.8)	2 (3.9)	5 (9.8)	51 (100)
	사회과학대학	11 (19.6)	18 (32.1)	13 (23.2)	7 (12.5)	7 (12.5)	56 (100)
	경영대학	13 (16.7)	23 (29.5)	14 (17.9)	12 (15.4)	16 (20.5)	78 (100)
	자연과학대학	7 (14.6)	24 (50.0)	4 (8.3)	5 (10.4)	8 (16.7)	48 (100)
	생활과학대학	7 (14.3)	19 (38.8)	11 (22.4)	8 (16.3)	4 (8.2)	49 (100)
	공과대학	42 (18.8)	73 (32.6)	39 (17.4)	24 (10.7)	46 (20.5)	22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5 (15.6)	9 (28.1)	4 (12.5)	2 (6.3)	12 (37.5)	32 (100)
	예술대학	4 (16.0)	7 (28.0)	6 (24.0)	3 (12.0)	5 (20.0)	25 (100)
	의과대학	1 (5.9)	8 (47.1)	4 (23.5)	1 (5.9)	3 (17.6)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107 (18.4)	203 (34.9)	101 (17.4)	64 (11.0)	106 (18.2)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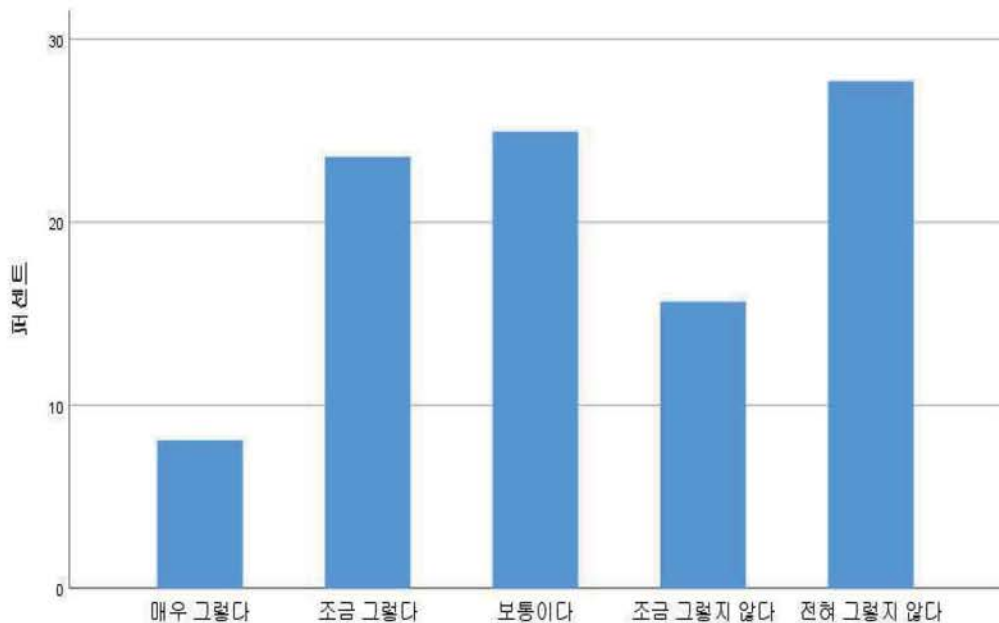
4)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

4학년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1명(27.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145명(25.0%), ‘조금 그렇다’ 137명(23.6%), ‘조금 그렇지 않다’ 91명(15.7%), ‘매우 그렇다’ 47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31.7%는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30.7%, 여학생은 32.7%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47.0%로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 35.8%, 자연과학대학 35.5%, 생활과학대학 34.7%, 예술대학 32.0%, 의과대학 29.4%, 공과대학 28.5%,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8.1%, 경영대학 25.6%의 순으로 응답해 경영대학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표 23>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25 (8.6)	64 (22.1)	67 (23.1)	38 (13.1)	96 (33.1)	290 (100)
	여	22 (7.6)	73 (25.1)	78 (26.8)	53 (18.2)	65 (22.3)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9 (17.6)	15 (29.4)	16 (31.4)	4 (7.8)	7 (13.7)	51 (100)
	사회과학 대학	3 (5.4)	17 (30.4)	14 (25.0)	6 (10.7)	16 (28.6)	56 (100)
	경영대학	5 (6.4)	15 (19.2)	19 (24.4)	16 (20.5)	23 (29.5)	78 (100)
	자연과학 대학	3 (6.3)	14 (29.2)	10 (20.8)	7 (14.6)	14 (29.2)	48 (100)
	생활과학 대학	1 (2.0)	16 (32.7)	17 (34.7)	8 (16.3)	7 (14.3)	49 (100)
	공과대학	18 (8.0)	46 (20.5)	50 (22.5)	39 (17.4)	71 (31.7)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2.5)	5 (15.6)	6 (18.8)	6 (18.8)	11 (34.4)	32 (100)
	예술대학	3 (12.0)	5 (20.0)	8 (32.0)	2 (8.0)	7 (28.0)	25 (100)
	의과대학	1 (5.9)	4 (23.5)	4 (23.5)	3 (17.6)	5 (29.4)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47 (8.1)	137 (23.6)	145 (25.0)	91 (15.7)	161 (27.7)	5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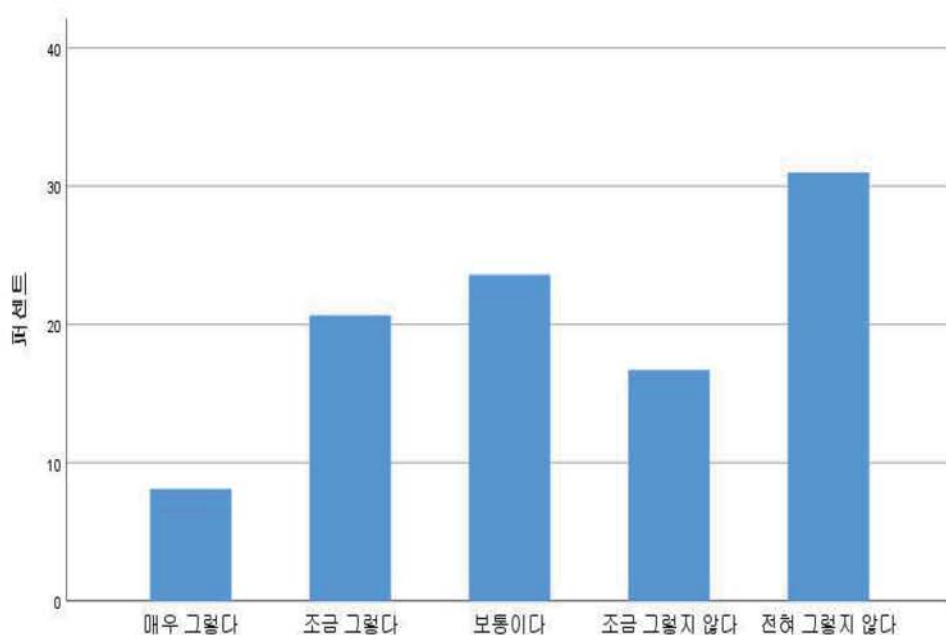
5)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

4학년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0명(31.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37명(23.6%), ‘조금 그렇다’가 120명(20.7%), ‘조금 그렇지 않다’ 97명(16.7%), ‘매우 그렇다’ 47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28.8%는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5.8%, 여학생은 31.6%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하다고 응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무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39.2%로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예술대학 36.0%, 사회과학대학 35.7%, 자연과학대학 31.2%, 생활과학대학 28.6%, 공과대학 26.8%, 경영대학 24.3%,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1.9%, 의과대학 17.6%의 순으로 응답해 의과대학이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표 24>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 별	남	23 (7.9)	52 (17.9)	73 (25.2)	39 (13.4)	103 (35.5)	290 (100)
	여	24 (8.2)	68 (23.4)	64 (22.0)	58 (19.9)	77 (26.5)	291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8 (15.7)	12 (23.5)	15 (29.4)	8 (15.7)	8 (15.7)	51 (100)
	사회과학 대학	4 (7.1)	16 (28.6)	8 (14.3)	12 (21.4)	16 (28.6)	56 (100)
	경영대학	4 (5.1)	15 (19.2)	21 (26.9)	15 (19.2)	23 (29.5)	78 (100)
	자연과학대학	4 (8.3)	11 (22.9)	9 (18.8)	7 (14.6)	17 (35.4)	48 (100)
	생활과학대학	2 (4.1)	12 (24.5)	17 (34.7)	7 (14.3)	11 (22.4)	49 (100)
	공과대학	18 (8.0)	42 (18.8)	48 (21.4)	38 (17.0)	78 (34.8)	22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2.5)	3 (9.4)	7 (21.9)	4 (12.5)	14 (43.8)	32 (100)
	예술대학	3 (12.0)	6 (24.0)	6 (24.0)	3 (12.0)	7 (28.0)	25 (100)
	의과대학	0 (0.0)	3 (17.6)	5 (29.4)	3 (17.6)	6 (35.5)	17 (100)
	기타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전체		47 (8.1)	120 (20.7)	137 (23.6)	97 (16.7)	180 (31.0)	581 (100)

IV. 종합

본 조사는 2022학년도 울산대학교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본 센터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 관련 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고, 정서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6월 8일 ~ 7월 29일까지 총 50일간이었으며, 학생 포털 UWINS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4학년 재학생은 585명이며, 데이터 오류로 인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581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사항

- 소속 단과대학, 성별

실태조사 대상자인 4학년 재학생 중 휴학생을 제외한 인원은 3,157명이며, 이 중 실태조사 참여자는 총 581명으로 재학생 대비 18.40%로 참여율이 낮다. 설문조사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학교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참여자의 소속 정보를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224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78명(13.4%), ‘사회과학대학’ 56명 (9.6%), ‘인문대학’ 51명(8.8%), ‘생활과학대학’ 49명(8.4%), ‘자연과학대학’ 48명(8.3%)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32명(5.5%), ‘예술대학’ 25명(4.3%), ‘의과대학’ 17명(2.9%), ‘기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과대학별로 참여 학생의 차이가 크며, 공과대학을 제외하고 100명 이하의 응답자가 대부분이어서 단과대학의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60%인 174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1.7%(34명), ‘자연과학대학’ 6.9%(20명), ‘인문대학’ 6.6%(19명), ‘사회과학대학’ 5.2%(15명),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1%(9명),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이 각각 2.4%(7명), ‘의과대학’ 1.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공과대학’이 50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대학’ 44명(15.1%), ‘생활과학대학’ 42명(14.4%), ‘사회과학대학’ 41명(14.1%), ‘인문대학’ 32명(11.1%), ‘자연과학대학’ 28명(9.6%),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3명(7.9%), ‘예술대학’ 18명(6.2%), ‘의과대학’ 12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자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남학생은 공과대학 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학생은 단과대학별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진로 및 취업

- 직업 선택기준

직업 선택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근무환경’이 229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경영자)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110명(18.9%), ‘급여 수준’ 65명(11.2%), ‘적성과 흥미’ 및 ‘고용 안정성’은 각각 56명(9.6%), ‘전공’ 40명(6.9%), ‘경력관리 및 개발’ 22명(3.8%), ‘기타’ 3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 선택기준에 따른 성별을 비교해보면, 4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기준으로 ‘근무환경’과 ‘기업(경영자)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도 9개 단과대학 모두 ‘근무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4학년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성별과 전공이 무관하게 ‘근무환경’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살펴보면, ‘직무 이해도’가 177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125명(21.5%), ‘전공역량’ 117명(20.1%), ‘전공 관련 자격증’ 59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에 대한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무 이해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과대학별 결과를 살펴보면, 6개 단과대학(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직무 이해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생활과학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은 전공역량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요즘 취업 공고는 직무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실습, 인턴 등의 경험이 취업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추세이다. 4학년 학생들도 이를 반영하여 대체로 ‘직무 이해도’와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직업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성별의 차이는 없지만, 전공 특성에 따라서는 일부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전공 관련 자격증’ 149명(25.6%),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127명(21.9%),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112명(19.3%),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94명

(16.2%),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44명(7.6%), ‘외국어 능력 함양’ 37명(6.4%),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14명(2.4%),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전공 관련 자격증’,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전공 관련 자격증’,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순으로 나타났고, 단과대학별로 비교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의과대학은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전공 관련 자격증’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예술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이 가장 중요하며, 의과대학은 ‘전공역량’ 이, 생활과학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 대해 성별과 전공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전공역량 함양’ 과 ‘전공 관련 자격증’ 을 가장 우선으로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과대학 학생들은 ‘전공역량 함양’ 보다는 ‘전공 관련 자격증’ 과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을 우선으로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학 내 진로 및 취업준비지원기관 이용 의향

대학 내 진로 및 취업준비지원기관 이용 의향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혼자서 준비하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 가 203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기꺼이 찾아가 이용하겠다’ 가 169명(29.1%), ‘이용할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아가갈 것 같지 않다’ 가 144명(24.8%)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진로·취업준비지원기관(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일자리센터)의 존재를 몰랐다’ 는 52명(9.0%), ‘찾아가지 않겠다’ 고 응답한 학생은 13명(2.2%)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혼자서 준비해보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이 35.2%로 여학생의 34.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기꺼이 찾아가 이용하겠다’ 는 남학생은 31.4%, 여학생이 26.8%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는 대부분 ‘혼자서 준비해보다 안 되면 찾아가겠다’ 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공과대학은 ‘기꺼이 찾아가 이용하겠다’ 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과학대학은 ‘이용할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아가갈 것 같지 않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성별과 전공에 상관없이 대부분 ‘혼자서 준비하다 안 되면 교내 관련 기관을 찾아가갈 의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태도가 능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진로 및 취업준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과대학 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준비지원기관을 기꺼이 이용할 의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은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높아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대학 내 센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알선 및 추천’ 149명(25.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어 및 자격증’ 95명(16.4%),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가 94명(16.2%), ‘멘토나 선배의 만남’ 73명(12.6%), ‘해외연수 · 인턴십’ 63명(10.8%), ‘채용정보 제공’ 42명(7.2%), ‘적성 및 진로상담’이 26명(4.5%), ‘NCS 정보제공’ 18명(3.1%),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가 17명(2.9%),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취업알선 및 추천’ 서비스를 가장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외국어 및 자격증’을,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에서는 ‘취업알선 및 추천’을, 디자인·건축 융합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은 ‘멘토나 선배의 만남’을 제공해 주기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알선 및 추천’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가장 원하며, 단과대학별로는 희망하는 서비스가 다소 차이가 있어 전공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이 205명(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진로 매칭’ 191명(32.9%), ‘진로 고민 및 심리적 어려움 해소’ 84명(14.5%), ‘진로 설계’ 58명(10.0%), ‘자기이해 및 자기 분석’ 41명(7.1%), ‘기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 매칭’이 30.7%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과 ‘진로 매칭’이 각각 35.1%로 나타나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과 ‘진로 매칭’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학교로부터 ‘진로 결정 및 목표 설정’과 ‘진로 매칭’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

사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 155명(26.7%)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83명(14.3%), ‘연봉 수준, 휴가제도, 업무 강도 등 근무 여건’ 79명(13.6%),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67명(11.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66명(11.4%),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55명(9.5%),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정보’, ‘직종별,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각각 27명(4.6%), ‘취업 후 경력개발 채널’ 19명(3.3%) ‘기타’ 3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와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도 대부분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없음’ 이 254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이하’ 146명(25.1%), ‘2회~3회’ 129명(22.2%), ‘4~5회’ 29명(5.0%), ‘6회 이상’ 13명 (2.2%), ‘10회 이상’ 10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 41.4%, 여학생 46.0%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 에 응답하였고,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도 대부분 없음에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참여한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이 140명(24.1%)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자아/진로 탐색’ 이 108명(18.6%), ‘기타’ 107명(18.4%), ‘진로 설계 및 설정’ 94명(16.2%),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88명(15.1%), ‘진로 심리영역’ 44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는데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은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과학대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자아/진로 탐색’ 을, 인문대학은 ‘기타’, 자연과학대학은 ‘자아/진로 탐색’ 과 ‘기타’, 예술대학은 ‘진로 설계 및 설정’, 의과대학은 ‘실전 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가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공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를 ‘UWINS’ 에서 획득하는 경우가 310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U-Star’ 85명(14.6%), ‘친구’ 74명(12.7%), ‘교수’ 32명(5.5%), ‘기타’ 30명(5.2%), ‘U-career’ 29명(5.0%), ‘진로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 12명(2.1%), ‘가족’ 9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UWINS’ 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교수’ 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18명(6.2%), 여학생은 14명(3.8%)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교수’ 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대부분 ‘UWINS’ 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친구’ 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3. 진로성숙도

- 자신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학생의 진로 준비에 대한 결과는 ‘조금 미흡하다’가 155명(26.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 132명(22.7%),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129명(22.2%), ‘많이 미흡하다’ 121명(20.8%),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44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을 비교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준비와 계획 정도에 대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는 의과대학만이 ‘조금 미흡하다’와 ‘많이 미흡하다’의 응답이 3명(17.7%)으로 낮게 나왔으며, 다른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28명(54.9%), 사회과학대학 23명(41.1%), 경영대학 37명(47.4%), 자연과학대학 27명(56.3%), 생활과학대학 25명(51%), 공과대학 103명(45.9%),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8명(56.4%), 예술대학 12명(48%)으로 나타나 4학년 학생의 진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

학생의 진로 탐색, 준비, 선택에 대한 독립성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 그렇다’가 190명(32.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69명(29.1%), ‘매우 그렇다’ 117명(20.1%), ‘조금 그렇지 않다’ 75명(12.9%), ‘전혀 그렇지 않다’ 30명(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54.1%, 여학생은 51.5%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의 52.8%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결과는 ‘이해하고 있다’가 232명(39.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79명(30.8%),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91명(15.7%), ‘조금 미흡하다’ 58명(10.0%), ‘많이 미흡하다’ 21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을 비교하면, 남학생은 55.5%, 여학생은 55.7%가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자기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들의 55.6%는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수행 방향 인식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흥미 여부와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 그렇다'가 211명(36.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91명(32.9%), '매우 그렇다' 80명(13.8%), '조금 그렇지 않다' 67명(11.5%),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54.1%, 여학생은 46.0%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공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들의 50.1%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 그렇지 않다' 67명(11.5%),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5.5%)으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어떻게 수행해나갈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비중도 17%에 해당하여 이러한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 자신의 재능으로 주어진 기회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자신의 재능으로 주어진 기회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211명(36.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조금 그렇다'가 208명(35.8%), '보통이다' 125명(21.5%), '조금 그렇지 않다' 28명(4.8%), '전혀 그렇지 않다' 9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69.3%, 여학생은 74.9%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도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들의 72.1%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별이나 전공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흥미 있는 직업 중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움

흥미 있는 직업 중 하나를 결정하는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186명(32.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조금 그렇다'가 180명(31.0%), '조금 그렇지 않다' 88명(15.1%), '전혀 그렇지 않다' 66명(11.4%), '매우 그렇

다’ 61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35.9%, 여학생은 47.0%가 직업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직업을 결정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의과대학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6명(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조금 그렇다’와 ‘보통이다’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들의 41.5%는 직업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학생들의 직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생각 차이로 인한 진로 결정 어려움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생각 차이로 인한 진로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6명(28.6%)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45명(25.0%), ‘조금 그렇지 않다’ 121명(20.8%), ‘조금 그렇다’가 112명(19.3%), ‘매우 그렇다’ 37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4.1%, 여학생은 27.1%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 결과에서는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인문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의 49.4%는 진로 결정이 어렵지 않으며, 25.7%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은 필요하다.

4. 정서 상태

-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

최근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1명(29.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45명(25.0%), ‘조금 그렇다’가 128명(22.0%), ‘조금 그렇지 않다’ 105명(18.1%), ‘매우 그렇다’ 32명(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으며, 남학생은 27.6%, 여학생은 27.5%로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사회과학대학은 ‘조금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아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의 대부분은 수면의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7.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 유무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 유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89명(49.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조금 그렇지 않다’ 113명(19.4%), ‘보통이다’가 109명(18.8%), ‘조금 그렇다’가 51명(8.8%), ‘매우 그렇다’ 19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15.5%, 여학생은 8.6%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생은 식욕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의 대부분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식욕부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사 참여자의 70명(12.1%)에 해당하는 학생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식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정도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 그렇다’가 203명(34.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107명(18.4%),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6명(18.2%) ‘보통이다’가 101명(17.4%), ‘조금 그렇지 않다’ 64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51.4%, 여학생은 55.3%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은 유사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다소 차이는 나타나지만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들의 53.3%는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1명(27.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45명(25.0%), ‘조금 그렇다’가 137명(23.6%), ‘조금 그렇지 않다’ 91명(15.7%), ‘매우 그렇다’ 47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 96명(33.1%), 여학생은 ‘보통이다’ 78명(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30.7%, 여학생은 32.7%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우울하다고 응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과학대학 17명(34.7%)과 예술대학 8명(32.0%)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재학생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은 252명(43.4%)이며, 184명(31.7%)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0명(31.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37명(23.6%), ‘조금 그렇다’가 120명(20.7%), ‘조금 그렇지 않다’ 97명(16.7%), ‘매우 그렇다’ 47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25.8%, 여학생은 31.6%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하다고 응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무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의 277명(47.7%)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무기력을 경험하지 않으나 167명(28.8%)은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해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합의

본 조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성숙도,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4학년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를 통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업 및 취업을 준비할 때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알선, 취업 추천, 취업 관련 서비스 등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진로 및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등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4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 준비도, 진로 독립성, 자기이해도, 전공흥미도, 진로 확신성, 진로 결정성을 조사하였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진로를 준비해갈 것으로 보이며,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학생 맞춤형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정서 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면 어려움은 160명(27.5%), 식욕 어려움은 70명(12.1%), 불안 경험은 310명(53.3%), 우울감은 184명(31.7%), 무기력은 167명(28.8%)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4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2022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목 차

I. 서론	243
II. 연구방법	244
1. 조사대상 및 기간	244
2. 조사도구	244
3. 조사내용	244
III. 조사결과	246
1. 일반사항	246
1) 소속 단과대학	246
2) 성별	247
3) 편입 전 학력	248
4) 편입 후 거주형태	250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252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254
2. 대학생활 전반	256
1) 본교 편입학 만족도	256
2) 본교 편입 지원 이유	258
3) 본교의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260
4)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62
5)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264
6)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266
3. 진로상담	268
1)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268
2)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270
3)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272
4)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274
5)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276

6)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278
7) 편입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280
4. 진로심리상담센터	282
1) 현재 경험하는 걱정	282
2)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284
3)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286
4)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	288
5)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290
6)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292
IV. 종합	294
1. 일반사항	294
2. 대학생활 전반	296
3. 진로상담	298
4. 진로심리상담센터	300
5. 함의	302

표 목 차

〈표 1〉 편입생 실태조사 문항	244
〈표 2〉 소속 단과대학	246
〈표 3〉 편입 전 학력	249
〈표 4〉 편입 후 거주형태	251
〈표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253
〈표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255
〈표 7〉 본교 편입학 만족도	257
〈표 8〉 본교 편입 지원 이유	259
〈표 9〉 본교 편입학 정보 수집 방법	261
〈표 10〉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63
〈표 11〉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265
〈표 12〉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267
〈표 13〉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269
〈표 14〉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271
〈표 15〉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273
〈표 16〉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275
〈표 17〉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277
〈표 18〉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279
〈표 19〉 편입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281
〈표 20〉 현재 경험하는 걱정	283
〈표 21〉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285
〈표 22〉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287
〈표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289
〈표 24〉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291
〈표 25〉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293

그림 목 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246
〈그림 2〉 성별	247
〈그림 3〉 편입 전 학력	248
〈그림 4〉 편입 후 거주형태	250
〈그림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252
〈그림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254
〈그림 7〉 본교 편입학 만족도	256
〈그림 8〉 본교 편입 지원 이유	258
〈그림 9〉 본교의 편입학 정보 수집 방법	260
〈그림 10〉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62
〈그림 11〉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264
〈그림 12〉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266
〈그림 13〉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268
〈그림 14〉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270
〈그림 15〉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272
〈그림 16〉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274
〈그림 17〉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276
〈그림 18〉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278
〈그림 19〉 편입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280
〈그림 20〉 현재 경험하는 걱정	282
〈그림 21〉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284
〈그림 22〉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286
〈그림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288
〈그림 24〉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290
〈그림 25〉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292

2022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I. 서론

대학은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의 최종교육기관으로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가 사회의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서는 대학 생활이 중요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학과 적응도도 높아지고 만족스러운 사회진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 파악할 시간을 갖게 되어 만족스러운 진로 경로를 가기 위해 편입을 통해 진로수정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이혜영, 2006). 편입은 새로운 전공 또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장해가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한다(박병영, 김미숙, 김수연, 2008).

새로운 대학에 편입학 한 편입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문화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나아가 낯선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며 생활해야 한다. 학사와 교육과정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는 편입학생들이 적응해야 할 생활의 틀과 주기이며, 대학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문화는 편입학생들이 새로 진입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해야 할 가치와 신념 그리고 생활양식이다. 또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대와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걱정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즉, 편입학생들이 편입한 대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편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제도, 문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오영재, 2006).

이에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편입 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대학 차원의 지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2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앞으로 울산대학교에 편입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적성, 진로 선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학업 부적응 요인들을 파악하여 편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은 2022년 울산대학교 편입생 중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623명(2022년 5월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6월 24일 ~ 7월 12일까지 19일간 진행하였으며, 학교포털 UWINS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편입생은 총 165명으로 재학생 대비 참여율은 26.48%이며, 총 165명에 대한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 도구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편입생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실태조사 문항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 문항	
일반사항	인적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	성별
		3	편입 전 학력 배경은?
		4	편입 후 거주형태는?
		5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은?
대학생활 전반	일반 대학적응	7	본교 편입학 만족도는?
		8	본교 편입 지원 이유는?
		9	본교의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은?
		10	본교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11	본교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12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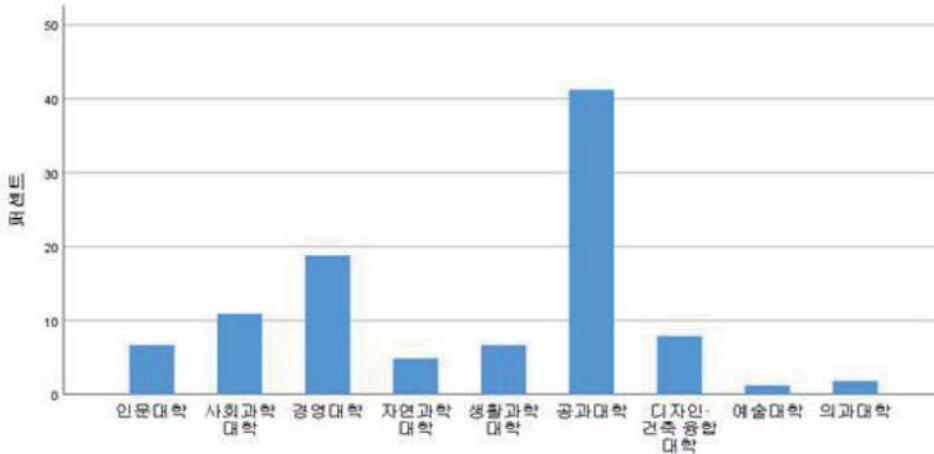
진로상담	진로 준비도	13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14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15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16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17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18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19	편입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진로심리 상담센터	진로심리 상담센터 서비스	20	현재 경험하는 걱정은?
		21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은?
		22	본교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은?
		24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25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문항 수		25문항	

Ⅲ. 조사 결과

1. 일반사항

1) 소속 단과대학

2022년 울산대학교 편입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65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공과대학'이 68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31명(18.8%), '사회과학대학' 18명(10.9%),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3명(7.9%), '인문대학' 과 '생활과학대학' 각 11명(6.7%), '자연과학대학' 8명(4.8%), '의과대학' 3명(1.8%), '예술대학'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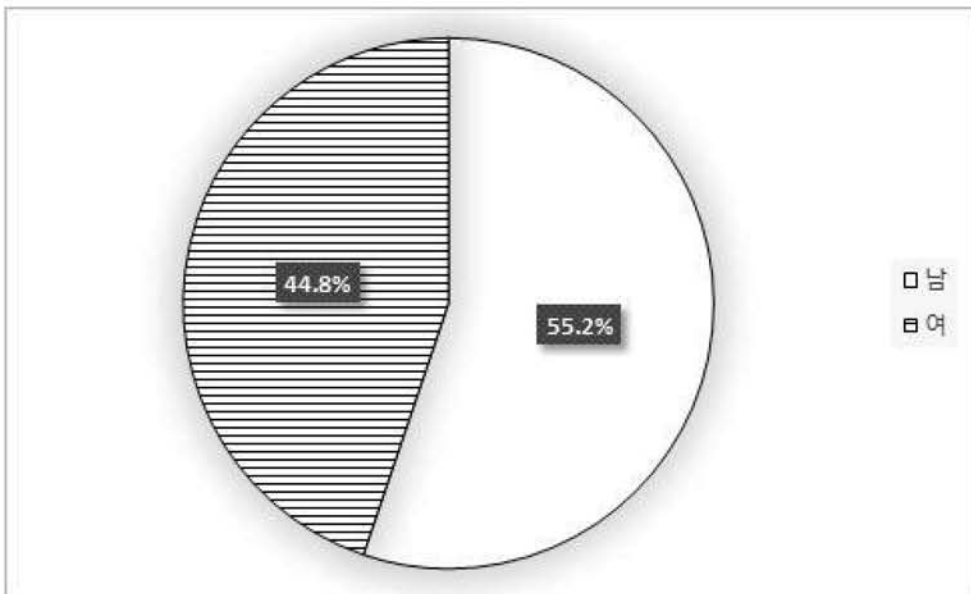
<표 2> 소속 단과대학

구분	단과대학									전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성별	남	5 (5.5)	9 (9.9)	10 (11.0)	6 (6.6)	3 (3.3)	53 (58.2)	4 (4.4)	1 (1.1)	0 (0.0)	91 (100)
	여	6 (8.1)	9 (12.2)	21 (28.4)	2 (2.7)	8 (10.8)	15 (20.3)	9 (12.2)	1 (1.4)	3 (4.1)	74 (100)
전체	11 (6.7)	18 (10.9)	31 (18.8)	8 (4.8)	11 (6.7)	68 (41.2)	13 (7.9)	2 (1.2)	3 (1.8)	165 (100)	

2) 성별

조사에 참여한 편입생 165명의 성별은 남학생이 91명(55.2%), 여학생이 74명(44.8%)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7명이 많아 10.4% 차이를 보였다.

앞의 <표 2>를 참고하면 남학생 91명 중 53명(58.2%)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단과대학 중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10명(11.0%), '자연과학대학' 6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74명 중 21명(28.4%)이 '경영대학'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공과대학' 15명(20.3%), '사회과학대학' 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이 각각 9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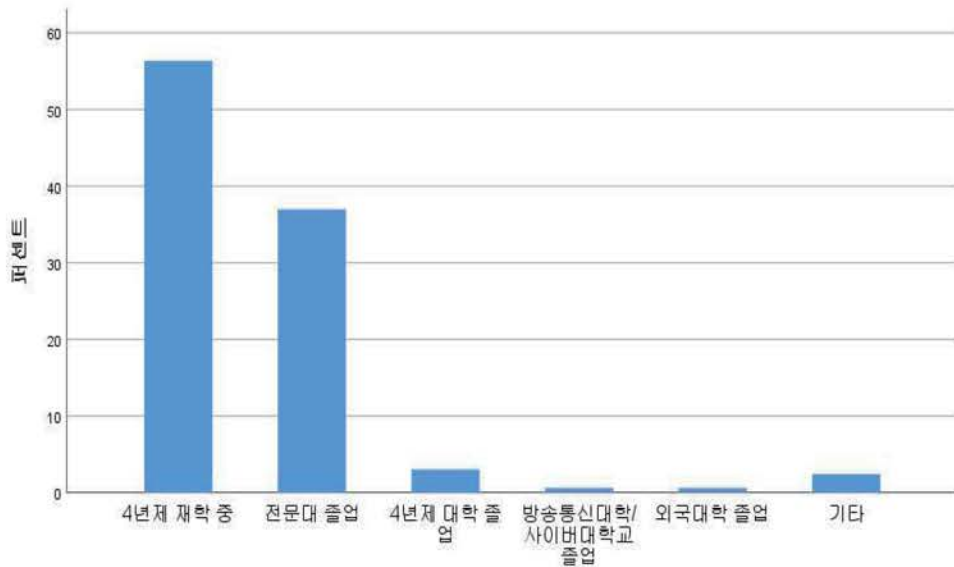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3) 편입 전 학력

편입생들의 편입 전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편입생들은 편입 전에 ‘4년제 재학 중’ 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93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전문대 졸업’ 이 61명(37.0%)으로 나타났다. ‘기타’ 는 4명(2.4%), ‘4년제 졸업’ 은 5명(3.0%),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졸업’ 과 ‘외국대학 졸업’ 은 각각 1명(0.6%)으로 나타났다.

편입 전 학력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4년제 재학 중’ 이었다는 비율이 58.2%, 5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후’ 가 36.3%, 37.8%로 나타남으로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예술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은 ‘4년제 재학 중’ 에 편입을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생활과학대와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전문대 졸업’ 후에 편입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편입 전 학력

<표 3> 편입 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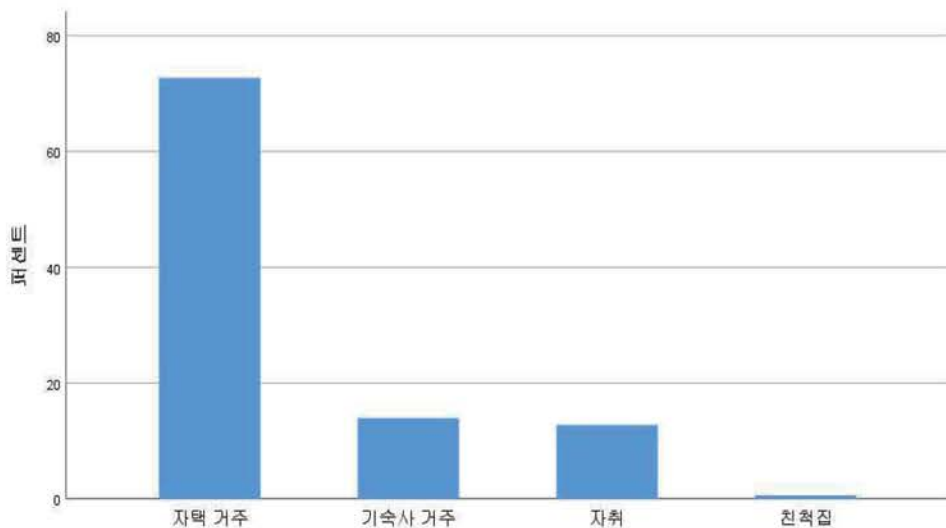
구분		4년제 재학 중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교 졸업	외국대학 졸업	기타	전체
성별	남	53 (58.2)	33 (36.3)	2 (2.2)	1 (1.1)	1 (1.1)	1 (1.1)	91 (100)
	여	40 (54.1)	28 (37.8)	3 (4.1)	0 (0.0)	0 (0.0)	3 (4.1)	74 (100)
단과 대학	인문대학	9 (81.8)	2 (18.2)	0 (0.0)	0 (0.0)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13 (72.2)	4 (22.2)	0 (0.0)	0 (0.0)	0 (0.0)	1 (5.6)	18 (100)
	경영대학	14 (45.2)	14 (45.2)	1 (3.2)	0 (0.0)	0 (0.0)	2 (6.5)	31 (100)
	자연과학 대학	6 (75.0)	2 (25.0)	0 (0.0)	0 (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2 (18.2)	8 (72.7)	0 (0.0)	1 (9.1)	0 (0.0)	0 (0.0)	11 (100)
	공과대학	41 (60.3)	23 (33.8)	2 (2.9)	0 (0.0)	1 (1.5)	1 (1.5)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30.8)	8 (61.5)	1 (7.7)	0 (0.0)	0 (0.0)	0 (0.0)	13 (100)
	예술대학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3 (100)
전체	93 (56.4)	61 (37.0)	5 (3.0)	1 (0.6)	1 (0.6)	4 (2.4)	165 (100)	

4) 편입 후 거주형태

편입생의 입학 후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택 거주’가 120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거주’ 23명(13.9%), ‘자취’ 21명(12.7%), ‘친척집’ 1명(0.6%),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택 거주’가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81.1%로 남학생의 65.9%보다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15.2% 높았다. ‘기숙사 거주’는 남학생 17.6%로 여학생 9.5%보다 8.1% 높았으며, ‘자취’도 남학생이 15.4%로 여학생 9.5%보다 5.9%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택에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자택 거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대학은 기숙사와 동등한 비율로, 의과대학은 ‘기숙사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 편입 후 거주형태

<표 4> 편입 후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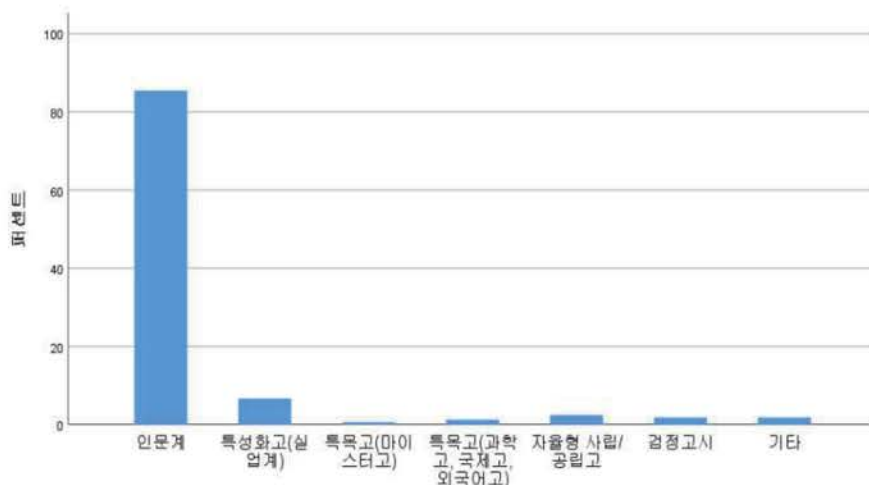
구분		자택 거주	기숙사 거주	자취	친척집	기타	전체
성별	남	60 (65.9)	16 (17.6)	14 (15.4)	1 (1.1)	0 (0.0)	91 (100)
	여	60 (81.1)	7 (9.5)	7 (9.5)	0 (0.0)	0 (0.0)	74 (100)
단과 대학	인문대학	10 (90.9)	0 (0.0)	1 (9.1)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15 (83.3)	2 (11.1)	0 (0.0)	1 (5.6)	0 (0.0)	18 (100)
	경영대학	25 (80.6)	2 (6.5)	4 (12.9)	0 (0.0)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5 (62.5)	1 (12.5)	2 (25.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9 (81.8)	0 (0.0)	2 (18.2)	0 (0.0)	0 (0.0)	11 (100)
	공과대학	43 (63.2)	15 (22.1)	10 (14.7)	0 (0.0)	0 (0.0)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2 (92.3)	0 (0.0)	1 (7.7)	0 (0.0)	0 (0.0)	13 (100)
	예술대학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0 (0.0)	2 (66.7)	1 (33.3)	0 (0.0)	0 (0.0)	3 (100)
전체		120 (72.7)	23 (13.9)	21 (12.7)	1 (0.6)	0 (0.0)	165 (100)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편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응답자 165명 중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141명(8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실업계)’가 11명(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율형 사립/공립고’는 4명(2.4%)으로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기타’는 각각 3명(1.8%), ‘특목고(과학고/국제고, 외국어고)’ 2명(1.2%), ‘특목고(마이스터고)’ 1명(0.6%), ‘대안학교’와 ‘예체능계 고교’ 각각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인문계’ 89.0%, ‘특성화고(실업계)’ 4.4%, ‘자율형 사립/공립고’와 ‘기타’ 각각 2.2%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인문계’ 81.1%, ‘특성화고(실업계)’ 9.5%, ‘검정고시’ 4.1%, ‘자율형 사립/공립고’ 2.7%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인문계’ 졸업 후 편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다르게 ‘검정고시’를 통한 편입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인문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과학대학과 의과대학이 100.0%로 가장 높았고, 예술대학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성화고(실업계)’ 항목에서는 생활과학대학이 36.4%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예술대학은 ‘자율형 사립/공립고’가 50%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표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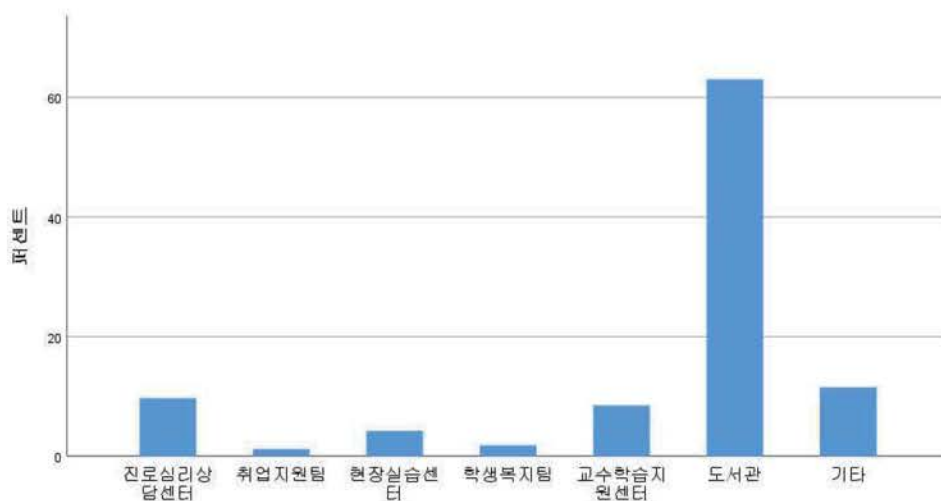
구분	인문계	특성 화고 (실업계)	특목고 (마이스 터고)	특목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 고)	자율형 사립/ 공립고	대안 학교	검정 고시	예체능 계고교	기타	전체	
성 별	남	81 (89.0)	4 (4.4)	1 (1.1)	1 (1.1)	2 (2.2)	0 (0.0)	0 (0.0)	0 (0.0)	2 (2.2)	91 (100)
	여	60 (81.1)	7 (9.5)	0 (0.0)	1 (1.4)	2 (2.7)	0 (0.0)	3 (4.1)	0 (0.0)	1 (1.4)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7 (63.6)	1 (9.1)	0 (0.0)	0 (0.0)	1 (9.1)	0 (0.0)	2 (18.2)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16 (88.9)	2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8 (100)
	경영대학	24 (77.4)	3 (9.7)	1 (3.2)	1 (3.2)	1 (3.2)	0 (0.0)	1 (3.2)	0 (0.0)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8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7 (63.6)	4 (36.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 (100)
	공과대학	64 (94.1)	1 (1.5)	0 (0.0)	0 (0.0)	1 (1.5)	0 (0.0)	0 (0.0)	0 (0.0)	2 (2.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1 (84.6)	0 (0.0)	0 (0.0)	1 (7.7)	0 (0.0)	0 (0.0)	0 (0.0)	0 (0.0)	1 (7.7)	13 (100)
	예술대학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141 (85.5)	11 (6.7)	1 (0.6)	2 (1.2)	4 (2.4)	0 (0.0)	3 (1.8)	0 (0.0)	3 (1.8)	165 (100)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편입생들이 편입 후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편입생 165명 중 104명(63%)이 ‘도서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9명(11.5%)은 ‘기타’, 16명(9.7%)은 ‘진로심리상담센터’, 14명(8.5%)은 ‘교수학습지원센터’, 7명(4.2%)은 ‘현장실습센터’, 3명(1.8%)은 ‘학생복지팀’, 2명(1.2%)은 ‘취업지원팀’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센터’를 7.7%의 학생이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여학생은 전혀 없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이용 경험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6%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4%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가장 많다는 응답 비율이 나왔으며, 의과대학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예술대학은 ‘도서관’과 더불어 ‘교수학습지원센터’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인문대학과 생활과학대학에서 각각 27.3%로 타 단과대학의 이용 경험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표 6>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구분		진로 심리 상담 센터	취업 지원팀	일자리 센터	현장 실습 센터	학생 복지팀	교수 학습 지원 센터	도서관	기타	전체
성 별	남	5 (5.5)	1 (1.1)	0 (0.0)	7 (7.7)	2 (2.2)	10 (11.0)	54 (59.3)	12 (13.2)	91 (100)
	여	11 (14.9)	1 (1.4)	0 (0.0)	0 (0.0)	1 (1.4)	4 (5.4)	50 (67.6)	7 (9.5)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3 (27.3)	0 (0.0)	0 (0.0)	0 (0.0)	0 (0.0)	1 (9.1)	6 (54.5)	1 (9.1)	11 (100)
	사회과학 대학	2 (11.1)	0 (0.0)	0 (0.0)	0 (0.0)	0 (0.0)	1 (5.6)	11 (61.1)	4 (22.2)	18 (100)
	경영대학	3 (9.7)	1 (3.2)	0 (0.0)	0 (0.0)	0 (0.0)	2 (6.5)	21 (67.7)	4 (12.9)	31 (100)
	자연과학 대학	0 (0.0)	0 (0.0)	0 (0.0)	0 (0.0)	1 (12.5)	2 (25.0)	4 (50.0)	1 (12.5)	8 (100)
	생활과학 대학	3 (27.3)	0 (0.0)	0 (0.0)	0 (0.0)	1 (9.1)	0 (0.0)	7 (63.6)	0 (0.0)	11 (100)
	공과대학	3 (4.4)	1 (1.5)	0 (0.0)	7 (10.3)	0 (0.0)	5 (7.4)	45 (66.2)	7 (10.3)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15.4)	0 (0.0)	0 (0.0)	0 (0.0)	1 (7.7)	2 (15.4)	6 (46.2)	2 (15.4)	13 (100)
	예술대학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100)
의과대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0 (0.0)	3 (100)	
전체		16 (9.7)	2 (1.2)	0 (0.0)	7 (4.2)	3 (1.8)	14 (8.5)	104 (63.0)	19 (11.5)	1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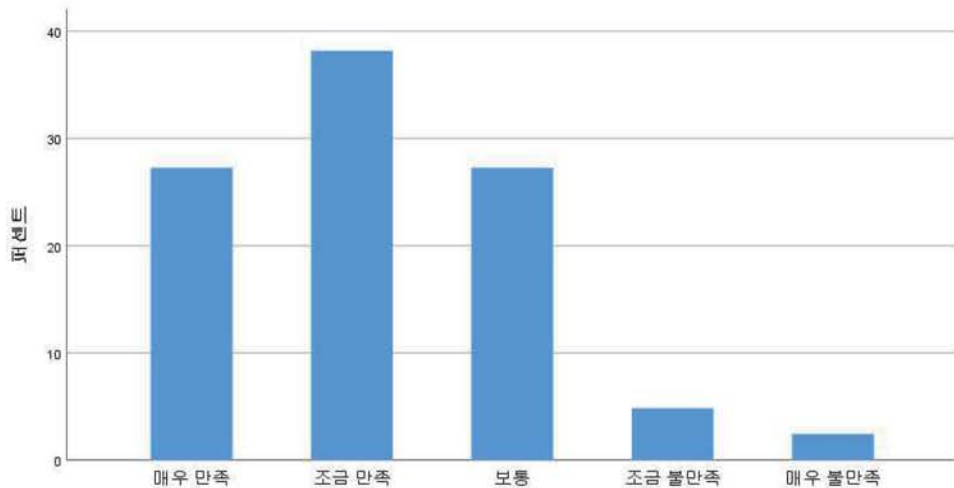
2. 대학생활 전반

1) 본교 편입학 만족도

편입생을 대상으로 본교 입학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물어본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65명의 학생 중 63명(38.2%)이 ‘조금 만족’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만족’과 ‘보통’이 각각 45명(27.3%), ‘조금 불만족’ 8명(4.8%), ‘매우 불만족’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편입생 중 108명(65.5%)은 본교 입학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본교 편입에 대해 남학생의 66.0%와 여학생의 64.9%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의 수준도 남학생 7.7%, 여학생 6.8%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편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은 87.5%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46.2%로 ‘보통이다’의 53.8%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과대학에서는 불만족의 응답이 13.2%로 타 단과대학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본교 편입학 만족도

<표 7> 본교 편입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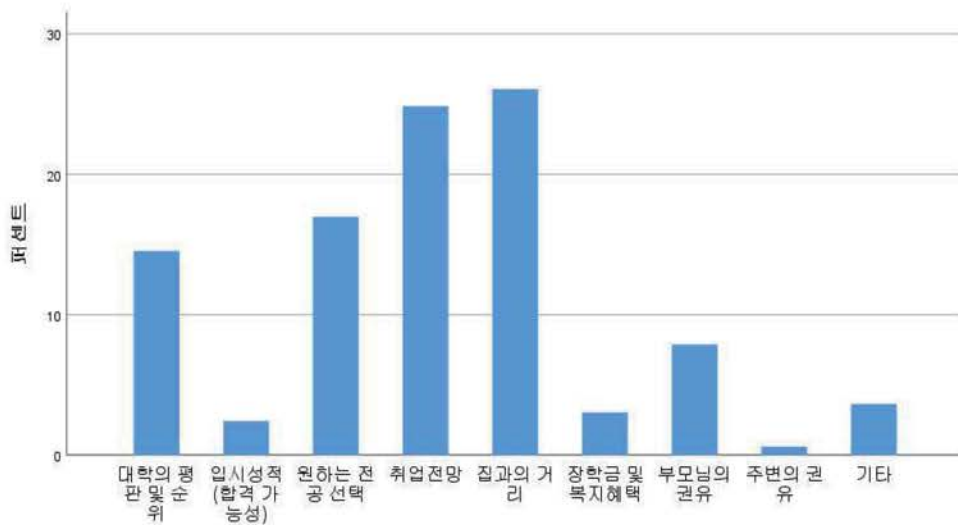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24 (26.4)	36 (39.6)	24 (26.4)	4 (4.4)	3 (3.3)	91 (100)
	여	21 (28.4)	27 (36.5)	21 (28.4)	4 (5.4)	1 (1.4)	74 (100)
단과 대학	인문대학	3 (27.3)	5 (45.5)	3 (27.3)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5 (27.8)	7 (38.9)	5 (27.8)	0 (0.0)	1 (5.6)	18 (100)
	경영대학	15 (48.4)	7 (22.6)	7 (22.6)	2 (6.5)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2 (25.0)	5 (62.5)	1 (12.5)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2 (18.2)	5 (45.5)	4 (36.4)	0 (0.0)	0 (0.0)	11 (100)
	공과대학	14 (20.6)	29 (42.6)	16 (23.5)	6 (8.8)	3 (4.4)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15.4)	4 (30.8)	7 (53.8)	0 (0.0)	0 (0.0)	13 (100)
	예술대학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1 (33.3)	1 (33.3)	1 (33.3)	0 (0.0)	0 (0.0)	3 (100)
전체		45 (27.3)	63 (38.2)	45 (27.3)	8 (4.8)	4 (2.4)	165 (100)

2) 본교 편입 지원 이유

편입생을 대상으로 울산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응답자 165명 중 43명(26.1%)이 ‘집과의 거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취업전망’ 41명(24.8%), ‘원하는 전공선택’ 28명(17.0%), ‘대학의 평판 및 순위’ 24명(14.5%), ‘부모님의 권유’ 13명(7.9%), ‘기타’ 6명(3.6%), ‘장학금 및 복지혜택’ 5명(3.0%), ‘입시성적(합격 가능성)’ 4명(2.4%), ‘주변인의 권유’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취업전망’ 31.9%, ‘집과의 거리’ 20.9%, ‘원하는 전공선택’과 ‘대학의 평판 및 순위’ 각각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집과의 거리’ 32.4%, ‘원하는 전공선택’ 18.9%, ‘취업전망’ 16.2% 순으로 나타나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본교 편입 지원 이유가 다를 수 있다.

단과대학에서는,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취업전망’에 따라 지원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생활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은 ‘원하는 전공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예술대학은 ‘집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원하는 전공선택’, ‘대학의 평판 및 순위’ 등이 본교 편입 지원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8> 본교 편입 지원 이유

<표 8> 본교 편입 지원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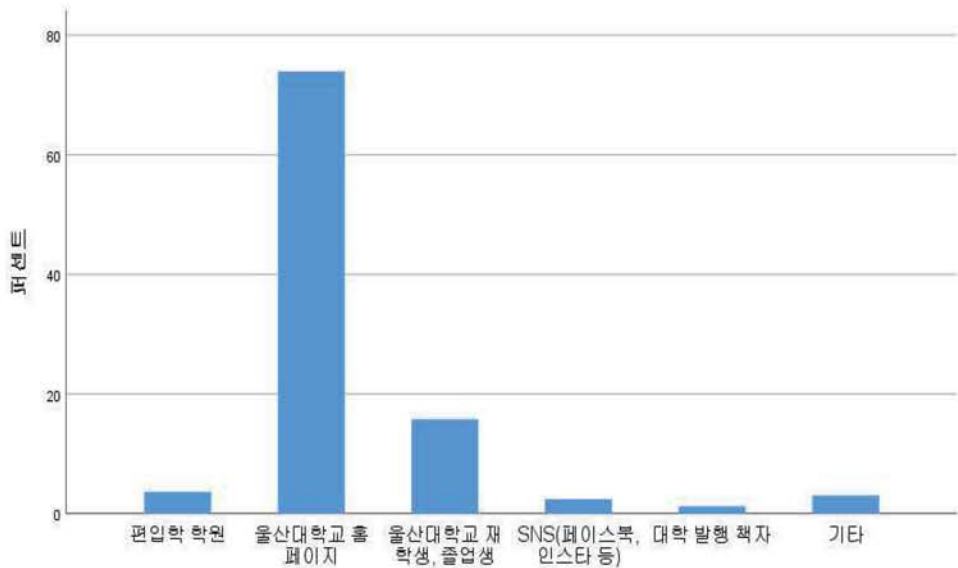
구분		대학의 평판 및 순위	입시 성적 (합격 가능성)	원하는 전공 선택	취업 전망	집과의 거리	장학금 및 복지 혜택	부모님 의 권유	주변의 권유	기타	전체
성 별	남	14 (15.4)	4 (4.4)	14 (15.4)	29 (31.9)	19 (20.9)	3 (3.3)	5 (5.5)	0 (0.0)	3 (3.3)	91 (100)
	여	10 (13.5)	0 (0.0)	14 (18.9)	12 (16.2)	24 (32.4)	2 (2.7)	8 (10.8)	1 (1.4)	3 (4.1)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3 (27.3)	0 (0.0)	1 (9.1)	0 (0.0)	6 (54.5)	0 (0.0)	1 (9.1)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2 (11.1)	1 (5.6)	3 (16.7)	2 (11.1)	8 (44.4)	1 (5.6)	1 (5.6)	0 (0.0)	0 (0.0)	18 (100)
	경영대학	6 (19.4)	2 (6.5)	6 (19.4)	5 (16.1)	7 (22.6)	1 (3.2)	2 (6.5)	0 (0.0)	2 (6.5)	31 (100)
	자연과학 대학	1 (12.5)	1 (12.5)	2 (25.0)	3 (37.5)	1 (12.5)	0 (0.0)	0 (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1 (9.1)	0 (0.0)	5 (45.5)	3 (27.3)	0 (0.0)	1 (9.1)	1 (9.1)	0 (0.0)	0 (0.0)	11 (100)
	공과대학	8 (11.8)	8 (11.8)	0 (0.0)	24 (35.3)	18 (26.5)	2 (2.9)	7 (10.3)	0 (0.0)	1 (1.5)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15.4)	0 (0.0)	1 (7.7)	3 (23.1)	2 (15.4)	0 (0.0)	1 (7.7)	1 (7.7)	3 (23.1)	13 (100)
	예술대학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0 (0.0)	0 (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24 (14.5)	4 (2.4)	28 (17.0)	41 (24.8)	43 (26.1)	5 (3.0)	13 (7.9)	1 (0.6)	6 (3.6)	165 (100)

3) 본교의 편입학 정보 수집 방법

편입생들이 입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편입생의 절반이 넘는 122명(73.9%)의 학생이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학생은 26명(15.8%), ‘편입학 학원’은 6명(3.6%), ‘기타’ 방법은 5명(3.0%),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는 4명(2.4%), ‘대학발행 책자’는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수집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에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예술대학은 ‘편입학 학원’과 ‘대학발행 책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본교의 편입학 정보 수집 방법

<표 9> 본교의 편입학 정보 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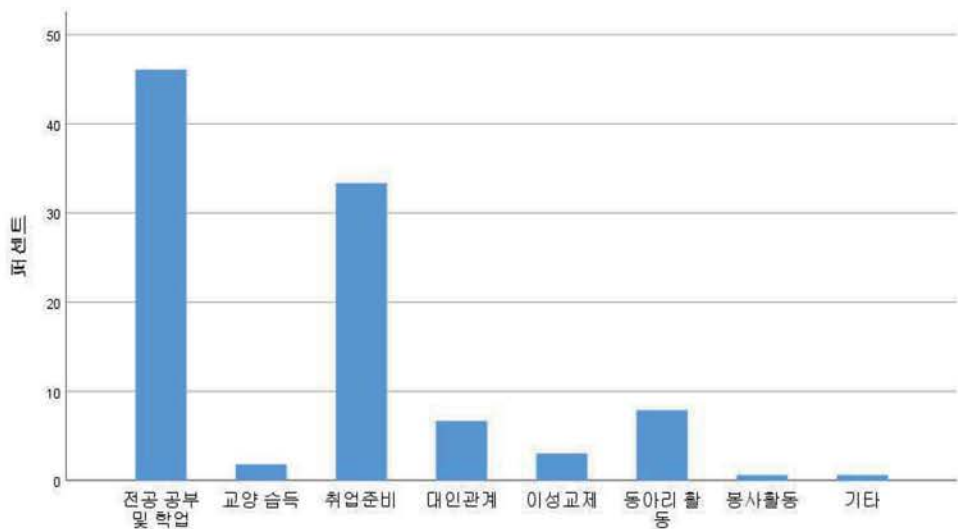
구분	편입학 학원	울산 대학교 홈페이지	울산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SNS (페이스북, 인스타 등)	대학 발행 책자	기타	전체	
성 별	남	2 (2.2)	66 (72.5)	16 (17.6)	2 (2.2)	1 (1.1)	4 (4.4)	91 (100)
	여	4 (5.4)	56 (75.7)	10 (13.5)	2 (2.7)	1 (1.4)	1 (1.4)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대학	1 (9.1)	9 (81.8)	0 (0.0)	1 (9.1)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0 (0.0)	13 (72.2)	3 (16.7)	0 (0.0)	1 (5.6)	1 (5.6)	18 (100)
	경영대학	2 (6.5)	23 (74.2)	6 (19.4)	0 (0.0)	0 (0.0)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0 (0.0)	6 (75.0)	1 (12.5)	0 (0.0)	0 (0.0)	1 (12.5)	8 (100)
	생활과학 대학	1 (9.1)	8 (72.7)	2 (18.2)	0 (0.0)	0 (0.0)	0 (0.0)	11 (100)
	공과대학	1 (1.5)	54 (79.4)	10 (14.7)	1 (1.5)	0 (0.0)	2 (2.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0 (0.0)	7 (53.8)	4 (30.8)	2 (15.4)	0 (0.0)	0 (0.0)	13 (100)
	예술 대학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2 (100)
	의과 대학	0 (0.0)	2 (66.7)	0 (0.0)	0 (0.0)	0 (0.0)	1 (33.3)	3 (100)
전체	6 (3.6)	122 (73.9)	26 (15.8)	4 (2.4)	2 (1.2)	5 (3.0)	165 (100)	

4) 본교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 공부 및 학업’이 76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 55명(33.3%), ‘동아리 활동’ 13명(7.9%), ‘대인관계’ 11명(6.7%), ‘이성 교제’ 5명(3.0%), ‘교양 습득’ 3명(1.8%), ‘봉사 활동’ 과 ‘기타’ 가 각각 1명(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제참여’ 는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공 공부 및 학업’ 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은 ‘전공 공부 및 학업’ 이라고 응답하였고, 의과대학은 ‘취업 준비’,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전공 공부 및 학업’ 과 ‘취업 준비’ 가 동일한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0>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표 10>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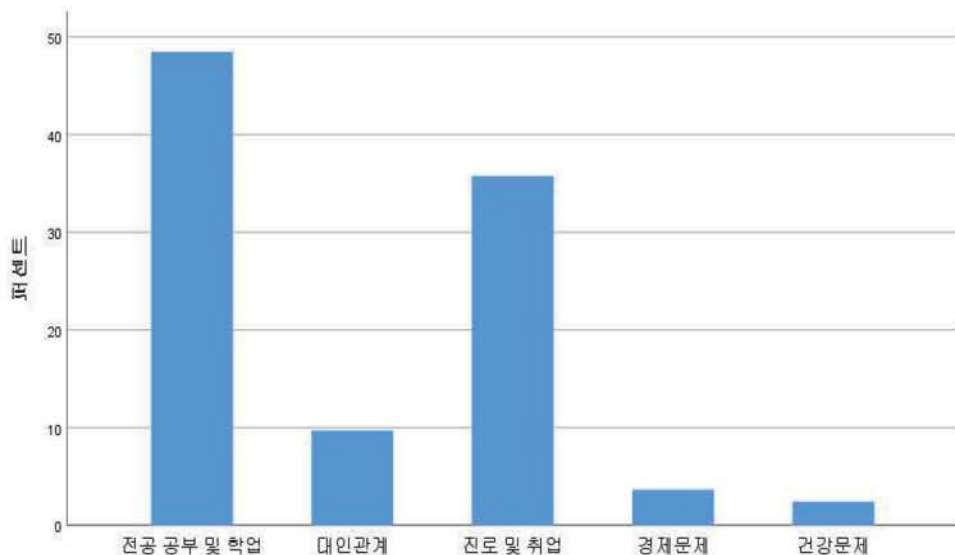
구분		전공 공부 및 학업	교양 습득	취업 준비	대인 관계	이성 교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사회 문제 참여	기타	전체
성 별	남	41 (45.1)	1 (1.1)	31 (34.1)	6 (6.6)	5 (5.5)	7 (7.7)	0 (0.0)	0 (0.0)	0 (0.0)	91 (100)
	여	35 (47.3)	2 (2.7)	24 (32.4)	5 (6.8)	0 (0.0)	6 (8.1)	1 (1.4)	0 (0.0)	1 (1.4)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5 (45.5)	1 (9.1)	3 (27.3)	1 (9.1)	0 (0.0)	1 (9.1)	0 (0.0)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7 (38.9)	0 (0.0)	7 (38.9)	2 (11.1)	1 (5.6)	0 (0.0)	0 (0.0)	0 (0.0)	1 (5.6)	18 (100)
	경영 대학	12 (38.7)	0 (0.0)	12 (38.7)	2 (6.5)	1 (3.2)	4 (12.9)	0 (0.0)	0 (0.0)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5 (62.5)	0 (0.0)	0 (0.0)	0 (0.0)	2 (25.0)	1 (12.5)	0 (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7 (63.6)	0 (0.0)	2 (18.2)	1 (9.1)	0 (0.0)	1 (9.1)	0 (0.0)	0 (0.0)	0 (0.0)	11 (100)
	공과 대학	33 (48.5)	1 (1.5)	24 (35.3)	5 (7.4)	0 (0.0)	5 (7.4)	0 (0.0)	0 (0.0)	0 (0.0)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 (38.5)	1 (7.7)	5 (38.5)	0 (0.0)	0 (0.0)	1 (7.7)	1 (7.7)	0 (0.0)	0 (0.0)	13 (100)
	예술 대학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1 (33.3)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76 (46.1)	3 (1.8)	55 (33.3)	11 (6.7)	5 (3.0)	13 (7.9)	1 (0.6)	0 (0.0)	1 (0.6)	165 (100)	

5) 본교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편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응답자 165명 중 80명(48.5%)은 ‘전공 공부 및 학업’ 이 가장 고민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 59명(35.8%), ‘대인관계’ 16명(9.7%), ‘경제문제’ 는 6명(3.6%), ‘건강’ 은 4명(2.4%)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과 ‘기타’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공 공부 및 학업’ 문제가 48.4%와 48.6%로 가장 높았고, ‘진로와 취업’ 문제도 34.1%와 37.8%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은 ‘진로와 취업’ 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은 ‘전공 공부 및 학업’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대인관계’ 에 대한 고민도 50%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1>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표 11> 본교 편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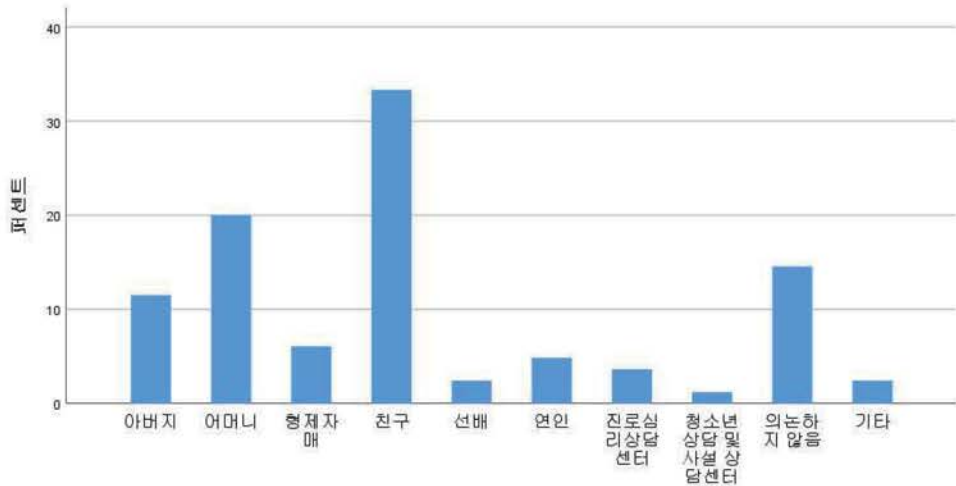
구분		전공 공부 및 학업	대인 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 문제	성격	건강	기타	전체
성 별	남	44 (48.4)	9 (9.9)	31 (34.1)	3 (3.3)	0 (0.0)	4 (4.4)	0 (0.0)	91 (100)
	여	36 (48.6)	7 (9.5)	28 (37.8)	3 (4.1)	0 (0.0)	0 (0.0)	0 (0.0)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3 (27.5)	1 (9.1)	5 (45.5)	2 (18.2)	0 (0.0)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6 (33.3)	1 (5.6)	9 (50.0)	2 (11.1)	0 (0.0)	0 (0.0)	0 (0.0)	18 (100)
	경영 대학	19 (61.3)	1 (3.2)	10 (32.3)	0 (0.0)	0 (0.0)	1 (3.2)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3 (37.5)	1 (12.5)	3 (37.5)	0 (0.0)	0 (0.0)	1 (12.5)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6 (54.5)	3 (27.3)	2 (18.2)	0 (0.0)	0 (0.0)	0 (0.0)	0 (0.0)	11 (100)
	공과 대학	35 (51.5)	6 (8.8)	24 (35.3)	2 (2.9)	0 (0.0)	1 (1.5)	0 (0.0)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6 (46.2)	2 (15.4)	4 (30.8)	0 (0.0)	0 (0.0)	1 (7.7)	0 (0.0)	13 (100)
	예술 대학	1 (50.0)	1 (5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1 (33.3)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80 (48.5)	16 (9.7)	59 (35.8)	6 (3.6)	0 (0.0)	4 (2.4)	0 (0.0)	165 (100)	

6)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편입생들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편입생 165명 중 55명(33.3%)은 주로 ‘친구’와 문제를 의논한다고 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어머니’ 33명(20.0%), ‘의논하지 않음’ 24명(14.5%), ‘아버지’ 19명(11.5%), ‘형제·자매’ 10명(6.1%), ‘연인’ 8명(4.8%), ‘진로심리상담센터’ 6명(3.6%), ‘선배’와 ‘기타’는 각각 4명(2.4%), ‘청소년 상담 및 사설 상담센터’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어머니’, ‘의논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의논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17.6%로 여학생의 4.1%보다 월등히 높았고, ‘형제·자매’와 의논한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8.1%로 남학생의 4.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인문대학과 예술대학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논 대상이라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친구’와 의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의논하지 않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 ‘친구’, ‘어머니’, ‘아버지’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2>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표 12>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선배	연인	진로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 및 시설상담센터	의논하지 않음	기타	전체
성별	남	16 (17.6)	19 (20.9)	4 (4.4)	27 (29.7)	2 (2.2)	4 (4.4)	3 (3.3)	2 (2.2)	12 (13.2)	2 (2.2)	91 (100)
	여	3 (4.1)	14 (18.9)	6 (8.1)	28 (37.8)	2 (2.7)	4 (5.4)	3 (4.1)	0 (0.0)	12 (16.2)	2 (2.7)	74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3 (27.3)	3 (27.3)	1 (9.1)	1 (9.1)	0 (0.0)	0 (0.0)	1 (9.1)	1 (9.1)	1 (9.1)	0 (0.0)	11 (100)
	사회과학대학	4 (22.2)	6 (33.3)	1 (5.6)	5 (27.8)	0 (0.0)	1 (5.6)	0 (0.0)	0 (0.0)	1 (5.6)	0 (0.0)	18 (100)
	경영대학	1 (3.2)	6 (19.4)	1 (3.2)	10 (32.3)	3 (9.7)	3 (9.7)	2 (6.5)	1 (3.2)	3 (9.7)	1 (3.2)	31 (100)
	자연과학대학	2 (25.0)	1 (12.5)	0 (0.0)	2 (25.0)	0 (0.0)	1 (12.5)	0 (0.0)	0 (0.0)	2 (25.0)	0 (0.0)	8 (100)
	생활과학대학	0 (0.0)	1 (9.1)	0 (0.0)	4 (36.4)	0 (0.0)	0 (0.0)	0 (0.0)	0 (0.0)	6 (54.5)	0 (0.0)	11 (100)
	공과대학	7 (10.3)	13 (19.1)	6 (8.8)	24 (35.3)	1 (1.5)	2 (2.9)	2 (2.9)	0 (0.0)	10 (14.7)	3 (4.4)	68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 (7.7)	1 (7.7)	1 (7.7)	7 (53.8)	0 (0.0)	1 (7.7)	1 (7.7)	0 (0.0)	1 (7.7)	0 (0.0)	13 (100)
	예술대학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0 (0.0)	1 (33.3)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19 (11.5)	33 (20.0)	10 (6.1)	55 (33.3)	4 (2.4)	8 (4.8)	6 (3.6)	2 (1.2)	24 (14.5)	4 (2.4)	1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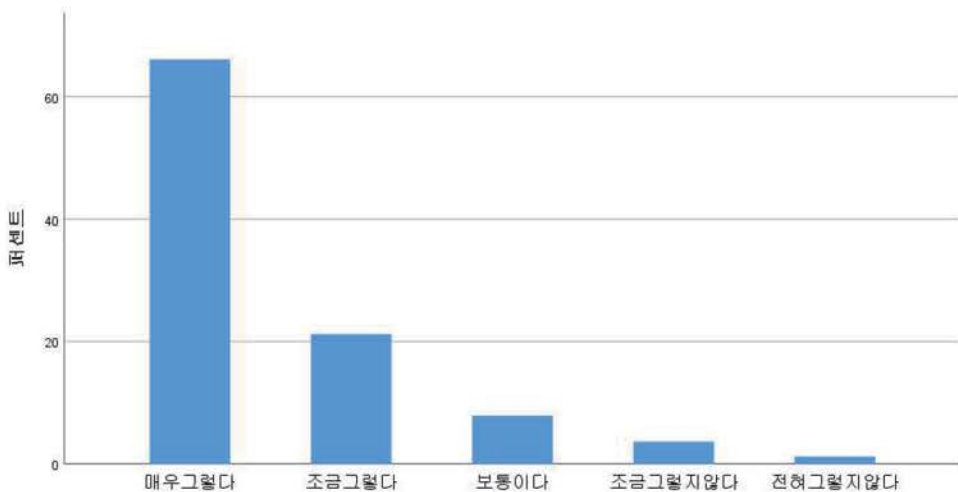
3. 진로상담

1)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편입 결정을 스스로 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3>과 같다. 165명 중 109명 (66.1%)이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35명(21.2%)은 ‘조금 그렇다’ , 13명 (7.9%)은 ‘보통이다’ , 6명(3.6%)은 ‘조금 그렇지 않다’ , 2명(1.2%)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을 위한 결정을 대부분 스스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 에 각각 63.7%, 68.9%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고, ‘조금 그렇다’ 에 응답 비율이 23.1%와 18.9%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편입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과학대학과 의과대학은 100.0%가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약간의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13>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표 13>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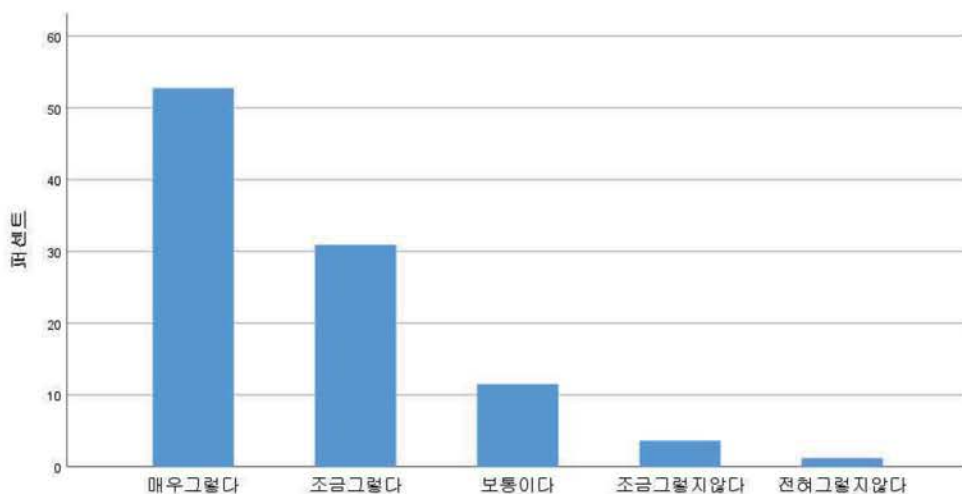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58 (63.7)	21 (23.1)	7 (7.7)	4 (4.4)	1 (1.1)	91 (100)
	여	51 (68.9)	14 (18.9)	6 (8.1)	2 (2.7)	1 (1.4)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6 (54.5)	4 (36.4)	0 (0.0)	0 (0.0)	1 (9.1)	11 (100)
	사회과학 대학	12 (66.7)	4 (22.2)	1 (5.6)	1 (5.6)	0 (0.0)	18 (100)
	경영 대학	18 (58.1)	7 (22.6)	4 (12.9)	1 (3.2)	1 (3.2)	31 (100)
	자연과학 대학	8 (100.0)	0 (0.0)	0 (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10 (90.9)	0 (0.0)	1 (9.1)	0 (0.0)	0 (0.0)	11 (100)
	공과 대학	44 (64.7)	17 (25.0)	3 (4.4)	4 (5.9)	0 (0.0)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 (53.8)	3 (23.1)	3 (23.1)	0 (0.0)	0 (0.0)	13 (100)
	예술 대학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109 (66.1)	35 (21.2)	13 (7.9)	6 (3.6)	2 (1.2)	165 (100)

2)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응답자 165명 중 87명(52.7%)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51명(30.9%)은 ‘조금 그렇다’, 19명(11.5%)은 ‘보통이다’, 6명(3.6%)은 ‘조금 그렇지 않다’, 2명(1.2%)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3.6%의 학생이 편입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에 각각 56.0%, 48.6%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고, ‘조금 그렇다’에 응답 비율이 30.8%와 31.1%로 나타나 남녀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 2.2%에 비해 여학생이 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이 부족한 상태로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편입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과학대학은 100.0%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61.6%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4>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표 14>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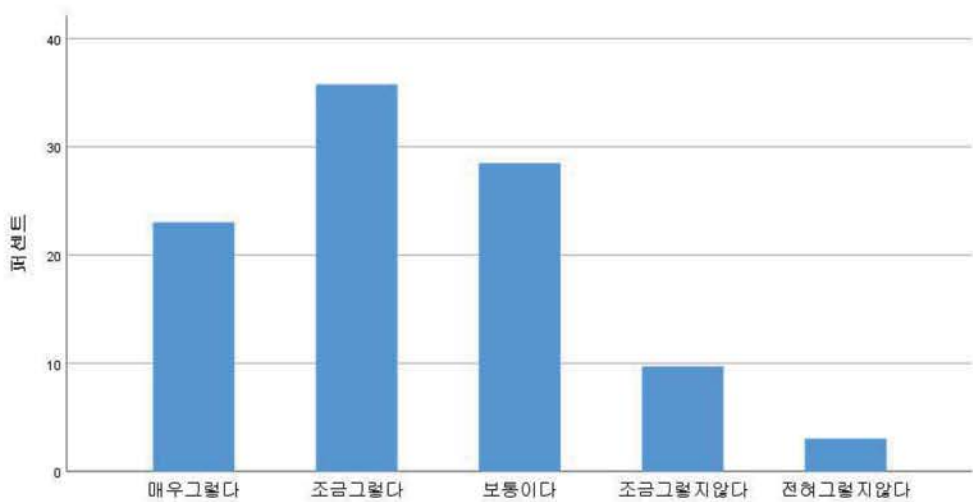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51 (56.0)	28 (30.8)	10 (11.0)	1 (1.1)	1 (1.1)	91 (100)
	여	36 (48.6)	23 (31.1)	9 (12.2)	5 (6.8)	1 (1.4)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7 (63.6)	3 (27.3)	0 (0.0)	1 (9.1)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11 (61.1)	5 (27.8)	1 (5.6)	1 (5.6)	0 (0.0)	18 (100)
	경영 대학	18 (58.1)	7 (22.6)	5 (16.1)	1 (3.2)	0 (0.0)	31 (100)
	자연과학 대학	4 (50.0)	4 (50.0)	0 (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7 (63.6)	3 (27.3)	0 (0.0)	1 (9.1)	0 (0.0)	11 (100)
	공과 대학	34 (50.0)	23 (33.8)	8 (11.8)	2 (2.9)	1 (1.5)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30.8)	4 (30.8)	4 (30.8)	0 (0.0)	1 (7.7)	13 (100)
	예술 대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2 (66.7)	1 (33.3)	0 (0.0)	0 (0.0)	0 (0.0)	3 (100)
전체	87 (52.7)	51 (30.9)	19 (11.5)	6 (3.6)	2 (1.2)	165 (100)	

3)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응답자 165명 중 59명(35.8%)이 ‘조금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47명(28.5%)은 ‘보통이다’ 38명(23.0%)은 ‘매우 그렇다’ , 16명(9.7%)은 ‘조금 그렇지 않다’ 5명(3.0%)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조금 그렇다’ 45.1%, ‘보통이다’ 24.2%, ‘매우 그렇다’ 22.0%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보통이다’ 33.8%, ‘매우 그렇다’ 와 ‘조금 그렇다’ 각각 24.3%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은 편입으로 진로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는 수준이 여학생의 수준보다 18.5%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100% 진로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것과 다르게 생활과학대학은 37.5%만이 진로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하여 단과대학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편입으로 진로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표 15>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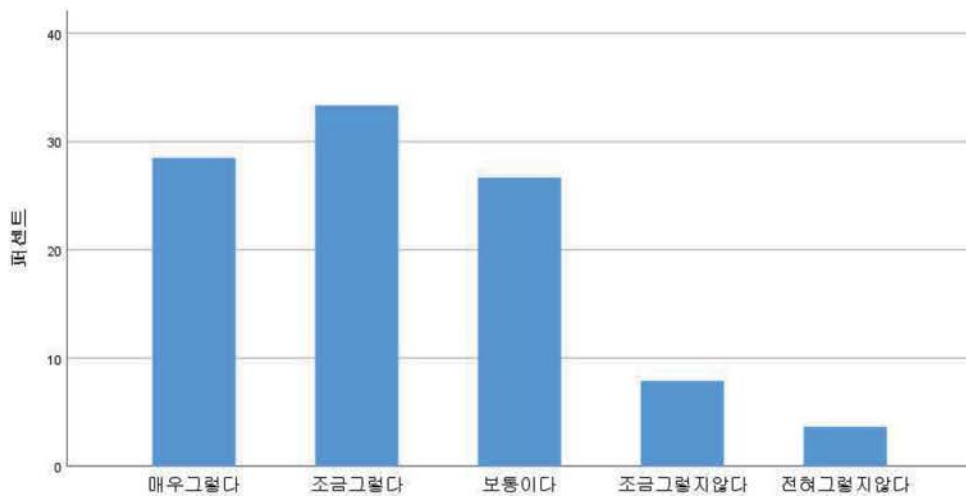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20 (22.0)	41 (45.1)	22 (24.2)	7 (7.7)	1 (1.1)	91 (100)
	여	18 (24.3)	18 (24.3)	25 (33.8)	9 (12.2)	4 (5.4)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3 (27.3)	3 (27.3)	4 (36.4)	1 (9.1)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6 (33.3)	6 (33.3)	4 (22.2)	1 (5.6)	1 (5.6)	18 (100)
	경영 대학	11 (35.5)	9 (29.0)	9 (29.0)	1 (3.2)	1 (3.2)	31 (100)
	자연과학 대학	2 (25.0)	1 (12.5)	4 (50.0)	1 (12.5)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3 (27.3)	4 (36.4)	3 (27.3)	0 (0.0)	1 (9.1)	11 (100)
	공과 대학	10 (14.7)	29 (42.6)	17 (25.0)	10 (14.7)	2 (2.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 (7.7)	5 (38.5)	5 (38.5)	2 (15.4)	0 (0.0)	13 (100)
	예술 대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2 (66.7)	1 (33.3)	0 (0.0)	0 (0.0)	0 (0.0)	3 (100)
전체	38 (23.0)	59 (35.8)	47 (28.5)	16 (9.7)	5 (3.0)	165 (100)	

4)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응답자 165명 중 55명(33.3%)이 ‘조금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47명(28.5%)은 ‘매우 그렇다’ 44명(26.7%)은 ‘보통이다’ , 13명(7.9%)은 ‘조금 그렇지 않다’ 6명(3.6%),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조금 그렇다’ 35.2%, ‘매우 그렇다’ 29.7%, ‘보통이다’ 26.4%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조금 그렇다’ 31.1%, ‘매우 그렇다’ 와 ‘보통이다’ 각각 27.0%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 여부는 성별의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100% 진로 방향 설정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사회과학대학도 77.7%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46.2%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6>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표 16>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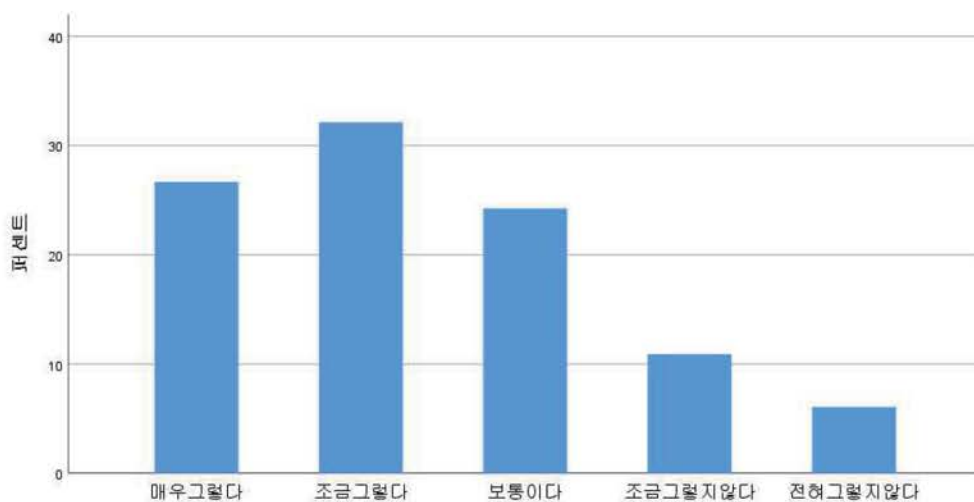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27 (29.7)	32 (35.2)	24 (26.4)	7 (7.7)	1 (1.1)	91 (100)
	여	20 (27.0)	23 (31.1)	20 (27.0)	6 (8.1)	5 (6.8)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3 (27.3)	3 (27.3)	4 (36.4)	0 (0.0)	1 (9.1)	11 (100)
	사회과학 대학	8 (44.4)	6 (33.3)	2 (11.1)	1 (5.6)	1 (5.6)	18 (100)
	경영 대학	12 (38.7)	8 (25.8)	8 (25.8)	2 (6.5)	1 (3.2)	31 (100)
	자연과학 대학	1 (12.5)	3 (37.5)	2 (25.0)	2 (25.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3 (27.3)	4 (36.4)	2 (18.2)	1 (9.1)	1 (9.1)	11 (100)
	공과 대학	16 (23.5)	25 (36.8)	19 (27.9)	6 (8.8)	2 (2.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 (7.7)	5 (38.5)	6 (46.2)	1 (7.7)	0 (0.0)	13 (100)
	예술 대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3 (1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47 (28.5)	55 (33.3)	44 (26.7)	13 (7.9)	6 (3.6)	165 (100)

5)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편입으로 진로 확신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 결과는 <표 17>과 같다. 응답자 165명 중 53명(32.1%)이 ‘조금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44명(26.7%), ‘보통이다’ 40명(24.2%), ‘조금 그렇지 않다’ 18명(10.9%),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6.1%)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생들의 58.8%는 편입으로 진로 확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조금 그렇다’에 각각 33.0%, 31.1%의 응답 비율을 나타나 비슷하나,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남학생이 9.2%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진로 확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단과대학의 특성이 뚜렷한 의과대학은 100.0%의 확신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사회과학대학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로 진로 확신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반대로 자연과학대학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7>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표 17>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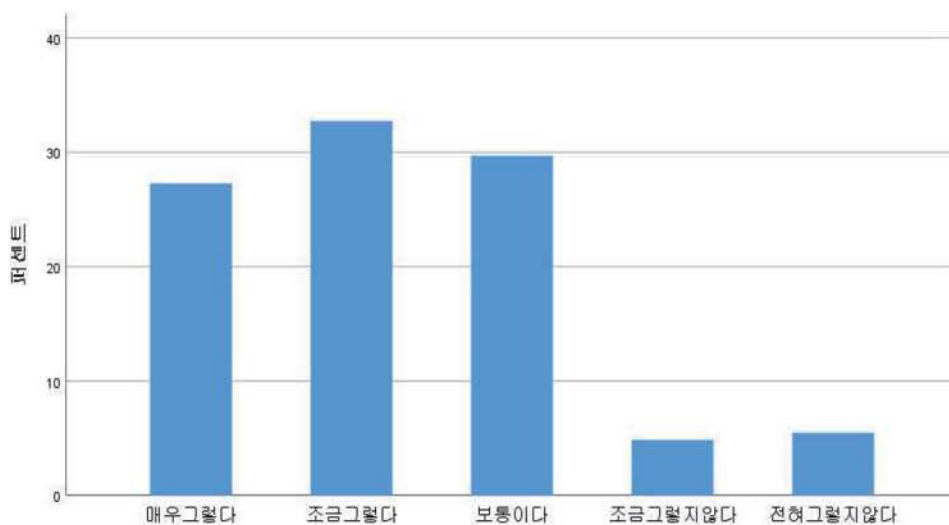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28 (30.8)	30 (33.0)	21 (23.1)	9 (9.9)	3 (3.3)	91 (100)
	여	16 (21.6)	23 (31.1)	19 (25.7)	9 (12.2)	7 (9.5)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2 (18.2)	4 (36.4)	1 (9.1)	3 (27.3)	1 (9.1)	11 (100)
	사회과학 대학	9 (50.0)	4 (22.2)	2 (11.1)	2 (11.1)	1 (5.6)	18 (100)
	경영 대학	10 (32.3)	7 (22.6)	12 (38.7)	0 (0.0)	2 (6.5)	31 (100)
	자연과학 대학	1 (12.5)	2 (25.0)	4 (50.0)	1 (12.5)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1 (9.1)	4 (36.4)	3 (27.3)	1 (9.1)	2 (18.2)	11 (100)
	공과 대학	16 (23.5)	26 (38.2)	13 (19.1)	9 (13.2)	4 (5.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15.4)	5 (38.5)	4 (30.8)	2 (15.4)	0 (0.0)	13 (100)
	예술 대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44 (26.7)	53 (32.1)	40 (24.2)	18 (10.9)	10 (6.1)	165 (100)

6)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편입으로 진로 결정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응답자 165명 중 56명(33.9%)이 ‘조금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보통이다’ 48명(29.1%), ‘매우 그렇다’ 41명(24.8%), ‘조금 그렇지 않다’ 15명(9.1%), ‘전혀 그렇지 않다’ 5명(3.0%)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생들의 58.7%는 편입으로 진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으로 진로 준비와 방향 설정과 진로 확신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편입생의 절반 수준 이상은 울산대학교에 편입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조금 그렇다’에 각각 36.3%, ‘보통이다’ 29.7%, ‘매우 그렇다’ 28.6%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다’ 29.7%, ‘조금 그렇다’ 28.4%, ‘매우 그렇다’ 25.7%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편입으로 자신의 진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들은 편입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 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사회과학대학에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낮은 진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표 18>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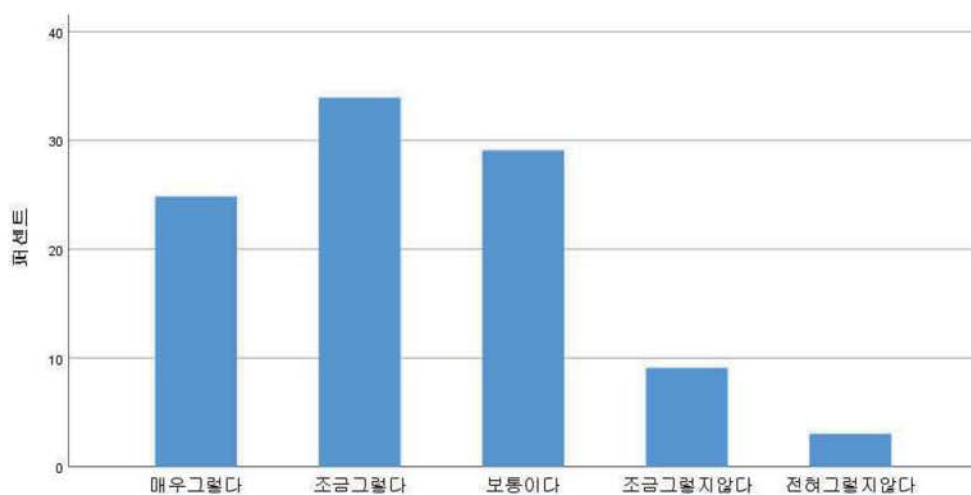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26 (28.6)	33 (36.3)	27 (29.7)	3 (3.3)	2 (2.2)	91 (100)
	여	19 (25.7)	21 (28.4)	22 (29.7)	5 (6.8)	7 (9.5)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2 (18.2)	4 (36.4)	3 (27.3)	1 (9.1)	1 (9.1)	11 (100)
	사회과학 대학	10 (55.6)	3 (16.7)	3 (16.7)	0 (0.0)	2 (11.1)	18 (100)
	경영 대학	11 (35.5)	6 (19.4)	12 (38.7)	0 (0.0)	2 (6.5)	31 (100)
	자연과학 대학	1 (12.5)	2 (25.0)	5 (62.5)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2 (18.2)	4 (36.4)	2 (18.2)	1 (9.1)	2 (18.2)	11 (100)
	공과 대학	15 (22.1)	27 (39.7)	19 (27.9)	5 (7.4)	2 (2.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 (7.7)	7 (53.8)	4 (30.8)	1 (7.7)	0 (0.0)	13 (100)
	예술 대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41 (24.8)	56 (33.9)	48 (29.1)	15 (9.1)	5 (3.0)	165 (100)	

7) 편입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편입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165명의 응답자 중 54명(32.7%)은 ‘조금 그렇다’, 49명(29.7%)은 ‘보통이다’, 45명(27.3%)은 ‘매우 그렇다’, 9명(5.5%)은 ‘전혀 그렇지 않다’, 8명(4.8%)은 ‘조금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편입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적응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58.3%, 여학생은 59.5%로 나타났으며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남녀의 차이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에서는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모든 단과대학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적응이 가장 안 된 단과대학은 생활과학대학으로 27.3%의 응답 비율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편입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표 19> 편입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	22 (24.2)	31 (34.1)	27 (29.7)	7 (7.7)	4 (4.4)	91 (100)
	여	19 (25.7)	25 (33.8)	21 (28.4)	8 (10.8)	1 (1.4)	74 (100)
단과 대학	인문 대학	1 (9.1)	4 (36.4)	5 (45.5)	1 (9.1)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6 (33.3)	8 (44.4)	3 (16.7)	0 (0.0)	1 (5.6)	18 (100)
	경영 대학	13 (41.9)	6 (19.4)	9 (29.0)	1 (3.2)	2 (6.5)	31 (100)
	자연과학 대학	2 (25.0)	2 (25.0)	4 (50.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2 (18.2)	5 (45.5)	1 (9.1)	3 (27.3)	0 (0.0)	11 (100)
	공과 대학	12 (17.6)	24 (35.3)	22 (32.4)	8 (11.8)	2 (2.9)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30.8)	4 (30.8)	3 (23.1)	2 (15.4)	0 (0.0)	13 (100)
	예술 대학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1 (33.3)	2 (66.7)	0 (0.0)	0 (0.0)	0 (0.0)	3 (100)
전체		45 (27.3)	54 (32.7)	49 (29.7)	8 (4.8)	9 (5.5)	1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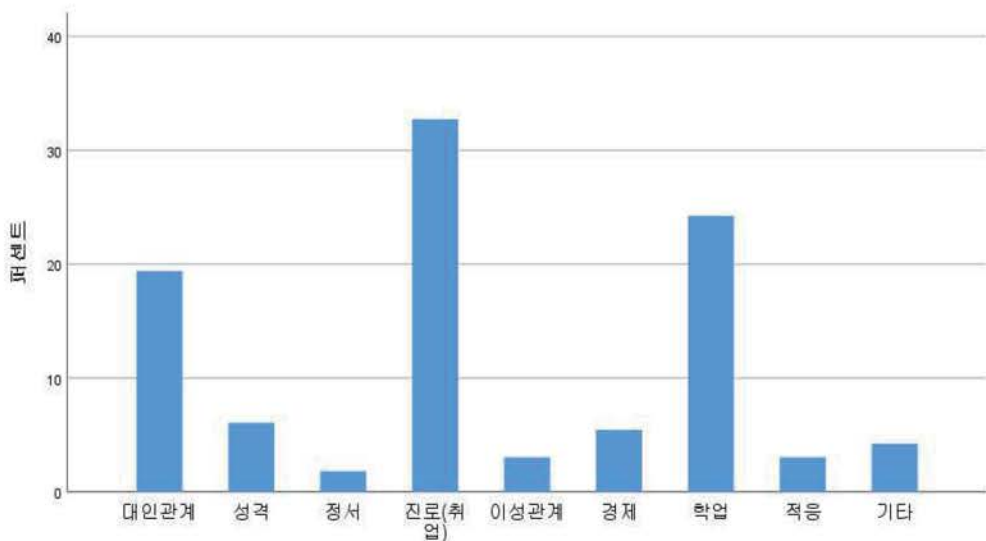
4. 진로심리상담센터

1) 현재 경험하는 걱정

편입생들이 현재 어떤 영역에서 걱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진로(취업)’가 54명(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업’ 40명(24.2%), ‘대인관계’ 32명(19.4%), ‘성격’ 10명(6.1%), ‘경제’ 9명(5.5%), ‘기타’ 7명(4.2%), ‘이성 관계’와 ‘적응’이 각각 5명(3.0%), ‘정서’ 3명(1.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진로(취업)’, ‘학업’, ‘대인관계’로 인한 걱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진로(취업)’과 ‘학업’에 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았고, 인문대학은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현재 경험하는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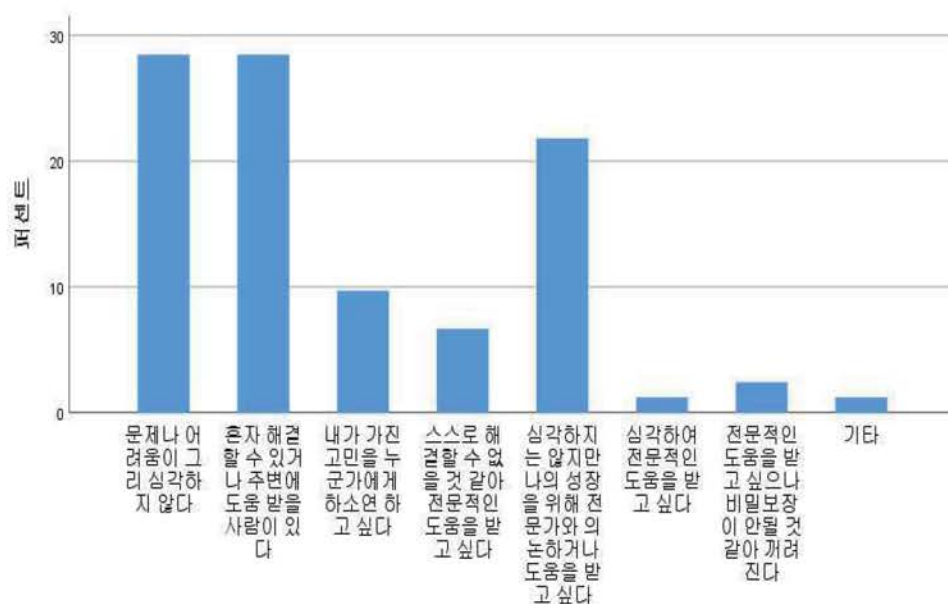
<표 20> 현재 경험하는 걱정

구분	대인 관계	성격	정서	진로 (취업)	이성 관계	경제	학업	적응	기타	전체	
성 별	남	21 (23.1)	6 (6.6)	1 (1.1)	26 (28.6)	4 (4.4)	6 (6.6)	23 (25.3)	0 (0.0)	4 (4.4)	91 (100)
	여	11 (14.9)	4 (5.4)	2 (2.7)	28 (37.8)	1 (1.4)	3 (4.1)	17 (23.0)	5 (6.8)	3 (4.1)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4 (36.4)	0 (0.0)	1 (9.1)	3 (27.3)	0 (0.0)	0 (0.0)	1 (9.1)	0 (0.0)	2 (18.2)	11 (100)
	사회과학 대학	2 (11.1)	3 (16.7)	0 (0.0)	4 (22.2)	1 (5.6)	3 (16.7)	2 (11.1)	0 (0.0)	3 (16.7)	18 (100)
	경영 대학	4 (12.9)	3 (9.7)	0 (0.0)	13 (41.9)	0 (0.0)	1 (3.2)	7 (22.6)	2 (6.5)	1 (3.2)	31 (100)
	자연과학 대학	1 (12.5)	1 (12.5)	1 (12.5)	2 (25.0)	1 (12.5)	0 (0.0)	2 (25.0)	0 (0.0)	0 (0.0)	8 (100)
	생활과학 대학	4 (36.4)	0 (0.0)	0 (0.0)	5 (45.5)	0 (0.0)	0 (0.0)	2 (18.2)	0 (0.0)	0 (0.0)	11 (100)
	공과 대학	15 (22.1)	2 (2.9)	1 (1.5)	23 (33.8)	1 (1.5)	4 (5.9)	21 (30.9)	1 (1.5)	0 (0.0)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15.4)	1 (7.7)	0 (0.0)	2 (15.4)	1 (7.7)	1 (7.7)	5 (38.5)	0 (0.0)	1 (7.7)	13 (100)
	예술 대학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2 (100)
	의과 대학	0 (0.0)	0 (0.0)	0 (0.0)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3 (100)
전체	32 (19.4)	10 (6.1)	3 (1.8)	54 (32.7)	5 (3.0)	9 (5.5)	40 (24.2)	5 (3.0)	7 (4.2)	165 (100)	

2)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편입생들이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1>과 같다.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94명의 학생이 자신의 걱정거리 문제에 심각하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1.8%인 36명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성장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16명(9.7%)은 자신의 고민을 해소시키고 싶다고 하였으며, 11명(6.7%)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명(2.4%)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꺼려진다고 하며, 2명(1.2%)은 문제가 심각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편입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응답이 41.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와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의 응답이 높았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응답 비율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생활과학대학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과학대학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1>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표 21>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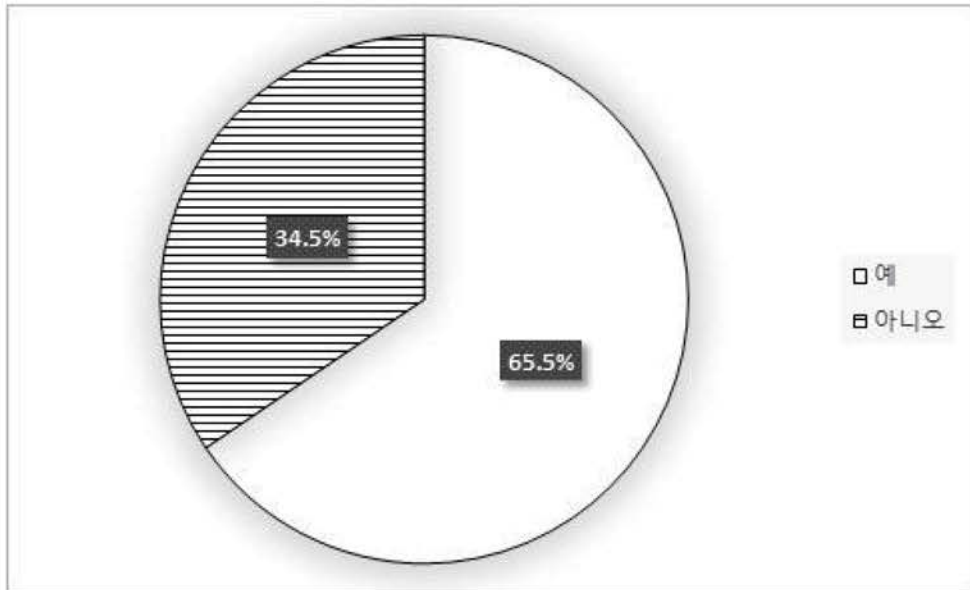
구분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	내가 가진 고민을 누군가에게 해소하고 싶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 전문가와 의논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	심각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나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 꺼려진다	기타	전체
성별	남	28 (30.8)	23 (25.3)	10 (11.0)	7 (7.7)	18 (19.8)	2 (2.2)	1 (1.1)	2 (2.2)	91 (100)
	여	19 (25.7)	24 (32.4)	6 (8.1)	4 (5.4)	18 (24.3)	0 (0.0)	3 (4.1)	0 (0.0)	74 (100)
단과대학	인문대학	3 (27.3)	3 (27.3)	1 (9.1)	1 (9.1)	3 (27.3)	0 (0.0)	0 (0.0)	0 (0.0)	11 (100)
	사회과학대학	7 (38.9)	5 (27.8)	3 (16.7)	2 (11.1)	1 (5.6)	0 (0.0)	0 (0.0)	0 (0.0)	18 (100)
	경영대학	8 (25.8)	14 (45.2)	2 (6.5)	1 (3.2)	5 (16.1)	0 (0.0)	0 (0.0)	1 (3.2)	31 (100)
	자연과학대학	2 (25.0)	1 (12.5)	1 (12.5)	0 (0.0)	3 (37.5)	1 (12.5)	0 (0.0)	0 (0.0)	8 (100)
	생활과학대학	1 (9.1)	1 (9.1)	1 (9.1)	2 (18.2)	4 (36.4)	0 (0.0)	2 (18.2)	0 (0.0)	11 (100)
	공과대학	21 (30.9)	19 (27.9)	7 (10.3)	4 (5.9)	14 (20.6)	1 (1.5)	1 (1.5)	1 (1.5)	68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4 (30.8)	2 (15.4)	1 (7.7)	0 (0.0)	5 (38.5)	0 (0.0)	1 (7.7)	0 (0.0)	13 (100)
	예술대학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대학	0 (0.0)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3 (100)
전체	47 (28.5)	47 (28.5)	16 (9.7)	11 (6.7)	36 (21.8)	2 (1.2)	4 (2.4)	2 (1.2)	165 (100)	

3)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편입생들이 울산대학교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응답자 165명 중 108명(65.5%)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57명(34.5%)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70.3%로 남학생의 61.5%보다 높아 진로심리상담센터를 더 많은 학생이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이 인문대학이 90.9%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대학이 12.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학교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표 22>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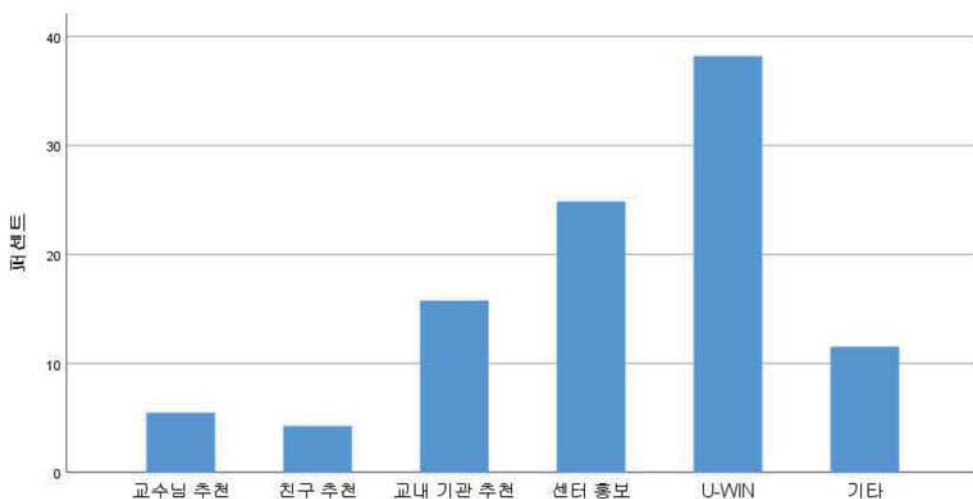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성별	남	56 (61.5)	35 (38.5)	91 (100)
	여	52 (70.3)	22 (29.7)	74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10 (90.9)	1 (9.1)	11 (100)
	사회과학 대학	13 (72.2)	5 (27.8)	18 (100)
	경영 대학	22 (71.0)	9 (29.0)	31 (100)
	자연과학 대학	1 (12.5)	7 (87.5)	8 (100)
	생활과학 대학	9 (81.8)	2 (18.2)	11 (100)
	공과 대학	43 (63.2)	25 (36.8)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 (53.8)	6 (46.2)	13 (100)
	예술 대학	1 (50.0)	1 (50.0)	2 (100)
	의과 대학	2 (66.7)	1 (33.3)	3 (100)
전체		108 (65.5)	57 (34.5)	165 (100)

4)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편입생들의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3>와 같다. ‘U-WIN’ 을 통한 정보수집이 63명(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41명(24.8%)은 ‘센터홍보’, 26명(15.8%)은 ‘교내기관 추천’, 19명(11.5%)은 ‘기타’, 9명(5.5%)은 ‘교수님추천’, 7명(4.2%)은 ‘친구추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U-WIN’ 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40.7%, 여학생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센터홍보’ 와 ‘교내기관 추천’ 으로 나타나 성별에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은 ‘U-WIN’ 을 통해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교내기관 추천’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센터홍보’ 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표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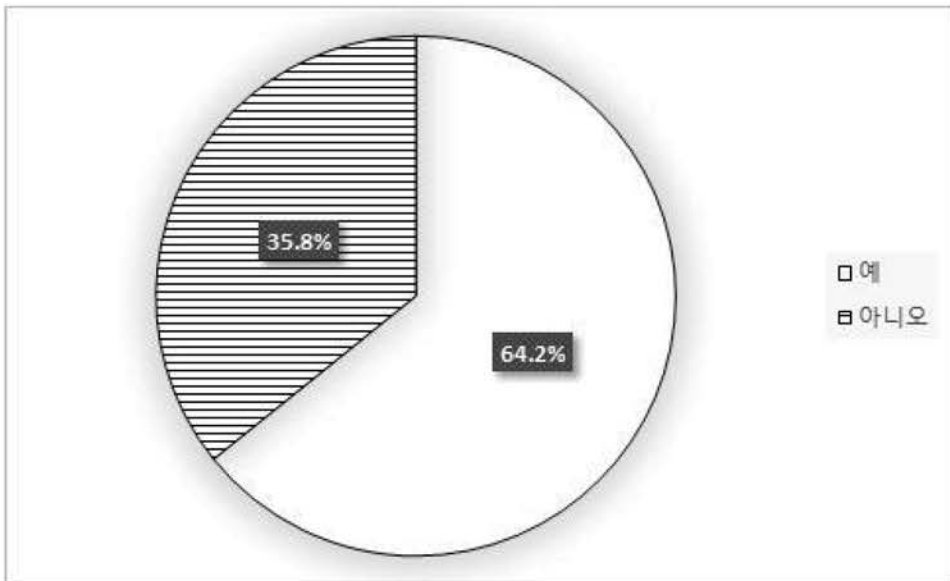
구분		교수님 추천	친구 추천	교내 기관 추천	센터 홍보	U-WIN	기타	전체
성 별	남	4 (4.4)	3 (3.3)	15 (16.5)	23 (25.3)	37 (40.7)	9 (9.9)	91 (100)
	여	5 (6.8)	4 (5.4)	11 (14.9)	18 (24.3)	26 (35.1)	10 (13.5)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3 (27.3)	0 (0.0)	0 (0.0)	4 (36.4)	4 (36.4)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1 (5.6)	1 (5.6)	2 (11.1)	5 (27.8)	8 (44.4)	1 (5.6)	18 (100)
	경영 대학	2 (6.5)	1 (3.2)	7 (22.6)	4 (12.9)	13 (41.9)	4 (12.9)	31 (100)
	자연과학 대학	0 (0.0)	0 (0.0)	0 (0.0)	1 (12.5)	4 (50.0)	3 (37.5)	8 (100)
	생활과학 대학	0 (0.0)	1 (9.1)	0 (0.0)	3 (27.3)	4 (36.4)	3 (27.3)	11 (100)
	공과 대학	2 (2.9)	2 (2.9)	11 (16.2)	20 (29.4)	25 (36.8)	8 (11.8)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 (7.7)	2 (15.4)	5 (38.5)	3 (23.1)	2 (15.4)	0 (0.0)	13 (100)
	예술 대학	0 (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100)
	의과 대학	0 (0.0)	0 (0.0)	1 (33.3)	0 (0.0)	2 (66.7)	0 (0.0)	3 (100)
전체		9 (5.5)	7 (4.2)	26 (15.8)	41 (24.8)	63 (38.2)	19 (11.5)	165 (100)

5)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편입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지를 묻는 설문 결과는 <표 24>와 같다. '예'의 응답이 106명(64.2%), '아니오'의 응답이 59명(35.8%)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61.5%, 여학생의 67.6%가 '예'라고 응답했으며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생활과학대학이 '예' 응답률 81.8%로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예술대학이 50%의 응답률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24>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표 24>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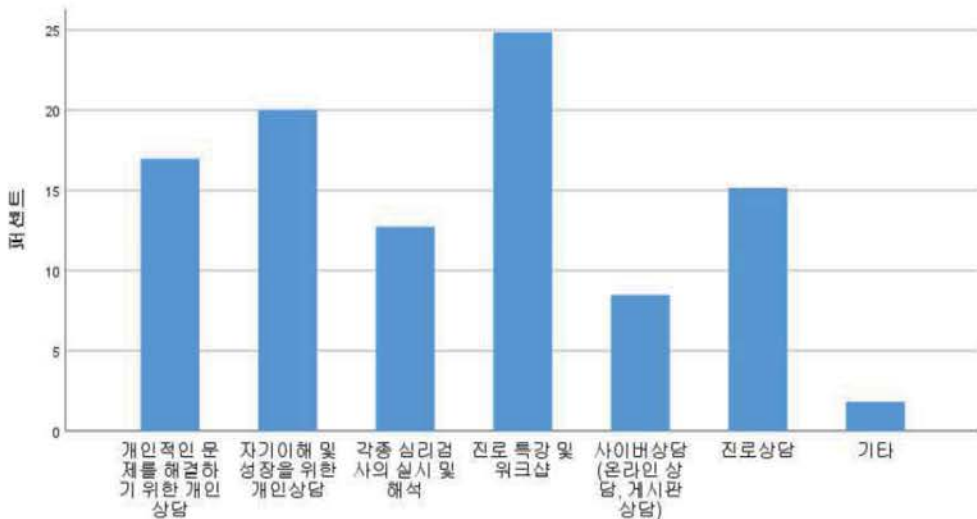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성별	남	56 (61.5)	35 (38.5)	91 (100)
	여	50 (67.6)	24 (32.4)	74 (100)
단과대학	인문 대학	8 (72.7)	3 (27.3)	11 (100)
	사회과학 대학	10 (55.6)	8 (44.4)	18 (100)
	경영 대학	19 (61.3)	12 (38.7)	31 (100)
	자연과학 대학	6 (75.0)	2 (25.0)	8 (100)
	생활과학 대학	9 (81.8)	2 (18.2)	11 (100)
	공과 대학	41 (60.3)	27 (39.7)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0 (76.9)	3 (23.1)	13 (100)
	예술 대학	1 (50.0)	1 (50.0)	2 (100)
	의과 대학	2 (66.7)	1 (33.3)	3 (100)
전체		106 (64.2)	59 (35.8)	165 (100)

6)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편입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5>와 같다. ‘진로특강 및 워크숍’이 41명(24.8%)으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 33명(20.0%),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28명(17.0%), ‘진로상담’ 25명(15.2%), ‘각종 심리 검사의 실시 및 해석’ 21명(12.7%), ‘사이버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상담)’ 14명(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기타’는 응답자가 없었다.

성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진로특강 및 워크숍’이 28.6%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자기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이 28.4%로 가장 높았다. 남학생의 응답 중 ‘진로상담’에 대한 응답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각종 심리 검사의 실시 및 해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18.9%로 남학생의 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대학은 ‘자기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 ‘진로상담’, ‘진로특강 및 워크숍’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은 ‘진로특강 및 워크숍’ 서비스를, 자연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자기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생활과학대학과 예술대학은 ‘사이버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도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5>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표 25>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구분		개인 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개인 상담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프로 그램	각종 심리 검사의 실시 및 해석	진로 특강 및 워크숍	사이버 상담 (온라 인 상담, 게시판 상담)	야간 상담	진로 상담	기타	전체
성 별	남	18 (19.8)	12 (13.2)	0 (0.0)	7 (7.7)	26 (28.6)	6 (6.6)	0 (0.0)	20 (22.0)	2 (2.2)	91 (100)
	여	10 (13.5)	21 (28.4)	0 (0.0)	14 (18.9)	15 (20.3)	8 (10.8)	0 (0.0)	5 (6.8)	1 (1.4)	74 (100)
단 과 대 학	인문 대학	1 (9.1)	4 (36.4)	0 (0.0)	0 (0.0)	2 (18.2)	1 (9.1)	0 (0.0)	3 (27.3)	0 (0.0)	11 (100)
	사회과학 대학	4 (22.2)	3 (16.7)	0 (0.0)	5 (27.8)	3 (16.7)	1 (5.6)	0 (0.0)	1 (5.6)	1 (5.6)	18 (100)
	경영 대학	6 (19.4)	7 (22.6)	0 (0.0)	2 (6.5)	11 (35.5)	1 (3.2)	0 (0.0)	3 (9.7)	1 (3.2)	31 (100)
	자연과학 대학	2 (25.0)	2 (25.0)	0 (0.0)	2 (25.0)	1 (12.5)	0 (0.0)	0 (0.0)	0 (0.0)	1 (12.5)	8 (100)
	생활과학 대학	3 (27.3)	3 (27.3)	0 (0.0)	1 (9.1)	0 (0.0)	3 (27.3)	0 (0.0)	1 (9.1)	0 (0.0)	11 (100)
	공과 대학	9 (13.2)	11 (16.2)	0 (0.0)	5 (7.4)	21 (30.9)	5 (7.4)	0 (0.0)	17 (25.0)	0 (0.0)	68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 (15.4)	3 (23.1)	0 (0.0)	4 (30.8)	2 (15.4)	2 (15.4)	0 (0.0)	0 (0.0)	0 (0.0)	13 (100)
	예술 대학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2 (100)
	의과 대학	0 (0.0)	0 (0.0)	0 (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3 (100)
전체		28 (17.0)	33 (20.0)	0 (0.0)	21 (12.7)	41 (24.8)	14 (8.5)	0 (0.0)	25 (15.2)	3 (1.8)	165 (100)

IV. 종합

본 조사는 울산대학교 편입생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편입생 실태조사’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 24일 ~ 7월 12일 19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편입생은 총 165명으로 모두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 소속 단과대학 및 성별

‘공과대학’이 68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31명(18.8%), ‘사회과학대학’ 18명(10.9%),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3명(7.9%), ‘인문대학’과 ‘생활과학대학’ 각 11명(6.7%), ‘자연과학대학’ 8명(4.8%), ‘의과대학’ 3명(1.8%), ‘예술대학’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생 165명의 성별은 남학생이 91명(55.2%), 여학생이 74명(44.8%)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7명이 많아 10.4%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 91명 중 53명(58.2%)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단과대학 중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10명(11.0%), ‘자연과학대학’ 6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74명 중 21명(28.4%)이 ‘경영대학’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공과대학’ 15명(20.3%), ‘사회과학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각각 9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 편입 전 학력

‘4년제 재학 중’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93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전문대 졸업’이 61명(37.0%)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4명(2.4%), ‘4년제 졸업’은 5명(3.0%),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졸업’과 ‘외국대학 졸업’은 각각 1명(0.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4년제 재학 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후’로 나타남으로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편입 후 거주형태

‘자택 거주’가 120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거주’ 23명(13.9%), ‘자취’ 21명(12.7%), ‘친척집’ 1명(0.6%),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택 거주’가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81.1%로 남학생의 65.9%보다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15.2% 높았다. ‘기숙사 거주’는 남학생 17.6%로 여학생 9.5%보다 8.1% 높았으며, ‘자취’도 남학생이 15.4%로 여학생 9.5%보다 5.9%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택에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신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141명(8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실업계)’가 11명(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율형 사립/공립고’는 4명(2.4%)으로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기타’는 각각 3명(1.8%), ‘특목고(과학고/국제고, 외국어고)’ 2명(1.2%), ‘특목고(마이스터고)’ 1명(0.6%), ‘대안학교’와 ‘예체능계 고교’ 각각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인문계’ 89.0%, ‘특성화고(실업계)’ 4.4%, ‘자율형 사립/공립고’와 ‘기타’ 각각 2.2%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인문계’ 81.1%, ‘특성화고(실업계)’ 9.5%, ‘검정고시’ 4.1%, ‘자율형 사립/공립고’ 2.7%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인문계’ 졸업 후 편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다르게 ‘검정고시’를 통한 편입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교 교내서비스를 이용한 곳

104명(63%)이 ‘도서관’, 19명(11.5%)은 ‘기타’, 16명(9.7%)은 ‘진로심리상담센터’, 14명(8.5%)은 ‘교수학습지원센터’, 7명(4.2%)은 ‘현장실습센터’, 3명(1.8%)은 ‘학생복지팀’, 2명(1.2%)은 ‘취업지원팀’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센터’를 7.7%의 학생이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여학생은 전혀 없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이용 경험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6%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4%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2. 대학생활 전반

- 본교 편입학 만족도

‘조금 만족’ 이 63명(38.2%), ‘매우 만족’ 과 ‘보통’ 이 각각 45명(27.3%), ‘조금 불만족’ 8명(4.8%), ‘매우 불만족’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편입생 중 108명(65.5%)은 본교 입학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본교 편입에 대해 남학생의 66.0%와 여학생의 64.9%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의 수준도 남학생 7.7%, 여학생 6.8%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본교 편입 지원 이유

‘집과의 거리’ 가 43명(2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취업전망’ 41명(24.8%), ‘원하는 전공선택’ 28명(17.0%), ‘대학의 평판 및 순위’ 24명(14.5%), ‘부모님의 권유’ 13명(7.9%), ‘기타’ 6명(3.6%), ‘장학금 및 복지혜택’ 5명(3.0%), ‘입시성적(합격 가능성)’ 4명(2.4%), ‘주변인의 권유’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취업전망’ 31.9%, ‘집과의 거리’ 20.9%, ‘원하는 전공선택’ 과 ‘대학의 평판 및 순위’ 각각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집과의 거리’ 32.4%, ‘원하는 전공선택’ 18.9%, ‘취업전망’ 16.2% 순으로 나타나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본교 편입 지원 이유가 다를 수 있다.

- 본교의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편입생의 절반이 넘는 122명(73.9%)의 학생이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학생은 26명(15.8%), ‘편입학 학원’ 은 6명(3.6%), ‘기타’ 방법은 5명(3.0%),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는 4명(2.4%), ‘대학발행 책자’ 는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를 통해 정보 수집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에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본교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전공 공부 및 학업’ 이 76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준비’ 55명(33.3%), ‘동아리 활동’ 13명(7.9%), ‘대인관계’ 11명(6.7%), ‘이성 교제’ 5명(3.0%), ‘교양 습득’ 3명

(1.8%), ‘봉사 활동’ 과 ‘기타’ 가 각각 1명(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제참여’ 는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공 공부 및 학업’ 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 본교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

편입생 165명 중 80명(48.5%)은 ‘전공 공부 및 학업’ 이 가장 고민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 59명(35.8%), ‘대인관계’ 16명(9.7%), ‘경제 문제’ 는 6명(3.6%), ‘건강’ 은 4명(2.4%)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과 ‘기타’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공 공부 및 학업’ 문제가 48.4%와 48.6%로 가장 높았고, ‘진로와 취업’ 문제도 34.1%와 37.8%로 높게 나타났다.

-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편입생 165명 중 55명(33.3%)은 주로 ‘친구’ 와 문제를 의논한다고 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어머니’ 33명(20.0%), ‘의논하지 않음’ 24명(14.5%), ‘아버지’ 19명(11.5%), ‘형제·자매’ 10명(6.1%), ‘연인’ 8명(4.8%), ‘진로심리상담센터’ 6명(3.6%), ‘선배’ 와 ‘기타’ 는 각각 4명(2.4%), ‘청소년 상담 및 사설 상담센터’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어머니’, ‘의논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와 의논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17.6%로 여학생의 4.1%보다 월등히 높았고, ‘형제·자매’ 와 의논한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8.1%로 남학생의 4.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진로상담

- 편입 결정은 스스로 하였는가?

편입생 중 109명(66.1%)이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35명(21.2%)은 ‘조금 그렇다’, 13명(7.9%)은 ‘보통이다’, 6명(3.6%)은 ‘조금 그렇지 않다’, 2명(1.2%)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을 하기 위한 결정을 대부분 스스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 에 각각 63.7%, 68.9%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고, ‘조금 그렇다’ 에 응답 비율이 23.1%와 18.9%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편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편입생 중 87명(52.7%)이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51명(30.9%)은 ‘조금 그렇다’, 19명(11.5%)은 ‘보통이다’, 6명(3.6%)은 ‘조금 그렇지 않다’, 2명(1.2%)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3.6%의 학생이 편입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 에 각각 56.0%, 48.6%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고, ‘조금 그렇다’ 에 응답 비율이 30.8%와 31.1%로 나타나 남녀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 2.2%에 비해 여학생이 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이 부족한 상태로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편입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가?

59명(35.8%)이 ‘조금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47명(28.5%)은 ‘보통이다’ 38명(23.0%)은 ‘매우 그렇다’, 16명(9.7%)은 ‘조금 그렇지 않다’ 5명(3.0%)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조금 그렇다’ 45.1%, ‘보통이다’ 24.2%, ‘매우 그렇다’ 22.0%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보통이다’ 33.8%, ‘매우 그렇다’ 와 ‘조금 그렇다’ 각각 24.3%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은 편입으로 진로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는 수준이 여학생의 수준보다 18.5% 높게 나타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편입으로 진로 방향 설정은 되었는가?

55명(33.3%)이 ‘조금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47명(28.5%)은 ‘매우 그렇다’ 44명(26.7%)은 ‘보통이다’ , 13명(7.9%)은 ‘조금 그렇지 않다’ 6명(3.6%)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조금 그렇다’ 35.2%, ‘매우 그렇다’ 29.7% ‘보통이다’ 26.4%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조금 그렇다’ 31.1%, ‘매우 그렇다’ 와 ‘보통이다’ 가 각각 27.0%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편입으로 진로 방향이 설정여부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편입으로 진로 확신은 되었는가?

53명(32.1%)이 ‘조금 그렇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44명(26.7%), ‘보통이다’ 40명(24.2%), ‘조금 그렇지 않다’ 18명(10.9%),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6.1%)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생들의 58.8%는 편입으로 진로 확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조금 그렇다’ 에 각각 33.0%, 31.1%의 응답 비율을 나타나 비슷하나, ‘매우 그렇다’ 의 응답이 남학생이 9.2%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진로 확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편입으로 진로 결정은 되었는가?

‘조금 그렇다’ 56명(33.9%), ‘보통이다’ 48명(29.1%), ‘매우 그렇다’ 41명(24.8%), ‘조금 그렇지 않다’ 15명(9.1%), ‘전혀 그렇지 않다’ 5명(3.0%)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생들의 58.7%는 편입으로 진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으로 진로 준비와 방향 설정과 진로 확신에 대한 설문 결과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편입생의 절반 수준 이상은 울산대학교에 편입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조금 그렇다’ 에 36.3%, ‘보통이다’ 29.7%, ‘매우 그렇다’ 28.6%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다’ 29.7%, ‘조금 그렇다’ 28.4%, ‘매우 그렇다’ 25.7%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편입으로 자신의 진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편입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가?

응답자 중 54명(32.7%)은 ‘조금 그렇다’ , 49명(29.7%)은 ‘보통이다’ , 45명(27.3%)

은 ‘매우 그렇다’, 9명(5.5%)은 ‘전혀 그렇지 않다’, 8명(4.8%)은 ‘조금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편입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적응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58.3%, 여학생은 59.5%로 나타났으며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남녀의 차이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4. 진로심리상담센터

- 현재 경험하는 걱정

‘진로(취업)’가 54명(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업’ 40명(24.2%), ‘대인관계’ 32명(19.4%), ‘성격’ 10명(6.1%), ‘경제’ 9명(5.5%), ‘기타’ 7명(4.2%), ‘이성 관계’와 ‘적용’이 각각 5명(3.0%), ‘정서’ 3명(1.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진로(취업), ‘학업’, ‘대인관계’로 인한 걱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현재 경험하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

57%에 해당하는 94명의 학생이 자신의 걱정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1.8%인 36명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성장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16명(9.7%)은 자신의 고민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11명(6.7%)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명(2.4%)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꺼려진다고 하며, 2명(1.2%)은 문제가 심각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편입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응답이 41.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와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의 응답이 높았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응답 비율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본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응답자 165명 중 108명(65.5%)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57명(34.5%)은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70.3%로 남학생의 61.5%보다 높아 진로심리상담센터를 더 많은 학생이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

‘U-WIN’ 을 통한 정보수집이 63명(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41명(24.8%)은 ‘센터 홍보’, 26명(15.8%)은 ‘교내기관 추천’, 19명(11.5%)은 ‘기타’, 9명(5.5%)은 ‘교수님추천’, 7명(4.2%)은 ‘친구추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U-WIN’ 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40.7%, 여학생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센터홍보’ 와 ‘교내기관 추천’ 으로 나타나 성별에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가?

‘예’ 의 응답이 106명(64.2%), ‘아니오’ 의 응답이 59명(35.8%)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61.5%, 여학생의 67.6%가 ‘예’ 라고 응답했으며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진로특강 및 워크숍’ 이 41명(24.8%)으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 33명(20.0%),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28명(17.0%), ‘진로상담’ 25명(15.2%),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21명(12.7%), ‘사이버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상담)’ 14명(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 ‘기타’ 는 응답자가 없었다.

성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진로특강 및 워크숍’ 이 28.6%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자기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 이 28.4%로 가장 높았다. 남학생의 응답 중 ‘진로상담’ 에 대한 응답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각종 심리 검사의 실시 및 해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18.9%로 남학생의 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 합의

편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27%), 조금 만족(38%), 보통(27%)을 합하면 총 92%를 차지하여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 후 걱정스러운 일은 전공 공부 및 학업(48%), 진로 및 취업(36%), 대인관계(1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생들이 주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편입 후 대학생활적응은 조금 그렇다(34%), 보통이다(29%), 매우 그렇다(25%)를 합하면 88%의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2%의 학생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진로(취업) 33%, 학업 24%, 대인관계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심각하지 않고(28%), 혼자 해결하거나 도움 받아 해결할 수 있는(28%)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와 의논하거나 도움 받고 싶다는 비중이 22%로 나타나 편입생의 진로(취업), 학업, 대인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는 진로특강 및 진로프로그램(25%), 자기이해 및 자기분석(20%), 문제해결 및 자기이해를 위한 개인상담(1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에는 편입생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22학년도
진로심리상담센터
현황 및 활동 보고**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목 차

I. 운영 및 전체 활동	309
1.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온마인드”	310
2. 진로심리상담센터 조직도	312
3. 2022학년도 상담활동 참여 명단	313
4. 진로심리상담센터 위원회	316
5. 진로심리상담센터 주간 회의	317
6. 교내 협업 및 부서 간담회	318
7. 상담사례 연구모임	319
II.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심리검사	321
1. 신청	321
2. 개인상담	321
3. 야간상담	324
4. 심리검사	325
III. 집단 프로그램	333
1. 집단상담	333
2. 상담교육	336
3. 온 마인드 동아리	347
4.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362
5. 진로심리상담센터 공모전	366
IV. 진로프로그램	367
1. 진로멘토단	367
2. 선배멘토단	371
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374
4. 진로상담 가이드북	379

5. U-CAREER 진로상담	381
V. 교수-학생 상담지원	383
1. 상담법 세미나	383
VI. 조사연구	386
1. 재학생 실태조사	386
2. 마음건강 실태조사	386
3. 1학년 대학생활적응 조사	386
4. 편입생 실태조사	386
5.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386
VII.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387
1. 전임상담원 교육	387
2.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388
VIII. 대외활동 및 지역기관 협업	390
1. 마음약국	390
2.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394
3. 업무협약(MOU) 체결	396
4. 마음건강 증진사업(보건복지부 트라우마 센터)	398
IX. 부록(진로심리상담센터 성과사례)	399

표 목 차

<표 1> 진로심리상담센터 구성원	313
<표 2> 진로심리상담센터 객원상담원	313
<표 3>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강사	314
<표 4>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위원회	316
<표 5> 운영위원회 회의	317
<표 6> 진로심리상담센터 간담회	318
<표 7> 상담사례 연구모임 실적	319
<표 8> 상담사례 연구모임 만족도	320
<표 9> 접수상담 실적	321
<표 10> 개인상담 실적(접수상담 포함)	322
<표 11> 개인상담 만족도	322
<표 12> 야간상담 실적	324
<표 13> 개인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실적	326
<표 14> 개인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만족도	326
<표 15> 심리검사 DAY 참여 인원	328
<표 16> 심리검사 DAY 만족도	328
<표 17> 찾아가는 심리검사 교과 연계 및 학과 신청 참여 인원	331
<표 18> 찾아가는 심리검사 만족도	331
<표 19>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적	333
<표 20> 집단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334
<표 21> 찾아가는 상담교육 실적	336
<표 22> 찾아가는 상담교육 만족도	337
<표 23> 센터 특화 상담교육 실적	340
<표 24> 센터 특화 상담교육 만족도	341
<표 25> 비대면 상담교육 실적	344
<표 26> 비대면 상담교육 만족도	345

<표 27> 또래상담 실적	347
<표 28> 또래상담 만족도	348
<표 29>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실적	350
<표 30>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만족도	351
<표 31> 동아리 상담교육 실적	353
<표 32> 동아리 상담교육 만족도	353
<표 33> 교내 상담 문화 활성화 사업 실적	356
<표 34> 동아리 공모전 실적	359
<표 35>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실적	362
<표 36>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363
<표 37> 진로멘토단 운영 실적	367
<표 38> 진로멘토단 생생 TALK 만족도	368
<표 39> 선배멘토단 운영 실적	371
<표 40> 선배멘토단 리얼 TALK 만족도	372
<표 4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적	374
<표 4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375
<표 43> u-career 진로상담 실적	381
<표 44> u-career 진로상담 만족도	381
<표 45> 상담법 세미나 실적	383
<표 46> 상담법 세미나 만족도	384
<표 47> 전임상담원 교육 실적	387
<표 48>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적	388
<표 49>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만족도	389
<표 50> 마음약국 실적	391
<표 51> 마음약국 만족도	392
<표 52> 4대 중독 예방 연합 캠페인 내용	394
<표 53> 진로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기관	396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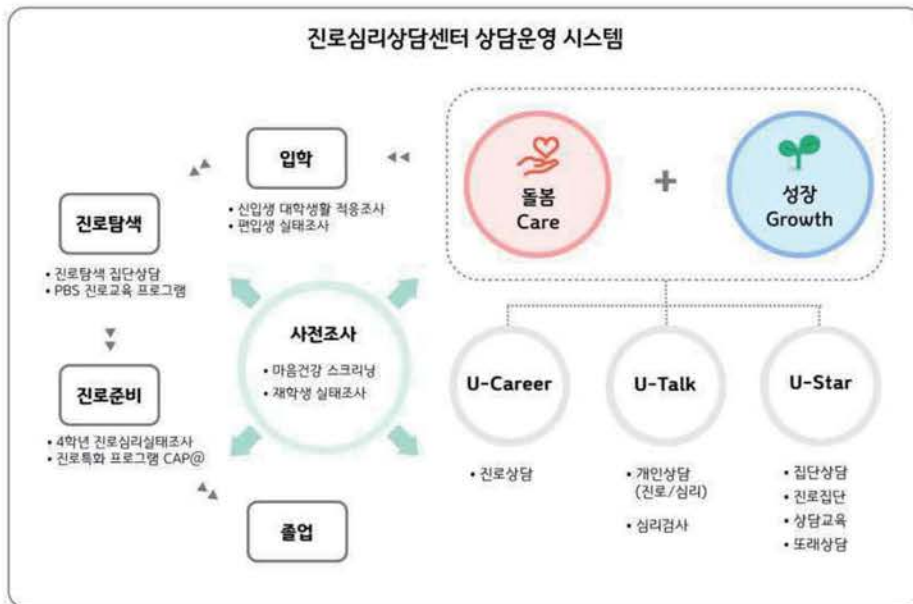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운영 시스템	309
<그림 2> 진로심리상담센터 핵심가치	310
<그림 3> 진로심리상담센터 U-온마인드 상담체계도	311
<그림 4> 진로심리상담센터 조직도	312
<그림 5> 개인상담 진행 과정	322
<그림 6> 개인심리검사 진행 과정	326
<그림 7> 심리검사 DAY 진행 과정	328
<그림 8> 찾아가는 심리검사 진행 과정	330
<그림 9> 찾아가는 상담교육 진행 과정	336
<그림 10> 센터 특화 상담교육 진행 과정	340
<그림 11> 비대면 상담교육 진행 과정	344
<그림 12> 또래상담 진행 과정	347
<그림 13>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과정	350
<그림 14> u-career 상담 진행 과정	380
<그림 15> 상담법 세미나 진행 과정	383

2022학년도 진로심리상담센터 현황 및 활동 보고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도모,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의 활동들을 운영 및 전체 활동,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 조사연구,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대외활동 및 지역기관 공헌으로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I. 운영 및 전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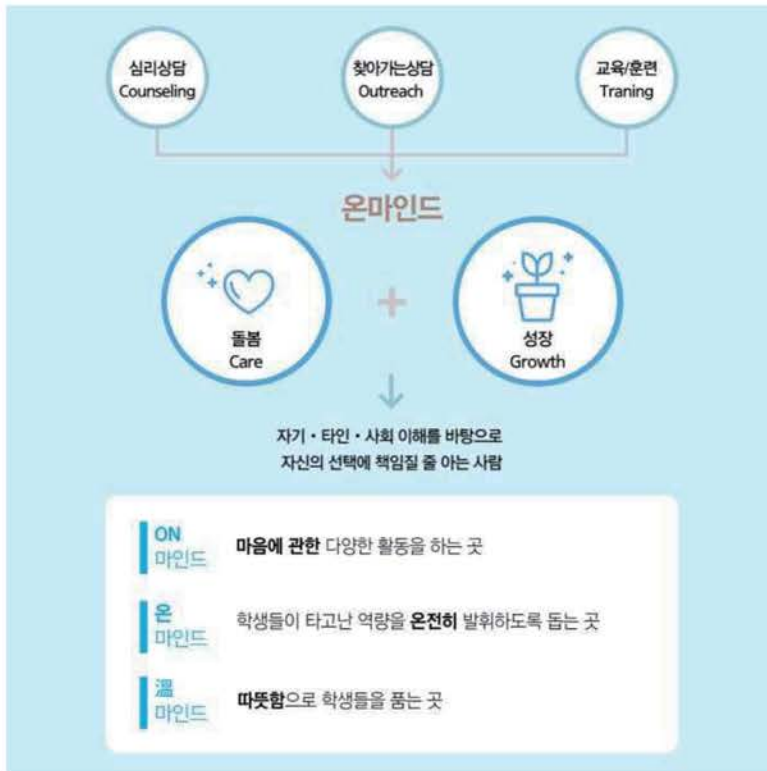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돌봄과 성장의 두 가치를 추구하는 “온마인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U-TALK 시스템을 통하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운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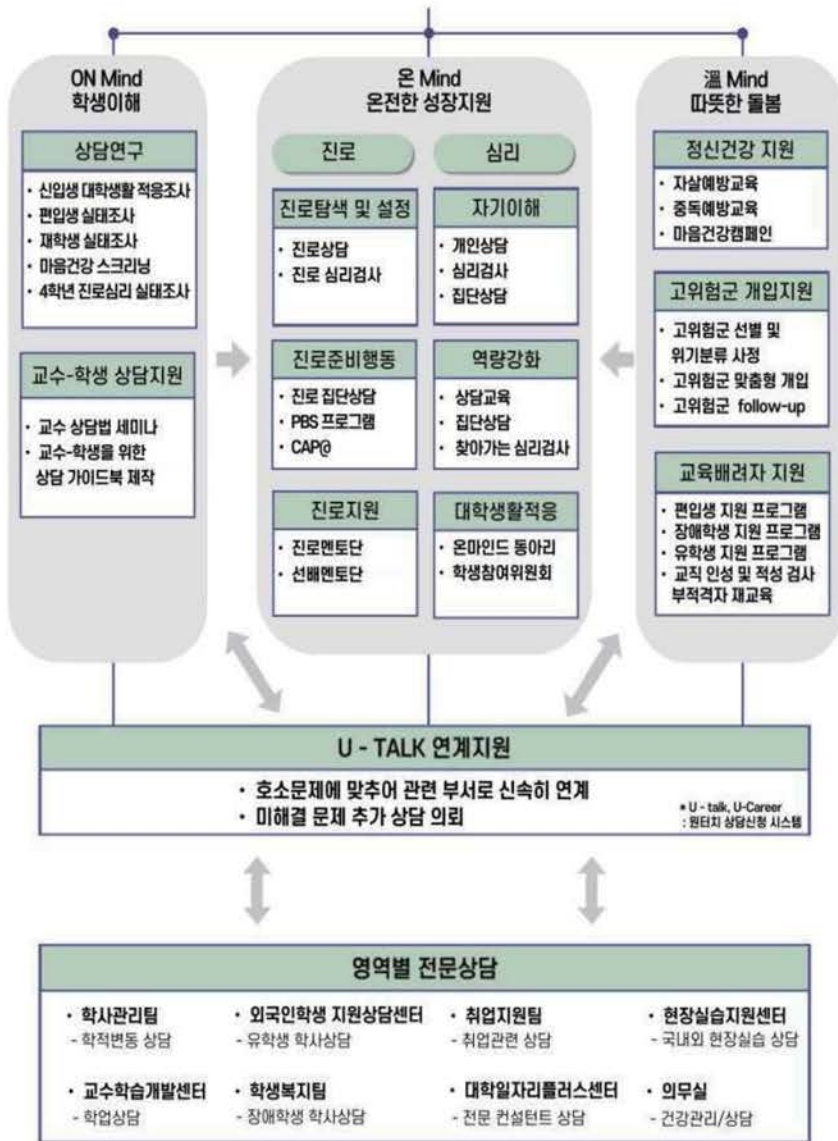
1.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온마인드’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의 활동은 “자기, 타인, 사회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마인드’ (① ON 마인드: 마음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 ② 온 마인드: 학생들이 타고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곳, ③ 溫 마인드: 따뜻함으로 학생을 품는 곳) 프로그램으로 통칭되며, ‘돌봄’과 ‘성장’의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 ‘돌봄’은 자기이해 부족 및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장’은 현재 대학생활에 적응적이며 잠재력을 발현시키기를 원하는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진로심리상담센터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상담 체계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진로심리상담센터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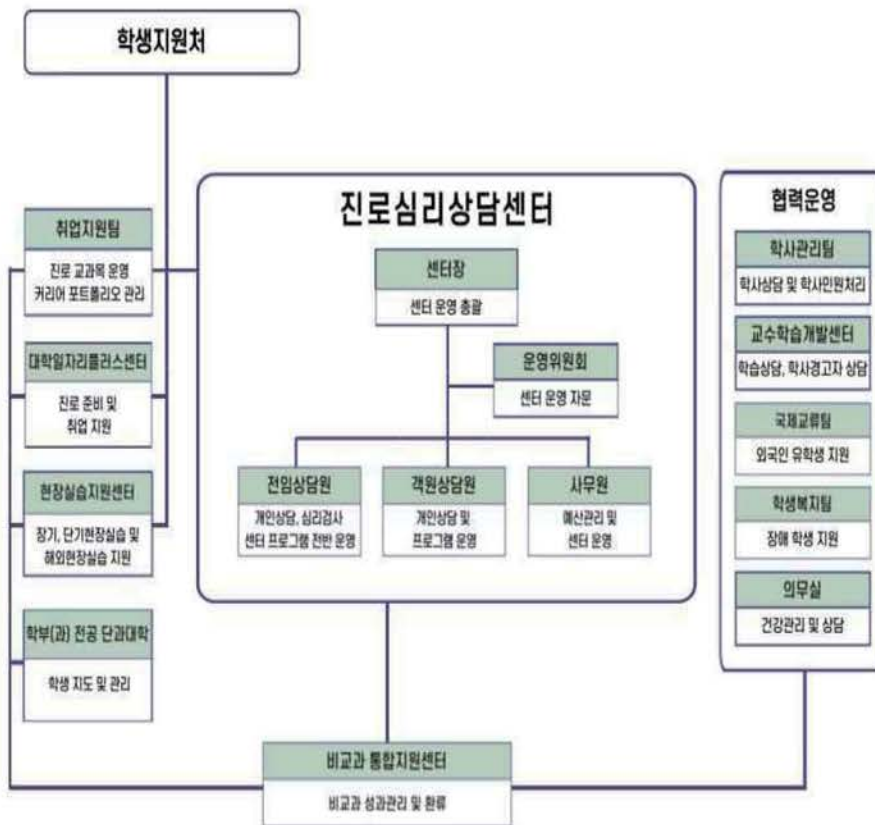
U-온마인드 상담체계도



<그림 3> 진로심리상담센터 U-온마인드 상담체계도

2. 진로심리상담센터 조직도

2022학년도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학생지원처 아래 진로심리상담센터장, 심리상담 전문 전임상담원 4인, 심리상담 외부 전문가인 객원상담원 8인으로 구성하며 울산대학교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문상담조직을 구축하였다.



<그림 4> 진로심리상담센터 조직도

3. 2022학년도 상담활동 참여 명단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다양한 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22학년도 상담활동을 진행하였다.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의 구성원은 <표 1>과 같다. 또한, 2022학년도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상담활동에 참여한 객원 상담원은 <표 2>,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강사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1> 진로심리상담센터 구성원

직 위	성명	경력 및 자격
센터장	김○희	· 현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교수
팀장	박○현	· 현장실습센터 팀장, 인권센터 행정실장 겸직
전임상담원	하○경	· 전문상담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 한상담 수련감독전문가 · 교류분석상담사 1급 · 진로코칭전문가 1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임상미술심리상담사 1급
전임상담원	김○아	· 전문상담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 한상담전문가 2급 · 교류분석상담사 1급 · 진로코칭전문가 1급
전임상담원	이○림	· 청소년 상담사 2급
전임상담원	강○주	· 상담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사무원	엄○은	· 현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사무원

<표 2> 진로심리상담센터 객원상담원

성명	관련 자격	프로그램
곽○숙	전문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통합예술심리치료사 1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박○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전문상담사 2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이○정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이○영	전문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장○문	가족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전○민	전문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최○미	전문상담사 2급 아미고 부부상담사 2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최○희	청소년상담사 2급	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진로상담, 야간상담

<표 3>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강사

성명	관련 자격 및 소속	프로그램
강○란	전문상담사 1급 영화심리상담사 1급 사진심리상담사 1급	찾아가는 상담교육, 찾아가는 심리검사, 집단상담
곽○숙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이사 및 강사	찾아가는 상담교육, 찾아가는 심리검사, 집단상담
김○한	울산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자살예방교육 또래지킴이 양성교육
김○연	울산중구 중독관리통합센터 직원	센터 특화 상담교육(도박중독 예방교육)
남○정	청소년상담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동아리 상담교육(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자기소개서 특강)
문○현	지혜학당 봄 대표 청소년지도사 2급 인터넷중독전문상담가	찾아가는 상담교육(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센터특화 상담교육(나의 선택을 돕는 시선과 문장들), 집단상담
박○현	부산울산 도박문제예방센터 강사	동아리 상담교육(도박중독 예방교육)
박○주	전문상담사 2급	찾아가는 상담교육(시간 관리 프로그램)
박○경	울산여성의 전화 강사	동아리 상담교육(성폭력예방교육)
송○주	범죄심리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찾아가는 상담교육(의사소통 향상), 찾아가는 심리검사
신○민	행복나무상담연구소 소장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외국인 학생을 위한 MBTI 집단상담)

양○미	울산 여성의 전화 강사	동아리 상담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엄○이	도이캔들하우스 대표	센터 특화 상담교육(힐링학원-캔들)
유○화	울산여성의 전화 강사	센터 특화 상담교육(폭력예방교육)
유○리	울산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원	센터 특화 상담교육(우울한 관리)
윤○리	칠곡경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심리검사실 임상심리사	동아리 상담교육(임상심리사 멘토 특강)
윤○주	울산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나우심리상담연구소 소장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부적격자 재교육
이○미	울산중구 중독관리통합센터 센터장	센터 특화 상담교육(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이○희	온유학습진로심리상담소 대표	찾아가는 상담교육(진로특강, 시간 관리, 의사소통 향상), 찾아가는 심리검사
이○정	대구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겸임교수	찾아가는 상담교육(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이○녕	현대중공업 상담원	찾아가는 심리검사, MBTI 활용 자기이해, 타인이해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동아리원 대상), 집단상담
정○실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정○주	행복나무 대표 원예치료사 긍정심리 강점전문가	(어버이날 맞이) 꽃으로 마음 전하기
지○자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최○현	울산스마트쉼센터 소장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최○미	마음숲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센터 특화 상담교육(의사소통 향상)
최○영	원예치료사 교류분석상담사	센터 특화 상담교육(나의 강점을 찾아라), 편입생 지원 프로그램
허○빈	육군 제1288부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동아리 상담교육(청소년상담사 멘토 특강)

4. 진로심리상담센터 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울산지역대학 상담센터협의회, 학생참여위원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위원회

구분	주요 업무	구성	비고
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심의 · 사업 계획 및 운영 · 내규 개정 · 전문분야별 또는 영역별 학생 상담 · 학생에 대한 연구 수행 · 대학 상담 정책 	진로심리상담센터장, 교무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부처장, 취업지원부처장, 지정위원 2명, 기타 전임교원 5명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등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정책 확산
자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심리상담센터 자문 · 사업 계획 및 운영 · 협력 방안 토의 · 지역사회 연계 및 위기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방안 토의 	진로심리상담센터장 및 외부 자문위원 9명	변호사, 회계사, 경찰 등 외부 전문가 9명 위촉
울산 지역 대학 상담 센터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 학생상담 관련 신규 사업 및 사업 공유 · 고위험군 사례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 지역사회 연계 가능 프로그램 논의 · 각 기관별 대면/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소개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UNIST 헬스케어센터, 울산과학대학 학생상담센터,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해보건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울산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생 참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개진 · 수혜자 중심의 진로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 제시 · 학생참여위원회 요청 진로 및 상담관련 프로그램 개설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10명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단과 대학 부회장

나. 위원회 회의 개최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주요 사항 발생 시,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2학년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는 <표 5>와 같다.

<표 5> 운영위원회 회의

위원회		일정	참여인원
운영위원회	1차 회의	4. 15.(금) 14:00 ~ 15:00	위원 7명 및 진로심리상담센터 직원 4명
	2차 회의	10. 17.(월) 14:00 ~ 15:00	위원 7명 및 진로심리상담센터 직원 5명
자문위원회		7. 6.(수) 11:00 ~ 13:00	위원 5명 및 진로심리상담센터 직원 5명
울산지역대학 상담센터 협의회		5. 9.(월) 14:00 ~ 15:30	위원 6명, 타기관 직원 1명, 진로심리상담센터 직원 4명
학생참여위원회		5. 2.(월) 12:00 ~ 13:00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명, 센터 직원 1명
		6. 30.(목) 12:00 ~ 14:00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5명, 센터 직원 2명
		11. 7.(월) 12:00 ~ 13:00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4명, 센터 직원 5명
		12. 15.(목) 12:00 ~ 13:00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4명, 센터 직원 4명

5. 진로심리상담센터 주간 회의

가. 일정

매주 수요일 10:00~11:00 또는 16:00~17:00

나. 내용

센터 업무 진행 현황 보고 및 업무 협업

6. 교내 협업 및 부서 간담회

울산대학교 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표 6> 진로심리상담센터 간담회

번호	일시	제목	내용	참여 인원
1	7. 8.(금) 9:00 ~ 11:30	학생지원처 워크샵	상담프로그램 체험(MBTI를 통한 자기이해)	학생지원처장의 33명/ 진로심리상담센터 하○경(강사)
2	8. 31.(수) 13:00 ~ 16:00	학술정보운영팀 하계세미나	MBTI와 Pitr를 활용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	학술정보운영팀 11명/ 진로심리상담센터 하○경(강사)
3	2023. 2. 1.(수) 11:00 ~ 12:00	학과조교간담회	사업 소개 및 관련 사업 논의	조교 29명/ 직원 7명
4	2023. 2. 13.(월) 11:00 ~ 13:00	현장실습센터와 의 간담회	센터 연계 사업 논의	현장실습센터 3명/ 진로심리상담센터 5명

7. 상담사례 연구모임

가. 목적 및 필요성

상담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담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슈퍼비전 진행

나. 운영 개요

상담사례 연구모임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사례 공유를 통한 정보 교류와 상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자율적인 슈퍼비전 형식으로 진행

- 1) 대상 : 진로심리상담센터장, 박사급·석사급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등
- 2) 내용 : 연 8회, 상담사례 2사례 이상 공유
- 3) 일정 : 2022. 4. ~ 2023. 1. (월 1회 이내, 2시간)

다. 정성적 실적

2022년도 실적은 총 8회 진행에 37사례, 57명의 상담원이 참여함. 참여 방법도 대면과 비대면을 활성화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표 7> 상담사례 연구모임 실적

회차	일시	사례	참석자	방법
1	4. 22.(금) 11:00 ~ 12:00	5사례	심○정 외 3명	대면
2	5. 20.(금) 11:00 ~ 12:00	4사례	하○경 외 3명	대면
3	6. 24.(금) 11:00 ~ 13:00	4사례	하○경 외 6명	대면
4	7. 13.(수) 11:00 ~ 13:00	3사례	김○희 외 5명	대면
5	8. 23.(화) 11:00 ~ 13:00	5사례	하○경 외 11명	대면, 비대면(동시진행)
6	10. 12.(수) 11:00 ~ 13:00	7사례	하○경 외 10명	대면
7	11. 16.(수) 11:00 ~ 13:00	5사례	하○경 외 7명	대면
8	2023. 1. 18.(수) 11:00 ~ 13:00	4사례	하○경 외 4명	대면
합계	8회	37사례	57명	

라. 정량적 실적

〈표 8〉 상담사례 연구모임 만족도

회차	일시	만족도 점수(5점)	주관적 평가
1	4. 22.(금) 11:00~12:00	4.90	•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음
2	5. 20.(금) 11:00~12:00	4.80	• 사례를 보는 관점과 내담자에 대한 애정을 배울 수 있었음 • 사례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3	6. 24.(금) 11:00~13:00	5.00	•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연계 가능한 곳과 접근 방법이 도움 되었음
4	7. 13.(수) 11:00~13:00	4.92	• 한 사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음
5	8. 23.(화) 11:00~13:00	4.76	• 전반적 상담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음
6	10. 12.(수) 11:00~13:00	4.98	• 사례 나눔을 통해 사례에 대한 역량 강화 시간이 되었음
7	11. 16.(수) 11:00~13:00	4.98	• 사례를 나누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스트레스 검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됨.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음
8	23. 1. 18.(수) 11:00~13:00	4.96	• 위기사례 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처를 논의할 수 있어 좋았음
평균		4.91	

마.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에 상담사례 연구모임은 계획대로 8회 모두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37사례를 공유하였고, 57명의 상담원이 참석하였다. 만족도는 평균 4.91로 상담사례 연구모임을 통해 상담자 역량이나 정보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자 역량 증진 및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 상담사례 연구모임이 필요하다.

II.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심리검사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상담과 심리검사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이다. 신청, 개인상담, 야간상담, 심리검사, 단체심리검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신청

신청 및 접수상담은 내담자와의 첫 만남으로 전화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나 호소문제 파악을 위한 초기면접이다. <표 9>에 신청 및 접수상담의 월별, 학기별 회기가 나타나 있다. 총 이용학생은 375명이다.

<표 9> 접수상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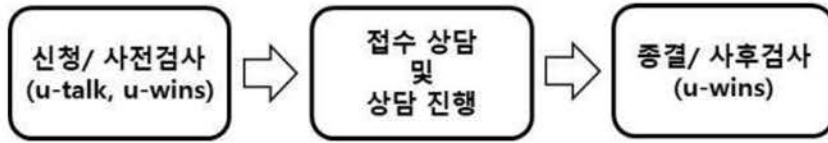
학기	1학기						2학기						합계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이용자 수	62	27	60	17	23	24	41	14	46	29	21	11	375명
합계	213명						162명						

2.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u-talk을 통해 개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심리검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개인상담의 빈도에는 신청 및 접수상담이 포함되며, 1인당 주1회, 50분 상담 10회기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회기수는 내담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실시된 개인상담의 총 회기는 2,107회이다. 월별 회기는 <표 10>과 같다.

가. 진행절차

- 1) u-talk, u-wins 등 학교포털을 이용한 상담신청
- 2) 상담자 배정
- 3) 배정 후 접수상담부터 진행



<그림 5> 개인상담 진행 과정

나. 정량적 실적

<표 10> 개인상담 실적(접수상담 포함)

학기	1학기						2학기						합계
	3	4	5	6	7	8	9	10	11	12	1	2	
이용 자수	74	54	123	89	95	95	119	87	139	118	86	48	1,127
총 건수	76	93	217	180	200	196	217	186	254	222	193	73	2,107
합계	530명(962건)						597명(1,145건)						

다. 정성적 실적

<표 11> 개인상담 만족도

문항 (10점 만점)	사전 평균 만족도	사후 평균 만족도	비고
1. 당신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5.97	7.34	▲1.37
2. 당신은 요즘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19	7.30	▲1.11
3. 당신은 요즘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5.59	5.76	▲0.17
4. 당신은 요즘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5.20	4.17	▼1.03
5. 당신은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52	7.35	▲1.83
6. 요즘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적입니까?	5.79	7.78	▲1.99
7.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점, 개선점 등 의견을 자유롭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번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 같았고, 내가 잘 몰랐던 나를 알게 돼서 좋았다. • 내가 겪은 일에 대해 털어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선이 있어서 좋았다. 			

- 삶의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 불안이 심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제 불안의 원인을 찾고 해소하게 해주셔서 상담받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두서없이 말해도 제가 하려는 말을 잘 정리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 나의 고민에 대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다양한 시선으로 고민을 바라보게 해주었다.
- 근심 걱정 의 원인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각 요소에 대한 양면성을 알 수 있었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못했던 이야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개선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보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만큼 학교 사이트에서 조금 더 간편한 절차로 상담 신청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역체점 문항

라. 평가 및 환류

개인상담은 학생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150.27%)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 상담센터에서 진로심리상담센터로 명칭이 바뀌므로 학생들이 상담센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COVID-19로 인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객원상담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개인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3. 야간상담

야간상담은 울산대학교 학생포털 사이트 U-WI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개인상담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운영 시간이 학생들의이 학교 강의가 끝난 18시~21시까지 이루어지며, 객원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야간상담의 호소문제는 다양하다. 전년도 2021년 7월부터 야간상담이 시작되었으며, 2022학년도에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용 현황은 <표 12>와 같다. 객원상담원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야간상담은 1월까지 운영하였다.

<표 12> 야간상담 실적

학기	1학기						2학기						합계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접수 상담	-	-	11	5	4	5	4	2	3	1	2	-	37
개인 상담	1	1	11	27	39	38	36	37	33	21	27	-	271
합계	1	1	22	32	43	43	40	39	36	22	29	-	308
	142건						166건						

4. 심리검사

가. 개인심리검사

개인심리검사는 학생 개인이 심리검사를 원하는 경우, 학생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검사를 실시한 후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1) 목적 및 필요성

- (1)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자기 탐색과 이해
- (2) 개인의 성격 특징과 기질을 파악하여 자신감과 행복감 증진
- (3) 자아탐색을 바탕으로 원활한 진로설정 지원

2)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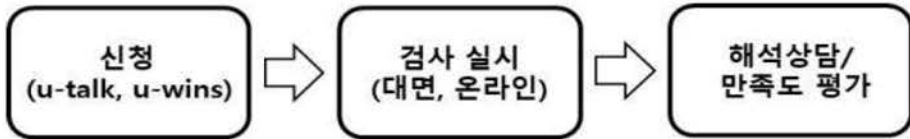
- (1)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 (2) 내용 :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상담 실시
- (3) 검사종류

성격	MMPI-II 다면적 인성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등
진로	Holland 직업적성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U&I 진로종합검사
투사검사	HTP, KFD, BGT, SCT
기타	KIIP 한국형 대인관계검사, IESS 스트레스 검사, CST 성격강점검사 등

- (4) 운영 장소 : 22호관(학생회관) 313호 및 316호 개인상담실

(5) 운영 절차

- ① u-talk, u-wins 등 학교포털을 이용한 상담신청
- ② 신청한 일정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리검사 실시
- ③ 검사 실시 후, 예약하고 해석상담 실시



<그림 6> 개인심리검사 진행 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13> 개인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실적

학기		1학기						2학기						합계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심리 검사	이용 지수	54	46	100	47	29	39	38	61	82	39	44	26	605
	총 건수	87	83	160	95	61	81	77	113	131	70	81	42	1,081
합계		315명(567건)						290명(514건)						
해석 상담	이용 지수	15	32	50	23	8	17	21	33	65	17	16	16	313
	총 건수	23	52	121	37	12	37	36	54	91	34	37	32	566
합계		145명(282건)						168명(284건)						

4) 정성적 실적

<표 14> 개인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만족도

문항 (10점)	평균 만족도
1. 본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9.46
2. 진행시간은 적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9.47
3. 상담사는 심리검사 해석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9.77
4. 상담사의 진행방식은 만족하였습니까?	9.72
5. 심리검사 해석상담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점, 개선점 등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말 유익했던 시간여서 스스로 개선할 점을 찾았습니다. 통합적으로 파악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몰랐던 나의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내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 나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진로,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값진 해석상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직무선택에 있어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사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어느 정도 나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검사결과에 대해 쉽게 해석해주셔서 저 자신에 대해 알았습니다. 친절한 해석 감사합니다.
- 내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발전시켜야 할지 알게 되어 좋았다.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적성이 맞는지 확인하여 유익하였다.
-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너에 대해 다시 확립해야 하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5) 평가 및 환류

개인심리검사는 전년도에 비해 검사를 실시한 학생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심리검사의 경우 학생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가시적 결과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심리검사 만족도 평가 평균이 9.61점(10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서술평가에서는 자신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성격 이해 및 진로 고민 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심리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가 충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심리검사 DAY

심리검사 DAY는 비슷한 관심의 주제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집단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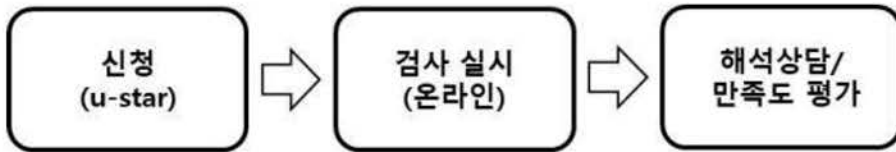
1) 목적 및 필요성

- (1) 심리·진로·취업 등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선제적 상담 조치
- (2) 다양한 심리검사 제공 및 전문 해석상담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 (3)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 제공 상담서비스 홍보

2) 운영 개요 : 단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1) 운영 기간 : 2022. 8 ~ 2022. 12

- (2) 심리검사 : MBTI, Holland
- (3) 강사 : 객원상담원
- (4) 실시 장소 : 22호관 403호
- (5) 운영 절차
 - a. 비교과 사이트 U-star를 통해 희망하는 심리검사 DAY 일정 신청
 - b. 온라인 코드 발송을 통한 심리검사 실시
 - c. 심리검사 DAY 일정에 맞춰 단체 해석상담 실시



<그림 7> 심리검사 DAY 진행 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15> 심리검사 DAY 참여 인원

검사명	참여 인원		운영 건수
	실시	해석	
MBTI	43	33	3
Holland	28	20	2
합 계	71	53	5

4) 정성적 실적(만족도)

<표 16> 심리검사 DAY 만족도

학기	만족도 (5점 만점)	주관적 평가
1학기 (하계방학)	4.6	<Holland> · 강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워 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더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더 개발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학기	4.72	<MBTI> · 나와 같이 참여한 친구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일단 제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균	4.66	

5)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에는 심리검사 DAY를 하계방학과 2학기에만 운영하였다. 2023학년도에는 학기 중 정기적 운영을 통해 개인심리검사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심리검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BTI, Holland 외에도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6) 활동사진



다. 찾아가는 심리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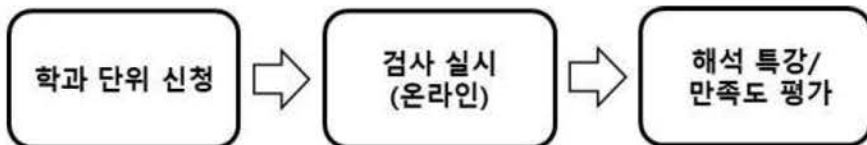
찾아가는 심리검사는 학과 단위로 이루어지는 단체 심리검사로 비슷한 관심의 주제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집단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1) 목적 및 필요성

- (1) 심리·진로·취업 등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선제적 상담 조치
- (2) 학생들의 자기 탐색 및 개인 역량 강화
- (3)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 제공 상담 서비스 홍보

2)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 전문상담사가 학과로 찾아가 심리검사 해석특강 제공
- (2) 심리검사 : CST, Holland, MBTI, MLST-II, MMPI-2
- (3) 진행 기간 : 2022. 03. ~ 2023. 1. (동계 계절학기까지 운영)
- (4) 대상 : 울산대학교 전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
- (5) 운영 절차
 - a. 단체심리검사를 희망하는 학과로부터 신청서 접수
 - b. 프로그램 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하여 학과로 확정 일자 안내
 - c. 온라인 코드 발송을 통한 심리검사 실시
 - d. 전문상담사가 찾아가서 심리검사 해석특강 실시



<그림 8> 찾아가는 심리검사 진행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17> 찾아가는 심리검사 교과 연계 및 학과 신청 참여 인원

구분	검사명	참여 인원(명)		합계	비고
		1학기	2학기		
교과 연계	CST	1,465(2건)	1,452(2건)	2,917(4건)	교양대학
	Holland	1,163(1건)	532(1건)	1,695(2건)	취업지원팀
	소계	2,628(3건)	1,984(3건)	4,612(6건)	
학과 신청	Holland, MBTI, MLST-II, MMPI-2	768(29건)*	519(20건)*	1,287(49건)	
합 계		3,396(32건)	2,503(23건)	5,899(55건)	

※ 심리검사 실시 인원을 기준으로 함

4) 정성적 실적(만족도)

<표 18> 찾아가는 심리검사 만족도

학 기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학 기	4.76	<p><Holl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서 방황하고 오히려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정보를 공유 받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전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이러한 진로적성 검사를 접할 기회도 관심도 없었으나 이번 기회에 내 적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2 학 기	4.82	
평 균	4.79	<p><MB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의 성격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MBTI검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보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나의 강점을 강화하고 또 약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MLST-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의 장·단점 파악과 보강할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학습유형, 시간 관리 방법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

		<p>다.</p> <p><MMPI-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 상태가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 이론으로만 들었던 검사를 실제로 해봄으로써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	---

5)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 찾아가는 심리검사 연간 참여 인원은 교과 연계 4,612명, 학과 신청 1,287명으로 총 5,899명이다. 이처럼 높은 실적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은 타 부서(교양 대학 및 취업지원팀)와의 협력,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수요, 심리검사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평균 4.79의 높은 객관적 만족도 점수와 주관식 만족도 응답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의가 확인된다.

6) 활동사진



Ⅲ. 집단 프로그램

1.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비교과 사이트를 통해 집단원을 모집하거나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집단을 개설하여, 모집된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학년도에는 11건의 집단상담이 운영되었으며, 총 229명이 참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여 건강한 대학생활 지원
- 2) 동작, 미술,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 이 및 성장
- 3) 자신의 고민에 대한 보편성 경험 및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 공유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집단별 상이
- 2) 진행 기간: 2022. 5. ~ 2022. 12.
- 3) 대상: 울산대학교 재학생
- 4) 신청: u-star 사이트를 통한 개별 신청

다. 정량적 실적

<표 19>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적

학기	프로그램명	강사	회기	인원(명)
1 학기	나를 찾아가는 시네마 TALK	강○란	3	12
	(MBTI 활용)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이○녕	3	15
	몸 마음 힐링	곽○숙	3	12
	제이의 마음앨범	문○현	3	12
하계 방학	제이의 마음앨범	문○현	4	20

	몸 마음 힐링	곽○숙	4	19
2 학 기	오픈형 놀이마당	김○아	7	45
	기숙사 맞춤형 관계향상 집단상담	강○주	2	12
	자기돌봄 집단상담	하○경	8	46
	예술대학 맞춤형 집단상담 타로 Therapy	고○희	2	18
	불안조절 집단상담	이○정 곽○숙	4	18
합계			43	229

라. 정성적 실적 (만족도)

<표 20> 집단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학 기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학 기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내에 마련되어 있어 참 좋다. • 몸을 움직이다보니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 성인이 된 시점에서 동화책을 다시 보며 어릴 때는 보지 못했던 작가의 의도나 디자인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다양한 시각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하 계 방 학	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나 프로그램 기획에 맞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타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룸메이트와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나에 대해 내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주변 사람 눈에는 보이는구나 싶어서 신기했다. 낯선 것에 두려움이 많아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안 했었는데, 오늘 해보니 즐거웠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놀랐다. 보람찬 시간이었다.
2 학 기	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내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답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 더욱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내 겨울 같던 감정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껏 가벼워진 느낌이다.
평	4.97	

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에는 일에만 쫓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신을 좀 차리고 나에게 대해 생각하게 됐다. 불안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제 불안이 줄었으니 차분하게 내 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듯. 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아서 자신을 돌보면서 정리해봐야 할 것 같다. 끝나서 아쉽기도, 흥분하기도 하다.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다보니 저절로 시야가 넓어진 느낌을 받았다. · 평소에 저는 불안감이 높아서 심리치료를 받으려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안이라는 정의를 알아보고, 불안을 다루기 위한 요가 및 명상 등을 통해 불안이 조금 가라앉고, 불안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마.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간 운영 결과는 총 11개의 집단이 43회기 운영되었으며, 22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97점(1학기 5.00점, 하계방학 4.95점, 2학기 4.97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만족도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이해를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과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객관식 만족도 점수 및 다양한 주관식 만족도 응답을 통해 프로그램의 운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추후에도 학생들의 자기 이해 및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바. 활동사진



집단상담

2. 상담교육

상담교육은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예방교육과 주제에 따라 큰 단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상담교육은 찾아가는 상담교육, 센터 특화 상담교육, 비대면 상담교육, 온마인드 동아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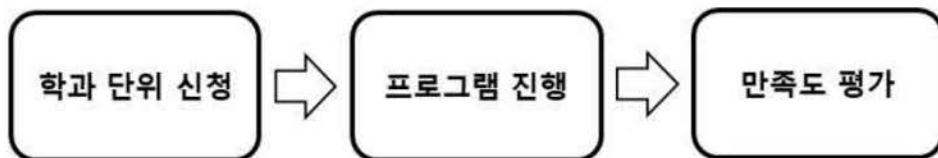
가. 찾아가는 상담교육

1) 목적 및 필요성

- (1)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비교과 핵심역량 개발
- (2)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건전한 대학문화 형성에 기여

2) 운영 개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과단위로 신청을 받은 후 교과 연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과단위 신청은 교수 주도하에 진행되며,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였다. 진행과정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찾아가는 상담교육 진행 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21> 찾아가는 상담교육 실적

학기	프로그램명	참여 학과	참여 인원	합계
1학기	시간 관리 프로그램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수학과, 기계공학과	123명(4건)	849명 (27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건축공학과, 전기공학부, 간호학과, 경찰학과	172명(4건)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스페인어학과, 화학공학과, 아동가정복지학과(2), 군사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290명(8건)	
	진로특강 프로그램	음악학과, 경영정보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부(4), 첨단소재공학부(2), 아동가정복지학과, IT 융합학부	264명(11건)	
2학기	시간 관리 프로그램	아동가정복지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108명(3건)	305명(12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화학공학부, 수학과, 경영학부	97명(3건)	
	진로특강 프로그램	의류학과, 음악학부, 경영학부, 주거환경학, 시각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100명(6건)	
합계			1,154명 (39건)	

4) 정성적 실적

<표 22> 찾아가는 상담교육 만족도

학기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학기	시간 관리 프로그램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대학 시간 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4.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는 좋은 영향이 된 것 같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진로특강 프로그램	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 대해 더 탐색하

			고 싶다. •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인 기간까지 정해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평균	4.81	
2 학 기	시간 관리 프로그램	4.63	• 블록식스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계획을 짜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4.80	•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과 나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진로특강 프로그램	4.74	• 일단 내 자신에 대한 강점을서 더욱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는 부분들을 더 알게 되어 진로를 꿈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평균	4.72	

5)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시간관리 프로그램 108명(3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97명(3건), 진로특강 프로그램 100명(6건)으로 총 305명(12건)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1학과 2학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학기에는 1학기에 비해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이용해보신 교수님께서 다음 학기에도 신청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2학기에는 다양한 주제(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패턴, 정신건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활동사진

		
<p>시간 관리 프로그램</p>	<p>시간 관리 프로그램</p>	<p>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p>
		
<p>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p>	<p>진로특강 프로그램</p>	<p>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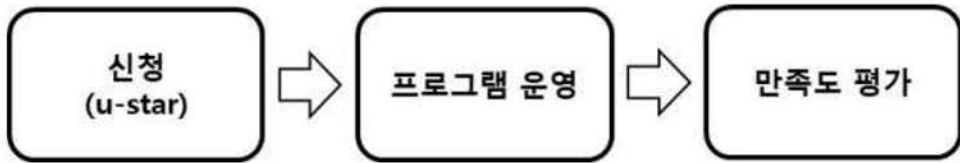
나. 센터 특화 상담교육

1) 목적 및 필요성

- (1) 심리·진로·취업 등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선제적 상담 조치
- (2) 다양한 주제의 상담교육을 통해 자기 이해 및 타인 이해를 돕고,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을

2) 운영 개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u-star에 모집공고를 게시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였으며, 진행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센터 특화 상담교육 진행 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23> 센터 특화 상담교육 실적

학기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	합계
1 학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9명(1건)	128명 (8건)
	정신건강 프로그램(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대면	59명(1건)	
	정신건강 프로그램(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LMS	19명(1건)	
	건강한 삶을 위한 우울 관리	5명(1건)	
	팜(몸, 마음) 힐링 프로그램	3명(1건)	
	원예치료 프로그램	19명(1건)	
	학참위 대상-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9명(1건)	
2 학기	학생 맞춤형-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5명(1건)	3,545 명 (19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대면	12명(2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비대면	3,382명(1건)	

폭력예방교육	27명(2건)
중독예방교육 - 대면	16명(2건)
중독예방교육 - 비대면	14명(1건)
힐링학원	82명(9건)
인문학으로 만나는 세상-나의 선택을 돕는 시선과 문장들	12명(2건)
합계	3,673명(27건)

4) 정성적 실적

<표 24> 센터 특화 상담교육 만족도

학기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학 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4.85	•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대처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대면	4.87	• 주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정신건강 프로그램(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LMS	4.00	• 교육을 통해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배웠다. 또한, 나의 입장이 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도 알게 되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우울 관리	4.77	• 마음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똘(몸, 마음) 힐링 프로그램	5.00	•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4.84	• 엄마·아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꽃으로 테라피 하면서 즐거웠다.
	학참위 대상-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5.00	• 나 스스로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학생 맞춤형-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5.00	• 성격의 보완할 점에 대하여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균		4.79

2 학 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 대면	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하고 싶은 친구나 근처 지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자살생각을 질문하는 게 자살을 유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 비대면	-	-
	폭력예방교육	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데이트 폭력의 범위가 넓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독예방교육 - 대면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건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접근해선 안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에서 도박중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선 안 되는 행동, 대처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독예방교육 - 비대면	-	-
	힐링학원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하는 고민이 특별한 것이 아닌 누구나 다 함께 겪는 일반적인 과정이라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언젠가 빛날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인문학으로 만나는 세상- 나의 선택을 돕는 시선과 문장들	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에게, 자신의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살아갈지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균	4.90		

5) 성과 및 환류

센터특화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중독예방교육 등 예방교육과 우울 관리, 의사소통, 원예치료, 힐링학원, 인문학으로 만나는 세상 등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자살예방교육은 UCLASS에 업로드 하여 필수교육으로 듣도록 하였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지만 필수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아 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힐링학원 프로그램은 스

트레스 해소를 돕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1인당 소요되는 재료가 높아 전체 힐링학원 9회 중 1회만 참석할 수 있게 제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6) 활동사진

		
자살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중독예방교육
		
힐링학원-플라워	힐링학원-양초	힐링학원-드림캐처
		
인문학 특강	우울 관리 프로그램	팜힐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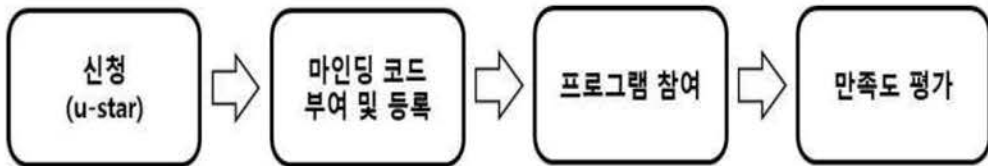
다. 비대면 상담교육

1) 목적 및 필요성

- (1) 상담센터의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2) 증가하는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수요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운영
- (3) 개인상담 외의 지속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상담 종결 후 추후 관리를 도움

2) 운영 개요

학생들에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star에 모집공고를 게시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은 내 손안의 마음관리 마인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존감 마인딩, 감정 마인딩, 행복마인딩 중 하나를 택하여 한 달간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수행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인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비대면 상담교육 진행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비대면 상담교육 진행 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25> 비대면 상담교육 실적

마인딩	학생수	평균 수행률	비고
1학기	85명	53.25%	100명 모집 / 85명 신청
2학기	100명	67%	115명 모집 / 100명 신청

4) 정성적 실적

<표 26> 비대면 상담교육 만족도

마인딩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학기	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마인딩 행복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 ‘자존감 마인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깨달은 점은 자존감을 기르는 데는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었다. 완전히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나를 챙겨야 하는 지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매일의 시간에 따른 사건과 그에 대한 감정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서 하루의 기분 변화를 봄으로써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파악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솔직히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멘토의 피드백이 복사 붙여넣기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 앱 속 배정된 상담사님이 가끔 너무 형식적인 말들만 해주실 때가 있다.
2학기	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알아보기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 보고서'를 통해 4주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았을 때 자기 혐오도 많이 줄었고 어떤 일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타인이 아닌 '나'에게 먼저 생각을 물어보게 되는 점 등 작지만 변화하였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트레이너님의 사소한 일상을 공유해주셔서 심심한 위로도 해주셔서 마음이 한층 좋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 비교적 가볍게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까 부담감도 덜 했고, 좋았습니다. ·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1대 1로 상담선생님이 정해져서 좋았고, 일주일에 3번 피드백을 주는데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아서 좋았다.

5) 성과 및 환류

비대면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총 182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참여하였다. 많은 학생의 참여로 인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심리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하지만 수행률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지속적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소수 학생들에게서는 두드러진 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나, 평균 수행률이 70%가 넘지 않아 비용대비 효과성은 높지 않다. 또한, 코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나 2023학년도에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마인딩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온 마인드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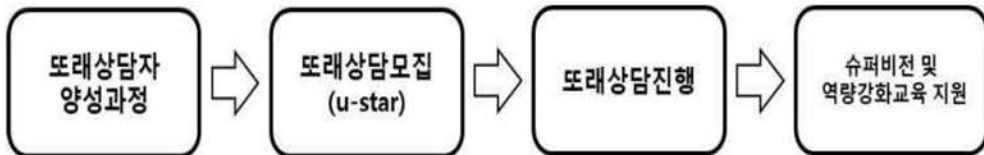
가. 포레상담

1) 목적 및 필요성

심리·상담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경험을 제공하고, 포레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

2)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포레상담자 양성과정, 포레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포레상담 실시, 포레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등
- (2) 진행 기간: 2022. 3. ~ 2023. 2.
- (3) 진행 과정: 포레상담자 양성과정을 통해 포레상담자를 양성한 후 수료한 학생들이 멘토로 포레상담을 진행. 포레상담을 진행하면서 슈퍼비전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림 12> 포레상담 진행 과정

3) 정량적 실적

<표 27> 포레상담 실적

학기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합계
1 학 기	포레상담자 양성교육	7. 20.(수) ~ 7. 29.(금)	23명(1건)	103 명 (7건)
	포레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3. 12.(토) ~ 6. 30.(목)	33명(4건)	
	포레상담	4.27.(수) ~ 6. 30.(목)	36명(1건)	
	포레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5. 27.(금) ~ 6. 3.(금)	11명(1건)	

2 학 기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2023. 1. 10.(화) ~ 23. 1. 13.(금)	37명(1건)	120 명 (8건)
	또래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10. 7.(금) ~ 23. 1. 2.(월)	31명(3건)	
	또래상담	10. 26.(수) ~ 12. 30.(금)	40명(1건)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11. 10.(목) ~ 11. 14.(월)	12명(3건)	
합계			223명(15건)	

4) 정성적 실적

<표 28> 또래상담 만족도

학기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학 기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교육을 고등학교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데, TMI나 BTS, 원더풀 같은 상담기법이 풍부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래상담에 맞게 상담주제들이 우리 또래에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들이라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로 역할을 나누어 사례 실습을 하는 동안 더욱 공감이 잘 되고 집중도가 높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기법들 중 TMI, BTS, 원더풀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이 기법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었지만, 같은 또래라 그런지 큰 부담감은 사라지고 편하게 실습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래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5.00	
	또래상담	4.09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4.97	
	평균	4.76	
2 학 기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또래상담을 통해 막연히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 아닌, 공감해주고 다양한 상담기법을 통해 더욱 수월히 상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상담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내용, 몰랐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되어서 설레고 기뻐고, 나중에 또래상담을 할 때도 유용하게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여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또래상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또래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	
	또래상담	4.87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5.00	

		도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워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평균	4.92	

5)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 또래상담 실적은 총 223명이 참여하여 전년(43명)대비 518% 증가하였다. 이는 2022학년도의 대면 전환으로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래상담자 활동의 확대 운영과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의 신규 운영이 실적 상승의 요인으로 보인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또래상담 활동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활동사진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역량강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또래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또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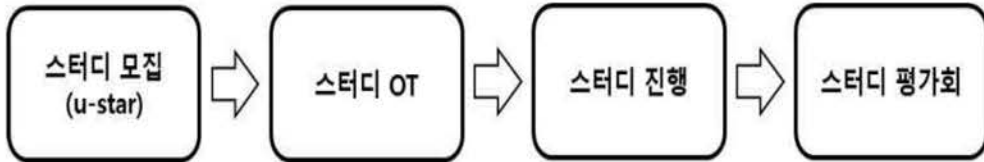
나.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1) 목적 및 필요성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교육 지원

2)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응시반,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대비반, 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스터디,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멘토 특강
- (2) 진행 기간: 2022. 7. ~ 2022. 12.
- (3) 진행 과정: 스터디원 모집 후 OT를 진행하고 스터디 활동 후에는 평가회 진행



<그림 13>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과정

3) 정량적 평가

<표 29>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1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스터디 응시반과 스터디 대비반으로 나누어서 37회 운영)	7. ~ 12. 매주 2시간	111명(1건)
2	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스터디(16회 운영)	7. ~ 12. 매주 2시간	37명(1건)
3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OT 및 평가회	7. 13.(수) ~ 12. 23.(금)	16명(4건)
4	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스터디 OT 및 평가회	7. 14.(목) ~ 12. 27.(화)	9명(3건)
합계			173명(9건)

4) 정성적 평가

<표 30> 동아리 상담 진로 지원 만족도

주관식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혼자 준비했으면 미루고 미루다가 벼락치기로 급박하게 준비했을 거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매주 해야 하는 스터디 숙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측정 및 평가 과목이 너무 어려웠는데 스터디원분께서 암기법이라든가 중요한 요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를 담당해주신 선생님께서도 졸업생인데도 스터디에 넣어 주시고 매번 시험에 필요한 쓸쓸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시험 전에 합격 기원 선물도 주시는 등, 거의 반 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여러 교육들과 스터디를 통해 저의 생각들이 새롭게 바뀌고 정리되면서 조금씩 제품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를 통해 제가 상담자가 되었을 때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스터디에 참여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단순히 진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론을 통한 개인의 이해를 하고 사람을 대할 때의 자세, 또한 아예 새로운 방향이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진로의 폭을 넓혀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상담에 대한 이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론을 다 배우고 나니까, 시험 문제를 풀고 스터디원들과 오답풀이를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5) 성과 및 환류

상담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와 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스터디로 운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의 동아리원이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울산대학교 내에 심리학과, 상담학과의 부재함에도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진로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긍정적 성과를 토대로 2023학년도에도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터디 분반 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방식의 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6) 활동사진

		
<p>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응시반</p>	<p>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대비반</p>	<p>상담심리대학원 진학 스터디</p>
		
<p>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스터디 OT</p>	<p>상담심리 대학원 진학 스터디 평가회</p>	<p>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평가회</p>

다. 동아리 상담교육

1) 목적 및 필요성

상담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자기 성장을 도와 학교 적응력을 향상

2)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의사소통 향상 교육, 예방교육, 멘토 특강,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
- (2) 진행 기간: 2022. 4. ~ 2023. 2.
- (3) 진행 과정: 동아리 학생들의 수요와 일정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개설

3) 정량적 평가

<표 31> 동아리 상담교육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1	심리검사 활용 교육 (MBTI, HOLLAND)	4. 30.(토) / 8. 31.(수)	21명(2건)
2	예방교육	8. 1.(월) ~ 8. 22.(월)	33명(4건)
3	힐링 프로그램	5. 20.(금) / 23. 1. 17.(화)	16명(2건)
4	멘토 특강	9. 14.(수) / 12. 23.(금)	36명(3건)
합계			106명(11건)

4) 정성적 평가

<표 32> 동아리 상담교육 만족도

번호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심리검사 활용 교육 (MBTI, HOLLAND)	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금 더 깨어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에 대한 법률 지식과 자신의 인식 등에

2	예방교육	4.99	<p>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었고 청소년 상담에 있어 진로를 확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임상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직업이라 직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강연을 듣게 되어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또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3	힐링 프로그램	4.98	
4	멘토 특강	4.88	
평균		4.94	

5) 성과 및 환류

동아리 상담교육은 심리·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교육과 집단상담을 제공하여 106명(11건)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중독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울산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였다. 추후에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활동사진

		
심리검사 활용교육_MBTI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생명지킴이

		
<p>멘토 특강</p>	<p>힐링 프로그램-원예치료</p>	<p>힐링 프로그램-반려인형</p>

라. 교내 상담 문화 활성화 사업

1) 목적 및 필요성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을 지원

2) 운영 개요

- (1) 운영내용: 동아리원 가두모집, 개강총회, 종강총회, 동아리 자체 프로그램 등
- (2) 진행 기간: 2022. 3. ~ 2022. 12.
- (3) 진행 과정: 동아리원의 대상으로 요구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 공지

3) 정량적 평가

<표 33> 교내 상담 문화 활성화 사업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비고
1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3. 16.(수) ~ 3. 22.(화)	12	자체 프로그램
2	기말고사 시험 응원 사업	6. 8.(수) ~ 6. 14.(화)	28	자체 프로그램
3	Let's MBTI	5. 13.(금) 14:00 ~ 16:00	9	자체 프로그램
4	어서와, 울산대는 처음이지? (편입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2.(목) 12:00 ~ 13:00	2	센터 지원 (동아리원 2명, 편입생 16명)
5	1학기 종강총회	6. 23.(목) 18:00 ~ 21:00	18	센터 지원
6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9. 5.(월) ~ 9. 14.(수)	36	자체 프로그램
7	동아리원 가두 모집	9. 7.(수) ~ 9. 8.(목) 11:00 ~ 18:00	42	센터 지원
8	2학기 개강총회	9. 13.(화) 17:00 ~ 21:00	43	센터 지원
9	마음약국 운영 지원	9. 20.(화) ~ 9. 21.(수) 10:00 ~ 13:00	16	센터 지원
10	마음약국 해시태그 이벤트	9. 20.(화) ~ 9.	38	센터 지원

		21.(수)		
11	마음약국 평가회	9. 26.(월) 17:00 ~ 18:00	10	센터 지원
12	4대 중독예방 캠페인 운영 지원	9. 29.(목) 10:00 ~ 15:00	3	센터 지원
13	천상고등학교 또래상담동 아리 기관 방문 멘토 활동	10. 19.(수) 12:00 ~ 14:00	1	천상고 14명 방문
14	보드게임 카페	11. 10.(목) 18:00 ~ 20:00	29	자체 프로그램
15	힐링 가사 공모전	11. 24.(목) ~ 12. 5.(목)	28	자체 프로그램
16	자체 소모임	11. 28.(월) ~ 12. 1.(목)	19	자체 프로그램
17	2학기 종강총회	12. 22.(목) 18:00 ~ 21:00	26	센터 지원
합계			360명(17건)	

4) 성과 및 환류

교내 상담 문화 활성화 사업은 동아리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은 360명(17건)이었다. 본 사업이 온마인드 동아리 프로그램 실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비중이 크기에 2023학년도에도 온마인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

5) 활동사진

		
<p>기말고사 시험 응원 사업</p>	<p>마음약국 해시태그 이벤트</p>	<p>동아리원 가두 모집</p>
		
<p>편입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p>	<p>마음약국 운영 지원</p>	<p>캠페인 운영 지원</p>
		
<p>개강총회</p>	<p>천상고 기관 방문</p>	<p>종강총회</p>

마. 동아리 공모전

1) 목적 및 필요성

공모전을 통한 동아리 활동 참여 독려 및 진로심리상담센터 활성화

2)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온마인드 동아리 로고 공모전,
온마인드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 (2) 진행 기간: 2022. 3. ~ 2023. 1.
- (3) 진행 과정: 공모전을 게시한 후 심사를 통해 당선작은 소정의 상품 지급

3) 정량적 평가

<표 34> 동아리 공모전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비고
1	로고 공모전	상시 접수/ 11. 27.(금) 발표	3	최우수상 1명
2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상시 접수/ 2023. 1. 27.(금) 발표	10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참가상 5명
합계			13명(2건)	

4) 성과 및 환류

공모전 운영은 온마인드 동아리의 1년간 사업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의 경우 진로심리상담센터 공모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획되어 2023학년도에는 진로심리상담센터 공모전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활동사진

		
<p>로고 공모전</p>	<p>로고 공모전</p>	<p>로고 공모전</p>

바. Annual Report 제작

1) 목적 및 필요성

온마인드 동아리 프로그램 우수사례 관리와 연간 활동 정리

2)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발간사, 동아리 소개,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후기, 참여한 사람들
- (2) 진행 기간: 2023. 1. ~ 2023. 2.
- (3) 진행 과정: 자료 수집 후 원고 작성, 편집 및 디자인을 통해 출판

3) 정량적 평가: 총 90부 발간

4) 성과 및 환류

온마인드 Annual Report는 90부 제작하여 2022학년도 연간 사업 요약, 활동 소감, 프로그램 사진들을 첨부하였다. Annual Report를 통해 온마인드 동아리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 제작한 Annual Report는 2023학년도 온마인드 동아리 가두 모집, 진로심리상담센터 아웃리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5) 사진



4.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외국인, 장애학생, 편입생, 교직 인성 및 적성 부적격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 목적 및 필요성

- 1) 교육배려자의 소속감 고취와 학교 적응력 향상을 통한 중도탈락 예방
- 2) 교육배려자 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
- 3) 교육배려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프로그램별 상이
- 2) 진행 기간: 2022. 6. ~ 2022. 12.
- 3) 대상: 울산대학교 교육배려자 학생

다. 정량적 실적

<표 35>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실적

학기	프로그램명	대상	강사	참여 인원(명)
1 학 기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재교육 (1차)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윤○주	7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재교육 (2차)		윤○주	7
	[편입생의 편안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어서와, 울산대는 처음이지?	편입생		18
2 학 기	SMS 안내 서비스	외국인	-	598
	MBTI 활용 관계 향상 집단상담 (1)		신○민	6
	MBTI 활용 관계 향상 집단상담 (2)		김○아	4
	My Career Story1		이○림	22

	My Career Story2		이○림 강○주	12
	SMS 안내 서비스	장애학생	-	11
	전화상담		이○림	5
	장애학생 요청 프로그램 (심리검사 해석상담)		하○경	1
	SMS 안내 서비스	편입생	-	600
	관계 이해 집단상담 [나, 너, 우리]		김○아	4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재교육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윤○주	4
	합계	-	-	1,299

라. 정성적 실적

<표 36> 교육배려자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번호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1학기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재교육 (2건)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성찰의 시간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나의 강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알게 되었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짐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조별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에 혼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을 더욱 받을 수 있었고,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다. 평소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새로운 친구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생각들이 그 전에 머릿속에만 생각해서 좀 혼란스러운데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다 정리해서 쓰는 것이 되게 도
2	1학기 편입생 프로그램 (1건)	4.97	
3	2학기 외국인 프로그램 (4건)	4.82	
4	2학기 편입생 프로그램 (1건)	4.57	
5	2학기 교직 인적성 및 적인성 검사	5.00	

	부적격자 재교육 (1건)	<p>움이 되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야할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 편입하여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른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평균		4.87

마. 성과 및 환류

2022학년도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18명으로 연간 목표(20명) 대비 90%를 달성하였다.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부적격자 프로그램은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양적 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2023학년도 연간 계획 수립 시 목표 실적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교직 인성 및 적성 재검사 결과의 적격 판정 비율을 성과로 평가한다면 프로그램 특성에 알맞은 목표 설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입생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타 학과 학생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일정을 정하고,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인원이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편입생들이 편입 후 성적을 관리하고, 졸업 학점을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23학년도 프로그램 운영 시 센터 방문이 부담스러운 편입생의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교육을 연계한다면 바쁜 일정에도 심리, 정서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유학생과 관계 형성을 희망하는 한국인 학생들도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었다. 2023학년도에는 통역,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교내 학생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제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확인하며, 진로심리상담센터 사업 소개와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상담 중 2명의 학생이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들의 바쁜 일정

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심리검사 해석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후 대면 해석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에도 관련 안내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석을 안내받지 못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해석상담을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진로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나 재학생 수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 의사가 낮아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2023학년도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담당자와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바. 활동사진



5. 진로심리상담센터 공모전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2022학년도에 운영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환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을 운영하였다.

가. 목적 및 필요성

- 1)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홍보 강화
- 2)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및 체험 수기를 환류 시스템에 적용

나. 운영 개요

- 1) 대상: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
- 2) 공모 주제: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한 모든 프로그램
- 3) 참여 방법: 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업무 메일로 제출
- 4) 심사 기준: 주제 적합성, 변화 정도, 진솔성
- 5) 시상 내용: 최우수상(10만원*2명), 우수상(5만원*4명), 참가상(기념품 및 센터 홍보물품 제공)
- 6) 일정
 - (1) 접수기간: 12. 1.(목) ~ 12. 14.(수)
 - (2) 심사: 12. 15.(목) ~ 12. 20.(화)
 - (3) 시상: 12. 21.(수)

다. 성과 및 환류

공모전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신의 내적 변화를 정리하고 재확인하는 긍정적인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전 참여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2022학년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당시 공모전이 활발히 홍보되지 못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 대비 공모전 접수 건이 적었다. 추후에는 프로그램 진행에 따르는 만족도 조사 시 공모전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진로프로그램

1. 진로멘토단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서 재직 중인 진로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향상
- 2) 진로 진출 분야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동기 향상 및 진로 방향 점검
- 3) 교내 진로상담 문화 확산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진로멘토단 구성, 진로멘토단 위촉 및 회의, 진로멘토단 생생 TALK
- 2) 운영 기간: 2022. 5. ~ 2022. 11.
- 3) 운영 과정: 진로멘토단 위촉과 회의를 거쳐 특강으로 연계

다. 정량적 실적

<표 37> 진로멘토단 운영 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비고
진로 멘토 단	진로멘토단 위원 위촉식 및 자문 회의	5. 16.(월) 14:00 ~ 15:00	17	마더스병원 김○수 이사 외 16명
	진로멘토단 자문 회의	10. 4.(화) 14:00 ~ 15:00	11	롯데정밀화학 인사지원부 강○하 상무 외 10명
	소계		28명	
진로 특강	1차 창업 편 김○욱(프록시헬스케어 대표)	5. 4.(수) 10:00 ~	9	

/ 생생 TALK		12:00		
	2차 대기업 편	9. 16.(금)	29	
	최○찬(현대자동차 울산인사팀 팀장)	16:00 ~		
	박○원(SK에너지 대외협실 실장)	18:00		
	3차 공기업 편	11. 5.(화)	31	
조○덕(울산항만공사 노무인사부 부장)	16:00 ~			
최○일(한국산업인력공단 NCS기획부 부장)	18:00			
소계			69명	

라. 정성적 실적

<표 38> 진로멘토단 생생 TALK 만족도

번호	설문내용	점수		
		1차	2차	3차
1	해당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합니까?	5.00	4.87	4.71
2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00	4.83	4.76
3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00	4.77	4.74
4	본 프로그램은 나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00	4.80	4.76
5	프로그램 전에 가지고 있던 교육요구/기대에 만족하십니까?	5.00	4.70	4.74
6	본 프로그램은 주제에 맞게 구성 및 운영되었습니까?	5.00	4.83	4.74
7	본 프로그램의 진행교육, 행사안내 등에 만족하십니까?	5.00	4.80	4.79
8	본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5.00	4.83	4.47
9	강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5.00	4.80	4.79
10	강사는 프로그램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까?	5.00	4.83	4.71
11	강사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까?	5.00	4.87	4.65
12	강사의 진행방식은 만족하십니까?	5.00	4.77	4.74
13	추후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5.00	4.90	4.74
평균		5.00	4.81	4.71

-유명한 기업의 채용 정보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유익했다. 다양한 기업들의 정보들과 취업 관련한 정보들을 알고 싶다.

-내 전공과 관련된 직무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

-현실적인 조언이 좋았습니다.

-대기업 임원분들께 진로특강 받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좋은 경험이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실무와 사람들을 뽑은 기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현대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 현직자분께서 직접 인재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학교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잘 알게 되었고 활용만 하면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보다 확실하게 홍보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잘 활용해서 다 같이 울산대학교의 가치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접 인사 담당분을 통하여서 면접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좋았다.
 - 공기업을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 공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을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었고 준비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면접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평소 관심 있던 공기업이 채용 시에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 울산항만공사 인사팀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재미 있으시고 현실적인 팁들도 많이 주시고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인사쪽 직원분들을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기업을 대해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얻기 힘든 정보를 현직자를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마. 성과 및 환류

1) 진로멘토단 위촉 및 회의

진로멘토들에게서 직업 현장의 직무 등에 관한 실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진로상담에 대한 자문을 얻어 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및 준비를 도왔다. 2023학년도에도 지역 기업과 학생들의 진로를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가지려고 한다.

2) 진로멘토단 생생 TALK

진로멘토단 생생TALK를 통해 실제적인 직업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각 기업 및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과 면접, 자기소개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진로동기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NCS의 기본적 이해가 주어진 시간에서는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고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아쉬움이 있었다. 진로멘토단 특강의 경우 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관련 기업의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정보 제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창업, 대기업, 공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직업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 진로멘토 특강에서는 전문직(방송국 관련 직무, 경찰, 군인, 변호사, 작가 등)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바. 활동사진

		
진로멘토단 위촉식	진로멘토단 1차 회의	진로멘토단 2차 회의
		
창업편	창업편	대기업편
		
대기업편	공기업편	공기업편

2. 선배멘토단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및 발달을 돕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선배멘토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향상
- 2) 질의응답을 통한 직무 관련 궁금증 해석
- 3)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진로 코칭 멘토단 구성 필요
- 4) 울산대학교 선배를 멘토로 섭외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자신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 및 발달을 돕기 위함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선배멘토단 위촉 및 선배멘토 리얼 TALK
- 2) 진행 기간: 2022. 3. ~ 2022. 10.
- 3) 대상: 울산대학교 재학생
- 4) 신청: u-star 사이트를 통한 개별 신청

다. 정량적 실적

<표 39> 선배멘토단 운영 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참여 인원
선배 멘토 단	울산대학교 출신의 선배멘토 39명 위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문직, 기업, 병원,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		-
진로 특강 / 리얼	1탄 공기업 편 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은 근로복지공단	5. 11.(수) 15:00 ~ 17:00	37
	2탄 전문직 편 조○찬 노무사 , 이○원 세무사	5. 26.(목) 16:00 ~ 18:00	27

TA LK	3탄 공공기관 편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강○호 시설관리공단	10. 5.(수) 16:00 ~ 18:00	33
	소계		97

라. 정성적 실적

<표 40> 선배멘토단 리얼 TALK 만족도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리얼 TALK 1탄	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강의였다. 자신감도 생기고 열정도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좋았다. · 새로운 진로 방향을 설명해 주어 저의 가치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얼 TALK 2탄	4.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추후 저의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직에 계신 분을 만나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좋았다.
리얼 TALK 3탄	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든 노동자로서든 꼭 알아야 할 직업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직에 계신 조○찬 노무사님, 이○원 세무사님의 이야기들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주변에 관련 종사자분들이 없었는데 실제 현직자를 마주하고 나서 더 의지가 불타올랐다.
평균	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이 된 후에 취업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 1학기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 멘토링을 한다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같은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진실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진진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듣고 싶습니다.

마. 성과 및 환류

선배멘토단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신규 진로 프로그램으로 울산대학교 졸업생 선배멘토 39명 위촉을 비롯하여 3건의 리얼 TLAK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총 97명으로 회당 평균 3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4.79의 점수로 나타났으며,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도 진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프로그램 신청 후 특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일정을 상기시키기 위해 안내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참석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바. 활동사진



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가. 목적 및 필요성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준비를 도와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고, 진로설계 및 진로 목표 설정을 도와 진로상담 문화 확산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 진로 특화 프로그램 CAP@
- 2) 운영 기간: 2022. 6. ~ 2022. 7.
- 3) 운영 과정: U-STAR에 모집공고를 게시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

다. 정량적 실적

<표 4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강사	참여 인원
1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 A조	6. 23.(목) / 6. 30.(목) 10:00 ~ 12:00	강○정	9
2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 B조	6. 23.(목) / 6. 30.(목) 13:00 ~ 15:00	이○검	9
3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 C조	6. 27.(월) / 6. 28.(화) 10:00 ~ 12:00	최○숙	9
4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 D조	6. 27.(월) / 6. 28.(화) 13:00 ~ 15:00	문○지	10
5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 E조	6. 29.(수) 10:00 ~ 15:00	이○향	9
소계				46
7	진로 특화 프로그램 CAP@	7. 19.(화) 09:00 ~ 18:00 (8시간)	유○열 이○영	15
		7. 20.(수) 09:00 ~ 18:00 (8시간)	유○열 이○영	
합계				61명

라. 정성적 실적

<표 4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번호	설문내용	점수						평균
		PBS A조	PBS B조	PBS C조	PBS D조	PBS E조	CAP @	
1	해당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합니까?	4.89	4.67	4.89	4.60	4.78	4.62	4.74
2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9	4.78	5.00	4.80	4.89	4.77	4.86
3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9	4.67	4.89	4.80	4.89	4.85	4.83
4	본 프로그램은 나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00	4.67	5.00	4.70	4.89	4.62	4.81
5	프로그램 전에 가지고 있던 교육요구/기대에 만족하십니까?	5.00	4.89	4.89	4.70	4.56	4.77	4.80
6	본 프로그램은 주제에 맞게 구성 및 운영되었습니까?	5.00	4.78	4.89	4.90	4.78	4.92	4.88
7	본 프로그램의 진행교육, 행사안내 등에 만족하십니까?	5.00	4.89	5.00	4.80	4.89	4.92	4.92
8	본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4.89	4.89	4.89	4.70	4.67	4.62	4.78
9	강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5.00	4.89	5.00	4.90	4.89	4.77	4.91
10	강사는 프로그램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까?	5.00	4.89	4.89	4.90	4.89	4.92	4.92
11	강사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까?	5.00	4.89	5.00	5.00	5.00	5.00	4.98
12	강사의 진행방식은 만족하십니까?	5.00	4.89	4.89	5.00	5.00	4.85	4.94
13	추후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5.00	4.89	4.89	4.80	5.00	4.77	4.89
14	향후 본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00	4.67	4.89	4.70	4.89	4.69	4.81
평균		4.97	4.81	4.93	4.81	4.86	4.79	4.86

- 나의 강점과 장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다는 것, 발전시키면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 컬러와 강점을 매칭해서 분석해보니 새로웠고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 몰랐던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발견한 것 같다.
- 나의 강점을 컬러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맞는 직무와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 혼자서 진로를 알아볼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조별과제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게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관련 학과에 관한 다양한 직업과 직무유형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직무와 관련된 나의 강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취업하기 위한 진로맵

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신도 모르는 컬러 강점(성격)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점, 이를 단순히 알고 있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진로탐색, 자소서 활용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 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나하나 참여를 독려하고 자연스럽게 합류가 가능하게 한 점 등.
 - 성격유형 테스트를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저와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며 향후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찾지 못했던 강점을 찾을 기회가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나의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목표의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 진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제 강점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다.
 - 나의 강점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
 - 자소서 및 면접 시 단어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일부 해결해 주었습니다.
 -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강점 컬러, 파워 컬러, 밸런스 컬러를 알게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알게 된 시간이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내가 가진 강점 컬러를 이용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직업이 어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유익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진로 방향을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었고 강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 할 방향의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
 - 궁금했던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고 정말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의 강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유익했다. 이런 강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색으로 기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신기했다.
 - 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덕분에 워크넷, 사람인 등 여러 취업 사이트도 알게 되었고, 모의 면접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직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취업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도움이 된 점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 직무를 탐색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좋았습니다.
 - 직무 선택과 자기소개서를 통한 모의면접과 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일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실습을 통해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진로를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를 요령 있게 잘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 직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직업 관련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고 재밌었습니다.
-

마. 성과 및 환류

- 1) 진로 교육 프로그램 PBS는 진로심리상담센터의 2022학년도 신설 프로그램으로 하계 방학 동안 운영되었음. 프로그램 신청 인원 50명 중 총 4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4.88점으로 나타남
- 2) PBS 킬러 강점 검사를 통해 자기이해 및 직무유형 매칭을 흥미롭고 신선하게 받아들임
- 3) 참가학생 46명 중 6명의 학생이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 환경적으로 선풍기 등의 활용을 통해 중앙 집중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5) 진로 특화 프로그램 CAP@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해보므로써 자신감을 부여하고자 마련된 진로심리상담센터의 2022학년도 신설 프로그램임. 본 프로그램은 하계방학 동안 1건 운영되었고 동계방학 1건은 인원 미달로 운영되지 않았음. 실시된 하계방학 프로그램 신청 인원 18명 중 총 1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4.79점으로 나타났음
- 6) 2일 과정을 모두 참석한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음.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면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실습을 통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보므로써 취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던 점이 본 프로그램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였음
- 8) 동계방학에는 취업일자리센터 및 각 학과별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어 11월부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음. 따라서 진로심리상담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9) 2일 16시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만족도가 높지만, 참여하기 전 학생들이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생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시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바. 활동사진

	
<p>PBS A조</p>	<p>PBS A조</p>
	
<p>PBS B조</p>	<p>PBS C조</p>
	
<p>PBS D조</p>	<p>PBS E조</p>
	
<p>CAP@</p>	<p>CAP@</p>
	
<p>CAP@</p>	<p>CAP@</p>

4. 진로상담 가이드북

가. 목적 및 필요성

학생 개인별,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설계 및 역량개발 도모
 교수-학생 진로상담 문화의 확산 및 진로상담 서비스 질 향상
 U-EDUCE를 통해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원 및 학과 교수가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진로상담 로드맵 제작, 진로상담 가이드북 제작,
 진로상담 로드맵 및 가이드북 인쇄
- 2) 제작 기간: 2022. 9. 1. ~ 2023. 1. 30.

진행 과정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계약					
회의					
진로상담 로드맵 제작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 인쇄					
가이드북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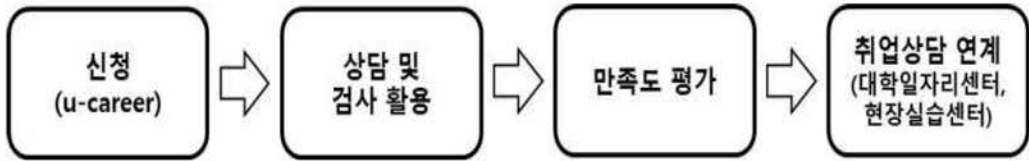
- 3) 진행 업체: 제작 유성열(그레이스 연구원) / 인쇄 오성프로

다. 정량실적: 20권 인쇄

라. 성과 및 환류

- 1) 진로상담 로드맵 및 가이드북 제작
- 2) 진로상담 가이드북 20권 인쇄
- 3) 진로상담 가이드북을 통해 학생 개별 진로성숙도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접근 가능
- 4)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진로성숙도에 따른 프로그램 및 특강을 실시할 예정임
- 5) 진로상담 가이드북 활용 방법에 관한 교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6) 진로상담 가이드북 활용 교수설명회 후 진로상담을 요청한 학과에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림 14> u-career 상담 진행 과정

마. 활동사진

<p>표지</p>	<p>내용</p>

5. U-CAREER 진로 상담

가. 목적 및 필요성

진로심리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u-career 학교포털을 이용한 진로상담을 활성화하였다. 진로 개인상담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발달 등 진로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으로 면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나. 운영 개요

상담 진행 과정은 u-career 학교 포털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상담 승인 후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내용에 따라 단회성 또는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상담, 다회 상담으로 진행된다. 진로상담은 상담 종결 후 취업 및 일자리센터, 현장실습센터로 연계한다.

다. 정량적 실적

u-career 진로상담은 상담인력 충원 후에 이루어져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u-career 진로상담은 전문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며, 이용학생은 <표 62>와 같다.

<표 43> u-career 진로상담 실적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이용자수	2	10	9	1	12	4	11	3	52

라. 정성적 실적

<표 44> u-career 진로상담 만족도

문항 (10점 만점)	평균 만족도
1. 진로상담을 통해 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9.29

2. 진로상담을 통해 직무를 선택하고 진로방향을 설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9.29
3. 진행시간은 적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9.43
4. 상담사는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8.86
5. 상담사의 진행방식은 만족하였습니까?	9.48
6. 진로상담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점, 개선점 등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선택 과정에서 몰랐던 정보를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진로 방향성 잡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일들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어 방향성 설정과 목표 세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진출 직무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사이트 보는 법이 도움이 되었다 	

마. 성과 및 환류

u-career 진로상담은 7월부터 운영하여 총 52명의 학생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진로상담은 u-career와 u-wins를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본 실적은 u-career를 통한 진로상담이다. u-career 진로상담은 상담을 통한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진로목표 설정, 진로성숙도 향상 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과 일자리 센터로 연계하여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 장기 실습, 인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실습센터로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진로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V. 교수-학생 상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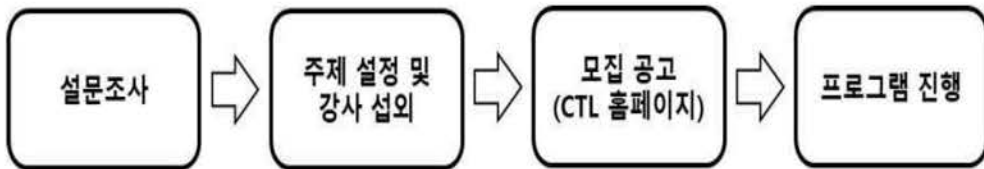
1. 상담법 세미나 (교수학습개발센터 협업)

가. 목표 및 필요성

교수-학생간의 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기법, 학생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의 상담 역량 지원

나. 운영 개요

- 1) 교육 내용 : 학생 이해를 주제로 교육 진행
- 2) 운영 기간 : 2022. 5. ~ 2022. 11.
- 3) 참여 대상 : 전교직원
- 4) 진행 과정 :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그림 15> 상담법 세미나 진행 과정

다. 정량적 실적

<표 45> 상담법 세미나 실적

번호	제목	일시	강사	방식	참석자	비고
1	MZ세대 이해와 소통	5. 19.(목) 14:00 ~ 16:00	신○용 (서울대학교 교수)	ZOOM	10	
2	효과적 학생상담을 위한 학생 이해	9. 21.(수) 11:00 ~ 13:00	최○용 (대구대학교 교수)	대면	21	
3	무기력하고 우울한 학생과의 대화법	11. 17.(목) 14:00 ~ 16:00	김○숙 (경북대학교 교수)	ZOOM	23	

4	사회과학대: 상담교육	6. 9.(목) 16:00 ~ 18:00	김○아, 강○주 (진로심리상담센터)	대면	17	단 대 요 청
합계					71명(4건)	

라. 정량적 실적

<표 46> 상담법 세미나 만족도

번호	프로그램명	만족도 (5점)	주관적 평가
1	MZ세대 이해와 소통	4.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례를 더 많이 소개해 주세요. • 이런 강의는 대상자가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올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정해서 너무 좋아요 • 자료가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2	효과적 학생상담을 위한 학생 이해	4.71	
3	무기력하고 우울한 학생과의 대화법	4.55	
4	사회과학대: 상담교육	4.38	
평균			4.64

마. 성과 및 환류

상담법 세미나는 교수-학생간의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3회씩 진행하며, 올해는 단과대학의 요청으로 교내 강사가 상담교육을 진행하였다. 추후에는 단과대학 요청 상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상담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활동사진

	<p>지도학생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p> <table border="1"> <caption>지도학생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caption> <thead> <tr> <th>주제</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진로</td> <td>66%</td> </tr> <tr> <td>학업</td> <td>19%</td> </tr> <tr> <td>학교생활</td> <td>10%</td> </tr> <tr> <td>기타</td> <td>5%</td> </tr> </tbody> </table> <p>2022년 상담법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p>	주제	비율	진로	66%	학업	19%	학교생활	10%	기타	5%
주제	비율										
진로	66%										
학업	19%										
학교생활	10%										
기타	5%										
<p>설문조사</p>	<p>설문조사</p>										
<p>무기력하고 우울한 학생 이해(비대면)</p>	<p>효과적 학생상담을 위한 학생이해(대면)</p>										

Ⅵ. 조사연구

1. 재학생 실태조사

- 1) 조사 내용 : 재학생 실태조사(총 40문항, 학교포털 이용)
- 2) 실시 일정 : 2022. 11. 1. ~ 2023. 1. 2. (2022-2학기 성적 열람 기간 포함)
- 3) 조사 대상 : 2022년 2학기 울산대 재학생 1~4학년
- 4) 총 실시 인원 : 총 9,876명

2. 마음건강 실태조사

- 1) 조사 내용 : 학교적응과 심리정서 상태 조사(총 17문항, 학교포털 이용)
- 2) 실시 일정 : 2022. 5. 2. ~ 2022. 7. 10.(자율적으로 참여)
- 3) 조사 대상 : 2022년 1학기 울산대 재학생 1~4학년
- 4) 총 실시 인원 : 총 1,800명

3. 1학년 대학생활 적응조사

- 1) 조사 내용 : 자기보고식 대학생활 적응조사(CAT)(학교포털 이용)
- 2) 실시 일정 : 2022. 9. 19. ~ 2022. 10. 7.
- 3) 조사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 1학년 수강생
- 4) 총 실시 인원 : 총 902명

4. 편입생 실태조사

- 1) 조사 내용 : 편입생 실태조사(총 25문항, 학교포털 이용)
- 2) 실시 일정 : 2022. 6. 24. ~ 2022. 7. 12.
- 3) 조사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인 편입생
- 4) 총 실시 인원 : 총 165명

5.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 1) 조사 내용 : 진로인식, 진로성숙도, 정서 상태 조사(총 25문항, 학교포털 이용)
- 2) 실시 일정 : 2022. 6. 8. ~ 2022. 7. 29.
- 3) 조사 대상 : 2022년 1학기 4학년 재학생
- 4) 총 실시 인원 : 총 585명(데이터 오류로 4명 제외, 581명 분석)

VII.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1. 전임상담원 교육

가. 목표 및 필요성

상담원 소진 예방 및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전임상담원 개별 역량에 맞춰 교육을 신청하여 참여하였다.

나. 운영 개요

- 1) 교육 내용 : 자격연수, 연차학술 대회 등 다양한 교육에 참여
- 2) 실시 일정 : 2022. 6. ~ 2023. 2.
- 3) 참여 대상 : 센터장님 외 전임상담원 4인
- 4) 총 참여 시간 : 총 219시간

다. 정량적 실적

<표 47> 전임상담원 교육 실적

순번	교육 내용	교육 기간	방식	참석자
1	전국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협의회 -2022년 연차학술대회	6. 27.(월) ~ 6. 29.(수) 2박3일	대면	김○아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년 대학 학생생활지도상담업무과정	8. 31.(수) ~ 9. 2.(금) 2박3일	대면	강○주
3	문장완성검사(SCT)와 주제통각검사(TAT) 워크숍	11. 25.(금) 10:00 ~ 18:00	비대면	이○림
4	교육: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워크숍	12. 17.(토) 9:30 ~ 17:30	비대면	이○림
5	정서중심치료(EFT)2 - 치료적 개입(비대면)/52주차	12. 19.(월)	비대면	이○림
6	한상담학회-동계 집단상담 참석	2022. 12. 28(수) ~ 2023. 1. 1.(일) 4박 5일	비대면	하○경
합계		6건		

2.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가. 목표 및 필요성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기법이나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여, 전임 및 객원 상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운영 개요

- 1) 교육 내용 : 심리검사 이해와 활용
- 2) 실시 일정 : 2022. 6. ~ 2023. 2.
- 3) 참여 대상 : 센터장님 외 전임상담원 4인
- 4) 총 참여 시간 : 총 11시간 30분

다. 정량적 실적

<표 48>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적

순번	교육 내용	교육 기간	방식	참석자
1	PBS 컬러 강점 전문가 교육 기초	7. 13.(수) 9:00 ~ 11:00 (2시간)	대면	센터장 외 4인
2	PBS 컬러 강점 전문가 교육 심화	7. 14.(목) 10:00 ~ 12:00 (2시간)	대면	센터장 외 4인
3	심리검사의 이해 및 적용 _Holland & NEO	8. 10.(수) 09:00 ~ 13:00 (3시간)	비대면	하○경 외 8명
4	PAI & K-IIP	8. 10.(수) 14:00 ~ 16:30 (2시간 30분)	비대면	하○경 외 7명
5	TCI 검사의 이해	1. 5.(목) 9:00 ~ 11:00(2시간)	비대면	하은경 외 9명
합계		11시간 30분		

라. 정성적 실적

<표 49>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만족도

번호	설문 내용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PBS 기초	PBS 심화	HOLL AND & NEO	PAI & K-IIP	TCI	평균
1	본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5.0	4.8	4.75	5.0	4.8	4.87
2	본 프로그램이 전문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6	4.8	4.75	5.0	4.8	4.79
3	본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4.8	4.8	4.75	5.0	4.9	4.85
4	본 프로그램의 강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0	4.8	4.5	5.0	4.8	4.82
5	본 프로그램의 강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습니까?	5.0	4.8	4.88	5.0	4.7	4.88
평균		4.88	4.8	4.73	5.0	4.9	4.86

마. 활동사진



VIII. 대외활동 및 지역기관 협업

1. 마음약국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울산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음약국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 하였다.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내 상담 문화 활성화 및 재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대학생활 지원
- 2)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및 온마인드 동아리 홍보
- 3)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형성

나. 운영 개요

- 1) 운영 내용: 아웃리치 및 정신건강 캠페인
- 2) 진행 기간: 9. 20. ~ 9. 22.
- 3) 대상: 울산대학교 재학생
- 4) 장소: 울산대학교 22호관 광장
- 5) 운영 기관: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온마인드 동아리 협업), 9개 외부기관(스마일 센터,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여성의 전화, 스마트쉼센터,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정량적 실적

<표 50> 마음약국 실적

참여 기관	주요 내용	참여 인원 (명)
진로심리 상담센터	내 마음 맞춤처방전 제조(스트레스 활동지 작성 후 나만의 처방전과 약을 제조), 진인상담 및 심리검사 현장 접수, 진로심리상담센터 및 온마인드 동아리 홍보, 포레상담 수요 조사 등	178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 사업 안내, 범죄피해의 이해, 트라우마와 PTSD,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및 우울 증상 자가진단 척도 등	53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청년도박중독 예방관리 사업 홍보, 음주위험 제질검사, 알코올 및 도박중독 선별검사 자가 척도 등	44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마음건강 상담 및 검사 안내, 마음건강 자가검진(조기정신증, 우울, 조울, 불안, 스트레스) 등	113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청소년 안심약국 안내, 간이 심리검사, 청소년 근로권익 닥트 퀴즈 등	113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사업 안내, 성매매 인식 퀴즈 등	101
울산 해바라기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 톨렛 퀴즈(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직장내 성희롱) 등	92
울산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이해, 젠더기반폭력 관련 퀴즈 등	79
울산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검사, 스마트폰 중독 VR 체험 등	96
울산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내, 정신건강 OX퀴즈 등	126
합계		995

라. 정성적 실적 (만족도):

<표 51> 마음약국 만족도

구분	내용
만족도 (5점)	4.77점
주관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음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맞는 처방을 받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상담센터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약국이라는 콘텐츠가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상담을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스트레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참신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마. 성과 및 환류

마음약국 프로그램의 경우 총 99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는 4.79점(534명 응답)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주관하여 울산대학교 축제 기간 3일 동안 운영되었으며, 진로심리상담센터 외 9개의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 기관(스마일센터,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여성의 전화, 스마트쉽센터,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 협업하였다.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적응적 대학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심리상담센터 부스에서는 10명의 학생이 현장에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신청을 희망하여 진로심리상담센터로 연계되었다. 마음약국 프로그램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바. 활동사진



마음약국

2.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정신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을 통합 운영하였다.

가. 목적 및 필요성

- 1) 학내 상담 문화 활성화 및 재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대학생활 지원
- 2)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및 온마인드 동아리 홍보
- 3)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형성

나. 운영 개요

- 1) 운영내용: 아웃리치 및 정신건강 캠페인
- 2) 진행일시: 9. 29.(목) 10:00 ~17:00
- 3) 대상: 울산대학교 재학생
- 4) 장소: 울산대학교 22호관 광장
- 5) 운영기관: 교내 진로심리상담센터, 6개 외부기관(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 스마트쉽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 재활센터,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표 52> 4대 중독 예방 연합 캠페인 내용

참여 기관	주요 내용
진로심리상담센터	미다지 '나(MY)의 다짐으로 나를 지키자' 부스 운영, 중독예방 서약서 작성,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총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홍보, 스탬프 투어 등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가상음주체험 및 가상도박체험, 선별검사 및 이동상담 등
울산남구	청년음주 관련 정보게시 및 관련 영상 시청, 나의 절주 약속 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시지 작성 등
울산 스마트쉼센터	척도검사 및 퀴즈, 구글 카드보드 조립 및 VR 체험 등
한국미약퇴치운동 본부 영남권 중독 재활센터	마약류 모형 전시 및 퀴즈, 선별검사 및 상담 진행 등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도박 퀴즈 및 선별검사 진행, 현장상담 및 SMS 정보제공 등

다. 정량적 실적: 참여 인원 85명(진로심리상담센터 부스에 한함)

라. 성과 및 환류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은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요청으로 운영되었으며, 4대 중독과 관련한 지역 내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진행되었다. 각 기관에서는 도박, 알코올, 인터넷, 약물 중독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진로심리상담센터의 미다지 부스를 통해 학생들이 중독 위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4대 중독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건강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는 추후 마음약국과 함께 정신건강 캠페인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연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 활동사진



3. 업무협약(MOU) 체결

가. 목적 및 필요성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지역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나. 정량적 실적

2022년 울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상담 전문기관 등 업무 협약을 확대 운영하여 9개 기관과 추가적 업무협약을 체결

<표 53> 진로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기관

구분	센터명	일정
정신 건강 지원	마더스병원	2022. 4. 22.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11. 1.
	울산광역시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2022. 11. 3.	
범죄 피해 지원	울산 스마일센터	2022. 11. 10

다. 활동사진

	
<p>마더스 병원</p>	<p>울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p>
	
<p>울산청년 마인드 링크</p>	<p>울산 스마일센터</p>

4. 마음건강 증진사업(보건복지부 트라우마 센터)

가. 목적 및 필요성

1029 참사 상황을 고려한 영남권 청년들의 심리지원

나. 진행 과정

- 1) 주요 내용: 상담실과 체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마음안심버스(45인승 대형버스)를 통해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PTSD, 옴니핏 등 체험에서 상담까지 진행
- 2) 일시: 2022. 12. 6.(화) 11:00 ~ 15:30
- 3) 장소: 울산대학교 22호관 앞 광장
- 4) 울산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30명

다. 활동사진



IX. 부록(진로심리상담센터 성과사례)

2022학년도 진로심리상담센터 성과사례 -마음약국,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① 추진 배경

- 울산대학교 학내 상담 문화 활성화 및 재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대학생활 지원
- MOU 협약을 통한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 울산지역대학상담센터 협의회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 마음약국 프로그램,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 및 울산 지역 유관기관 관련 정보 제공

② 추진 내용 및 실적

1. 마음약국 프로그램

가. 운영 기간: 22. 9. 20.(화) ~ 22. 9. 22.(목) *울산대학교 축제 기간 중 운영

나. 참여 기관 및 주요 내용

참여 기관	주요 내용	참여 인원 (명)
진로심리 상담센터 (온마인드 상담 동아리 협업)	내 마음 맞춤처방전 제조(스트레스 활동지 작성 후 나만의 처방전과 약을 제조), 진인상담 및 심리검사 현장 접수, 진로심리상담센터 및 온마인드 동아리 홍보, 포레상담 수요 조사 등	178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 사업 안내, 범죄피해의 이해, 트라우마와 PTSD,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및 우울 증상 자가진단 척도 등	53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청년도박중독 예방관리 사업 홍보, 음주위험 체질검사, 알코올 및 도박중독 선별검사 자가 척도 등	44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마음건강 상담 및 검사 안내, 마음건강 자가검진(조기정신증, 우울, 조울, 불안, 스트레스) 등	113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청소년 안심약국 안내, 간이 심리검사, 청소년 근로권익 닥트 퀴즈 등	113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사업 안내, 성매매 인식 퀴즈 등	101
울산 해바라기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 룰렛 퀴즈(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92
울산여성의 전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이해, 젠더기반 폭력 관련 퀴즈 등	79
울산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검사, 스마트폰 중독 VR 체험 등	96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 터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내, 정신건강 OX퀴즈 등	126
합계		995

다. 만족도: 4.79점

라. 활동사진



마음약국 프로그램 활동사진

2.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가. 운영 일시: 22. 9. 29.(목) 10:00 ~ 17:00

나. 참여 기관 및 주요 내용

참여 기관	주요 내용
진로심리상담센터 (85명 참여)	미다지 '나(MY)의 다짐으로 나를 지키자' 부스 운영, 중독예방 서약서 작성,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총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홍보, 스탬프 투어 등
울산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가상음주체험 및 가상도박체험, 선별검사 및 이동상담 등
울산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청년음주 관련 정보게시 및 관련 영상 시청, 나의 절주 약속 메시지 작성 등
울산 스마트쉼센터	척도검사 및 퀴즈, 구글 카드보드 조립 및 VR 체험 등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영남권 중독 재활센터	마약류 모형 전시 및 퀴즈, 선별검사 및 상담 진행 등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도박 퀴즈 및 선별검사 진행, 현장상담 및 SMS 정보제공 등

다. 만족도: 4.77점 (69명 응답, 진로심리상담센터 부스에 한함)

라.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마. 활동사진



울산대, 대학생 대상 중독예방 캠페인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7개 기관과 공동으로 대학생 4대 중독(술, 도박, 인터넷, 약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2일 교내 신학성회관 광장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중독관리전문지원센터, 울산남구중독관리지원센터, 울산스마트상담센터, 한국야외스포츠연구소 영남권중독재활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이 참여했다. 기관별로 △중독 예방 서약서 작성 및 개인 상담 △가상 음주, 도박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계기자]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활동사진 및 언론보도 기사

3 추진 성과

1. 객관식 만족도

번호	설문내용	마음약국	4대 중독
1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만족한다.	4.81	4.80
2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유익하였다.	4.82	4.78
3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심리상담센터 알게 된 점이 도움이 되었다.	4.79	4.77
4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여러 정신건강, 상담 관련 기관을 알게 된 점이 도움이 되었다.	4.79	4.80
5	추후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4.76	4.72
평균		4.79	4.77

※ 마음약국 534명 응답, 4대 중독 69명 응답

2. 주관식 만족도

마 음 약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약국이라는 콘텐츠가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 상담을 언제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음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맞는 처방을 받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내가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지원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4 대 중 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다양한 체험과 지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다. •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응답 내용 중 일부만 기재

3. 평가

가. 마음약국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후 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인드링크, 스마일센터와 추가로 MOU 협약을 체결하여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기관과의 MOU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SNS 이벤트(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 독려
-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의 좋아요, 리그램을 통해 단기간 동안 홍보 효과를 얻음
- ‘내 마음 맞춤처방전’ 활동을 통해 현재 스트레스 정도와 반응 및 대처 수준을 탐색하고 나만의 처방전과 약을 제조하며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탐색,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각 기관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부스가 운영되어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원

나. 4대 중독예방 연합 캠페인

-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요청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MOU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각 기관에서 도박, 알코올, 인터넷, 약물 중독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진로심리상담센터의 미디어 부스를 통해 학생들이 중독 위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4대 중독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건강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

4] 향후 계획

- 기존 마음약국 프로그램을 정신건강 캠페인으로 확대 운영 예정
 -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신건강 캠페인이 다양한 주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음약국 프로그램을 정신건강 캠페인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특히 학기 초에 부스를 운영하여 학교 적응을 향상하고 마음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울산 지역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

5]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

- 정신건강 캠페인 운영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 구축 및 협업
- 교내 상담 관련 동아리와 협업하여 동아리 학생들의 참여 제고
- 축제 기간 중 부스 배정을 위해 총학생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

2023. 2 제 31 호 학생생활연구보

- 제작일 : 2023년 2월
 - 연구 총 책임자 : 김도희(진로심리상담센터)
 - 연구 주관 및 담당자 : 김영아(진로심리상담센터)
 - 통계 분석 및 작성자 : 이은정(다품심리상담센터)
 - 제작 및 출판 : 오성프로
-